

**2012**

**한국중동학회 · 이슬람다문화연구센터  
· 글로벌문화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일시: 2012. 12. 15(토) 14:00~20:00

■ 장소: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초허당 K202-203, K210-211

■ 주최: 한국중동학회, 이슬람다문화연구센터, 한국글로벌문화학회



**2012**

**한국중동학회 · 이슬람다문화연구센터  
· 글로벌문화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일시: 2012. 12. 15(토) 14:00~20:00

■ 장소: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초허당 K202-203, K210-211

■ 주최: 한국중동학회, 이슬람다문화연구센터, 한국글로벌문화학회



## 학술대회 일정

13:30 ~ 14:00

등록

14:00 ~ 16:00

학술 발표회

### Ⅰ 제1회의: 중동의 민주주의와 대중동 진출 전략 Ⅰ

좌장: **이종택** (명지대학교)

장소: **K202**

- 📌 발표      **이성수** (부산외대)  
리비아와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이슬람식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
- Ⅰ 토론      **박찬기** (명지대), **김수완** (한국외대), **금상문** (한국외대), **홍미정** (단국대)
- 📌 발표      **서정민** (한국외대)  
South Korea's Strategy in the Gulf Market in the 21th Century
- Ⅰ 토론      **장건** (동국대), **최재훈** (단국대), **남옥정** (조선대), **이효분** (국방대학원)
- 📌 발표      **최영철** (장신대)  
걸프지역 석유자원과 제1차 걸프전쟁(1990-1991)
- Ⅰ 토론      **이권형** (KIEP), **정상률** (명지대), **조상현** (군사연구소), **박진이** (부산외대)

### Ⅰ 제2회의: 중동 · 이슬람 문화의 다양성 Ⅰ

좌장: **송경근** (조선대학교)

장소: **K203**

- 📌 발표      **최창모** (건국대학교)  
옛 히브리어 사본의 성지 지도 연구
- Ⅰ 토론      **이규철** (부산외대), **김종도** (명지대), **안신** (배재대)
- 📌 발표      **황병하** (조선대)  
중국 이슬람과 인권
- Ⅰ 토론      **황의갑** (부산외대), **김정명** (단국대), **김수정** (부산외대)

- ❖ 발표 신규섭 (한국외대)  
중세 종교 용어의 한국어 번역: 『신비의 혀』읽기
- Ⅰ 토론 이계연 (명지대), 임병필 (부산외대), 윤용수 (부산외대)

### Ⅰ 제3회의: 21세기 이문화의 다양성과 조화 Ⅰ

좌장: 김수일 (호서대)

장소: K210

- ❖ 발표 양경수 (동국대), 박정하 (동국대)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측면에서의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
- Ⅰ 토론 윤희중 (동국대)
- ❖ 발표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국제문화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 시론적 고찰 -
- Ⅰ 토론 안옥주 (대전보건대)
- ❖ 발표 조성기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위원)  
전통 약주의 세계진출을 위한 글로벌문화모형 연구
- Ⅰ 토론 박정하 (동국대)
- ❖ 발표 김상철 (한국외대)  
카자흐스탄의 다문화구조: 비카자흐인 공동체의 구성과 특징
- Ⅰ 토론 오종진 (한국외대)

16:00 ~ 16:30

휴식

16:30 ~ 18:00

2012 한국중동학회 정기 총회 및 학술 발표회

### Ⅰ 제4회의: 다문화의 문제와 해법 Ⅰ

좌장: 송영근 (경기대)

장소: K211

- ❖ 발표 신규섭 (한국외대)  
이란문학과 영화에 대한 문화 심리적 접근
- Ⅰ 토론 김효정 (명지대)

- 📌 발표      **김중관** (동국대), **윤희중** (동국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비교분석
- 📌 토론      **박정하** (동국대)
- 📌 발표      **Hong-Bae Kim** (Dongseo University), **Buntae Kim** (Dongseo University)  
Statistical Properties between the Sukuk and non-Sukuk in Malaysia
- 📌 토론      **양경수** (동국대)

18:00 ~ 20:00

만찬

## 목 차

### Ⅰ 제1회의: 중동의 민주주의와 대중동 진출 전략 Ⅰ

- Ⅰ 발표1 리비아와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1  
- '이슬람식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성수 (부산외국어대학교)
- Ⅰ 발표2 South Korea's Strategy in the Gulf Market in the 21th Century ..... 15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Ⅰ 발표3 걸프지역 석유자원과 제1차 걸프전쟁(1990-1991) ..... 29  
최영철 (장신대학교)

### Ⅱ 제2회의: 중동 · 이슬람 문화의 다양성 Ⅱ

- Ⅰ 발표1 옛 히브리어 사본의 성지 지도 연구 ..... 53  
최창모 (건국대학교)
- Ⅰ 발표2 중국 이슬람과 인권 ..... 79  
황병하 (조선대학교)
- Ⅰ 발표3 중세 종교 용어의 한국어 번역: 『신비의 혀』읽기 ..... 97  
신규섭 (한국외국어대학교)

### Ⅲ 제3회의: 21세기 이문화의 다양성과 조화 Ⅲ

- Ⅰ 발표1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측면에서의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 ..... 109  
양경수 (동국대학교), 박정하 (동국대학교)
- Ⅰ 발표2 국제문화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 시론적 고찰 - ..... 127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b>Ⅰ 발표3</b>	전통 약주의 세계진출을 위한 글로벌문화모형 연구 ..... 139
	<b>조성기</b>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위원)

<b>Ⅰ 발표4</b>	카자흐스탄의 다문화구조: 비카자흐인 공동체의 구성과 특징 ..... 155
	<b>김상철</b> (한국외국어대학교)

## Ⅰ 제4회의: 다문화의 문제와 해법 Ⅰ

<b>Ⅰ 발표1</b>	이란문학과 영화에 대한 문화 심리적 접근 ..... 179
	<b>신규섭</b> (한국외국어대학교)

<b>Ⅰ 발표2</b>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비교분석 ..... 191
	<b>김중관</b> (동국대학교), <b>윤희중</b> (동국대학교)

<b>Ⅰ 발표3</b>	Statistical Properties between the Sukuk and non-Sukuk in Malaysia ..... 205
	<b>Hong-Bae Kim</b> (Dongseo University), <b>Buntae Kim</b> (Dongseo University)



## 중동의 민주주의와 대중동 진출 전략

좌장: 이종택 (명지대학교)

장소: K202

### I 발표1

리비아와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발표: 이성수 (부산외대)

토론: 박찬기 (명지대), 김수완 (한국외대),  
금상문 (한국외대), 홍미정 (단국대)

### I 발표2

South Korea's Strategy in the Gulf Market  
in the 21th Century

발표: 서정민 (한국외대)

토론: 장건 (동국대), 최재훈 (동국대),  
남옥정 (조선대), 이효분 (국방대학원)

### I 발표3

걸프지역 석유자원과 제1차 걸프전쟁  
(1990-1991)

발표: 최영철 (장신대)

토론: 이권형 (KIEP), 정상률 (명지대),  
조상현 (군사연구소), 박진이 (부산외대)



## 발표1

# 리비아와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 ‘이슬람식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성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 I. 서론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아랍 민주화 현상은 튀니지와 리비아, 이집트, 예멘을 거쳐 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시위 이후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정파들과 집단들로 인하여 아랍사회에 민주주의의 정착은 알 수 없는 현국이다. 본고에서는 아랍사회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정착에 대하여 리비아와 이라크를 대상으로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정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이슬람 정치관을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근원은 꾸란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꾸란에서 제시되는 원칙들은 이슬람 국가의 헌법에서는 명시되어야 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원리들이다. 그러나 꾸란이 이러한 원리들에 관한 세부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순나(Sunna)와 하디스(Hadith)도 샤리아(Sharia, 이슬람법)의 근원이 되고 있지만 이들도 세세한 원칙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원리들은 무슬림 공동체(Ummah)의 어떤 시대와 어떤 장소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라고 보고 있다.

꾸란과 하디스, 샤리아 속에 있는 원리들은 이슬람국가의 정치목적과 기능, 정체제도의 특성을 규정하고 구체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이슬람정치의 ‘최상의 가치들’로 간주된다. 이슬람 국가는 법적, 행정적, 군사적인 모든 수단을 다해 이 가치들을 옹호하고 지켜야만 한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이슬람적인 개념을 공식화 해주는 근간인 것이다. 이 가치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정치제도의 세부사항들(권력사항, 제한사항 등)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가치들은 이슬람 국가의 입헌상의 원리들이자 이슬람 국가 정치제도의 기본 틀이 되어주는 이슬람 정치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 정치원리는 리비아와 이라크 사회에 있어서 부족 간, 종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슬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개념을 리비아와 이라크 현황에 연관시켜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슬

람의 정치관을 바탕으로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정착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II. ‘이슬람식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아랍의 민주화를 연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화 시위는 과연 아랍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 또한 아랍 각 지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아랍지역의 민주화 시위와 그로 인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연구보다 과연 민주화 시위 이후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식의 민주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의 의무인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왜 민주주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먼저 직면할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능한 통치체제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나은 것은 없다.”<sup>1)</sup>라고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관점이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표현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은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을 창출해 왔다. 기존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입장의 모색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정치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어떤 것이 정치적 주장으로 인식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바로 비난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셋째, 정치에 대한 회의와 냉소가 반드시 정치생활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아니며<sup>2)</sup>,

넷째 기존의 민주주의 모델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란 단순히 자유나 평등, 정의와 같은 여러 가치 가운데 하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규범적 관심사들 간의 관계들을 연계하고 중재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상이한 규범적 관심사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침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들간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보다 민주주의는 가치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가치 충돌의 해결을 공적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선의 개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숙의하는 그런 조건에서 정의되는 바람직한 삶-을 발전시키려는 모든 부정의와 악, 위험 등에 대한 만병통치약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선의 개념은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공적 대화와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옹호하는데 충분한 기반을 제공해 주며, 또한 그런 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제시해 준다.<sup>3)</sup> 따라서 모든 사회는 그들만의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각 사회에 맞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 사회 또한 그들의 목적과 이상이 추구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1)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역, 민주주의의 모델들 p. 487

2) 앞의 책. p. 488-489.

3) 앞의 책. p. 492-493.

그러면 이슬람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이슬람식 민주주의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필자는 ‘꾸란과 하디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 성법(Sharia)과 이슬람의 정치관과 정치사상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바 있다.<sup>4)</sup>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 국가의 정치제도를 다른 정치제도와 구별하는 근원적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셰이크 압둘 라지크는 “이슬람 국가의 정치제도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체제 즉 전제제, 관료제, 군주제, 공화제, 독재제, 입헌제, 협의회제, 민주제, 사회주의제 등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이슬람 국가의 정치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해석 혹은 주장은 이슬람 국가가 샤리아에 부합하는 정치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슬람은 특정한 정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샤리아와 이슬람 국가 정치제도와와의 상관성을 부인한 데서 비롯된다. 즉 이슬람은 특정 정치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무슬림들은 그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그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정치제도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슬람은 이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견해이다.<sup>5)</sup>

그렇다면 이슬람 국가의 정치제도가 갖추고 성취시켜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샤리아가 추구하고 성취하려한 목표와 동일한 것이다.

무슬림 법학자들이 주력해온 것은 이슬람 국가가 샤리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슬람 정치원리가 구현되어 이슬람적 성격을 띠고 정통 칼리파 시대와 같이 이슬람 정교의 원리들이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정치제도의 수립을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제도를 갖는 이슬람 국가의 목적은 다른 정부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아래와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종교를 세우는 일, 둘째, 피지배민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종교를 세우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두드러진 특성이다. 이것은 샤리아에 의해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종교가 국가를 구성하는 무슬림 개개인의 사이를 묶어넣는 본질적 요소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슬람 국가의 목적과 의무를 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은 “그들은 예배를 행하고 자카트를 내며, 선을 실행하고 악을 금하는 자들이니(꾸란 22장 42절)”이다.

즉 예배와 자카트의 제도적 확립은 이슬람 국가의 최우선의 의무이다. 여타 세속 국가들이 정치질서의 유지, 국토방위, 물질적 번영 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이의 성취를 꾀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은 신에 의해 계시되었고 또한 신의 사자에 의해 선으로 수립되어진 것들을 수립, 시행하고 악으로 선언 되어진 것들을 근절하는 일이 그들의 최고의 의무이다.

이런 의무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이슬람적인 국가라고 말 할 수 없다. 이슬람 국가의 헌법은 이런 의무를 국가의 기본 의무로 명시하고 표명해야 한다.

이슬람성법 샤리아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의 정부와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6)</sup> 1) 종교의 보호, 2) 재판의 시행, 3) 영토의 보존, 4) 범법자의 처벌, 5) 국

4) 이성수, ‘이슬람의 정치관이 아랍사회에 미치는 영향-아랍 국가의 민주화 시위와 이슬람식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32-3호, 2012.

5) 손주영, “이슬람 국가의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 학회 논총 제 3집, 1993. p. 134.

경수비 및 강화, 6) 성전(Jihad)의 수행, 7)세금의 징수, 8) 예산의 집행, 9) 관료의 임명, 10) 공공업무의 감독과 조사 등이다.

여기서 1)번과 6)번은 이슬람 국가와 정부수립의 목적의 첫 번째 측면인 종교수호에 관계한 것이고, 2), 3), 5), 8), 9) 번은 두 번째 측면인 피통치자들의 권익실현을 충족시키는데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4), 7), 10) 번의 의무는 두 가지 측면에 동시에 관련되는 것들이다.<sup>7)</sup>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바탕이 될 때 그 국가는 ‘이슬람식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 리비아와 이라크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에서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정착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두 국가를 선정한 것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아랍국가와는 다른 과정, 즉 민주화 과정에서 ‘서구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공통된 현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즉 리비아는 프랑스가 주축이 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라크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 군부독재가 종말을 고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 III. 리비아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리비아는 무아마르 알 까다피가 집권한 후 현재 가장 오랫동안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되어 온 국가이다. 서구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마그립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의 사이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교량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무함마드 이드리스(Muhammad Idris)를 국왕으로 하는 연방왕국을 건설하였으나 1969년 무아마르 알 까다피(Muammar Al-Qadhafi)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장교 그룹이 트리폴리에서 무혈혁명을 일으켜 전국을 장악하고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아랍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7년 총 인민회의에서 까다피는 제3세계 이론에 입각한 인민주권 선언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비아의 독특한 인민직접 민주제도인 자마히리야(Jamahiriya 인민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여 지속적인 통치를 해왔다. 리비아는 반서구 반제국주의를 강화하여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 등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으로 대했으나,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리비아는 관계정상화의 길을 걸어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이후 까다피의 독재에 대해 미국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까다피 정권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그가 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 영향을 받은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고 까다피 정부에서 흠대받던 부족들을 중심으로 반 까다피 운동이 확산되면서 리비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까다피는 집권 초기 10년 간 부족통합 정책을 폈지만, 점차 충성하는 부족들에겐 특권을 주고, 반발하는 부족들에게는 무력을 행사하며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리비아에서의 내전은 곧 부족 간 전투를 의미하였다.<sup>8)</sup>

6) Al-Mawardi, Abu al-Hasan Muhammad b. Habib, Al-Ahkam al-Sultaniyah wa al-Wilayat al-Diniyah, Cairo, 1966, p. 15-16. Ibn Kahldun, al-Muqaddimah, Beirut, n. d, p. 190.

7) 손주영, “이슬람 국가의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 학회 논총 제 3집, 1993. p. 135.

8) 리비아 부족들은 약 140개로 분화돼 있는데, 그 가운데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30여개로 까



그러한 상황에서 나토(NATO)의 미사일 공격, 폭격 등의 무력사용과 군사적 개입과 반까다피 세력들로 인하여 마침내 2011년 10월 20일 까다피가 반군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함으로써<sup>9)</sup> 까다피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다.

2011년의 리비아 내전과 이로인한 서구 국가들의 까다피 정권에 대한 공격은 단지 리비아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가들마다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2010년의 리비아의 공습에 가장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온 나라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위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리비아 사태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먼저 리비아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다.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프랑스의 엘리제궁에서 열린 유엔 결의안 이행을 위한 회의 이전에 이미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즉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집행방법이 제대로 논의되기도 전에 미라쥬와 라팔 전투기 등을 리비아에 출격시켜 먼저 폭격을 한 것이었다.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서둘렀던 사르코지의 의도는 첫째, 당시 지지율이 낮은 사르코지가 2012년 프랑스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까다피가 사르코지에게 지원한 대선자금에 대해 리비아 측에서 밝혔다는 점, 셋째, 프랑스 등 유럽 지역의 경우 리비아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총수입량의 10%를 차지하며, 리비아산 원유는 유황성분이 낮은 저유황 고품질 석유로 탈황 설비가 부족한 유럽 특히 프랑스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2011년 당시 미국은 리비아 문제에 있어서 한발 물러서 있었는데,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폭격에는 찬성하여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나토군으로서 폭격에는 가담하였지만 지상군 투입 등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2011년 5월 13일 당시 마흐무드 지브릴이 이끄는 리비아 반군 대표단이 5월 백악관을 방문해 톰 도닐런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을 때 합법정부 지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점은 미국이 그때까지도 리비아 사태와 그로인한 미국의 개입이 2012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단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비아 공습이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2012년 대선을 치러야 했던 버락 오바마에게 있어 지지율 상승을 위한 명분으로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오히려 오바마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처럼 나토내에서 프랑스와 미국은 2011년 당시 리비아 내전을 그들의 국내정치 타개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다피 정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부족은 알 카다파 부족과 알 마가리하 부족이었다. 까다피가 부족장으로 있었던 알 카다파 부족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까다피 집권 후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알 마가리하 부족은 과거 까다피의 오른팔로 불리는 압드살람 잘루드 전 총리를 비롯해 정부와 군의 요직을 많이 배출해 충성도가 높은 부족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2011년의 리비아 사태당시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한 동부 지역에서는 알 주와이아 부족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리비아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전지대를 관할하는 이 부족은 “폭력 진압을 멈추지 않으면 석유 수출을 중단 하겠다”고 하면서 까다피에게 반기를 들었다. 또한 리비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약 100만 명)를 가진 서남부의 와팔라 부족은 2011년 까다피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이러한 리비아의 부족갈등으로 촉발된 내전은 마침내 까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제가 되었다.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1/>

1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5/14/>

그 후 지속적인 나토군의 까다피군에 대한 공격과 반군들의 활동으로 마침내 8월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10월 17일에는 까다피의 거점도시였던 바니 왈리드를 장악함으로써 완전한 승기를 잡았으며, 10월 20일에 리비아 과도정부가 까다피의 고향 시르테에서 까다피를 생포하여 사살함으로써 까다피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2011년 10월 까다피가 반군에 의해 사살당한 후 리비아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리비아의 과도정부를 대표하는 국가과도위원회(NTC)의 무스타파 압둘 잘릴(Mustafa Abdul-Jalil)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리비아 전역이 해방됐다고 정식으로 선언하면서, “새 리비아는 이슬람 국가로 샤리아를 토대로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에 반하는 어떤 현행법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sup>11)</sup>

즉 리비아의 향후 행보는 철저히 이슬람에 바탕을 둔 이슬람식 민주주의 모델로 갈 것을 시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까다피 사후에도 리비아의 정치상황은 그다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리비아 과도정부는 2011년 10월 카다피 사망 후 사실상 내전을 끝냈지만, 리비아를 통치하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정치적 내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까다피 사후에도 반군과 부족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리비아 각 지역의 민병대 및 반군들은 까다피 추종 세력의 완전한 축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과도정부의 무기 해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또한 서부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세속적 자유주의 세력과 동부 벵가지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세력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특히 까다피 정권 축출 과정에서 풀린 다량의 무기를 회수되지 못하면서 과도정부의 무장세력 진압도 어려웠던 것이다.<sup>12)</sup>

이러한 과도정부의 정치적 부담과 이슬람주의라는 이념적 바탕하에서 리비아는 2012년 7월 선거에서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아랍민주화 시위와 이로 인한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의 독재붕괴와 민주화는 아랍지역에서 이슬람 무장세력 등 ‘이슬람원리’에 입각한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리비아의 경우도 압둘 잘릴 국가과도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듯이 샤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정당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리비아의 제헌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슬람 중심의 정치체제를 표방했던 튀니지 및 이집트와는 다른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의건설당’이 총 80석 중에서 17석을 얻은데 그쳤다.

리비아 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7월 17일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리비아 제헌의회는 정당 명부로 뽑는 80명과 무소속 120명으로 구성되는데 마흐무드 지브릴이 이끄는 ‘국민연합(National Forces Alliances)’이 정당 명부 투표로 결정되는 80석 가운데 39석을 차지했다. 24석은 군소 정당들의 의석이 되었고, 반군 사령관 압둘 하킴 벨하지가 이끄는 이슬람국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연합은 세속정당이라는 규정을 거부하고 온건 이슬람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다. 국민연합이 정당 명부 투표에서 이슬람을 대표하는 정의건설당을 눌렀지만, 국민연합과 정의건설당 2개 정당은 이미 공식 선거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및 군소 정당 의원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하였다.<sup>13)</sup>

11) 조선일보 2011/10/24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2/201209120314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2/2012091203143.html)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9>

국민연합은 특히 수도 트리폴리와 민중 봉기의 중심지였던 동부 뱅가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선거후 리비아 새 의회는 현재의 국가과도위원회를 대체해 회기 시작 30일 이내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등 정부를 구성하였는데, 의회는 또한 헌법 초안을 만들고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차기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대략 1년 정도의 과도기에 국정 운영을 맡아 정국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다.<sup>14)</sup>

또한 무함마드 알 마가리프<sup>15)</sup> 전 리비아국민족전선(LNSF) 대표를 새로 구성된 의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리비아 의회는 2012년 10월 7일 이날 샤구르 총리의 내각 구성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125표, 찬성 44표, 기권 17표로 부결하고 샤구르 총리를 해임했는데, 아부 샤구르 총리는 내각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했는데, 의원들은 내각 구성안이 다양한 부족과 지역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여 샤구르 총리를 불신임 해임하였던 것이다.

리비아 제헌의회는 2012년 10월 31일 알리 자이단 새 총리의 내각 구성안을 승인하였지만 리비아의 정치상황은 그다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이단 총리는 진보와 이슬람 정당 출신 인사 27명으로 구성된 내각 명단을 제헌의회에 제출, 제헌의회가 표결에 들어갔으나, 일부 내각 지명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이 의회에 진입해 무산됐다. 총 200명의 제헌의원 가운데 105명이 이날 새 내각 구성안을 찬성했는데, 제헌의회 앞에서 표결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sup>16)</sup> 리비아의 정국은 아직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안정되지 못한 리비아의 상황은 까다피 사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도 리비아의 각 부족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국은 지속적으로 불안을 가중시켜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까다피의 거점이었던 바니 왈리드에서는 아직도 까다피에게 충성하는 세력들과 정부군 사이에 교전이 계속되는 등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마가리프 의장은 2011년 11월 19일 밤 국영 TV 연설에서 트리폴리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바니 왈리드를 리비아에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군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마가리프 제헌의회 의장은 "리비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아직도 리비아 군·경의 창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예전 반군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아직까지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가리프에 따르면, 리비아에는 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구체제 세력들이 해외의 구체제 인사들과 손잡고 리비아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하며, 바니 왈리드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많은 세력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14) 트리폴리, AFP, AP =연합뉴스, 2012-07-18일자

15) 뱅가지에서 1940년에 태어난 마가리프 의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인도 주재 리비아 대사를 지냈다. 1980년 대사직에서 물러난 그는 다음 해 리비아에서 반군 단체로 잘 알려진 LNSF를 창설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해 왔다. 카다피 정권은 LNSF 소속 회원들을 체포해 처형하는 등 엄중 단속해 왔으며 그중 대다수는 해외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국에 쫓기던 메가리프 의장 역시 미국으로 망명해 약 20년간 정치적 망명가 신분으로 지내다 지난해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불거지자 귀국했다. 마가리프 의장은 귀국 후 LNSF의 이름을 바꿔 민족전선(NF)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 NF는 지난 7월 리비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적 의회 선거에서 3석을 차지했다. 무사타파 압둘 잘릴 전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 의장의 뒤를 이은 마가리프 의장은 회기 시작 30일 이내에 총리를 선출하는 등 새로운 과도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의원 60명으로 구성된 헌법 제정 기구를 만들어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약 1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1014010>)

16)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101](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101)

2010년 까다피 축출 이후 리비아는 샤리아(이슬람 성법: Sharia)에 바탕을 둔 헌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모든 법은 무효라고 과도국가위원회의 압둘 잘릴 위원장이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잘릴 위원장이 선포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향후 리비아는 '이슬람주의'로의 회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주의로의 회귀란 이슬람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그야말로 이슬람사상과 이슬람식 사고와 법에 바탕을 둔 정통이슬람 국가로의 회귀를 뜻한다. 즉 서구식의 민주화라는 개념보다는 이슬람에 대한 가치를 더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당시에 이러한 발표는 상당히 많은 분열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해외 망명파와 반정부 투쟁을 해온 일부 젊은 리비아의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과도한 이슬람주의로의 회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들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제헌의회 선거였고 제헌의회 선거 결과 온건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국민연합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리비아는 또다시 부족간의 내분과 파벌간의 내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특히 140여개의 부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비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다면 리비아는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리비아를 묶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 IV. 이라크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이라크는 미국의 공격으로 장기 독재가 끝난 후에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라크 역시 민주주의의 정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공격이후 2005년에 제헌의회선거, 국민투표, 주권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 등 세 차례나 자유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경험하였다. 종교적으로 이라크는 무슬림이 전체인구의 97%인데 시아파가 60%, 순니파가 37%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 및 기타 종교가 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후세인 시절 상위세력이었던 순니파 세력은 현재는 과격저항단체로 변모하였고, 억압받던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원하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라크의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 간 갈등 외에도 과격 순니 무장 세력과 유화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친미 시아파와 반미를 내세우는 과격 시아파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시아파의 경우 알리 앗 시스타니(Ali al Sistani)와 알 말리키 총리 계열의 온건 시아파와 무끄타다 앗 사드르(Muqtada al Sadr) 계열의 강경 시아파가 권력을 비대칭적으로 분점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라크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해법이 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이라크의 총선결과 시아파인 UIA가 275석 중 128석을 차지하였고 쿠르드연맹은 53석을 차지했으며, 순니파인 이라크화합전선(IAF)이 44석, 또 다른 순니파 조직인 이라크국민대화전선이 11석을 확보하여 순니파가 모두 55석을 차지하였다.

2010년 총선에서는 시아파와 순니파 연합인 이라키야가 91석, 친미성향의 시아파의 법치국가연합이 89석, 시아파의 반미 성향인 이라크 국민연맹이 70석 쿠르드 연맹이 43석을 얻었다.

2010년에 3월 치러진 3차 총선은 그 동안의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4년 동안 집권하였던 법치국가연합이 2석 차이로 총선에서 2당이 된 것이다.

총선결과로 보면 법치국가 연합은 의석수의 1/3도 차지하지 못한 정당으로 4년 동안의 집권이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의 경우 2차 총선이후에도 지속적인 무장 공격이 계속되어 왔으며, 테러 및 게릴라전으로 국가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친미집권여당은 이라크 국민들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고 쉬아 무슬림이 일부만이 그들의 정치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쉬아파지만 반미 강경 쉬아파 조직인 이라크 국민연맹(INA)이 이번 총선에서 상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표-1> 2010년 3월 7일 총선 결과

정당	주요인물	소속정당	성향	의석수
이라키야 (쉬아, 순니)	이야드 알라위 전총리	순니파 국민대화전선(NDF), 바트당	연합, 종파갈등 해소	91석
법치국가연합 (쉬아)	누리 알 말리키 현총리	쉬아파, 쿠르드, 기독교, 등 40여개군소 정당	친미	89석
이라크 국민연맹 (쉬아)	아딜 압둘마흐디 부총리, 무끄타다 알 사드르	쉬아파 최대 정당 이라크 이슬람 최고회의(ISCI)	반미, 친이란	70석
쿠르드연맹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 잘랄 탈라비니 이라크 현 대통령	쿠르드 민주당(KDP), 쿠르드 애국동맹(PUK)	친미	43석
기타 1		쿠르드계		14석
기타 2		앗시리아, 투르크멘		18석
총				325석

<자료 : 국민일보 2010년 3월 28일자, 자료 보충 및 재정리>

3월 총선이후 현재까지 이라크는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대규모 폭탄테러가 일어났는가 하면 재검표도 이루어진 상황이다. 현재 이라크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이끄는 정당 그룹이 경쟁 관계에 있는 강경 쉬아파 정당그룹과 동맹을 맺어 새 정부를 구성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다. 결국 쉬아파의 재집권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첫째, 총선에서 법치국가연합(SLA)와 이라크 국민연맹(INA)이 각각 89석과 70석을 획득하여 159석이 됐지만 전체 의석 325석의 과반인 163석에는 4석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내각을 구성하여 이라크를 통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태이다.

둘째, 미군 철군이후 이라크 사회의 불안요소는 가중되었다. 미국은 2011년 말에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 지석적인 테러와 정국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이라크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은 알 수없는 상황이 되었다.

셋째, 이라키야는 선거에 이기고도 총리 및 내각 후보를 지명한 뒤 이들에 대해 의회에서

인준 표결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법치국가연합의 알 말리키 총리가 선거개표의 부정의혹을 일으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바람에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틈타 법치국가연합과 이라크 국민연맹이 연합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라키야를 구성하고 있는 순니계 정파들에 의해 언제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넷째, 이라크 선관위는 이라키야의 순니파 당선자 2명에 과거 후세인 정권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이라키야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5월 24일 이라크 모술에서 쉬아-순니 정당연합체인 '이라키야' 소속 의원인 바사르 알-오루퀘이디가 암살범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이라키야측을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라키야측에서 언제든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서로 다른 두 쉬아파가 연합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있다. 법치국가연합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들어선 친미 성향의 정치 세력인 반면, 이라크국민연맹은 반외세와 종교색이 짙은 이라크이슬람최고회의(ISCI) 및 반미 강경정파인 무끄타드 앓 사드르가 양대 축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연합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알말리키 총리가 연임을 노리고 정치동맹에 합의는 했지만, 말리키의 총리직 연임에 앓 사드르 정파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여섯째, 이라크민주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쿠르드족문제이다. 쿠르드족 인구는 약 2천2백6십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400만명 정도가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라크 전체 인구의 23%에 속한다. 국가별 인구비례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제헌의회 총선과 제1차, 2차 총선을 분석해볼 때 이라크는 수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총 3번의 총선을 통해 볼 때 이 문제들은 향후 이라크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라크 무장 단체들은 이러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한다고 보고 있다. 무장 단체를 유지했던 쿠르드족과 반정부 중심이었던 시아파가 정권을 잡은 후 이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이러한 이슬람식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이 증폭되어 분열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한 이후에도 이러한 이라크 사회내부의 문제들은 더욱 큰 사회적 혼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무장단체들은 대부분 '이슬람정부건설'이라는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시아파 계열은 모든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건설을 위하여 꾸란과 순나를 지켜야 하며 지하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회의 단결과 통일을 위하여 이슬람 용어인 통일 개념의 타우히드(Tawhid)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무슬림은 알라의 의지에 따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슬림은 꾸란과 하디스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며 정치권력은 이슬람 성법을 해석하는 율라마(Ulama 이슬람신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희수, 1995)

또한 미국은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연합정부를 구성했지만 내부적으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지속적인 무장공격, 테러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IV. 결론-리비아와 이라크의 ‘이슬람식 민주주의’ 정착 가능성

리비아와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 두 국가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두 국가의 민주화의 과정이 튀니지나 이집트와는 달리 외세의 개입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리비아와 이라크의 모든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소한 이들 국가의 독재가 순수하게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리비아의 경우 튀니지와 이집트와는 달리 프랑스가 주축이 된 나토군의 공습의 결과 까다피의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의 경우 과거 미국과의 전쟁에 패한 이후 미국이 지배를 받아오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식되고 있는 국가이다. 물론 이라크도 사담 후세인과 순니파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시아파의 불만과 쿠르드족 문제 등도 얹혀 있는 국가이다.

이렇듯 리비아와 이라크는 나토와 미국이라는 외세가 이들 국가들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정착’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 두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정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튀니지나 이집트, 예멘 등 독재 권력이 무너진 후 민주주의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민주주의 정착도 쉽지 않은 않다.

따라서 범 아랍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이후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이슬람적인 민주주의가 이상적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슬람에 기반을 둔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리비아에서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어떤 조직이 가능할까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먼저 2012년 7월의 제헌의회 총선에서 마흐무드 지브릴이 이끄는 ‘국민연합(National Forces Alliances)’은 자유주의 성격이 강하지만 온건 이슬람 주의를 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슬림 형제단이 이끈 ‘정의 건설당’이 총 80석 중에서 17석을 얻었는데 그쳤으나, 제 2당으로서의 의미를 굳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리비아에서의 정치세력은 이슬람이라는 기본적 정치 토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슬람 사상과 정치관에 바탕을 둔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체계가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적용될 수 있다면 아랍세계에 서구식 민주주의의 장점과 이슬람의 신정정치가 긍정적으로 결합한다면 아랍 세계 나아가 전 이슬람 세계에 긍정적인 정치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끌고 있는 법치국가 연합은 시아파, 쿠르드, 기독교 등 다양한 세력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야드 알라위 전총리가 이끄는 이라키야와 무끄타타 앗 사드르가 중심이 된 이라크 국민연맹도 사실상 이슬람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순니파와 쉬아파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라크의 경우도 지속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슬람식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수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랍세계의 민주주의의 정착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역, 민주주의의 모델들
- 이성수, ‘이슬람의 정치관이 아랍사회에 미치는 영향-아랍 국가의 민주화 시위와 이슬람식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2-3호, 2012.
- 손주영, “ 이슬람 국가의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 학회 논총 제 3집, 1993.
- Al-Mawardi, Abu al-Hasan Muhammad b. Habib, *Al-Ahkam al-Sultaniyah wa al-Wilayat al-Diniyah*, Cairo, 1966, p. 15-16. Ibn Kahldun , al-Muqaddimah, Beirut.
- Abd, Kariim. 2002, *al-Dawlat al-Majuuna wa al-Unf al-Thaqaafii*, Beirut: al-Furaat li Nashr wa al-Tawjii.
- Abdelnasser Walid Mahmud, 1994, *The Islamic Movement in Egypt*, London & New York.
- al-'Abdin, A. Z., 1989, “The Political Thought of Hasan al-Banna,” *Islamic Studies*, Vol.29:3.
- al-Banna, 1984, *Majmuu'ah Rasaa'il al shahiid Hasan al-Banna*, Beiirut, al Mu'assasah al-Islamiyyah, 4th ed.
- al-Hilaali, Muhammad Taqi-ud- Din & Khan, Muhammad Muhsin. 1996, *The Noble Qur'an in the English Language*, Riyad. Darssalam.
- Bartos, Otomar J. and Wehr. Paul., 2002, *Using Conflict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v 2006, “Squandered Victory: The American Occupation and the Bungled Effort to Bring Democracy to Iraq”
- El-Amin, Mustafa. *African American Freemasons: Why They Should Accept Al-Islam* 1990.
- El-Hibri, Tayeb. Morgan, David. 1999, *Reinterpreting Islamic Historiography : Harun al-Rashid and the*
- Esposito, John L. 1962, *The Islamic Threat:: Myth or Re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99, *The Oxford History of Isl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ruqui, Mumtaz Ahmad. 1997, *Anecdotes from the Life of the Prophet Muhammad*.
- Foltz, Richard C. 2000, *Religions of the Silk Road: Overland Trade and Cultural Exchange from Antiquity*
- Freedman, Robett O(ed.). 1991, *The Intifada: Its Impact on Israel, the Arab World and the Superpower*, Miami: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erner, Deborah. 1991, *One Land, Two people: The Conflict over Palestine*, Colorado: Westview Press Inc.
- Gibb H.A.R., 1947. *Modern Trends in Islam*, Chicago: Chicago Univ. Press.
- Gonzalez, Nathan., 2009. *The Sunni-Shia Conflict and the Iraq War: Understanding Sectarian Violence in the Middle East*.



- Guddard, Hugh. 2002, *Islam and Democracy*, The Political Quarterly Publishing Co. Ltd.
- Hourani, Albert, 1962, *Arabic Thought in the Liberal Age 1798-193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G, 2004, *Islamism in North Africa 1,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Briefing*, 20, April.
- Ira G. Zepp Jr, 1992. *A Muslim Primer: Beginner's Guide to Islam*, Westminster, Maryland.
- Jabar, Faleh A. Dawood, Hosham., 2007, *The Kurds: Nationalism and Politics*, Saqi Books.
- Khalafah, Bassem. 2001, *The Rise and Fall of Christian Lebanon*, Tronto, York Press.
- Larry Dianmond, Mac F. Plattner, and Daniel Brumberg., 2002, *Islam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 Lawrence1, Quil.m., 2008, *Invisible Nation: How the Kurds' Quest for Statehood Is Shaping Iraq and the Middle East*, Walker & Company.
- Mahmood, Iftekhar., 2007, *Shiism: A Religious & Political History of Shi'i Branch of Islam*.
- Marcus, Aliza., 2007, *Blood and Belief: The PKK and the Kurdish Fight for Independence*: NYU Press
- McDowall, David, 2004, *A Modern History of the Kurds*: I. B. Tauris
- Momen, Moojan. 1985, *An Introduction to Shi' Islam*, New Haven: Yale Univ. Press.
- Momen, Moojan., 1987, *An Introduction to Shi'i Islam: The History and Doctrines of Twelver Shi'ism*: Yale University Press
- Muḥammad Maḥfūz. 1999, *al-Fikr al-Islāmiyy al-Mu'āṣr wa Rihānāt al- Mustaqbal, Bayrūt*, al-Markaj al-Thaqāfī.
- Nasr, Vali., 2006.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 W. W. Norton.
- Rehnema Ali ed. David Commins, 1994, *Pioneers of Islamic Revival*, London, Zed Books Ltd.
- Wittes, Tamara Cofman. 2008, "Islamist Parties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19, No. 3.
- Wollaston, Naylor, 2005, *The Sunnis And Shias*. Kessinger Publishing.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9>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5/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2/201209120314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2/2012091203143.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101401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101](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101)

조선일보 2011/10/24

AFP, AP =연합뉴스, 2012-07-18일자



## 발표2

## South Korea's Strategy in the Gulf Market in the 21th Century

서정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 Introduction

An important new relationship is developing betwee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and South Korea, one of the most industrialized states of East Asia. The rapidly tight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regions is a recent phenomenon. The hydrocarbon export and import in exchange for hard currency in the mid-20th century has now evolved into a multidimensional and long-term mutual commitment. South Korea's massive energy needs will also seek to develop strong non-hydrocarbon bilateral trade, investment, and more sophisticated areas of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experienced South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ir technologies have opened new areas of interdependence.

Till recently, this increasingly extensive relationship did not include military and security arrangements. These areas have been exclusively occupied by Western countries led by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sup>1)</sup>. However, the dispatch of South Korean troops to the UAE in 2011 changed the existing order<sup>2)</sup>. Further, South Korea and the Gulf have also sought to strengthen their non-economic ties through state-level visits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cooperative agreements. This new environment has undoubtedly enhanced their partnership. Moreover, various attempts, including hydrocarbon safekeeping, civilian nuclear

1) Edmund O'Sullivan, *The New Gulf: How Modern Arabia Is Changing the World for Good*. (Dubai: Motivate Publishing, 2008), 16-24.

2) Jeguk Jeon, "The Strategic Implication in the Dispatch of Korean Troop to UAE," *Hapcham* 46 (January 2011), pp. 23-27.

and solar energy projects and the building of a 21st century ‘Silk Roa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signify a shift in the bilateral relations of the two regions. This gives room for optimism that the trajectory of interdependence will continue to accelerate.

Following a brief historical background of relations between the Gulf region and South Korea, this paper will provide an overview of economic cooperation of the two regions. An examination of their contemporary hydrocarbon and non-hydrocarbon trade links will then be made, before turning to their multidimensional collaboration, focusing on the military involvement of South Korea in the region. Finally, the efforts to boost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will be considered,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main reasons behind the expansion of new fields of cooperation.

## Historical Exploration

South Korea was a late starter in the history of cooperation with the Gulf, especially in the area of hydrocarbons. South Korea’s major oil companies had not been established until the late 1970s and most of its other trade links to the Gulf also developed during the last 40 years. Nonetheless, during the 1960s and 1970s, South Korea was carefully building the foundations of its present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Gulf. I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audi Arabia in 1961, Oman in 1974, Qatar in 1974, Bahrain in 1976, Kuwait in 1979, and finally the UAE in 1980.

As Sou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exceeded many Western countries, its reliance on hydrocarbon imports also increased drastically and its labour force mushroomed to several hundred million in the 1970s and 1980s. The import of oil remains an important pillar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This is because the Gulf countries produce a combined total of about 18 billion barrels of crude oil, which is about 20 percent of the global total. The Gulf area also produces about 250 billion cubic meters of natural gas per year, which is about 10 percent of the global total. Furthermore, the Gulf countries account for 39 percent of all known crude oil reserves and 28 percent of all known natural gas reserves.<sup>3)</sup>

Table 1. Major Economic Indicators of GCC and South Korea (2010)

	Unit	Saudi	UAE	Kuwait	Oman	Qatar	Bahrain	GCC	Korea
<b>GDP</b>	US\$ 100 mil	4,437	2,691	1,313	578	1,286	229	10,534	9,862
<b>Population</b>	10,000	2,611	474	357	291	170	81	3984	4,888
<b>GDP/person</b>	US\$ 100 mil	16,996	56,812	36,820	19,879	75,643	28,324	26,441	19,791

3) CIA, *The World Factbook* (2011).

Area	10,000km <sup>2</sup>	215	8.36	1.78	21.25	1.14	0.07	242.33	9.97
Export	US\$ 100 mil	2,353	1,984	660	366	721	154	6,238	4,664
(Oil export)	US\$ 100 mil	1,962	740	617	..	293	..	..	—
Import	US\$ 100 mil	1,037	1,807	224	198	20	98	3,384	4,252
Composition of Manufacturing sector	%	9.5	12.9	5.0	10.0	7.4	15.3	9.7	27.6
Oil production	10,000B/D	817	232	231	76	73	4	1,433	—

Source: OPEC(2011),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0/11*; World Bank(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MF(2011),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GOIC(2008), *Gulf Statistical Profile 2008*.

South Korea consumes 22 million barrels of oil per day, all of which it has to import, and 37 billion cubic meters of gas per year. It is now among the top 10 oil consuming countries and among the top 20 gas consuming countries in the world. So, South Korea requires from the Gulf large imports of oil and gas. Saudi Arabia is its largest trade partner, supplying about 800,000 barrels of oil per day and their annual hydrocarbon trade is worth \$23 billion. The UAE is the second-largest trade partner, supplying about 430,000 barrels of oil per day as part of an annual hydrocarbon trade worth \$13 billion.<sup>4)</sup> Kuwait's oil and gas exports to South Korea are also sizeable and Oman's are worth \$5.1 billion and Bahrain's \$300 million.<sup>5)</sup>

Non-hydrocarbon trade between the Gulf countries and South Korea was a lot smaller in scale than the oil and gas business. Nevertheless, South Korea started its exports to the area first with textiles and electrical goods as the Gulf countries' wealth accelerated during the era of higher oil prices. The demand for such imports has continued to increase with more diverse products like cars, machinery, and building materials. Such imports from South Korea could be worth as much as \$17 billion in 2011. Although there is still an imbalance of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the export-oriented industries of South Korea have established a solid foothold in the Gulf.

Thus, Korea's non-hydrocarbon trade with the Gulf is rapidly increasing as its relationship gets strengthened. The Gulf area has become South Korea's third-largest export destination aft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sup>6)</sup> The main exports are cars, electric materials, and building materials. South Korea's non-hydrocarbon trade with Saudi Arabia was about \$3.2 billion, the UAE - \$2.4 billion, Qatar - \$1 billion, Kuwait - \$845 million, Oman - \$449 million and Bahrain - \$338 million in 2011. Sou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Gulf countries to boost its trade

4) South Korea,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11).

5) Korea Export-Import Bank (2011). Various Statistics.

6)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1 trade statistics.

[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_kita.jsp?menuId=05&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 n=^statid=dots&top\\_menu\\_id=db11](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_kita.jsp?menuId=05&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 n=^statid=dots&top_menu_id=db11)

relationship further.

Table 2. South-Korea-GCC Trade Volume

(Unit: US\$ mil)

	Export	Growth	Import	Growth	Trade volume	Growth	Trade balance	Oil price
2006	7,774	24.8%	54,071	29.6%	61,845	28.7%	-46,297	61.08
2007	10,944	40.8%	55,154	2.0%	66,098	6.88%	-44,210	69.08
2008	15,034	37.4%	85,521	55.1%	100,555	52.13%	-70,487	94.45
2009	11,702	-22.2%	49,867	-41.7%	61,569	-38.77%	-38,165	61.06
2010	12,503	6.9%	66,441	33.2%	78,944	28.22%	-53,938	77.45
2011	17,274	38.2%	95,466	43.7%	112,740	42.81%	-78,192	107.46

Source: South Korea Export-Import Bank

In addition to the increasing hydrocarbon and non-hydrocarbon trades,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countries has been considerably enhanced through mutual investments. These have flowed in both directions and at different levels. An increasingly diverse range of joint ventures has been encouraged by both sides. It means that Kore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investment destination for the Gulf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11 September 2001 attacks.<sup>7)</sup> While many Western countries started to express their distrust of Gulf sovereign funds,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has encouraged and strengthened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countries.

Table 3. South Korea's Major Exports to GCC

(Unit: US\$ mil)

	2009		2010		2011		
	Commodity	Amount	Commodity	Amount	Commodity	Amount	Growth
1	Vehicles	1,636	Vehicles	2,402	Vehicles	3,395	41.3
2	iron and steel	1,226	Vessel	939	Wireless telephone	600	12.3
3	Electric wire	452	Wireless telephone	534	Vessel	591	-37.0
4	Electrical transformer	411	Electrical transformer	416	Construct heavy eq.	569	106.7
5	Wireless telephone	410	Electric wire	369	Unit heater	488	448.5

Source: South Korea Export-Import Bank

7) Whanyon Kim, "Middle East Economy after the Dubai Crisis," *CEO Information* 751 (2010): 37-41.

The UAE invested in South Korea -its government-owned Dubai Ports World now operates a terminal in Busan port city. While Abu Dhabi does not yet have major investments or joint ventures with South Korea, it is nonetheless increasingly involved in various investment projects. Recently a large number of major contracts have been awarded to South Korean companies to construct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projects in the Gulf countries. Significantly, in many cases, South Korean companies have successfully bid against Arab and Western companies that have had a much longer history in the region. Undoubtedly these new contracts between South Korean and the Gulf countries serve to consolidate the interdependence further. This is because the Gulf countries are open to taking advantage of the South Korean experience, technologies and access to abundant labour, which is crucial for their economic diversification policy.<sup>8)</sup>

Table 4. South Korea's Major Imports from GCC

(Unit: US\$ mil)

	2009		2010		2011		
	Commodity	Amount	Commodity	Amount	Commodity	Amount	Growth
1	Crude oil	34,381	Crude oil	45,913	Crude oil	68,146	48.4
2	Natural gas	7,333	Natural gas	7,933	Natural gas	8,226	29.1
3	Naphtha	4,881	Naphtha	7,332	Naphtha	9,796	33.6
4	LPG	2,094	LPG	3,128	LPG	4,111	31.4
5	Aluminum and particles	351	Aluminum and particles	710	Aluminum and particles	629	7.8

Source: South Korea Export-Import Bank

Table 5. Korea's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Contract Amount from GCC

(Unit: US\$ mil)

2008		2009		2010		2011	
Country	Contract amount	Country	Contract amount	Country	Contract amount	Country	Contract amount
Kuwait	7,541	UAE	15,860	UAE	25,602	Saudi	16,589
UAE	4,841	Saudi	7,203	Saudi	10,532	UAE	2,125
Qatar	4,400	Kuwait	1,640	Kuwait	4,893	Oman	1,998
Saudi	4,122	Qatar	312	Qatar	1,177	Kuwait	1,559
Bahrain	2,056			Oman	800	Qatar	1,494
Oman	520					Bahrain	448
GCC	23,480		25,015		43,004		24,213

Source: South Korea Trade Association

8) Jan H. Kalicki and David L. Goldwyn, *Energy and Security: Toward a New Foreign Policy Strategy* (Washington: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 91-92.

In fact, South Korea has made the greatest gains in the Gulf's construction sector. In the UAE, around 60% of the new gas facilities in Abu Dhabi have been built by South Korean companies. In 2009, major South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on contracts worth about \$4.9 billion. Hyundai, in particular, won contracts worth over \$1.7 billion. In Saudi Arabia, the company won a \$2.3-billion contract in 2010 to build gas processing facilities in various sites. And, three other major South Korean companies won a combined \$4.8-billion contract to build a new refinery and petrochemicals plant in Saudi Arabia. The recent major projects that are being handled by South Korean firms include the Ruwais refinery expansion project in Saudi Arabia and the Khalifa Port development and Cleveland Clinic project on Sowwah Island in Abu Dhabi.<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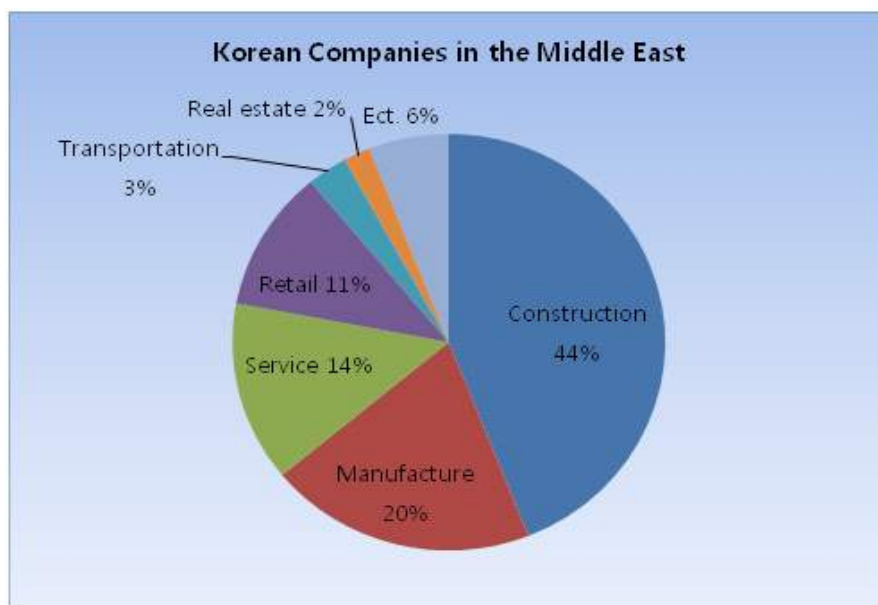


Table 6. Number of South Korean Companies in GCC Countries

Name of Country	Number of Companies		
	Sub-Total	Local Subsidiary	Branch Office
UAE	295	182	113
Saudi Arabia	181	157	24
Qatar	50	39	11
Oman	36	31	5
Kuwait	13	11	2
Bahrain	12	8	4
Total	587	428	159

Source: South Korea Import-Export Bank, December 2011

9) Dongjoo Joo, *GCC's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Korea's Cooperation Strategy* (Seoul: KIET, 2012), 33-34.



With the simultaneous increase in the visits of heads of states to each other's countries, South Korea gradually shifted its focus from economic interests like construction and industry to more strategically important areas like the nuclear energy sector. The previous economy-oriented exchange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strategic partnership building.' The multidimensional partnership received a particular boost after a South Korea consortium won the bid to develop UAE's nuclear power plants in late 2009. The contract to build four nuclear power plants is worth about \$20 billion and was won by beating bids from American, Japanese and French firms. The nuclear reactors are scheduled to be operational by 2020, by which time the demand for electricity in the UAE is expected to have more than doubled. The first plant is scheduled to begin supplying power in 2017. With South Korea winning this deal in the UAE, the country, which first introduced atomic power in 1978 and now has 20 nuclear reactors in operation, has become the world's sixth largest nuclear power plant exporter following the USA, Japan, France, Russia, and Canada.<sup>10)</sup>

## From Trade to Military Cooperation

There was no obvious security dimension to th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Although the Gulf countries have small populations and are vulnerable to major conflicts and other potential threats, military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was not a priority. However, the 21st century has witnessed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Arab world and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events of 11 September 2001, invasion of Afghanistan and the 2003 invasion of Iraq.<sup>11)</sup> These have meant that the dependence of the Gulf countries on a Western security umbrella has become problematic. Some GCC countries began seeking a reliable alternative to the West in the security domain. This opened the doors for South Korea to seek a more active role in the security and defense arena with their primary energy suppliers.

With the participation in vario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being part of the 1991 coalition forces that liberated Kuwait from Iraqi invasion, the dispatch of troops to Kabul in Afghanistan in 2001 and Arbil in North Iraq in 2004, the peace-keeping operation in Lebanon in 2007, and the anti-pirate operation in the Gulf of Aden, South Korea has involved itself in the Arab politics and security issues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sup>12)</sup> Although the Western countries dominate the Gulf security

---

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troduction of Korean Nuclear Power, 2011.

11) J. Onley, *The Arabian Frontier of the British Raj: Merchants, Rulers, and the British in the Nineteenth-Century Gul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2) Kyungrim Woo, "Process of Korean Troop's Dispatch to Iraq," MA thesis submitted to Ulsan University (2011).

arrangements, the Seoul believes that the thousands of kilometers of shipping lan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ir hydrocarbon suppliers should be protected and safeguarded. In this regard, South Korea, which has been a neutral military power, started to make some efforts to have a meaningful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Gulf countries. This has contributed to the Far Eastern country and the Gulf region eagerly improving non-economic aspects of their interdependency in such a way that it does not jeopardize their current proximity and future ties. Indeed, there now appears to be a tacit mutual understanding that their relationship would evolve and include a military-security component in the future.

Contributing to this evolution is the trend of increasing high-level diplomatic visits. While economic matters are the main issues discussed at these events, heads of states and ministers have used these valuable chances to consider a range of other matters in an effort to build more sturdy politic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and generate further goodwill. In recent years the frequency of these visits has greatly intensified. Between 1991 and 2011, South Korea heads of state made at least seven visits to Saudi Arabia, including the president on two occasions, most recently in 2011, and the prime minister on three occasions, most recently again in 2011. On the other hand, Saudi Arabia also made seven state visits to South Korea. With the UAE there has been even more diplomatic activity, with South Korean leaders having made no fewer than 15 state visits, half of them since between 2006 and 2011. These visits were mainly in support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that South Korea was involved in the UAE. Similarly, there have been eight state level visits over the same period by UAE leaders, including Vice-President, Prime Minister and Ruler of Dubai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in 2007, and Crown Prince of Abu Dhabi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who attende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Seoul in March 2012. There have been 13 South Korean state visits to Kuwait since relations was established, including the president's visit in 2007. Kuwaiti leaders made 11 state visits to South Korea, including one by Prime Minister Sheikh Sabah Al Ahmad Al Sabah in 2004. South Korean leaders have made seven state visits to Qatar, including the president's visit in 2007, while Qatar leaders made 14 state visits to South Korea, including the 1999 visit of Emir Sheikh Hamad bin Khalifa Al Thani and Crown Prince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s visit in 2009. With regard to Oman, South Korean made seven state visit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s visit in 2001 and 2005, while Omani leaders made nine state visits to South Korea. There have been far fewer such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n and Bahraini leaders, although the Bahraini Foreign Minister Sheikh Khalid bin Ahmad Al Khalifa did travel to Seoul in 2007.

In the military field, South Korea had two instances of cooperation with the Gulf countries in the past. The first one was the military cooperation with Saudi Arabia when both countries concluded the Military Cooperation Agreement in 1986.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a Korean-Saudi Military Cooperation Committee to promote friendship and

mutual benefits. It was the first military agreement signed between South Korea and any GCC country.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South Korea dispatched 154 soldiers belonging to the military medical unit to Saudi Arabia to support the multinational force during the 1991 Gulf War. However, after the Gulf Wa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ok a backseat, with even the 1986 agreement not getting renewed. South Korea is now trying to restore cooperation with the kingdom by eagerl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Defense Strategic Dialogue'.

The second instance of cooperation was the signing of MoU on '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Kuwait in 2004 immediately after South Korea dispatched the Daiman Aviation Unit to support the stabilization operation in Iraq. The main goal of the MoU wa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including exchange of military personnel, military education and cooperation of defence industries and logistics. However, no concrete or tangible cooperation materialised thereafter.

However, South Korean efforts to intensify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Gulf region have gained speed in recent years.<sup>13)</sup> The US war against terrorism pressured Seoul to dispatch its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in spite of some degree of South Korean domestic objection. Since then, South Korean military participation has been extended to Lebanon and the UAE. Through this military engagement, Seoul intends to broaden its military relationship with the Gulf and other Arab countries. The best example is the dispatch of the Akh Unit to the UAE, which started deploying in January 2011 on a two-year mission to train special Emirati warfare troops. This is seen as a turning point in South Korean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Gulf countries because it had never before dispatched troops abroad, except under the umbrella of multinational force or peacekeeping operations. This type of military cooperation has further facilitated other form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2011, South Korea's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visited the UAE and met top military commanders to discuss ways of fostering bilateral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y. Again, this was the first official visit of a South Korean military chief to the Gulf country.

President Lee Myung-bak discussed possible military cooperation with King Abdullah and Defence Minister Sheikh Salman bin Abdul Aziz Al Saud when he visited Saudi Arabia in February 2012. This encouraged government institutions and business circles to accelerate their activities. The head of Defence Acquisition Programme Administration (DAPA), which is in charge of defence industries and export, visited Saudi Arabia, Jordan and Israel in May 2012 to develop a cooperation mechanism with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With the encouragement of the DAPA, many South Korean defence companies participated in such defence exhibitions in the Middle East, such as the Doha International Maritime

---

13) Gyungman Jeon, "Seeking New Approaches of Korean Troop Dispatch Abroad," *Hapcham* 47 (April 2011), 12-15.

Defence Exhibition and Conference and the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and Conference in Abu Dhabi. For example, 18 Korean companies took part in the First International Defence, Security and Aviation Exhibition in Baghdad in April 2012 and seven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Special Operations Forces Exhibition and Conference in Jordan in May 2012.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explain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countries. Most importantly, this initiative aims to break the so-called triangular military cooperation among North Korea, Iran and China.<sup>14)</sup> Seoul worries that this triangular cooperation may directly impact the regional stability and security of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Gulf region. If the triangular cooperation continues, North Korea could accelerate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velopment and uranium enrichment programme, giving more leverage to North Korea in the denuclearisation negotiations. On the other hand, explicit or implicit support by China to North Korea would make it more hostile towards South Korea. Many scholars and policy-makers believe that this situation allows Iran to purchase North Korean missiles and consequently enable North Korea to overcom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sup>15)</sup> This would in the end make the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more difficult.

Particularly, the Nuclear Summit held at Seoul in March 2012 discussed the atomic and WMD activities of North Korea and Iran. Foreign Minister Kim Sung-Hwan emphasized that there is “no question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lemn concerns nearly the illegitimate nuclear activities of North Korea and Iran.”<sup>16)</sup> Likewise, South Korean media covered various reports related to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One of the examples can be found in a news article in which Ajunews reported that North Korea and Iran set a new p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is news report, Iranian State TV said that the agreement was signed in Tehran in the presence of the Iranian President Mahmoud Ahmadinejad and North Korea’s second in command KimYoung-nam.<sup>17)</sup> Many intellectuals and policy-makers have worried about China’s role in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An editorial appeared in a daily newspaper Korea Times argues that North Korea missile system included Chinese technology and China has been a transshipment point in the trade of banned missile technology between North Korea and Iran.<sup>18)</sup> Another news report in June 2012 mentioned the triangular relations saying that Iran’s Red Crescent sen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via China. The newspaper found that food items including powdered milk were

14) Namhoon Cho, “North Korea–Iran Connection in WMD Proliferation,” A Paper Presented at the 8<sup>th</sup> Korea–MiddleEastCooperationForum(October2011).

15) Daniel Byman, Iran,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1 (2008): 169–181.

16) Yonhap News Agency. 26 March 2012.

17) “N. Korea and Iran Set a New P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junews. 3 September 2012.

18) “North Korea and UN Resolutions.” Korea Times. 27 April 2012.

purchased and shipped to North Korea by a Chinese organization.<sup>19)</sup>

In the Gulf region, North Korea's WMD supply to Iran would also threaten th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sup>20)</sup> This may encourage an armament race in the region because the neighbouring GCC countries would acquire more weapons to respond to Iran. Thus, the triangular cooperation could create more confrontational situations in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This could also mean that the chances of the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and Iran getting peacefully resolved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rena, such as the United Nations, would be considerably decreased.<sup>21)</sup>

South Korea, therefore, does not have too many response options to the triangular cooperation.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country to raise a critical voice against China, which has risen to the status of the second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South Korea only hopes that China would voluntarily play a positive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initiative in the Korean Peninsula. Otherwise, Seoul may decide to stop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except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press the neighbour to comply with UN resolutions.

South Korea's push for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with the GCC countries is also conditioned by South Korea being obliged to reduce economic exchanges with Iran, especially after the Western countries imposed sanctions in 2009. Economically, South Korea and Iran have been mutually dependent for a long time. For example, Iran is 23rd on the list of South Korea's export destinations and the 15th largest source of imports. Also, Iran was the fourth largest oil supplier to South Korea in 2010, accounting for about nine percent of South Korea's total oil imports. However, since South Korea has been forced to adhere to sanctions, which has decreas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Iran, Seoul has sought to expand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with the GCC countries.

The more important reason behind the active involvement of South Korea in the military field is its changing profile and role in international politics.<sup>22)</sup> It may be said that this change has been imposed externally and involuntarily. The US-led war against terrorism pressur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ispatch its troops to Iraq and Afghanistan. Since then, its military operations have been expanded to Lebanon and the UAE. With this military engagement, South Korea is eager to strengthen its military relationship with the Gulf and the Middle East. Furthermore, South Korea, as one of the OECD countries, has

---

19) "Iran to Se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junews. 12 June 2012.

20) Nihat Ali Ozcan and Ozgur Ozdamar, Iran's Nuclear Program and the Future of U.S.-Iranian Relations. *Middle East Policy*, 16(1), (Spring 2009): 121-133.

21) Colin Dueck and Ray Takeyh, "Iran's Nuclear Challeng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2 (2007): 189-205.

22) Ducksoon Hwang,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and Korea's Rol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 (June 2011): 25-48.

also involuntarily participated in vario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Thus, the change in the Western, especially US, rhetoric against Iran, has impacted the South Korean role in Middle East affai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 Conclusion

As examined abov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region has continuously improved and expanded. This relationship is likely to positively evolve further in the new political order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GCC countries are likely to balance their existing relationship with the Western powers and East Asia.<sup>23)</sup>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ulf countries has been rapidly rising in the hydrocarbon and non-hydrocarbon sectors, both in volume and value. Similarly, the flow of bilateral investments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a substantial number of construction contracts have been signed with ever greater frequency. As Davidson noted, these trajectories are all being enhanced by improving non-economic ties at multidimensional levels.<sup>24)</sup>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South Korea has gradually shifted its focus in the region from pure economic to more strategic and military cooperation. Three variables such as war against terrorism, diversification of exports and industries on both sides, and the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in the Gulf, have affected this phenomenon.

This intensifying bilateral engagement will include more diverse areas and sectors. 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 its role as the protector of the GCC states and the guarantor of the international oil industry's most strategic shipping lanes, it is interesting that military cooperation has just become one of the components of South Korea-UAE ties.<sup>25)</sup>

The current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of Seoul with the Gulf countries reflects the international society's growing expectations toward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global and Asian affairs.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model state for nuclear and WMD nonproliferation. Seoul's nuclear and WMD nonproliferation credentials are especially notable and recognized by its ally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faces mounting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Korea like other moderate Asian emerging powers including India is also increasingly seen as a middle power with a capacity and will to exercise a bridging diplomacy between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Particularly, South

---

23) D. Moran and J. Russell, (eds.) *Energy Security and Global Politics: The Militarization of Resource Management* (London: Routledge, 2008).

24) Davidson, Christopher M. *The Persian Gulf and Pacific Asia: From Indifference to Interdepend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25) Michael A. Palmer, *Guardians of the Gulf: A History of America's Expanding Role in the Persian Gulf, 1833-1992* (New York: Free Press, 1992)

Korea is expected to produce a well-balanced and future-oriented paradigm for a greater nuclear security by coordinating differing positions. Amid its strategic pivot toward the Asia, Seoul as a US long-standing ally is expected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dealing with an increasingly bellicose North Korea and a rising China. The deepening partnership relations with the Gulf countries can be explained as a part of the bigger strategic initiative.





## 발표3

## 걸프지역 석유자원과 제1차 걸프전쟁(1990-1991)

최영철 | 장신대학교

## I. 서론

1990년 8월 2일 이라크 군은 350대의 탱크와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5시간 만에 쿠웨이트 시를 점령하고 쿠웨이트의 합병을 선언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소련 등 34개국으로 구성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공습을 단행하여 이라크 군을 무력화 시킨 후 2월 24일에는 전면 지상 작전을 전개,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한 뒤 2월 28일 지상전을 종결했다. 42일 동안 계속된 이 전쟁에서 이라크 군 약 20만 명, 그리고 다국적 군 300여명이 사망했다. 이 전쟁은 베트남전쟁 이후 미군이 개입한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으며, 미국은 세계에너지 자원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만 지역 석유자원을 어떤 특정 국가가 장악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걸프 지역의 석유패권이 서구 열강의 부침에 따라 어떤 변화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걸프지역 석유자원이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의 대중동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란과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장악했으며, 새로운 슈퍼 파워로 등장한 미국에게 영국의 걸프 지역 석유이권이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중동의 석유 자원 간의 상관관계를 1990-1991년 제1차 걸프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를 검토한다. 특히 이라크, 쿠웨이트, 미국 등 걸프지역 석유자원에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 내용으로는 제2장에서 본 연구 주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그런 다음 제3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 국제석유 기업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 만 지역의 석유자원에 접근하여 확보하였는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과 제5장에서 걸프지역 석유자원이 미국의 대중동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제1차 걸프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걸프지역 석유자원이 어느 정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였는지 연구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 1. 국외 선행연구

그동안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의 대중동정책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산유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주로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출신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라크 출신이며, 버몬트 대학교 교수로서 아랍 국가의 석유와 아랍민족주의, 아랍산유국의 정치경제, 이라크 석유 문제 등에 관련된 주제를 주로 연구한 압바스 알-나스라위(Abbas Alnasrawi)이다. 그는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이 중동의 석유 개발권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동의 산유국들과 불평등계약을 맺었으며 그 특징으로 첫째, 석유이권 행사기간이 60년에서 75년 까지 장기간이었으며, 둘째, 관할 구역이 해당 국가의 전 영토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었고, 셋째, 석유이권을 보유했던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석유생산량과 수출량, 그리고 가격결정 등 중요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중동 주요 산유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Alnasrawi 1991, 1994 and 2001). 그의 연구가 심층적, 체계적 분석으로의 심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기획과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었다.

1930년대 이후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구 패권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 행정부 간의 관계를 다룬 중요한 문헌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의 보고서 형식으로 1975년 출간되었다.<sup>1)</sup> 동(同) 보고서는 미국계 다국적 석유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에 진출하는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시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세계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다국적기업의 폐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한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각종 보고서와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대중동석유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1982년 스타이버스의 저서(Stivers 1982: *Supremacy and Oil: Iraq, Turkey and the Anglo American World Order 1918-1930*)와 2011년 블랙(Black)의 연구(Black 2011: *British Petroleum and the Redline Agreement: The West's Secret Pact to Get Mideast Oil*)가 있으며, 브리티시 석

1) *Multinational Oil Corporations and U.S. Foreign Policy - REPORT together with individual views,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by the Subcommitte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Washington, January 2, 1975,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유회사(British Petroleum Company)와 레드라인협정(Black 2011), 이라크의 석유법 입법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블랜차드의 2009년 저서(Blanchard 2009: Iraq: Oil and Gas Legislation, Revenue Sharing, and U.S. Policy)와 마흐디의 2007년 논문(Mahdi 2007: "Iraq's Oil Law: Parsing the Fine Print")을 들 수 있다. 그 외 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2차 자료로는 크래인의 수입석유와 미국의 국가안보정책(Crane 2009: Imported Oil and U.S. National Security), 엥글러의 석유의 정치(Engler 1961: The Politics of Oil: A Study of the Private Power and Democratic Directions), 브리티시 석유회사(British Petroleum Company)의 역사를 다룬 페리어의 저서(Ferrier 1982: The History of the British Petroleum Company, Vol. 1: The Developing Years, 1901-1932), 전 체니 부통령과 석유기업 간의 관계를 파헤친 플레처의 2004년 논문(Fletcher 2004), 그리고 미국 국가권력과 다국적기업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분석한 길핀의 1975년 저서(Gilpin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 걸프지역 산유국들의 국제관계와 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가우스(F. Gregory Gause III)의 최근 2010년 및 2011년 저서(Gause 2010: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Persian Gulf; Gause 2011: Saudi Arabia in the New Middle Eas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를 들 수 있다.

제1차 걸프전쟁(1990-1991년)과 지역패권 및 석유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한 학자로는 허스트(Hurst 2010)와 카두리(Khadduri and Ghareeb 2001)가 있다.  
Hurst, Steven. 2010.

## 2. 국내 선행연구

금상문은 2006년 저서에서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 결정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다국적 석유기업과 중동석유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금상문 2006). 또한 정상률의 2008년 논문 “중동 석유의 정치경제와 한국의 대중동 자원외교”, 이대근의 1988년 논문, “중동석유경제의 구조적 특질”, 최영순의 1975년 논문 “중동석유문제와 국제정치” 등이 중동의 석유문제를 다루고 있다(이대근 1988; 정상률 2008; 최영순 1975).

이라크의 석유자원과 미국 대중동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 동기의 관점에서 국내 일부 학자들이 부분적으로 다룬바 있다(김남국 2007; 박준혁 2007; 안병진 2003). 또한 최근 안문석은 대중동정책을 포함한 미국 오바마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안문석 2011).

그리고 제1차 걸프전(1990-1991년)에 관련된 연구로는 김재천·조용규(2006), 남궁영(2007), 문정인(1991), 백성주(1988), 유정렬(1991), 이동선(2009), 이준범(2005), 장성일(2008), 주수기(2004) 최성권(1992)의 연구가 있다. 특히 장성일은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적 틀을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여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경제적 현상과 군사적 개입이라는 정치적

행위와의 관계를 제1차 걸프전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 도움이 된다(장성일 2008).

그러나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중동 석유 자원 간의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외 연구는 아직 희소한 형편이다.

### Ⅲ. 걸프지역 석유패권경쟁의 역사

#### 1. 제1차 세계대전과 서구 열강의 중동지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고 난 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열강의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아랍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는 급속히 확대·강화되었다. 1920년대 초까지 아라비아 반도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아랍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을 제외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하에 들어갔다. 오스만 제국이 사라지고 난 후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의 정치제도와 경제 관계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맞도록 구축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서구 열강이 필요했던 것을 공급하고 충족시켜 주는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 열강이 추구했던 걸프지역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이 지역의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등 걸프 지역에서 20세기 전반에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확립했다. 중동 지역 석유이권협정은 주로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산유국 정부와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라크의 경우 브리티시 석유(BP), 엑손, 모빌, 셸, 그리고 프랑스 석유(CFP)가 소유하고 있는 이라크 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 IPC)와 석유개발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석유메이저들은 비슷한 규정으로 카타르와 UAE에서도 협정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의 스탠더드 석유(Chevron)에 개발권이 부여되었다.<sup>2)</sup>

#### 2. 이란의 석유패권과 미·영의 이란 정부 전복

중동지역에서의 석유 탐사와 개발은 이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1901년 호주인 윌리엄 녹스 다시(William Knox D'Arcy)는 당시 이란 왕으로부터 2만 달러에 상응하는 현금과 향후 생산될 모든 석유 판매액의 16%를 로열티를 이란 왕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60년 동안 이란(당시 페르시아) 영토 내의 모든 부존자원을 탐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sup>3)</sup> 다시는 약 7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08년 5월 26일 마스지드 술레이만(Masjid-i-Suleiman)<sup>4)</sup>에

2) Abbas Alnasrawi, *Arab Nationalism, Oil,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pendency*,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p.13-15.

3) Frank C. Hanighen, *The Secret War*, New York: John Day, 1934.

4) 쿠제스탄(Khuzestan) 지역에 소재하는 마스지드 술레이만(Masjid-i-Suleiman) 유전은 중동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1912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유전이다. 마스지드-이-술레이만(Masjid-i-Suleiman)은 문자적으로 'Mosque of Solomon'이란 의미를 가진 이 유전은 1912년부터 1998년까지 약 12억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 동 유전은 아직도 50억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석유회사(JV of Sheer Energy, 지분 41%)와 이란국영석유공사의 자회사인 나프트가란(Naftgaran, a unit of the semi-private NIOC)이 원유를 개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CNPC)가 석유개발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AllBusiness.com, "APS Review Oil

서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석유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sup>5)</sup> 다음 해 1909년 4월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가 설립되었다. 이란에서의 석유생산은 급속히 증가했으며,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는 30척의 유조선 보유하게 되었고 브리티시 석유(British Petroleum Company)를 인수했다. 1933년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는 페르시아와 60년 장기 석유이권계약을 체결했으며 1935년 앵글로 이란 석유(Anglo-Iranian Oil company: AIOC)로 개명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란 정부는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Anglo-Iranian Oil Company: AIOC)에 이란 정부의 경영참여와 이익의 50대 50 배분을 요구했으나 영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1951년 민족주의자인 모하메드 모사데크(Mohammed Mossadeq) 총리의 이란 정부는 석유산업 국유화법을 제정하여 이란 석유회사(AIOC)를 국영화하고 국영이란석유공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로 개명하였다. 1953년 8월 19일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영국정부와 협력하여 모사데크 정부를 쿠데타를 통해 전복시켰다. 쿠데타 이후 국영이란석유공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는 국제적인 컨소시엄이 되었다. 동 컨소시엄은 이란 정부와 50대 50의 이익 배분 권을 갖되 이란에 의한 회계감사나 이란인의 이사 임명을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이란 석유자원의 독점적인 지배권은 미국, 네덜란드와 나누어 가져야 했으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란에서의 석유이권의 상당 지분을 확보했다. 영국과 미국 간의 쿠데타 비밀 합의에 따라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AIOC)에서 영국은 40%의 지분을 가지며, 미국의 5개 석유 메이저가 40%의 지분, 그리고 나머지 20%는 로얄 더치 셸(Royal Dutch Shell)과 프랑스석유회사(Compagnie Française des Pétroles, now Total S.A.)에 분배되었다.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AIOC)는 1954년 브리티시 석유회사(British Petroleum Company)로 개명했으며<sup>6)</sup> 이란에서의 영업은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호메이니가 집권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호메이니의 이슬람정권은 브리티시 석유의 이란 내 모든 자산을 보상 없이 몰수함에 따라 70년간 계속되었던 브리티시 석유의 이란 석유 지배는 종말을 고하였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이 미국 중앙정보부(CIA)를 동원한 쿠데타로 이란 모사데크 정권을 축출하고 이들 국가의 이란 석유이권을 노획물로 분배한 사례는 강대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석유자원을 강탈한 가장 노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이란의 국제 석유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sup>7)</sup> 이미 이때 중동 석유자원의 장악이 미국의 국가

Market Trends: Iran - Masjid-i-Suleiman,” April 13 2009.참조.

(<http://www.allbusiness.com/mining-extraction/oil-gas-exploration-extraction-oil-oil/12303751-1.html> 20110111 검색).

5) Ferrier, Ronald W. *The History of the British Petroleum Company, Vol. 1: The Developing Years, 1901-193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6) 브리티시 석유(British Petroleum Company)는 1959년 사업영역을 알래스카로 확대했으며 1965년에는 북해에서 맨 처음 석유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7)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International Petroleum Cartel, the Iranian Consortium and US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p.vii; Abbas Alnasrawi, *Arab Nationalism, Oil,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pendency*, New York: Greenwood Press,

안보이익에 직결됨을 미국 정부는 선언하고, 미국 정부는 미국 석유회사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며,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 군사력을 동원하여 나설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3. 서구 열강의 이라크 석유자원 분할 지배

이라크 지역의 유전개발은 영국과 네덜란드 메이저 석유회사들에 의해 20세기 초 시도되었다. 1912년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던 이라크 지역에 영국의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AIOC),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셸(Royal Dutch/Shell) 그리고 독일석유회사 등이 이라크 지역 석유 탐사와 개발을 위해 오스만 정부로부터의 유전개발권을 획득했다. 이를 위해 이들 회사들이 공동으로 터키석유회사(Turkish Petroleum Company: TPC)를 설립했다. 터키석유회사(TPC)는 오스만 제국 내 석유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해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셸, 도이체 뱅크, 그리고 영국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터키 국영은행이 1912년 공동으로 설립한 다국적 석유기업이었다. 1914년 영국 정부는 터키석유(TPC) 내 지분을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AIOC)에 넘겼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측은 1920년 산레모 회의에서 터키석유회사의 도이체 뱅크 지분을 몰수하여 프랑스 측에 넘겼다. 그러나 동 산레모 협정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석유와 군수물자 등 연합국 측에 대대적인 지원을 했던 미국의 터키석유(TPC) 지분 참여가 배제되었다. 이 협정에서의 배제를 계기로 미국 석유메이저들과 미 국무부는 유럽 정부들과 기업들이 해외 석유자원 개발과 생산에서 자신들을 배제시키고 해외 시장 개척과 기업 활동에서 자신들을 차별할 것을 두려워하여 터키석유(TPC)에의 지분 참여 배제를 강력히 항의했다. 미 하원은 1920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을 차별하는 국가의 석유회사들이 미국 국내 국·공유지에서 석유 탐사와 개발을 제한하는 광물임차법(Mineral Leasing Act of 1920)을 제정했다. 당시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생산했던 석유산업대국 미국의 차별을 두려워한 유럽 강대국들은 터키석유(TPC)에의 지분 참여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8년 미국 주요 석유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했던 근동개발회사(Near East Development Corporation: NEDC)<sup>8)</sup>는 상당기간 계속된 협상을 통해 터키석유(TPC)의 지분 매입에 성공했다. 1928년에는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과거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중동지역 석유자원 이권을 분배하는 합의(레드 라인 합의 Red Line Agreement)가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석유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sup>9)</sup>

1928년 7월 31일 벨기에 오스텐드(Ostend)에서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 로얄 더치 셸(Royal Dutch/Shell), 프랑스석유회사(Compagnie Française des Pétroles: CFP, 후에 Total로 개명), 그리고 근동개발회사(Near East Development

1991, p.73.

8) 미국의 석유회사 신디케이트로서 저지 스탠더드(Jersey Standard), 소코니(Socony), 걸프 오일(Gulf Oil), 팬-아메리칸 석유 및 운송회사(Pan-American Petroleum and Transport Company), 그리고 어틀랜틱 정유(Atlantic Refining, 후에 Arco). 저지 스탠더드와 소코니는 후에 근동개발회사(NEDC)의 모든 지분을 인수했음)

9) 이 합의는 주로 레드 라인 합의(Red Line Agreement)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석유회사 관계자들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이전의 정확한 국경을 몰랐기 때문에 굴벡키엔이 그의 기억에 의존하여 붉은 펜으로 대충 그렸기 때문이다. Edwin Black, *British Petroleum and the Redline Agreement: The West's Secret Pact to Get Mideast Oil*, Dialog Press, 2011. 참조.

Corporation)가 협상을 통해 4개 회사가 동등하게 23.75%의 지분을 분배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아르메니아 출신 정유계의 거물 사업가이자 박애주의자인 굴벵끼안(Calouste Sarkis Gulbenkian/1869-1955)이 차지했다. 레드라인합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럽과 미국 석유회사들이 합작하여 이라크의 석유개발 이권에 있어서 서로 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었다. 터키석유(TPC)는 1927년 처음 원유의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1929년 터키석유(TPC)는 이라크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 IPC)로 개명되었으며,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1925년부터 1961년까지 이라크 석유탐사와 생산을 독점했다.<sup>10)</sup>

1951년 이란의 석유산업이 국유화되고, 서구 석유메이저들과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정부 간 이윤배분원칙이 새롭게 적용되는 등 중동 산유국과 석유메이저들 간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 모사데크의 석유산업 국유화, 당시 제3세계에서 불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흐름에 힘입은 바 크다.

1958년 이라크 군부 쿠데타에 의해 하심 왕정체제가 붕괴되고 압둘 카림 카심(Abdul Karim Qassim)에 의해 공화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미국은 군사적인 개입을 고려했으나 신군사정부가 서구의 석유이권을 존중한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로버트 앵글러(Robert Engler)는 미 국무부의 군함외교가 석유이권 확보를 위한 외교라고 규정하였다.<sup>11)</sup> 또한 1975년 미국 의회 상원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는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이며, 기본적으로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의 이익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선언했다.<sup>12)</sup> 또한 석유산업과 관련하여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가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미국이 유럽과 일본에 석유를 온당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둘째, 친 서구 산유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셋째,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세계석유무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1950년대, 1960년대 미 행정부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지었다.<sup>13)</sup>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의 석유자원 개발과 공급에 관련된 이러한 평가는 미국의 국익과 외교안보정책에서 석유자원의 확보와 유럽과 일본 등 서구 자본주의경제체제에 이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구 열강이 이라크에서 석유이권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10) Metz, Helen Chapin, ed. "The Turkish Petroleum Company". *Iraq: A Country Study*, 1988. <http://countrystudies.us/iraq/53.htm>. 2011.01.10 검색.

11) Robert Engler, *The Politics of Oil: A Study of the Private Power and Democratic Direc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p.264.

12) Abbas Alnasrawi, *Arab Nationalism, Oil,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pendency*,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74.

13)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Multinational Oil Corporations and U.S. Foreign Policy - Report together with individual views,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pp.83-84; Abbas Alnasrawi. "Oil, sanctions, debt and the future - Iraq," *Arab Studies Quarterly*, Fall 2001, Vol. 23, No. 4, pp.2-3..

#### 4.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이권 획득

1933년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석유회사(Socal)는 석유 발견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년간의 독점적인 석유개발권을 획득했다. 1936년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석유회사(Socal)는 추가적인 투자와 판로확보를 위해 텍사코(Texaco)를 파트너로 받아들였으며, 사우디 석유개발을 위해 자회사인 캘리포니아-아랍 스탠더드 석유회사(CASOC: California-Arabian Standard Oil Company)를 설립했다. 이 회사(CASOC)는 1938년 담맘(Dammam)에서 석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1939년 이븐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캘리포니아-아랍 스탠더드 석유회사(CASOC)의 석유이권을 44만 평방마일에 이르는 아라비아 반도의 광활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194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업하는 캘리포니아-아랍 스탠더드 석유회사(CASOC)의 명칭이 아람코(Arabian American Oil Company: ARAMCO)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이때 까지만 해도 미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개발권의 전략적, 잠재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동안 미 정부는 가솔린 등 에너지 부족을 실감했으며, 미국의 국내 매장 원유가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에너지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던 당시 미국의 상황에서 아람코가 사우디 정부가 요구하는 차관 요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사우디의 석유자원 개발이권이 미국의 중대한 국익임을 천명한 후 미 행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거액의 차관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게 된다.<sup>14)</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자원보고에 대한 이권을 장악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리적으로 미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다.

#### 5. 중동(걸프)지역의 석유 패권 변화와 그 특징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년대 중동지역에서 영국과 미국의 석유자원 지배력은 영국이 월등하게 우월한 상황이었다.<sup>15)</sup> 1943년 영국이 중동 석유 생산의 81.6%를 지배하고 있던 반면 미국은 14.4%를 장악하고 있었다. 영국이 장악하고 있는 원유의 정유능력도 85%에 달했으나 미국은 8%에 불과했다. 중동석유자원지배력에서 이렇게 월등했던 영국 지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석유개발권 다툼을 분수령으로 미국에 밀리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국내 석유자원개발에서 유럽 석유회사들에게도 동등 경쟁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조건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에 대한 대규모 전쟁 군수물자 제공을 빌미로 중동에서의 석유자원 지분을 늘려가게 된다.

14) 반면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앵글로-이란 석유회사(Anglo-Iranian Oil Company)는 아람코로부터 석유이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사우디에서의 석유생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MNC Subcommittee Print,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Petroleum Reserves Corporation, 1943-44*, pp.4-5. 참조.

15) MNC Subcommittee Print,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Petroleum Reserves Corporation, 1943-44*, p.60.



&lt;표 1&gt; 중동 원유 생산 및 소유권 (1943년)

&lt;단위: 천 배럴&gt;

국가 및 회사	생산량	국적		
		미국	영국	기타
이라크: 이라크 석유 (Iraq Petroleum)	25,270	6,002	13,267	6,001
바레인: 바레인 석유 (Bahrain Petroleum)	6,561	6,561	-	-
사우디아라비아: 캘리포니아 아라비아 스탠더드 석유 (California Arabian Standard)	4,866	4,866	-	-
이집트: 앵글로-이집트 석유 (Anglo-Egyptian Petroleum)	8,953	-	8,953	-
이란: 앵글로 이란 석유 (Anglo-Iranian Petroleum)	75,323	-	75,323	-
합계	120,973	17,429	97,543	6,001
비율	100 %	14.41 %	80.63 %	4.96 %

Source: MNC Subcommittee Print,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Petroleum Reserves Corporation, 1943-44*, p.60.

영국과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 석유자원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그 무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대, 강화하였다. 특히 중동 산유국에서 미국계 석유회사들의 지분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즈의 신세계질서 하에서 걸프석유회사와 스탠더드 석유 그룹과 같은 미국의 석유 대기업들은 중동,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채굴권에서 큰 몫을 확보했다.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루스벨트의 적극적인 외교로 미국의 석유메이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국을 물리치고 석유이권을 확실히 장악하였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은 1950년대 초 중동의 석유 개발권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동의 산유국들과 불평등계약을 맺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이권 행사기간이 60년에서 75년 까지 장기간이었다. 둘째, 관할 구역이 해당 국가의 전 영토에 걸쳐 적용되었다. 셋째, 석유이권을 보유했던 다국적 석유메이저들 석유생산량과 수출량, 그리고 가격결정 등 중요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석유산업이 중동 주요 산유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이들 산유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권을 부여해 주는 대가로 산유국 정부는 석유생산량의 단위당 고정된 분량의 극히 적은 액수를 받는데 그쳤다.

<표 2> 걸프지역 석유개발권 내역 (1951년 현재)

산유국	석유이권 보유 회사	이권 참여 국가
이란	브리티시 석유(BP)	영국
이라크	브리티시 석유(BP), 엑손(Exxon), 모빌(Mobil), 셸(Shell), 그리고 프랑스석유(CFP)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석유(Socal), 텍사코(Texaco), 엑손(Exxon), 모빌(Mobil)	미국
카타르	이라크 석유(IPC)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UAE	이라크 석유(IPC)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 Source: Abbas Alnasrawi, *Arab Nationalism, Oil,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pendency*,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p.69-70.

#### IV. 미국의 석유 소비와 걸프지역 석유

##### 1. 미국 경제와 세계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 요인

###### 1) 미국의 석유 수입 의존 심화

<표 3> 미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 증가 추이

년도	1980	1990	1999
수입의존도(%)	38.5	44.6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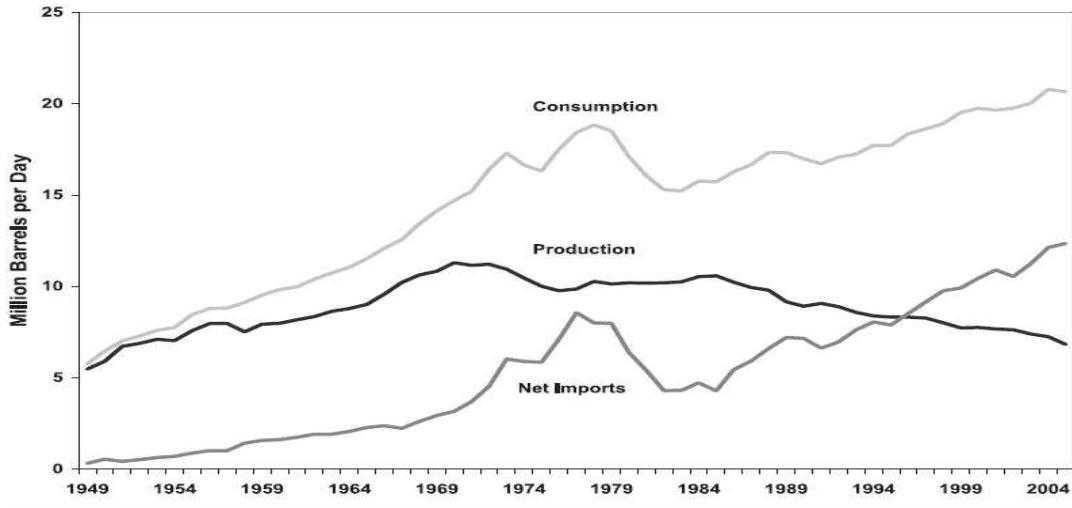
\*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http://www.petronet.co.kr)>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석유 수입국으로 에너지 가격의 안정과 공급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1/4, 세계 총 석유 소비의 1/4(24.6%), 발전전력량의 1/3을 소비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1980년 38.5%에서 1990년 44.6%로 상승했다<표 3>. 이 비율은 2015년에 69.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탄화수소(hydrocarbon) 연료 에너지 비중은 각각 40%, 23%, 합계 63%로서 석탄(23%), 원자력(8%), 바이오매스 에너지(biomass energy, 3%), 수력(3%) 등 다른 에너지 자원 보다 월등하게 높다.

&lt;그래프 1&gt; 미국의 석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입 비중 증가

(단위: 백만 배럴/일)



※ Source: EIA Annual Energy Review 2005, June 2008, GAO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building Iraq: Serious Challenges Impair Efforts to Restore Iraq's Oil Sector and Enact Hydrocarbon Legislation*,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House of Representatives, July 18, 2007, p.6.

위 <그래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이후 미국의 국내 석유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석유의 수입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국내 원유 생산량과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은 역전되었다. 또한 OPEC 견제에 기여했던 북해 유전은 고갈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등 非OPEC 국가의 석유자원의 가채 연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2)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 증대

이렇게 미국에서 석유의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석유 수급 불균형도 증대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석유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1993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 3) 석유 가격의 급등과 걸프지역 석유의 중요성 증대

미국의 수입 석유 가운데 중동석유 비중이 크고, 그 중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상황은 우선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략, 나아가서는 중동 전략을 제한한다. 따라서 중동 석유에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서는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석유 자원의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석유자원의 확보 여부는 국방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OPEC을 약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러시아, 멕시코,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산유국들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패권과 연계 된다.

## 2. 이라크 석유의 경제성

### 1) 이라크 원유매장 및 생산능력 개관

이라크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1,125억 배럴, 추정매장량은 2000억 배럴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세계 제 3위이며, 가채 년 수는 115년으로 세계 최장이다.

### 2) 석유 가격의 급등과 걸프지역 석유의 중요성

미국의 수입석유 가운데 걸프지역석유 비중이 크고, 그 중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상황은 우선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략, 나아가서는 중동 전략을 제한한다. 따라서 중동 석유에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서는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석유 자원의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석유자원의 확보 여부는 국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OPEC을 약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러시아, 멕시코,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산유국들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패권과 연계 된다.

## V. 제1차 걸프전(1990-1991년)과 석유자원

### 1.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의 배경

쿠웨이트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 동안 지속된 이란-이라크 전쟁동안 이라크에 대규모 전비를 제공하는 중요한 우방이었다. 1982년 이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3국 국경 중립지대에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는 원유 수입(일일 약 65만 배럴)은 차관 형식의 이라크 전비로 제공되었다. 또한 쿠웨이트 시는 바스라가 이란의 폭격으로 폐쇄된 이후 이라크가 페르시아 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라크의 주요 항구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전이 끝나자 다른 형태의 걸프 국가 지원 중단과 함께, 이러한 쿠웨이트의 현금 형태의 전비 지원이 중단되었다. 8년간의 전쟁은 이라크에게 8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외채를 안겨주었고(400억 달러의 걸프지역 국가로부터의 차관과 다른 국가들 및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400억달러), 이라크-쿠웨이트 간의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라크는 대 이란 전쟁이 아랍세계에서의 이란의 영향력 증대, 즉 이슬람 혁명 수출을 막는데 기여했음에도 쿠

웨이트를 비롯한 이웃 걸프 국가들은 차관형태로 남아 있는 외채의 탕감에 인색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1989년 후반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 간 회담이 있었으나 별다른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대한 외채를 OPEC 석유수출 쿼터의 감축을 통한 석유가격 인상을 통해 상환하려 했다. OPEC 회원국인 쿠웨이트는 자국의 석유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국제 유가의 하락을 가져왔고, 이는 고유가 정책을 통해 전쟁으로 악화되었던 이라크 경제를 회복시키려던 이라크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켰다는 인식을 이라크 정부는 갖고 있었다. 이라크정부 수뇌부는 이러한 쿠웨이트의 행태를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전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석유가격의 폭락은 이라크 경제에 치명적이었다. 당시 배럴당 1달러의 국제 유가 하락은 이라크 연간 10억 달러의 재정손실을 의미했다. 쿠웨이트의 저유가 정책으로 이라크는 1989년 140억 달러의 재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라크-쿠웨이트 국경지역에 위치한 루마일라(Rumaila)에서의 쿠웨이트의 원유채굴 역시 양국 간 분쟁의 한 요인이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시 이라크는 이 유전에서의 원유생산을 거의 중단했지만 쿠웨이트의 원유생산을 증대시켰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루마일라(Rumaila)에서 24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이라크 관할지역으로부터 탈취 채굴(slant-drilling)했다고 주장하고 이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쿠웨이트는 이라크가 그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그 보상을 거부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후 이라크는 경제자유화정책의 실패와 전쟁에 참여했던 노동력의 복귀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제위기 하에서 전쟁피해 복구를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 이웃 쿠웨이트는 호황을 누렸다. 이라크의 대부분의 항구와 유전은 파괴되었으며 전통적인 원유 수출 고객을 상실했다. 이렇게 극심한 경제위기 하에서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들이 연대하여 이라크 정권 타도의 음모를 추구하고 있다고 인식하던 사담 후세인 정권은 산유부국 쿠웨이트의 점령이 이라크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에서의 패권적 지위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또한 쿠웨이트의 분리 독립이 영국의 제국주의 산물로서 쿠웨이트 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라크의 정부 수뇌부는 쿠웨이트의 원유 과잉생산과 저유가 정책을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강대국의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교체를 위한 음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금지한 것을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 것이다.<sup>16)</sup> 그들은 쿠웨이트를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음모에 가담하여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1990년 7월 당시 타릭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은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가 OPEC의 할당량 이상 과잉생산하여 이라크를 고사시키려는 서구열강의 장단에 올라나고 있다고 비난했다.<sup>17)</sup> 또한 그는 쿠웨이트

16) 가우스(Gause, F. Gregory, III)는 사담 후세인과 그의 측근들은 미국과 페르시아 만 연안 산유국들의 대 이라크 정책과 조치들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해석하곤 했다고 주장한다. Gause, F. Gregory, III., *Iraq and the Gulf War: Decision-Making in Baghdad*, Columbia International Affairs Online (CIAO), pp. 1-34; Gause, F. Gregory, III.,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Gulf" in Louise Fawcett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Oxford: The University Press. 2005. pp. 263-274. 참조.

가 이라크의 침공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sup>18)</sup> 동시에 이라크 군 정보부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를 인지하고 있었다.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이라크 군 정보부 와피크 알-사마라이(Wafiq al-Samara'i) 차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America is coordinating with Saudi Arabia and the UAE and Kuwait in a conspiracy against us. They are trying to reduce the price of oil to affect our military industries and our scientific research, to force us to reduce the size of our armed forces....You must expect from another direction an Israeli military air strike, or more than one, to destroy some of our important targets as part of this conspiracy.”<sup>19)</sup>

## 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한 후 미국 행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쿠웨이트를 회복시키고 사우디로 피신했던 쿠웨이트 왕정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일부 고위관료들은 정치적인 협상을 선호했으나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리들과 군부는 군사적인 방법을 선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월 2일과 3일 개최된 회의에서 불참한 예멘을 제외한 전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규탄하고 이라크 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UNSC Resolution 660). 그러나 8월 8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공식적으로 이라크 영토로 합병시켜 버렸다.<sup>20)</sup>

미국의 페르시아 만 지역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명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세계 제2차 대전 수행과정에서부터 사우디를 비롯한 페르시아 만 지역 석유자원을 미국의 중대한 국익(a vital national interest)으로 간주하였었다. 더구나 사담 후세인은 20만 대군을 동원한 쿠웨이트 침공으로 일거에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20%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2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라크 군이 당장 사우디를 공격하지는 못할지라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인 석유부국 사우디에 장기간의 안보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1)</sup>

만약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냉전시대에 일어났었다면 상황을 달랐을 것이다. 미국이

17) Khalidi, Walid: “The Gulf Crisis: Origin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20, No. 2. (Winter, 1991), pp. 5-28.

18) Kellner, Douglas. *The Persian Gulf TV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2.

19) Al-Samara'i, W. (1997), quoted by Gause, F. Gregory, III.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Gulf” in Louise Fawcett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Oxford: The University Press. 2005. pp. 263-274.

20) F. Gregory Gause III,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Persian Gul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1) Ibid., pp.103-104.

소련의 동맹국을 미국이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다. 세계대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걸프전쟁은 탈냉전시대에 새로이 단극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맞게 되었던 첫 번째 전쟁이었다. 소련은 당시 곧바로 이라크의 침공을 규탄하는 미국의 대열에 합류했고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sup>22)</sup>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독립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합병할 수 없다는 국제 레짐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합의형성과 함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페르시아 만 지역의 석유패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레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침략자’를 응징하는 대규모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국제관계에서 드문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소련연방의 붕괴과정에 진입함에 따라 정치, 경제적으로 약화되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지구적 패권국가에서 2류 강대국으로 전락한 소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 합류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GCC 국가들과 이집트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초래된 위기 상황을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과거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시리아도 다국적 군에 합류했으며, 이란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군에 기울게 된다. 반면 친미 온건 국가로 분류되던 요르단은 PLO, 예멘, 수단과 함께 이라크 편에 섰다.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인들과 예멘은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했다. 사우디에 있던 70만 명의 예멘인들과 쿠웨이트에 있던 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되었다. 반면 다국적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집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상당규모의 외채를 탕감 받았다.<sup>23)</sup>

### 3. 미국의 걸프전 개입의 핵심 동인(動因): 석유

일부 신 현실주의자들(neo-realists)은 제1차 걸프전을 미국의 국력과 중동에서의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이라크가 중동의 지역 패권 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강되어 중동에서 미국 중심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고 중동에서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 미국의 페르시아 만 지역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1월 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은 바로 석유자원이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결정의 핵심 동인은 페르시아 만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석유자원의 보호와 미국이 향유하고 있는 석유이권의 유지이며, 이 지역 석유자원의 세계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3년 11월 26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여 하달한 미국의 대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국가안보정책결정지침 114호는 미국이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 추구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동 국

22) Ibid.

23) Ibid., pp.106-110.

가안보정책결정지침에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이 지역 안보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sup>24)</sup>

첫째, 미국은 중동의 핵심적인 우방 국가 및 걸프 아랍 국가들과 협력하여 페르시아 만에 있는 중요한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중요한 석유 시설과 석유 수송로에 대한 공격 시 방어에 필요한 군 병력의 신속한 배치 방안 수립이 최고의 우선적인 사안이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적인 해상 수송로가 항상 열려 있도록 유지해야 하며 미국은 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페르시아 만에서 세계 경제시스템으로의 석유 공급이 중단 된다면 실제적이고 심리적인 충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과 이에 따른 대규모 인명 손실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이에 수반된 대규모 인명 살상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이 지역에서의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의 보호, 그리고 석유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를 미국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다루었던 것이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이 인접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의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송로의 안전보장을 사활이 걸린 미국의 핵심적인 국익으로 설정하고 있다.<sup>25)</sup> 미국의 페르시아 만 지역 석유자원 장악은 미국의 세계 패권유지, 특히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석유 자원 장악은 최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확보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1983년 12월 20일 레이건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서 이라크를 방문한 럼즈펠드와 사담 후세인의 바그다드 만남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및 중동 석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보여 준다. 90분간의 양자 회동에서 이라크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요르단의 아카바 만을 경유하는 송유관 건설 문제가 논의 되었다.<sup>26)</sup>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그리고 인권을 중요한 국가의 가치와 신조로 하고 있는 미국이었으며,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많은 인명 손실을 발생시킨 미국의 가치에 적대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정권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정보기관들은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이라크가 수입하는데 관여하였으며, 집속탄(cluster bombs) 등 문제가 있는 무기와 탄약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였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 역시 당시 이라크를 돕기 위해 적극적이었다.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도 미국이 걸프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미국의 국익 추구 행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일주일 전인 1990년 7월 25일 미국의

24)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SDD) 114 of November 26, 1983, "U.S. Policy toward the Iran-Iraq War," delineating U.S. priorities: the ability to project military force in the Persian Gulf and to protect oil supplies, without reference to chemical weapons or human rights concerns.

25) 미국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대외 외교·안보 정책 목표와는 달리, 미국은 협애한 정치·경제·군사적 국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이 문서는 보여 주고 있다.

26) 비밀 해제된 주 런던 미국 대사관의 1983년 12월 21일 자 전신문.



부시 대통령이 파견한 April Glaspie 중동 특사와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We clearly understand America's statement that it wants an easy flow of oil. We understand America saying that it seeks friendship with the states in the region, and to encourage their joint interests. But we cannot understand the attempt to encourage some parties to harm Iraq's interests.

The United States wants to secure the flow of oil. This is understandable and known. But it must not deploy methods which the United States says it disapproves of – flexing muscles and pressure."<sup>27)</sup>

사담 후세인은 당시 미국의 이 지역 정책목표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힘으로 굴복시켜 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지역 친미 온건국가들이 미국에 종속된 대리인들로서 미국의 조종 또는 암묵적 지원을 받아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유의 증산과 그로 인한 원유가격의 폭락 ⇒ 이라크 정부 재정 수입의 감소 ⇒ 이라크 정권의 붕괴 또는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TARIQ AZIZ: Our policy in OPEC opposes sudden jumps in oil prices.

HUSSEIN: Twenty-five dollars a barrel is not a high price.

GLASPIE: We have many Americans who would like to see the price go above \$25 because they come from oil-producing states.

HUSSEIN: The price at one stage had dropped to \$12 a barrel and a reduction in the modest Iraqi budget of \$6 billion to \$7 billion is a disaster.

GLASPIE: I think I understand this. I have lived here for years. I admire your extraordinary efforts to rebuild your country. I know you need funds. We understand that and our opinion is that you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rebuild your country. But we have no opinion on the Arab-Arab conflicts, like your border disagreement with Kuwait.

I was in the American Embassy in Kuwait during the late 60's. The instruction we had during this period was that we should express no opinion on this issue

27) *New York Times*, "Confrontation in the Gulf: Excerpts From Iraqi Document on Meeting With U.S. Envoy," September 23, 1990.  
[<http://www.nytimes.com/1990/09/23/world/confrontation-in-the-gulf-excerpts-from-iraqi-document-on-meeting-with-us-envoy.html?pagewanted=print&src=pm> 20121207]

and that the issue is not associated with America. James Baker has directed our official spokesmen to emphasize this instruction. We hope you can solve this problem using any suitable methods via Klibi or via President Mubarak. All that we hope is that these issues are solved quickly. With regard to all of this, can I ask you to see how the issue appears to us?"<sup>28)</sup>

"This will enable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contribute to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by acting as a balancing force and prevent the emergence of a vacuum or a regional hegemon."<sup>29)</sup>

그러나 동시에 사담 후세인은 아래 위크리크스(WikiLeaks)가 공개한 바와 같이 미국이 이라크 정권을 해치려는 자들을 장려하는 등 이라크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SADDAM SAID HE UNDERSTANDS THAT THE USG IS DETERMINED TO KEEP THE OIL FLOWING AND TO MAINTAIN ITS FRIENDSHIPS IN THE GULF. WHAT HE CANNOT UNDERSTAND IS WHY WE ENCOURAGE THOSE WHO ARE DAMAGING IRAQ, WHICH IS WHAT OUR GULF MANEUVERS WILL DO."<sup>30)</sup>

## VI. 요약 및 결론

28) *New York Times*, "Confrontation in the Gulf: Excerpts From Iraqi Document on Meeting With U.S. Envoy," September 23, 1990.

[<http://www.nytimes.com/1990/09/23/world/confrontation-in-the-gulf-excerpts-from-iraqi-document-on-meeting-with-us-envoy.html?pagewanted=print&src=pm> 20121207]

29) *New York Times*, "U.S. STRATEGY PLAN CALLS FOR INSURING NO RIVALS DEVELOP," By PATRICK E. TYLER, March 08, 1992.

[<http://www.nytimes.com/1992/03/08/world/us-strategy-plan-calls-for-insuring-no-rivals-develop.html?pagewanted=all&src=pm> 20121209]

30) Jason Ditz, "Glaspie Memo Leaked: US Dealings With Iraq Ahead of 1990 Invasion of Kuwait Detailed," *Antiwar.com*, January 02, 2011.

<http://news.antiwar.com/2011/01/02/glaspie-memo-leaked-us-dealings-with-iraq-ahead-of-1990-invasion-of-kuwait-detailed/>

## 참고문헌

- 금상문, 1991. “걸프전후 미국의 위상 및 아랍세계 - 아랍권 내에서도 입지가 약화된 팔레스타인,” 『한국논단』, Vol. 20, pp. 46-53.
- \_\_\_\_\_, 2006.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 결정메카니즘 연구: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서울: 학술정보.
- 김남국, 2007.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구조와 행위자”, 『韓國政治論叢』, 제47집 1호. pp.259-81.
- 김재천·조용규, 2006.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Grand Strategy)과 미국의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국제정치논총』, Vol. 46, No. 3, 2006.9, pp. 169-188
- 김현진, 2004.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신국제질서: 전망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남궁영, “에너지 안보 : 중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권 제1호, 2007.
- 문정인, “걸프전쟁과 아랍 및 세계질서의 재편 : 그 비판적 평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7권 제2호, 1991.
- 박준혁, 2007. “미국 예방공격의 결정적 요인: 북핵 위기와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51호. pp.138-69.
- 백성주, 1988. “8년전쟁 이란-이라크 전 페르시아만에 평화는 오는가,” 『통일한국』, 1988년 8월호(통권 제56호), 1988.8, pp. 8-14
- 송무현, 박찬국, 2009. “이라크 석유법을 통해본 자원 개발 전망과 시사점”, 『韓國中東學會論叢』, 第29-3號. pp.79-109.
- 안병진, 2003.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논리: 힘과 공포의 정치학”,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2호. pp.175-91.
- 여영무, 1990. “이라크의 전쟁도박과 다국적군의 대응,” 『통일한국』, 1990년 9월호(통권 제81호), 1990.9, pp. 22-27.
- 윌리엄 앵달(서미석 역), 2007. 『석유 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체제와 그 메커니즘』, 서울: 출판사 길.
- 유정렬, “분쟁의 기원연구 : 걸프 전쟁의 경우”,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2권, 1991.
- 이대근, 1988. “中東石油經濟의 構造的 特質”, 『사회과학』, pp.219-241.
- 이동선, 2009. “21세기 국제안보와 관련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적실성,” 『國際政治論叢』 제49집 5호, 2009.12, pp. 55-80.
- 이준범, 2005.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에너지 수급의 정치경제”, 『국제평화』, 제2권 제1호, 2005.
- 인남식, 2004. “이라크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향후 이라크 정치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평화』, 창간호. pp.241-48.
- \_\_\_\_\_, 2008. “이라크 석유법의 주요 쟁점과 국제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 여름.
- 장경룡, 2004. “미국의 이라크 공격 원인: 전망이론에 의한 설명”, 『정치·정보연구』, 제7권 1호. pp.89-112.
- 장성일, 2008.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제1차 걸프전쟁과 미국의 군사 개입,” 『에너지경제연구』, Vol. 7, No. 2, December 2008, pp. 245-271.

- 주수기, 2004. “미국 무력외교의 정책결정”, 『분쟁해결연구』, 제2권 제1호, 2004.
- 최성권, 1992.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중동국제질서,” 『사회과학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Vol. 19, 1992, pp. 75-107.
- Allawi, Ali A. 2007. *The Occupation of Iraq: Winning the War, Losing the Pea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Alnasrawi, Abbas. 2001. “Oil, sanctions, debt and the future – Iraq,” *Arab Studies Quarterly*, Fall 2001, Vol. 23, Iss. 4, pp.1-14.
- \_\_\_\_\_, 1994. *The Economy of Iraq: Oil, Wars, Destruction of Development and Prospects, 1950-2010*.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_\_\_\_\_, 1991. *Arab Nationalism, Oil,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pendency*,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 Black, Edwin. 2011. *British Petroleum and the Redline Agreement: The West's Secret Pact to Get Mideast Oil*, Dialog Press,.
- Blanchard, Christopher M. 2009. *Iraq: Oil and Gas Legislation, Revenue Sharing,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3, 2009.
- Bush, George W. *Decision Points*, New York: Crown Publishers, 2010.
- Crane, Kaith and others, 2009. *Imported Oil and U.S. National Security*. sponsored by the Institute for 21st Century Energy,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U.S. Chamber of Commerce, and co-conducted by the Environment, Energy,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within RAND Infrastructure, Safety, and Environment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 Center of the R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 Ditz, Jason. 2004. “Glaspie Memo Leaked: US Dealings With Iraq Ahead of 1990 Invasion of Kuwait Detailed,” *Antiwar.com*, January 02, 2011. Dobbins, James. 2004. “Who Lost Iraq?: Lessons From the Debacle,” *FOREIGN AFFAIRS*, Volume 86 No.5. pp.61-74.
- Engler, Robert. 1961. *The Politics of Oil: A Study of the Private Power and Democratic Direc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earon, James D. 2007. “Iraq's Civil War,” *FOREIGN AFFAIRS*, Volume 86 No.2. pp.2-13.
- Ferrier, Ronald W. 1982. *The History of the British Petroleum Company, Vol. 1: The Developing Years, 1901-193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Fletcher, Brian. 2004. “Cheney v.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Volume 28, Number 2, 2004, pp.605-615.  
[[http://www.law.harvard.edu/students/orgs/elr/vol28\\_2/fletcher.pdf](http://www.law.harvard.edu/students/orgs/elr/vol28_2/fletcher.pdf) 20100707]
- Foley, Kevin. 2003. “Interview: Abbas Alnasrawi,” University of Vermont, February 12, 2003. (<http://www.uvm.edu/~uvmpr/?Page=article.php&id=701> 2011년 1월 7일 검색)
- Fukuyama, Francis. 2006. *America at the Crossroads: Democracy, Power, and the*

- Neoconservative Legacy*, Yale University Press, 2006.
- Gause III, F. Gregory. 2011. *Saudi Arabia in the New Middle Eas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uncil Special Report No. 63, December 2011.
- \_\_\_\_\_. 2010.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Persian Gul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2005.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Gulf" in Louise Fawcett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Oxford: The University Press. 2005. pp. 263-274.
- \_\_\_\_\_. 2001. *Iraq and the Gulf War: Decision-Making in Baghdad*, Columbia International Affairs Online (CIAO), pp. 1-34.
- Gilpin, Robert.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ries), Basic Books, 1975.
- Greenspan, Alan. 2007. *The Age of Turbulence: Adventures in a New World*, Penguin Press HC.
- Hurst, Steven. 2010. *The United States and Iraq Since 1979: Hegemony, Oil and War*,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 Kalicki, Jan H. 2007. "Rx For "OIL ADDICTION": The Middle East And Energy Security," *Middle East Policy*, Vol. XIV No. 1. pp.76-83.
- Kellner, Douglas. *The Persian Gulf TV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2.
- Khadduri, Majid and Edmund Ghareeb. 2001. *War in the Gulf, 1990-91: The Iraq-Kuwait Conflict and Its Implic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halidi, Walid: "The Gulf Crisis: Origins and Consequences .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20, No. 2. (Winter, 1991), pp. 5-28.
- Lenczowski, George. 1990. *American Presidents and the Middle East*. Duke University Press. p. 130.
- Mahdi, Kamil. 2007. "Iraq's Oil Law: Parsing the Fine Print," *World Policy Journal*, Volume XXIV, No 2, Summer 2007.
- Maierov, M. 2007. "The United States: Under the Sign of Iraq," *International Affairs*. 2007, No.002 Vol.53.
- Muttitt, Greg. 2006.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mortgaging Iraq's oil wealth." *Arab Studies Quarterly* (ASQ), June 22, 2006.
- Al-Samara'i, W. (1997), *hatam al-bawaba al-sharqiyya* [The Destruction of the Eastern Gate]. Kuwait: dar al-qabas. quoted by Gause, F. Gregory, III.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Gulf" in Louise Fawcett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Oxford: The University Press. 2005.
- Stivers, William. 1982. *Supremacy and Oil: Iraq, Turkey and the Anglo American World Order 1918-1930*,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 Stork, Joe; Lesch, Ann M. : "Background to the Crisis: Why War?, *Middle East Report*, No. 167, On the Edge of War. (Nov - Dec., 1990), pp. 11-18.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1. 2981st Meeting. "Resolution 687 (1991)."

- (S/Res/687). 8 April. [www.fas.org/news/un/iraq/sres/sres0687.htm](http://www.fas.org/news/un/iraq/sres/sres0687.htm)
-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Multinational Oil Corporations and U.S. Foreign Policy – Report together with individual views,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International Petroleum Cartel, the Iranian Consortium and US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 Waltz, Kenneth 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Autumn, 1993), pp. 44–79.
- Washington Post*, 2007. “Greenspan: Ouster Of Hussein Crucial For Oil Security,” By Bob Woodward, September 17, 2007; A03.

## 중동 · 이슬람 문화의 다양성

좌장: 송경근 (조선대학교)

장소: K203

### I 발표1

옛 히브리어 사본에 나타난 성지지도 연구

발표: 최창모 (건국대)

토론: 이규철 (부산외대), 김종도 (명지대),  
안신 (배재대)

### I 발표2

중국 이슬람과 인권

발표: 황병하 (조선대)

토론: 황의갑 (부산외대), 김정명 (단국대),  
김수정 (부산외대)

### I 발표3

중세 종교 용어의 한국어 번역:  
『신비의 혀』읽기

발표: 신규섭 (한국외대)

토론: 이계연 (명지대), 임병필 (부산외대),  
윤용수 (부산외대)





## 발표1

# 옛 히브리어 사본에 나타난 성지지도 연구

최창모 | 건국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히브리 성지지도는 빠뜨릴 수 없는 유대문화의 일부이다. 성전멸망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귀향(歸鄉)의 꿈은 언제나 성서의 땅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으로 맞닿아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중세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히브리문서에서 성지의 지도와 지명은 삽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민속 예술가들의 소박하고 투박한 그림에서조차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지지도로 그렸지만 예술적인 재능은 미숙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으며, 고향을 멀리 떠나 신성한 곳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유대인의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적어도 히브리지도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그마저 성지의 지리적 이해와 지식은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히브리성서의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묘사한 최초의 히브리어 텍스트이다.: “너 인자야 토판(土版)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에스겔서4: 1). 성지지도는 탈무드 문학에서 성지와 관련한 지리적 정보를 설명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전통적인 지도제작 방식이 아닌 그림 형태로 히브리지도로 그렸다. 오로지 탈무드의 성서해석과 주해(註解)에 기초하여 유대인의 성서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성지지도에는 12지파의 경계, 도시, 산, 강과 호수, 탁월한 유대학자들의 무덤 등을 표시했다. 종종 온천이나 사해 같은 건강에 유익한 곳도 지도에 표시해 두었다.

본 논문은 유대인의 옛 히브리어 사본(Hebrew Manuscripts)과 인쇄본(Printed Books)<sup>1)</sup>에 나오는 주요 성지지도들을 찾아 등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제작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도에서

1) 참고. Leonard Singer Gold, A Sign and a Witness: 2,000 Years of Hebrew Books and Illuminated Manuscripts, New York: New York Public Library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본 논문의 제목이 ‘유대인의 문학에 나타난’ 지도(Maps in the Literature of the Jews)가 아닌 까닭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사용해 온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디시어, 라디노어, 유대-아랍어 및 여러 유럽어 등으로 쓴 문학에 등장하는 성지지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성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성서나 탈무드 등 히브리어 텍스트는 성지지도의 제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지도제작의 발달과 변화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히브리지도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기독교나 이슬람 역사에서의 성지지도 혹은 예루살렘지도의 발달사 연구와 한 축을 이루며, 유대문화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히브리 성지지도들

히브리 성지지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초보적인 수준의 그림지도요, 다른 하나는 제법 지도형태를 띤 지도이다. 전자는 주로 히브리성서나 랍비들의 주석서에 근거한 지리적 정밀성이 전혀 없는 선형(線形) 지도이며, 후자는 17세기에 들어와 주로 기독교 지도 제작자들의 지도를 복사하여 만든 지도 형태의 지도를 의미한다. 최초의 히브리 성지지도는 1233년경 라시(Rashi)의 『모세오경주석 *Rashi's Commentary of the Pentateuch*』에서 발견되며, 지도형태를 갖춘 최초의 히브리 성지지도는 1620년 짜디크(Zaddik)라 불리는 포르투갈 유대인이 기독교 지도제작자 아드리콤(Christian van Adrichom)의 라틴어 성지지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여 제작한 것으로써 최초의 인쇄본 지도이다.

### 동전에 새겨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도제작 이전의 성지 및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동전 등 몇몇 고고학적 유물에서 발견된다.: 예루살렘 성전의 외관은 기원 134년 바르 코크바(‘별의아들’) 반란때 주조된 동전의 한쪽 면에서 최초로 드러난다. [그림 1] 은으로 주조된 이 동전의 한 면에는 떠오르는 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앞면이 새겨있고, 다른 면에는 룰라브



[그림 1] Barkokhba-silver-tetradrachm, 134 AD

(lulav)와 함께 “예루살렘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글씨가 새겨져 있다.<sup>2)</sup>

한편, 2세기 랍비 아키바(Rabbi Akiva)는 아내에게 줄 ‘황금의 도시’를 마련했는데, 덧붙이기를 “예루살렘을 여기에 새겨넣었다.”고 했다.<sup>3)</sup>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장신구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탈무드의 한 랍비는 ‘한 면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다른 한 면에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새겨 넣은 동전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sup>4)</sup> 그런 동전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 또, 같은 랍비가 예루살렘의 그림이 조각된 금장식물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유대인 여자가 ‘황금의 예루살렘’ 혹은 ‘황금의 도시’라 불리는 거룩한 도시를 회상하며 화려하게 꽃 장식을 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데, 15세기 바르테누라의 랍비 오바다(Rabbi Ovadia of

2) 참고. Ya'akov Meshorer, *Coins from the Holy Land* 1, New York American Numismatic Soc., 2004.

3) *Mishina*, Shabat 6, 1. *Babli*, Shabat 29a; *Nedarim* 50a; *Jerushalmi*, Shabat 6, 1.

4) *Babli*, Baba Kama 97b.

Bartenura)는 이를 ‘예루살렘 같은 도시의 모양을 새겨 넣은 금장식물’이라고 설명하였다.<sup>5)</sup>

## 벽화와 팸플릿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미지

오늘날 시리아 동부의 유프라테스 한 기슭 두라-유로포스(Dura-Europos)<sup>6)</sup>에서 발굴된 3세기 유대인회당의 프레스코 벽화에는 성서의 여러 사건들을 설명하는 그림들—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지는 장면, 페르시아의 고위관리 하만이 비천한 유대인 모르도개를 말에 태워 안내하는 장면 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그려져 있다. 현재 이 프레스코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6세기에 만들어진 몇몇 히브리어 팸플릿에 등장하는 에레츠 이스라엘의 신성한 사당들(sacred shrines)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 성스러운 흙에 묻힌 조상들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성지에 묻혀 있는 족장들이나 예언자들의 무덤에 대한 그림은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어 갈 수 없는 유대인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적합한 표현방식 중 하나였다.<sup>7)</sup>

이후에 제작된 히브리어 팸플릿에서도 성인들의 무덤과 그것이 위치한 도시에 관한 그림이 자주 등장한다.: 히브리성서에 나오는 ‘전통적인 성인들’(traditional saints)인 족장이나 예언자들의 무덤은 물론 점진적으로 숭배대상(sainthood)이 되어 간 여성 조상들—라헬, 디나, 에스더 등—을 비롯하여, 탈무드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성인들’(historical saints)인 유명한 랍비들—산헤드린, ‘의인’ 시몬(Simon the Just), 랍비 시몬, 힐렐(Hillel), 랍비하나나 벤 도사(Rabbi Hanina ben Dosa) 등—의 무덤 역시 그림에 자주 묘사되곤 했다.<sup>8)</sup>

### (1) 선형지도들

#### 솔로몬 벤 이삭의 성지지도(1233년)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히브리 성지지도는 1233년경 랍비 솔로몬 벤 이삭(Rabbi Solomon ben Isaac)의 『모세오경주석 *Rashi's Commentary of the Pentateuch*』에서 발견된다.<sup>9)</sup> ‘라시’(Rashi, 1040-1105년)로 불리던 프랑스 트로이(Troyes) 태생의 그는 독일 마인츠 탈무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1070년에 랍비학교를 세웠다. 그가 죽은 후 이 학교는 서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탈무드 연구의 센터가 되었다. 그의 성서 주석 및 탈무드 주해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라시의 지도는 그 후 여러 사본—오토만 시대

5) Zev Vilnay, *The Holy Land in Old Prints and Maps*, Jerusalem: R. Mass, 1963,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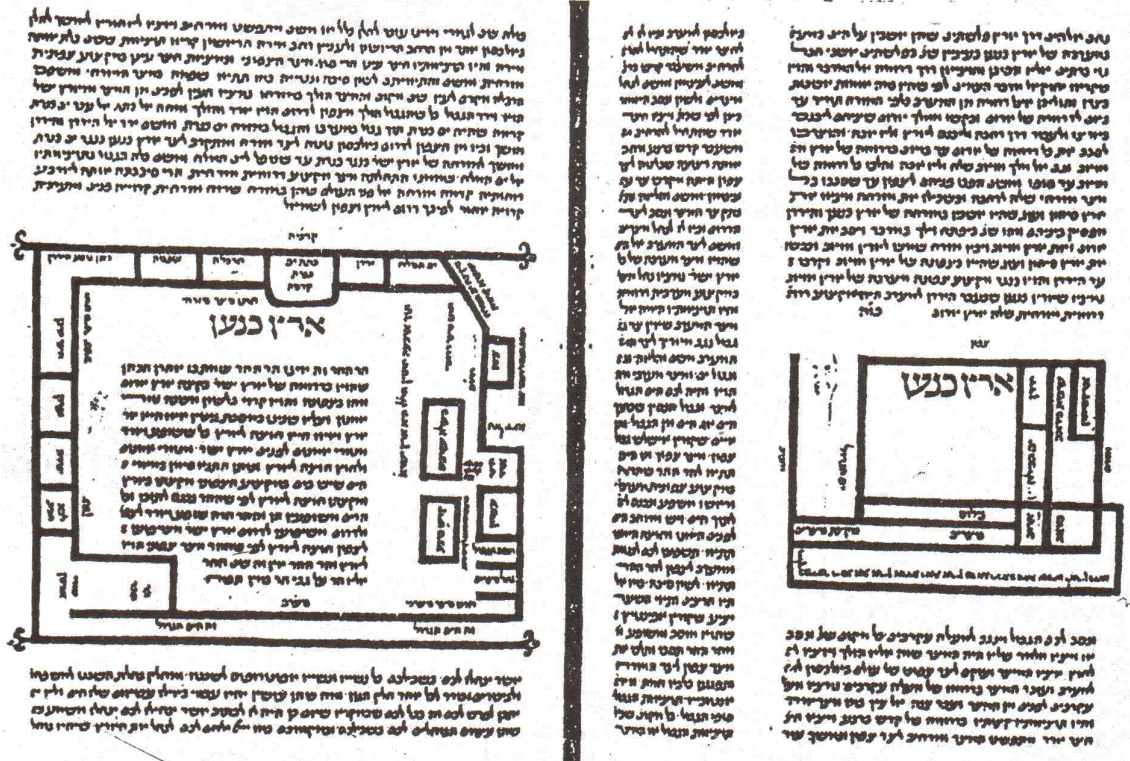
6) 참고. Bernard Goldman, ed., *The Discovery of Dura-Europo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7) Zev Vilnay, *The Holy Land in Old Prints and Maps*, Jerusalem: Rubin Mass., 1965, p.XXXIV.

8) 중세유대인의 성인숭배와 이슬람에서의 그것에 관해서는 Josef W. Meri, *The Cult of Saints among Muslims and Jews in Medieval Sy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를 참조할 것.

9) ‘라시’의 성지지도에 관해서는 Mayer I. Gruber, “What happened to Rashi's pictures?” *Bodleian Library Record* 14:2(1992), Pp.111-4; idem, “Light on Rashi's diagrams from the Asher Library of Spertus College of Judaica,” *The Solomon Goldman Lectures* 6(Chicago, Spertus College of Judaica Press, 1993), Pp.73-5; idem, “Notes on the diagrams in Rashi's Commentary to the Book of Kings,” *Studies in Bibliography and Booklore* 19(1994), Pp.29-1; idem, “The sources of Rashi's cartography,” in *Letters and Texts of Jewish History*, ed. Norman Simms(Hamilton, NZ, Outrigger Publishers, 1998), Pp.61-7; idem, “Rashi's map illustrating his Commentary on Judges 21:19,” *Proceedings of the Rabbinical Assembly* 65 (2004), Pp.135-1; Catherine Delano-Smith and Mayer I. Gruber, “Rashi's legacy: maps of the Holy Land,” *The Map Collector* 59(1992), Pp.30-5.등을 참조할 것.

의 랍비 엘리야 미즈라히(1527년)와 폴란드의 아브라함 야페(1603년) 등-에서도 발견되는데,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1475년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그의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히브리어 인쇄본 책(the first printed Hebrew book)이며, 현재 이 책은 뮌헨 국립도서관(Bayerische Staatsbibliothek, Munich: Cod.Heb.5Fol. 140, 70×82mm)에 소장되어 있다. [W. 1]



그는 민수기 33-3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עֲנַק קְרָא)의 경계를 기초로 같은 페이지에 두 개의 성지도도를 그렸다. 왼쪽 지도는 동쪽을 지도의 위로 향하게 했다. 하단에 *yam hagadol*, 즉 대해(지중해)를 남북으로 그려 넣었고, 상단에 요단강이 기네렛(갈릴리) 호수와 사해로 흐르도록 했다. 상(上)요단강과 기네렛 사이에 슈와마(Shwama)와 하르벨라(Harbela)라는 도시를 배치했다. 지도의 왼편(북쪽)에는 호르산(Mt. Hor), 레보하마트(Lebo Hamath), 지프로나(Ziphrona)를, 아래편(남쪽)에는 나일(Nile), 아즈몬(Atzmon), 하자르-아다르(Hazar-Adar), 지나(Zina), 마알레 아크라빔(Maaleh-Akrabim)을 사각형 선으로 표시해 넣었다. 지도의 중앙에 *Eretz Canaan* ('가나안땅')을 크게 써 넣었다. 지도 안에는 14줄의 히브리어 텍스트를 써 넣었는데, 아론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호르 산에 묻혔다는 설명이다. (텍스트에서는 호르 산이 남쪽이라 설명하면서 지도상에는 북쪽에 나온다.)

오른쪽 지도는 북쪽이 지도의 위를 향하고 있다. 대해가 왼쪽에 북에서 남으로 그려져 있고, 남쪽에는 모압, 에돔, 이집트와 나일강이 있다. 요단강과 사해는 시혼과 함께 동쪽에 있다. 지도 중앙 빈 공간에 에레츠 가나안이라 써 놓았다.

### 익명의 성지도도(1340년)

비엔나 국립도서관(O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Vienna) 소장인 14세기 『Torah, Five Megiloth』, 즉 모세오경(토라)의 주석서에 삽입된 토라 두루마리 모양을 띄고 있는 성지도도



중앙에는 *Eretz Yisrael*, 즉 이스라엘 땅이라 이름 했다. [W3a] 고대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매우 원시적인 모양의 이 지도에는 약간의 장식이 들어 있는데, 바다는 물결모양으로 장식했고, 두루마리 막대기는 파배기모양의 기둥으로 장식했다.

남쪽을 지도의 위로 두었고, 오른쪽(남쪽)에 세 마리의 고기가 놓고 있는 *yam hagadol*, 즉 대해(지중해)를 그렸다. 대해 남쪽에 나일 강과 이집트를 두었다. 동쪽 맨 위에 물결모양의 사해가 자리하고, 바로 그 아래 여러 개의 물줄기 모양을 하고 있는 요단강이 있고, 그 아래 역시 물결모양으로 장식했으나 기네렛 바다(갈릴리호수)라는 이름은 진작 지도안쪽에 써 넣었다.

세 개의 반원이 그려져 있는 지도의 아래쪽(북쪽)은 호르산이 표시되어 있으며, 반원으로부터 가까운 왼쪽 방향으로 *Jontichi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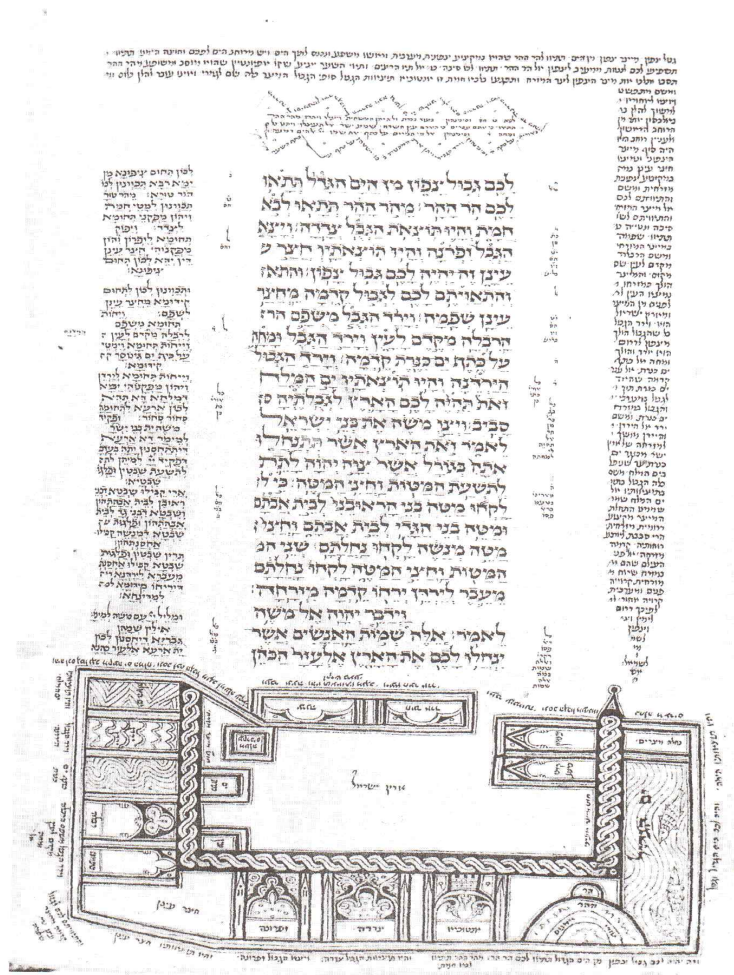
*Jandara*, *Ziphrona*, *Hazar-Enan*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남쪽으로는 *Zina*, *Hazar-Adar*, *Azmon*, *Kadesh-Barnea* 등의 지명이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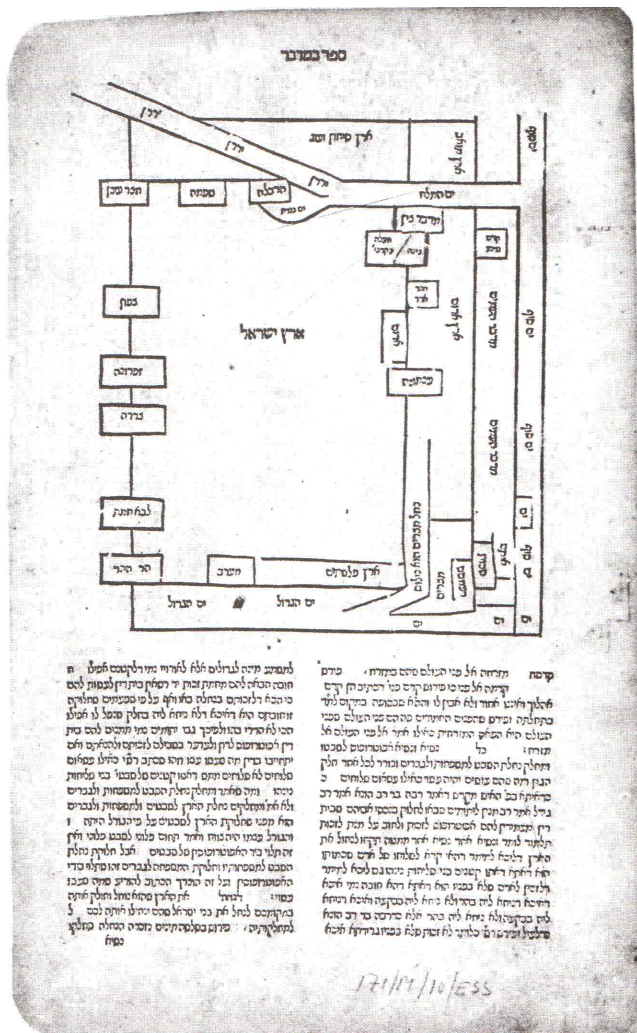
지도 주변으로는 히브리어성서의 구절이 쓰여 있는데, 민수기 34장 3-6절이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예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가 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 엘리아 벤 아브라함 미즈라히의 성지지도(1527년)

오토만시대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엘리아 벤 아브라함 미즈라히(Elia ben Abraham Mizrachi, ca.1450-1526)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태어나 랍비 엘리아 하레비(Rabbi Elijah Halevi)같은 유명한 선생에게서 배웠다. 탈무드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학 등 세속과학을 배웠고, 아랍어와 그리스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모세 카프살리(Moses Capsali, 1495년 사망)의 뒤를 이어 오토만제국의 *Hakham Bashi*, 즉 '최고랍비'(Grand Rabbi)가 되어, 모든 공식회의





에 그를 파견하곤 했다. 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재판소의 박해를 피해 많은 유대인들을 터키로 이주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W 8] 그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과 저술활동에 전념한 바, 『*Sefer ha-Mizrachi*』, 즉 라시의 모세오경 주석에 대한 미즈라히 주해를 완성했다. 그의 책은 사후 아들에 의해 1527년에 베니스에서 출판되었는데, 16세기 랍비성서주석 역사에 금자탑을 세웠다. 이책에 삽입된 그의 성지도는, 라시의 성지도(1233년)를 모사하여 만든,<sup>10)</sup> 최초의 목판 인쇄본으로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와 민수기에 언급된 지명들이 표기되어 있다.

관련된 텍스트에 근거하여 개략적인 윤곽만을 직선으로 표시한 이 성지도는 경도와 위도의 등위(等位)가 표시된 천문학적 관찰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정밀성과는 거리가 멀다. 민수기 34장에 근거한 성지의 경계를 윤곽으로 드러낼 뿐 어떤 예술적 요소도 배제된 채 여백을 많이 남겨두고 있다.

매우 원시적인 방식의 선형지도 중앙에는 에레츠 이스라엘이라 썼고, 동쪽을 위로 향하도록 했다. 서쪽에 대해(지중해)가, 남쪽에 나일 강이 지중해로 흐른다. 남쪽 이스라엘 땅 접경지대에 *yam suf*, 즉 갈대바다(홍해)가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과 이어진 사해와 연결되어 있다. *yam chinnereth*, 즉 기네렛 호수(갈릴리바다)는 반원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요단강이 흘러 사해로 가기 전에 위치한다. 호수 옆에는 하르벨라(Harbela)라 부른 도시가 있는데, 이는 민수기 34:3-6에서 기원한다.

지도의 오른쪽(남쪽)에는 에레츠 이스라엘과 홍해 사이에 *midbar haanashim*, 즉 ‘백성들의 광야’가 있으며, 광야 동쪽 끝에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가 있고, 그 주변 이스라엘 땅 근처에 하자르-아다르(Hazar-Adar), 에돔(Edom), 아츠모나(Atzmona) 등이 나온다. 남서쪽 구석에 이집트가 있는데, 람세스, 수곳, 이탐 등이 나오고, 남쪽의 대해와 에레츠 이스라엘 사이에는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다. 이후 이 지도는 여러 복사본이 만들어 지는데, 1863년 복사본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추가하여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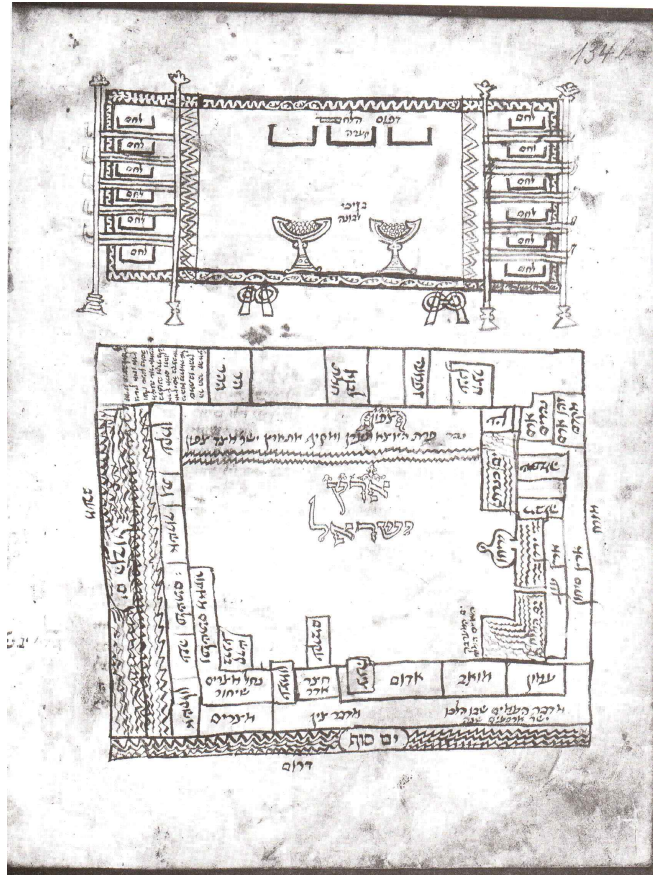
10) Ariel Tishby, "Maps after Commentaries by and on Rashi," in *Holy Land in Maps*, ed., Ariel Tishby, Jerusalem: The Israel Museum, 2001, Pp.116-119.



### 익명의 성지지도(16세기)

베를린 퀘니글 도서관(Konigl Bibliothek, Berlin) 소장의 16세기 작자 미상의 히브리어사본에 나오는 이스라엘 성지지도는 직선과 지그재그 형의 선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쪽을 위로 두고 있다. 물결모양의 지그재그 형 선을 사용하고 있는 지도의 네 면에 각각 바다와 강을 배치하고 있다. 북쪽에 유프라테스를, 남쪽에 홍해와 나일 강을, 서쪽에 대해를, 동쪽에 갈릴리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를 각각 그려 넣었다. [W 15]

강이나 바다를 끼고 지도 안쪽으로 지명이나 지역이름을 두고 있는데, 북쪽에 호르 산과 리보 하맛, 지프로나, 하자르 에난을 두어 히브리민족이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떠돌던 시절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남쪽에 하자르 아다르, 에돔, 모압, 암몬 등을 두었고, 서쪽에 아스글론, 가자, 아스돗, 갓, 에글론 등 블레셋의 다섯 도시를 두었고, 동쪽에 원형의 여리고를 비롯하여 리바, 세팸, 시리아 등을 두었다. 이 지도에는 아론이 죽어 장례 치른 호르 산이 북쪽에 두는 등 지리적 사실과는 매우 어긋나는 등 성지의 지리적 사정에 무관심한 점이 잘 드러난다.



### 랍비 모르도개 벤 아브라함 야페의 성지지도(1603년)

프라하 태생의 랍비 모르도개 벤 아브라함 야페(Rabbi Mordechai ben Abraham Jaffe, c.1535-1612년)는 폴란드 탈무드학교에서 공부한 카발라주의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이다. 프라하 예쉬바의 교장을 역임하며 지역유대공동체에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561년 보헤미아에서 유대인 추방이 시작되자 그는 베니스를 거쳐 리투아니아로 가서 그로드노 예쉬바(Grodno Yeshivah)의 교장이 되었다. 후에 폴란드의 루블린(Lublin)으로 가서 가르쳤다. 당시 그로드노와 루블린은 가장 탁월한 탈무드 연구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다.

1592년 보헤미아 귀향이 허가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유다 로에브(Judah Loeb)이 포센(Posen)을 떠난 후 포센의 최고랍비가 되었다.

그가 50년에 걸쳐 쓴 10권짜리 책 『Levushim』은 유명하다.<sup>11)</sup> ‘거룩한 날’(절기)에 지킬 유대 법(Jewish Law)에 관한 책인데, 히브리성서에 나오는 여러 절기를 비롯하여 결혼식 등 각종 명절과 행사에 지켜야 할 법도를 토라에 입각해서 해석해 주고 있다. 매 책의 시작은 “재단사가 말하기를”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는 매 유대인에게 알맞은 의복을 지어 입히듯이 까다

11) 본인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Bodleian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을 Special Collection Reading Room에서 직접 확인한바 있다.

로운 유대 법을 맞춤식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1590년 초판본에 들어 있는 이 성지지도는 1604년 루블린에서, 그리고 1860년 프라하와 크라코브에서 각각 재판되어 나온다. [W 16]



다른 히브리어 성지지도들과는 달리 이 지도는 24줄의 텍스트를 가운데 두고 가장자리에 장식 지도를 그려 넣었다. 텍스트에서는 12지파가 소유한 땅의 경계와 그들의 도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지도는 기본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모든 정보는 히브리성서와 주석서에서 참고한 것들이며, 지리적 사실과 지식은 매우 빈약한 것에 불과하다.

지도 상단 오른쪽에 *eretz yisrael*, 즉 이스라엘 땅이라 새긴 지도에서 바다에는 배가 떠다니고 건물들은 성채와 탑으로 표현했다. 작은 도시들은 작은 건물로, 큰 도시는 큰 건물로 구분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는 서쪽에 대해, 남쪽에 *nahal mitzrayim*, 즉 이집트 강을 표시했고, 요단강이 사해

로 흘러 홍해로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키네렛 바다를 따로 구분하여 그렸다. 홍해 왼쪽에 시나이(Sinai)가 나오는데, 그 지역 일대를 *midbar amim*, 즉 '백성들의 광야'라 불렀다. 대해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작은 3개의 섬이 보인다. 사해 동쪽에 옥과 시혼이 나온다.

16-17세기에 유럽에서 제작된 기독교 성지지도들—Gerard Mercator(1537년), Wolfgang Wissenburg(1537년), Tilemann Stella(1552년) 등—이 사실적인 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점차 과학적인 지도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지지도는 아직까지 선형 지도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랍비 야콥 엠덴의 성지지도(17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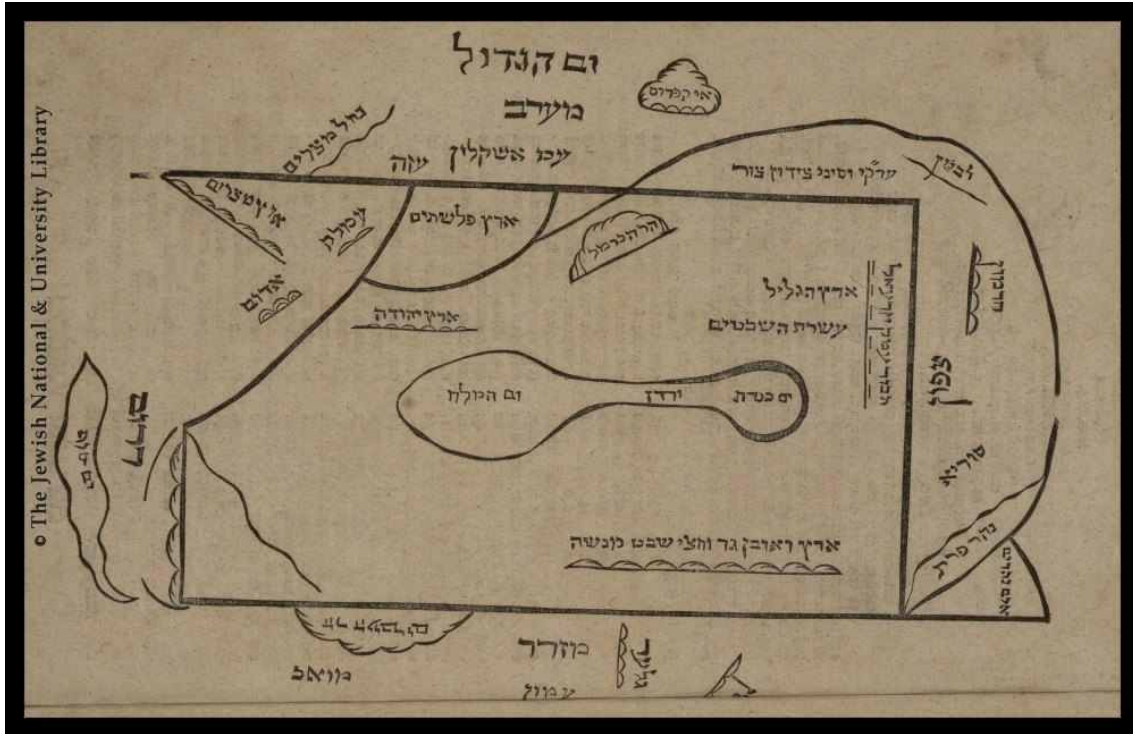
'야베츠'(Yavez, Yaakov ben Zvi)라 불리던 랍비 야콥 엠덴(Rabbi Yaakov Emden, 1697-1776년)은 할라카(Halacha)분야에 명성이 자자하던 카발리스트(Kabbalist)<sup>12)</sup> 학자이자 반-샤바티안(anti-Shabbatean) 논객이었다. 그는 독일어와 화란어와 라틴어에 능통한 유대문학자였으나 공식적인 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랍비 엠덴은 당대의 샤바티안(Shabbatean)<sup>13)</sup>의 영적 지도자이자 랍비 요나단 이베슈츠(Rabbi Jonatan Eybeschütz)와 갈등 속에서

12) 카발라주의자는 랍비유대교의 신비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일군의 제자들과 학파를 칭한다. 영원한 조물주와 유한한 피조물 사이의 밀의적(esoteric) 관계를 중시하는 가르침으로써 전통적인 히브리성서 바깥에 존재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유대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주와 인간의 본성, 존재의 본성과 목적 등 다양한 존재론적 물음에 관해 답하고 있다.

13) 샤바티안(Sabbateans 혹은 Sabbatians)은 일반적으로 샤바타이 쯔비(Sabbatai Zevi, 1626-1676)를 따르는 일군의 무리를 지칭한다. 샤바타이는 1665년에 가자의 나탄(Nathan of Gaza)에게서 유대



평생을 보냈다. [W 33] 그의 아들 솔로몬(Rabbi Meshullam Solomon)은 영국의 최고랍비(1765-1780)를 지냈다.



1765년 암스테르담에서 출간한 『Mor uKeziah』에 삽입한 이 지도는 지금까지의 여타 지도와는 모양이 매우 다른 형태의 지도이다. 선형(線形) 대신 곡선(曲線)을 주로 사용해서 지도를 그렸다. 서쪽을 지도의 위로 향하도록 하였고, 지도 상단에 키프로스 섬을 배치했다. 이집트와 나일 강이 대해(지중해)의 남쪽에 놓이고, 대해의 항구도시들-가자, 아스글론, 갈멜 산, 악고, 시돈, 주르(두로) - 이 자리한다.

지도 중앙에 바이올린 모양의 사해와 기네렛 바다가 요르단 강을 통해 연결되고, *eretz yehuda*(‘유다 땅’)와 *eretz hagali*(‘갈릴리 땅’)이 표시되어 있고, 요르단 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의 ‘루우벤, 갓 및 므낫세 반지파’와 서편의 ‘10지파’를 각각 표시했다.

큰 사각형 바깥에는 북쪽에 레바논, 헤르몬산, 시리아, 유프라테스, 아람(Aram), 나하라짐(Naharajim)을, 동쪽 에모압, 암몬, 길르아, 바산(Bashan)을, 남쪽에 *yam suf*(홍해), 에돔, 아말렉, 이집트를, 그리고 서쪽 대해 한복판에 키프로스 섬을 각각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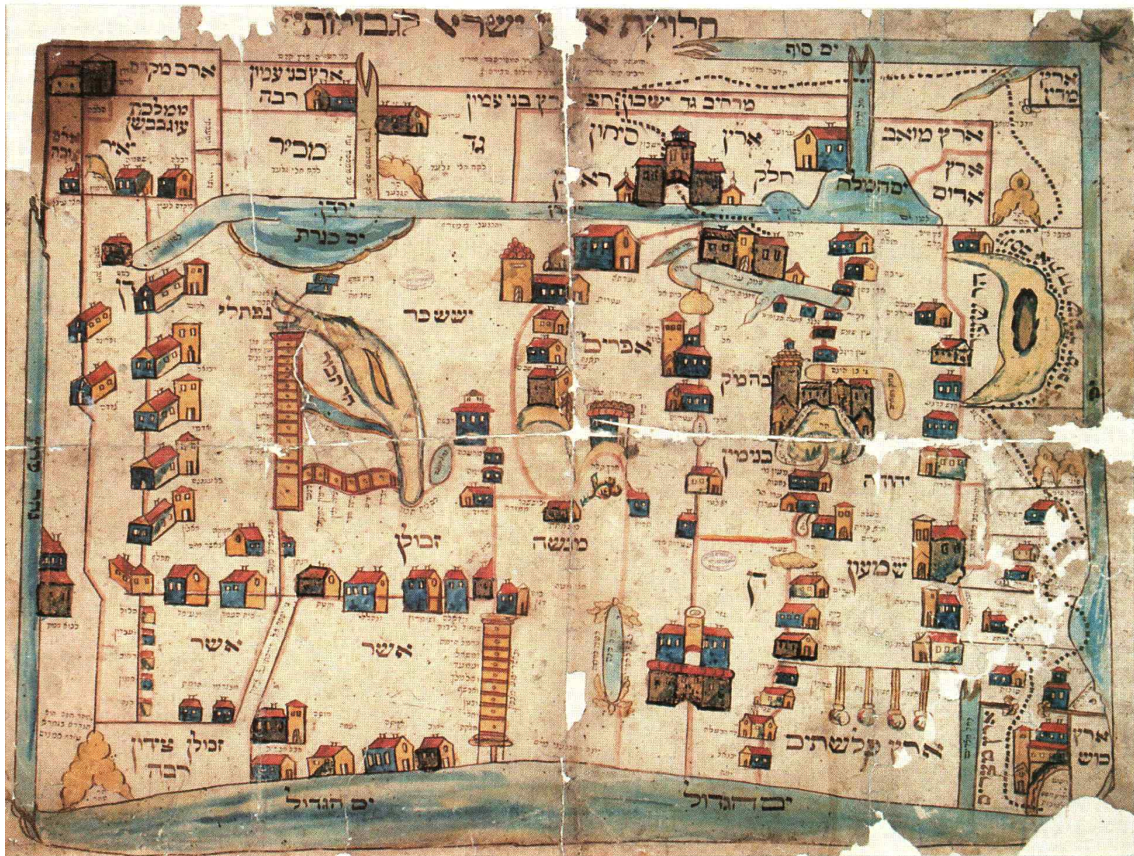
#### 랍비 엘리야후 벤 솔로몬 잘만의 성지지도(1802년)

빌라의 가온(Gaon of Vilna) 랍비 엘리야후 벤 솔로몬 잘만(Rabbi Eliahu ben Solomon Zalman, 1720-1797년)은 근대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탁월한 영적·지적 지도자였다. 그는 독학으로 히브리성서, 미쉬나, 카발라에 능통했으며, 탈무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대수학(algebra), 천문학, 지리학, 기하학 등을 섭렵했다. 당시유행 하던 하시디즘(Hassidism)<sup>14)</sup>을

메시아로 칭해졌는데, 1666년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함에 따라 배교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유대신비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에 대한 기대를 고무시킴으로써 당시 유대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샤바타이 추종자들은 "Maaminim"(believers), "Haberim"(associates), 그리고 "Ba'ale Milhamah"(warriors) 등 세 그룹으로 나뉜다.

반대함으로써 빌라를 반하시딴 운동의 중심으로 삼았다. 1783년 랍비 잘만은 성지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제자들만 성지에 가고 그는 결코 도착하지는 않았다. 70여 편의 작품과 주석서를 쓴 그와 그의 가르침은 19-20세기에 리투아니아공국을 넘어 여러 유대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802년에 출판한 그의 책 『*Tsurot Ha'aretz Ve'gvuloteiha*』(땅의 형태와 그의 경계들)에 들어 있는 3개의 컬러지도 중 하나인 *Eretz Yisrael*은 잘만 자신의 이름이 만든 제법 큰 지도(180×465mm)이다. [W 50] 동쪽을 위로 두고있는 이 지도는 대해가 지도 아래(서쪽)에 위치한다. 지도를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데, 요르단강이 반원모양의 기네렛 호수에 흘러 들어가고, 다시 사해로 흐르는데, 사해는 홍해와 연결된 것으로 나온다. 홍해는 *kush*, 즉 에티오피아와 연결되고, 이는 다시 이집트 나일 강과 통해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을 하고 있다. 점선으로 그려진 루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백성이 지나간 곳에는 집과 탑 같은 상징들로 꾸몄다.



이스라엘 땅은 지파들의 소유에 따라 나누었고, 탑과 굴뚝이 달린 서로 다른 집 모양들로 도시를 구분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모리아산, 종탑이 높게보이며, 세겜, 베이트호론, 쇼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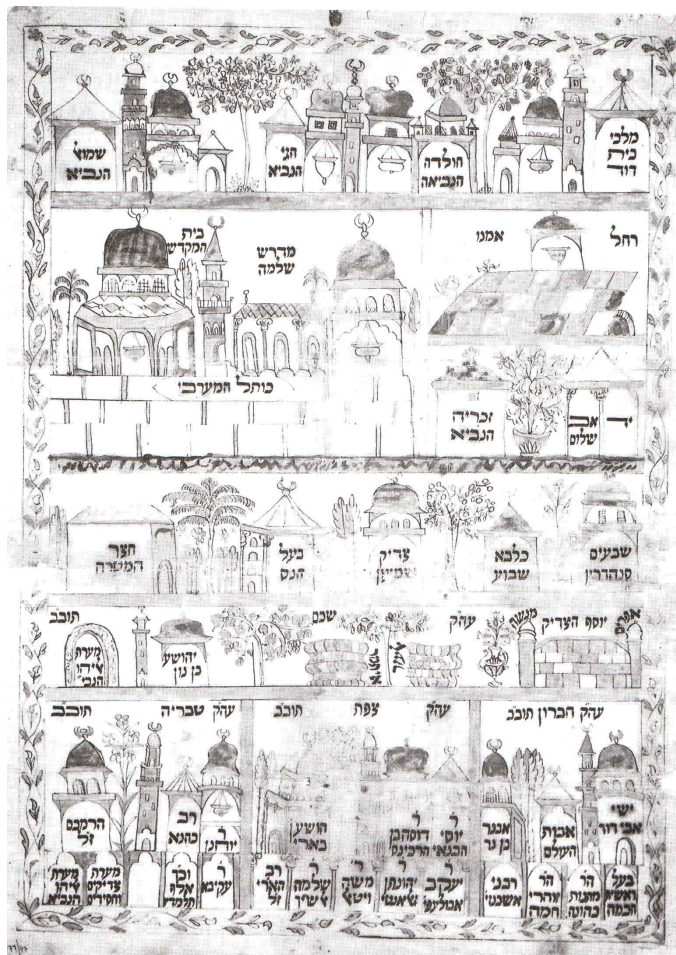
14) 하시디즘(Hasidism)은 히브리어 ‘하시드’(‘경건’)에서 유래한 말로 유대신비주의의 내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성과 기쁨을 강조하는 정통파 유대교의 한 가지이다. 지나친 율법주의 유대교(legalistic Judaism)에 대항하여 18세기 동유럽에서 랍비 이스라엘 바알 쉘 토브(Rabbi Israel Baal Shem Tov)에 의해 시작되었다. 신성(神性)을 내면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 이웃에 대한 친절한 행동과 기도를 통해 — 지도력이 숭배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학자적인 엘리트주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기존의 정통파 유대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론, 나할랄 등의 큰 도시가 나타난다. 모리아 산에는 작은 글씨로 ‘시온이 여부스이자 예루살렘’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사닥다리 모양의 선 안에 있는 집들은 각 지파 내에 속한 여러 도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수채화로 그린 익명의 성지지도(1865년)

대표적인 선형 그림지도로는 다른 종류의 꽃과 나무로 장식한 다양한 모양의 건물들을 크게 5층으로 구성하여 수채화로 그린 익명의 성지지도가 있다. [W64] 맨 꼭대기와 두 번째 줄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과 예언자들의 무덤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 3줄에는 유대교 전통에 등장하는 성인들의 무덤들이 이어져 나온다.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건물 대부분에는 초승달이 새겨져 있어 지도제작자의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종교적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맨 위줄 오른쪽에서부터 다윗의 계보, 예언자 홀다, 학개, 사무엘의 무덤이 각각 나무사이에 건물과 함께 그려져 있다.

두 번째 줄에는 라헬의 무덤, 압살롬과 예언자 스가랴의 무덤이 *midrash shilom*(‘솔로몬의학교’)라 이름 붙은 엘-악사 사원과 *beit hamikdash*(‘성전’)이라 이름 하는 바위사원 옆에 차례로 나온다. 두 사원아래에는 *kotel hamaarabi*(‘통곡의 벽’)이 있다.

세 번째 줄에는 70인의 산헤드린의 무덤들이 나온다. 로마시대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자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의원들 중 랍비 아키바의 장인이었던 칼바 사부아(Kalba Savua), 그리스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의로운 시므온(Simeon the Just), 메이르 바알 하네스(Meir Ba'al Hanes),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갇혀 있던 왕궁의 근위대 뜰(예레미야서32: 2) 하

자르 하맛토라(Hazar Hamatorah)가 각각 그려져 있다.

네 번째 줄에는 세겔 주변에 묻혀 있는 유명인사들의 무덤이 그려져 있는데, 한가운데에 요셉 하짜디크(Joseph Hazaddik)의 무덤이, 양 옆으로 예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둥이 서있고, 대제사장 엘라자르(Eleazar)와 이타마르(Ithamar)와 여호수아 벤 눈(Jehoshua ben Nun),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의 동굴이 새겨져 있다.

가장 아래의 다섯번째 줄에는 헤브론, 사페드(Safed), 티베리아 등 당대 유대교 학문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의 이름이 구획을 나누어 나오는데, 그 밑에 각각 유명인사의 무덤을

새겨 넣었다.: 먼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Ishai)의 무덤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무덤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 사제였던 바알 레즈쉬-호크마(Ba'al Rejshi-Chochma),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쉬케나지 랍비들의 무덤이었다.: 다음 사페드에는 랍비 요시 하바나이(Rabbi Jossi Habanai), 도사 호르케노스(Dosa Horkenos), 호세아 벤 베리(Hoshea ben Beeri), 야곱 아불라피아(Jacob Abulaphia), 여호나단 샬란티(Jehonatan Shalanti), 비탈모세(Vital Moses), 알셰이크 쉘로모(Alsheikh Shlomo), 랍비 이츠חק 루리아 벤 솔로몬(Rabbi Itzhak Luria ben Solomon) 등이 등장한다.: 왼쪽에 티베리아에는 랍비 요하난(Rabbi Johanan), 카파네(Cahane), 모세 벤 마이몬(Moses ben Maimon), 아키바(Akiba)와 (역병으로 희생된) 40,000명의 제자들 등의 무덤과 거룩한 동굴 및 엘리야의 동굴 등이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중세 이후 유대교 신비주의의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zaddikim*, 즉 ‘의인들’ 혹은 *hasidim*, 즉 ‘성인들’의 무덤순례를 반영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절기에 유명한 학자나 예언자들의 무덤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었던 시대에 성서 시대의 왕이나 예언자들로부터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무덤들을 총망라하여 그려 책에 끼워 넣음으로써 유대인 성지 순례자를 비롯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sup>15)</sup>

## (2) 그림지도

### 이탈리아 만투아에서 제작된 히브리 성지지도(1560년대)

1991년에 한스 야곱 하그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는 스위스 주리히의 중앙도서관(Zentralbibliothek)에 소장된 목판 인쇄된 히브리 성지지도는 지금까지의 유럽에 알려진 ‘라시’의 선형지도들과, 또 앞으로 논의할 지도형식을 갖춘 ‘복사’ 지도들과 형태나 내용 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되는 유일한 지도로서 16세기 중후반 이탈리아 만투아(Mantua)에서 제작되었다.<sup>16)</sup> [지도, 루빈의 논문 35-36쪽]

15) 유대교의 성인숭배(cult of saints)에 관해서는 주8)를 참조할 것. 특히 유대교에서의 ‘성인’(saint)의 개념에 관해서는 같은 책 62-66쪽을, 유대인의 성인참배 순례에 관해서는 214-250쪽을 참조할 것. 일반적으로 성서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루살렘 ‘순례’는 *aliyah*(‘올라간다’)라 하여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였으나, 기원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 더 이상의 알리야가 불가능해 지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중세이후 성인숭배가 하나의 종교적 대중신앙과 문화(popular religion and culture)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소위 *ziyara*(‘방문하다’)가 시작되었다. *지야라*라는 용어는 무슬림 세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이슬람의 전통에서 아랍어를 차용하여 만들었는데,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순례를 의미하는 *알리야*(아랍어 *hajj*)와 구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 성인들의 무덤 등을 찾아 참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유대교에서 ‘신의 능력을 소유한’ *zaddikim*, 즉 ‘성인들’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그들의 덕과 선행을 좇아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겼기 때문이다(Babli, Sanh. 65b, 93a).

16) 이 지도에 관해서는 Hans Jacob Haag가 세 편의 독일어 논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Hans Jacob Haag, “Hebräische karte des Heiligen Landes um 1560,” in *Zentralbibliothek Zürich, Schätze aus vierzehn Jahrhunderten*, Zürich: Zentralbibliothek, 1991, Pp.66-1, 173-4; idem, “Die vermutlich äteste bekannte hebräische Holzschnittkarte des Heiligen Landes(um 1560),” *Cartographica Helvetica* 4(1991), Pp. 23-6; idem, “‘Elle mas’e vene Yisra’el asher yatz’ ‘u me-eretz Mitzrayim: eine hebräische Karte des Heiligen Landes aus dem 16. Jahrhundert,” in *Jewish Studies between the Disciplines*, Judaistik zwischen den Disziplinen: Papers in Honor of Peter Schäfer on the Occasion of his 60th Birthday, ed. Klaus Herrmann, Margarete Schluer and Giuseppe Veltri, Leiden: Brill, 2003, Pp.269-8. 아울러 이 지도에 관해서 Ariel Tishby, “Anonymous, Italian?” in *Holy Land in Maps*, Jerusalem: The Israel Museum, 2001, Pp.120-21.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도제작의 콘텍스트(context)에 관

직사각형 모양의 만투아 성지지도는 동쪽이 위로 향하고 있는데, 남쪽에 이집트와시나이 사막을, 동쪽에 트랜스 요르단을, 북쪽에 시리아를, 서쪽에 지중해를 각각 그 경계로 두었다. 동서남북의방위(方位)는 지도의 여백에 히브리어로 표기해 놓았다. 각 지역은 특성별로 그림 형태로 구분했다. 지도 오른쪽에는 긴 히브리어 텍스트를 사각판자 모양에 기록했는데, 첫 줄에 “이집트 땅에서 나와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민수기33: 1)이라는 제목을 사실상 지도의 제목으로 새겨 놓았다. 텍스트 아래쪽에는 커다란 메노라(7가지 촛대)가 시편 36편 9절과 나란히 성서의 여러 구절이 나온다.

사각판자 안에 들어 있는 긴 히브리어 텍스트는 이 지도를 만든 이들과 지도의 기능을 포함하여 당시의 문학적·역사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부분이다. 여는 구절이 각각 3열, 9열, 13열, 18열, 24열, 30열에 나오는데, 이는 각각 시편114편, 115편, 116편, 118편으로부터 따온 것들이다. 이 시편들은 모두 할렐루야 시편인데, 제의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讚揚詩)이다.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는 성서 텍스트를 해석한 학자들과 지도를 제작한 예술가들과 지도제작을 후원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sup>17)</sup>

또한, 이 지도는 이집트, 시나이 사막, 약속의 땅 등을 성서시대의 역사적 관점에서 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흥미롭게도 몇 가지 지도제작자의 동시대의 정보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히브리성서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 지도의 하단의 오른쪽은 이집트에서 지중해까지를, 왼쪽은 베니스까지를 표시했다.<sup>18)</sup> 바다에는 몇몇 배들과 한 개의 섬이 보인다. 섬 이름을 탈무드에서 언급한대로 히브리어로 *nisim*이라 써 놓았는데, 이는 ‘라시’ 주석에서 민수기34: 6에 나오는 서쪽 해안선의 경계를 칭할 때 프랑스어로 ‘isles’라 했는데, 그리스어 νῆσος(*nesos*)를 잘못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람세스의땅’ 이집트가 있고 그 곳에 상세하게 출애굽 여정을 지명들과 함께 그려 넣었으며, 왼쪽에는 약속의 땅을 그렸다. 모든 성서지명들과 사건들은 작은 히브리어 글씨로 표시했는데, 광야를 떠도는 히브리민족들에 관해서 히브리어 텍스트와 어울리는 그림들을 함께 두었기 때문에 히브리성서에 익숙한 독자들은 마치 성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다.

지도상에서 각 지역의 경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 갈릴리바다, 사해이다. 이들은 약속의 땅과 트랜스 요르단을 구분 짓고 있다. 히브리성서가 이스라엘백성들이요단강을 건넌 곳이 여리고 근처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지도에서는 법궤가 갈릴리 바다 북쪽에 그려져 있다. 지도의 왼쪽에 설정된 약속의 땅의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하다. 요단강 물줄기 안에 ‘요단강은 대각선으로 흐른다.’는 히브리어 글씨가 보이는데, 이는 ‘라시’ 주석에 근거하여 만든 미스라히의 성지지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서쪽 경계는 대해인데, 바다 경계 지역에는 나무들을 그려 넣었다. 해안에 두로와 악고와 옹바가 표시되어 나오는데 이는 민수기의 지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투아 지도제작 당시 이탈리아 성지순례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도시들을 삽입해 놓은 것 같다. 남쪽 경계인 이집트와 에돔사이에도 나무들을 그려 넣었는데, 이 나무들은 히브리성서의 텍스트와는 무관

한 연구는 Rehav Rubin, "A Sixteenth-Century Hebrew Map from Mantua," *Imago Mundi* 62-1(2010), Pp.30-45.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 이 지도에 관해서는 루빈의 글을 주로 참조했음을 밝혀 둔다.

17) Rehav Rubin, "A Sixteenth-Century Hebrew Map from Mantua," *Imago Mundi* 62-1(2010), Pp.37-39,42.

18) 이 익명의 지도가 베니스와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Ariel Tishby, "Anonymous, Italian?" in *Holy Land in Maps*, Jerusalem: The Israel Museum, 2001, p.121.

19) Rehav Rubin, "A Sixteenth-Century Hebrew Map from Mantua," *Imago Mundi* 62-1(2010), p.34.

한 듯하며 왜 나무를 그려 넣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약속의 땅 자체에는 몇몇 지명들만이 확인 되는데,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싼 커다란 타원형 도시로 나온다. 한 가운데 바위 돔, 즉 오마르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성벽 바깥쪽에는 사무엘의 무덤, 엘리(Eli)와 스가랴의 무덤이 보이며, 북쪽으로는 원뿔 모양의 시온 산이 높은 바위 위에 서 있다. 예루살렘 성과 요단강 사이의 예루살렘 동쪽에는 커다란 원형의 미로로 표시된 여리고가 가장 돋보이며,<sup>20)</sup> 다른 곳에는 ‘베냐민의 땅’과 ‘유다의 도시’라는 표시가 있다. 예루살렘 서쪽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민수기13:23)이 큰 면적을 차지한 채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림으로 나온다. 히브리성서의 두 명 대신 지도에는 네 명이 포도송이를 메고 다른 네 명이 막대기를 들고 호위 또는 무언가를 막대기에 걸고 걷는 모습을 띤다. 이러한 차이는 ‘라시’의 주석에 언급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 것도 들지 않았으며, 여덟명이 포도송이를 메고, 한 명은 무화과를 다른 한 명은 석류를 메었다.”는 내용을 고스란히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sup>21)</sup>

앞서 일부 언급한대로, 이 만투아 지도제작자가 지리적·역사적인 지도제작에 참고한 텍스트 자료는 히브리성서와 탈무드뿐만 아니라 ‘라시’의 민수기 34장 주석과 미즈라히의 지도에서 언급한 내용 등을 주로 참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땅의 경계에 대한 기초적인 윤곽은 ‘라시’의 개략적인 언급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유럽의 성지순례자들이 출항하던 베니스가 지도의 왼쪽 코너에 섬으로 표시된 것은 지도제작자 자신의 관심과 동시대의 독자들을 의식한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초기 및 후기 히브리 성지지도와는 확연하게 다른 만투아 지도제작의 배경과 상황은 16세기 중엽의 이탈리아 유대공동체 내부 및 외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적어도 당시 북이탈리아, 특히 베니스와 만투아와 여타 도시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사회적·정치적 환경은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에는 몇몇 유대인 인쇄소가 있었는데, 일부는 기독교인 소유의 인쇄소에서 기술자로 일했으며, 일부는 유대인 자신들이 소유한 것이었다. 요셉 벤 야콥(Joseph ben Ya'acov) 같은 이는 베니스와 다른 도시에서 일한 손꼽히는 지도제작기술 소유자였다.<sup>23)</sup> 많은 성지순례의 출항지로서 베니스는 자연스럽게 성지 순례자를 위한 지도제작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제로 베니스는 16세기 중엽 유럽에서 지도제작 및 인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sup>24)</sup>

20) 단 한 개의 성문을 통과하여 7개의 서클 안에 미로처럼 둘러싸인 여리고 성을 묘사한 최초의 그림은 1366년에 쓰인 파히 성서(Farhi Bible)에서 발견된다. 그림의 상단에는 히브리어로 “여리고 성을 여기에 그렸다. 오직 한 개의 성문만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싸 있다.”고 쓰여 있고, 하단에는 “이것이 성문이며 중심으로 이끄는 길이다.”라 써 놓았다. 참고. Zev Vilnay, *The Holy Land in Old Prints and Maps*, Jerusalem: Rubin Mass., 1965, p.35.; Avraham Ya'ari, “The Drawing of the Seven Walls of Jericho in Hebrew Manuscripts,” *Qiryat Sepher* 18(1941-942), Pp.179-81. (in Hebrew)

21) 참고. Nathan Ben Shimshon Shapira, *Supercommentary on Rashi* (Beurim al Rashi), Venice: Justinian, 1593. (in Hebrew)

22) 참고. Manfredo Tafuri, “Science, Politics, and Architecture: Advancements and Resistance in Venice During the Sixteenth Century,” in *Venice and the Renaissance*,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1989, Pp.103-138.

23) David Werner Amram, *Makers of the Hebrew Books in Italy*, Philadelphia: J. H. Greenstone, 1909, Pp. 290, 323-4.

24) 16세기 세계적인 지도제작의 중심으로서의 베니스에 관한 연구로는 Denis Cosgrove, “Mapping New Worlds: Culture and Cartography in Sixteenth Century Venice,” *Imago Mundi* 44(1992), Pp.65-89; David Woodward, *Maps as Prints in the Italian Renaissance: Makers, Distributors & Consumers*, London: British Library, 1996.를 참고 할 것.

1453년 비잔티움이 함락되자 베니스가 지적 전통의 상속자 되었고, 16세기 잘 조직된 출판 및 인쇄산업은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베니스가 가장 중요한 그 활동무대였다. 지도제작 작업장의 공정은 편집·디자인, 제도(製圖, plotting), 판화(版畫, engraving), 및 인쇄·출판 등 모두 4단계로 나뉘어 진행하였다.<sup>25)</sup> 기독교인 학자들, 여행자들, 상인들이 상호 교류하며 성지에 관한 많은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지도제작은 갈수록 번영했다. 이탈리아 유대인들 역시 성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획득하였고, 히브리어 성지지도 제작의 필요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특히 랍비문학의 대가들의 주석과 다양한 책들이 인쇄되어 소개되면서 성서지리에 대한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었던 것이다.

1556년을 전후로 요셉 벤 야콥과 이삭 벤 슈무엘(Yizhak ben Shmuel)이 만투아에서 제작·인쇄한 지도는 현존하는 유대지도 사이에서 매우 독특하다. 그동안의 선형지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그림지도를 그렸는데, 이는 내부적(유대공동체)으로나 외부적(기독교공동체)인 환경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척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 성지지도 제작에 대한 압박의 결과로 볼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결국 개신교의 성지지도 역시 히브리어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유대인 기술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제작자들은 기독교 지도제작자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도를 창안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어로 쓰인 랍비문학의 자료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아는 유대인들로서는 자신들만의 성지해석을 바탕으로 기독교 성지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들—예컨대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등—을 첨가하여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

최초의 가톨릭 성서를 편집한 베니토 아리아스 몽타노(Benito Arias Montano)는 독자들을 위해 성서에 지도를 삽입해 놓았는데, 그 지도들은 만투아 성지지도를 닮았다. 몽타노는 지도 한 장을 ‘어떤 유대인’에게서 받았다고 했다.<sup>27)</sup> 그러나 몽타노의 지도는 제노아 개신교 성지지도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16세기 중엽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서로 다른 신앙 사이에서 성지에 관한 정보와 지도제작의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성서해석을 바탕으로 독특한 방식의 성지지도를 제작했다.<sup>28)</sup>

### (3) 지도형식을 갖춘 지도들

#### 야콥 벤 아브라함 짜디크의 성지지도(1620년)

최소한 1984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한 장의 가장 오래된 팔레스타인 히브리어 인쇄본 성지지도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620-21년에 야콥 벤 아브라함 짜디크(Yaakov ben Abraham Zaddik)가 제작한 것이었다.<sup>29)</sup> 포르투갈 이민자 집단의 일원으로 1579년 암스테르

25) Denis Cosgrove, "Mapping New Worlds: Culture and Cartography in Sixteenth Century Venice," *Imago Mundi* 44(1992), p.69.

26) Delano-Smith, "Maps in Sixteenth-Century Bibles," *The Map Collector* 39(1987), pp.2-4. 이 연구에 따르면 흥미로운 것은 16세기 후반까지 가톨릭교회가 제작한 성지지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은 단지 성서번역 출간에 멈추지 않고, 성서연구에 새로운 계급을 형성함으로써 지도제작에 열의를 더해 갔다.

27) Zur Shalev, "Sacred geography, antiquarianism and visual erudition: Benito Arias Montano and the maps of the Antwerp Polyglot Bible," *Imago Mundi* 55(2003), p.63.

28) Rehav Rubin, "A Sixteenth-Century Hebrew Map from Mantua," *Imago Mundi* 62-1(2010), p.41.

29) 참고. Yaacov Ben Abraham Zaddiq (Justo), *Map of Canaan*, Amsterdam: Abraham Goos, 1621(in Hebrew); Kenneth Nebenzahl, "'Zaddiq's Canaan," in *Theatrum orbis librorum: liber amicorum presented to Nico Israel*, ed., Ton Croiset van Uchelen, Koert van der Horst and Güter Schilder (Utrecht, HES, 1989), Pp.39-6.; Abraham Bar Yaacov, "Map of

답에 정착한 그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게 없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모든 신앙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위트레흐트 조약(Union of Utrecht)에 가입한 때였다.

"Relacao do Citio de Terra de Israel"라는 포르투갈어 이름이 붙은 이 라틴어 지도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없으나 아브라함고스(Abraham Goes, 1594-1643)가 동판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짜디크는 지도 오른쪽 위에 다윗의 별과 함께 자신의 초상을 넣어둔 것으로 보아 그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는 어떻게 이 지도를 복사했는지 기술하고 있는데, 지명 및 제목을 조심스럽게 히브리어로 번역하여 유대인 독자들에게 적합하게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30)</sup> 제2판은 1633년 함부르크에서 요한니스 게오르기(Johannis Georgii)가 출판했다. 1665년 호팅게로(Joh. Henrico Hottingero)는 자신의 책 『*Historia Orientalis*』(i., ch. viii)에서 짜디크의 지도를 언급하며, 샤브타이 바스(Shabbetai ben Joseph Bass, 1641-1718)도 자신의 책 『*Sifte Yeshenim*』( ㄱ, No. 271)에서 라틴어로는 'Carta'라 불리는 히브리어 제목 'Mappah'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W 18]

가로로 매우 긴 이 지도(520×1620mm)는 동판 인쇄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1590년에 인쇄된 기독교 지도제작자 인 크리스천 반 아드리콤(Christian van Adricom)의 라틴어지도 *Theatrum Terrae Sanctae*를 본떠 만들었다. 짜디크는 신약성서의 정경(情景)은 빼버리고 히브리성서의 지명들은 히브리어로 번역하여 대체했다. 예외적으로 지중해를 나타내는 *Mare Mediterraneum*는 라틴어를 그대로 놔두었다. 동쪽을 위로 두고 있는 이 지도는 요단강을 사이로 12지파의 경계를 각각 그려 넣었다. 지중해 해안에는 시돈에서부터 하이파, 옅바, 아스글론, 가자를 거쳐 알렉산드리아까지 표시했으며, 바다에는 열 척의 배들과 괴물들을 그려 넣었다. 오른쪽 세 번째 배에는 초승달이 그려진 깃발이 휘날리며, 네 번째 배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진 깃발을 그려 넣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오는 이집트 사람과 법궤를 주위로 떠도는 지파들을 볼 수 있다.

요단강은 레바논 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메롬 호수(Lake Merom)을 지나 갈릴리 바다와 사해에 이른다. 기손 강(River Kishon)은 갈릴리 바다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흐른다. 짜디크 초상화 근처에 위치한 세일산(Mt. Seir)은 능선을 넘어 시내 산과 호렙 산과 함께 바란 광야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지도 맨 꼭대기에 한 줄로 길게 쓴 텍스트는 신명기 8장 7-8절이다.

#### 아브라함 바르 야콥의 『유월절 하가다』의 성지지도(1695년)

유럽에서 출판된 기독교 지도제작자들과 같은 장르의 지도가 두 명의 유대인 지도제작자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하나가 야콥 벤 아브라함 짜디크의 가나안 지도(1621년)요, 다른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 바르 야콥의 성지지도(1695년)이다. 두 지도 모두 1590년에 사망한 크리스천 반 아드리콤의 여러 판본의 지도를 복사하고 라틴어 지명 등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분명하다.<sup>31)</sup>

the Holy Land," in *The Amsterdam Haggadah*, Amsterdam, 1695(in Hebrew); Harold Brodsky, "The Seventeenth Century Haggadah Map of Abraham Bar Yaacov," *Jewish Art* 19-20(1993-994), Pp.148-57.

30) Rehav Rubin, "A Sixteenth-Century Hebrew Map from Mantua," *Imago Mundi* 62-1(2010), p.32.

31) 중세기독교 라틴어 지도의 복사 및 모사에 관해서는 E. & G. Wajntraub, *Hebrew Maps of the Holy Land*, Wien: Brüer Hollinek, 1992, p.X.와 "Medieval Hebrew Manuscript Maps," *Imago Mundi* 44(1992), Pp.99-105.; Lee I. Levine, "Jerusalem in Jewish history, tradition, and memory," in *Jerusalem: idea and reality*, edited by Tamar Mayer and Suleiman A. Mourad, London : Routledge, 2008, Pp. 27-46.를 참조할 것.



최소한 1984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야콥 벤 아브라함 짜디크의 성지지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최초의 히브리 인쇄본 지도로 여겨졌던 지도는 아브라함 바르 야콥(Abraham bar Yaakov)이 편집하고 모세 위젤(Moses Wiesel)이 판본(板本)하여 암스테르담에서 출판한 『Haggadah shel Pessach』, 즉 유월절 기도문<sup>32)</sup>에 들어 있는 팔레스타인 지도다. [W 21]



이 암스테르담 하가다는 매우 유명해서 이 지도를 포함하여 거듭하여 4판(1695, 1712, 1781, 1810년)이나 출간되었다. 유월절 하가다답게 이 지도에는 이집트 탈출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 및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 등 출애굽 여정이 지도에 점으로 상세히 표시되어 있

다. 이 지도는 1590년에 제작된 아드리콴의 지도제작 방식을 도입하여 당시의 지도제작기술 및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지도는 이후 오랫동안 성지지도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아브라함 바르 야콥은 17세기 중엽 독일에서 출생하여 기독교 사제가 되었다. 그가 독일을 떠나 암스테르담에 정착하여 인쇄공이 된 후 유대교로 개종했다. 지도제작과 동판 인쇄에 각별한 재능을 보인 그가 유명한 유월절 하가다를 이 지도를 포함하여 동판 인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도시에서 성행하던 인쇄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sup>33)</sup>

이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며, *yam hagadol*, 즉 대해(지중해)가 아래쪽에 놓여있다. 대해의 지도 여백에는 이 지역의 동식물들을 새겨 넣었다.: 왼쪽에 몇 마리의 소 그림과 *halav*, 즉 ‘우유’라는 글씨가 보이고, 소 왼쪽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 위에는 “너희는, 내가 이집트사람에게 한일을 보았고, 또 어미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출애굽기 19: 4)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왼쪽 끝에 꿀과 나무가 *succoth*, 즉 ‘초막절’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려고 한다.”(출애굽기 3: 8)라는 구절이 쓰여 있다. 소젖과 벌꿀이 가나안 땅의 상징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하단 중앙에는 4개의 방위가 표시된 컴퍼스가 그려져 있다.

지중해에는 배들과 갤리선들이 수르(Zur)에서 목재를 싣고 옴바 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

32) 유월절 하가다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읽는 기도문으로 출애굽 과정, 즉 히브리 민족의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 재밌게 풀어낸 책이다. 디아스포라 세계에 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다양한 삽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도록 했다. 참고. 최창모 편저, 『유월절 기도문』, 보이스사, 2000.

33) 17-8세기 암스테르담의 유대인의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Herbert I. Bloom,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Jews in Amsterd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Columbia University, 1937.를 참조할 것.

루살렘 성전을 지을 재료로 보인다. 오른쪽에는 침몰하고 있는 배가한 척 보이는데, 예언자 요나를 고래가 삼키고 있다. 오른쪽 코너에는 우산을 쓴 여인이 악어를 타고 이집트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지중해에는 시돈에서부터 수르, 아크지브(Achziv), 에그론(Ekron), 아스글론(Ashkelon)과 함께 알렉산드리아까지 차례로 도시이름이 새겨져 있고, 홍해와 나일 강이 선명하게 그려져 나온다. 사각형 박스 안에는 41개의 지명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 다녔던 지명들이 적혀 있다. 이처럼 지도의 여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섞어 놓았으며, 지명목록을 따로 정리한 형식은 16세기 후반 기독교 지도제작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방식이었다.<sup>34)</sup>

지파들의 경계로 나누어진 가나안 땅에는 여러 도시들과 기호, 집과 탑이 있다. 축적(蓄積)은 실제 지리학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지만 히브리성서의 지리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표현했다. 주요 도시들에는 예루살렘, 여리고, 헤브론, 베들레헴, 브엘세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요단강은 북쪽에서부터 흘러 갈릴리 호수와 사해로 이어지며, 기혼 강은 사실과는 달리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사해에는 4개의 파괴된 도시가 보이는데, 창세기 19장 24-25절에 근거한 소돔과 고모라 등의 도시를 일컫는 것 같다. 북쪽에는 레바논과 산들, 시리아와 유프라테스강이 있다.

지도의 맨 꼭대기에는, 이 지도의 목적을 잘 이해하게 하는, 한 줄로 된 다음의 글이 쓰여 있다.: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나일강에서 다마스쿠스까지, 아르논 강에서 대해까지지 광야에서 떠돌던 길을 알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보는 바 지파의 소유에 따른 땅의 경계를 알아야 한다.”

#### 요한 시모니스의 성지지도(1741년)

포도나무 형태로 장식한 아름다운 한 장의 지도가 할레대학(University of Halle)의 교회사 교수였던 요한 시모니스(Johann Simonis, 1698-1768년)의 『*Onomasticum Veteris Testamenti sive Tractatus Philologicus*』<sup>35)</sup>에서 발견되는데, 그는 이 책에서 창세기 49장(12지파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유언)에 대한 본문을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 사마리아

어,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비교하며 분석하고 있다. 그가 성지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권두(卷頭)에 식물로 장식한 매우 멋진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 넣었다. 익명의 예술가에 의해 제작되어 동판으로 인쇄된 이 흑백지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도에 비해 작으나(180×140mm), 예술작품으로서의 솜씨가 매우 탁월하다. 히브리성서에 나오는 중요 지명들이 망라되어 있다. [W 28]

34) 참고. 최창모, “옛 기독교인의 성지지도에 나타난 예루살렘 연구,” (근간)

35) 본인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Bodleian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을 Special Collection Reading Room에서 직접 확인한바 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 가지가 성지지도 전체를 휘감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나무의 밑동지에 *yisrael*, 즉 이스라엘이라 써 넣었다. 지도의 테두리 상단에는 Ps.LXXX.8-12, 즉 시편 80편 8-12절<sup>36)</sup>이라고 새겨 넣었다. 히브성서에서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한다(예레미야서

36) 시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뽑아 오셔서, 못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에 찻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포도나무 가지로 덮였습니다.

31: 5; 이사야서60: 21 등).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요단 강 동편까지 뻗어나가 있다. 12지파에게 약속한 땅에 관한 해설서답게 12지파에게 분배된 ‘약속의 땅’에 관한 지도를 넣었던 것이다. 포도 나뭇잎에는 히브리성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왕들과 예언자들과 사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도는 오늘날의 것처럼 북쪽을 위로하고 있다.: 북쪽에는 레바논과 골란고원이, 남쪽에는 사해가, 서쪽에는 *yam hagadol*, 즉 지중해가 놓여있다. 배가 몇 척 떠 있는 대해의 해안에는 북쪽으로부터 항구도시 악고, 옘바, 갓이 있으나,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요단강은 레바논 산지에서부터 흘러 흘러 호수를 거쳐 *yam kinerett*, 즉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갈릴리 호수는 다시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른다.

나뭇가지 사이의 여백에는 12지파의 이름과 더불어 점선으로 표시된 지파 간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으며, 지파의 소유지에 주요 도시들, 강과 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도시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예컨대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북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치우쳐 나온다. 예루살렘, 헤브론, 여리고, 브엘세바 등 몇몇 주요 도시들은 주변 여백에 성곽이나 이슬람 사원의 탑(미나렛)으로 표시해 두었다. 이 지도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에 들어와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한 사실을 보여주하고자 했던바, 포도나무가지로 묘사함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 예히엘 힐렐 알트슐러의 성지지도(1775년)

강이나 바다, 12지파의 이름을 제외하고 지명들에는 각각 번호를 붙여 지도하단의 여백에 6열 총 106개의 지명을 따로 목록으로 작성해 넣은 이 지도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예히엘 힐렐 알트슐러(Jeshiel Hillel Altschuler)가 자신의 책 『여호수아 주석서』에 동판 인쇄하여 삽입해 놓은 것이다. [W 35]

북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 이 성지지도에는 서쪽의 대해와 동쪽의 요단강이 큰 물줄기 모양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대해 아래쪽에 이집트의 나일 강이 대해와 연결되어 있다. 단에서 흐르는 요단강은 사해에서 끝나는데, 갈릴리 호수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21번(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지명에는 원 안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시된 숫자를 넣었는데, 1번 신광야에서 시작해서 106번 옘바에서 끝이 난다. 몇몇 원 안에는 번호가 없으며, 예루살렘은 건물 형태로 표시했으며, 건물지붕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여정의 지명들과는 순서 상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며, 여호수아 주석서임을 감안할 때,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와 그 지역 안에 들어있는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들을 총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 줄의 지명 106개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열

1(נ).신광야, 2.말레아크라빔, 3.신, 4.카데스바르네아, 5.하즈론, 6.아다르, 7.카르카아, 8.아즈몬, 9.이집트의 시내, 10(י).베이트호글라, 11.베이트아라바, 12.보한돌, 13.아골골짜기, 14.드빌, 15.길갈, 16.아두밈, 17.벤야민 시내, 18.에인 쉘메시

그 가지는 지중해에까지 뻗고, 새 순은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제2열

19.에인고겔, 20(כ).힌놈골짜기, 21.예루살렘, 22.로쉬하하르, 23.르바임골짜기, 24.메이납달리, 25.에브론산, 26.키리얏여아림, 27.세일산, 28.게살론, 29.베이트쉐메시, 30(ה).예후다의 팀나, 31.에글론, 32.쉬케론, 33.발라산, 34.야브넬, 35.여리고, 36.메이여리고

제3열

37.벤엘산, 38.베이트엘루즈, 39.아타룻, 40(ב).이플라티, 41.베이트호론(上), 42.게젤, 43.아타룻아다르, 44.베이트호론(下), 45.미크모레, 46.타나트실로, 47.야누하, 48.아타룻, 49.나아라타, 50(י).타푸아흐, 51.가나시내, 52.세겜, 53.에인 타푸아흐, 54.벤산

제4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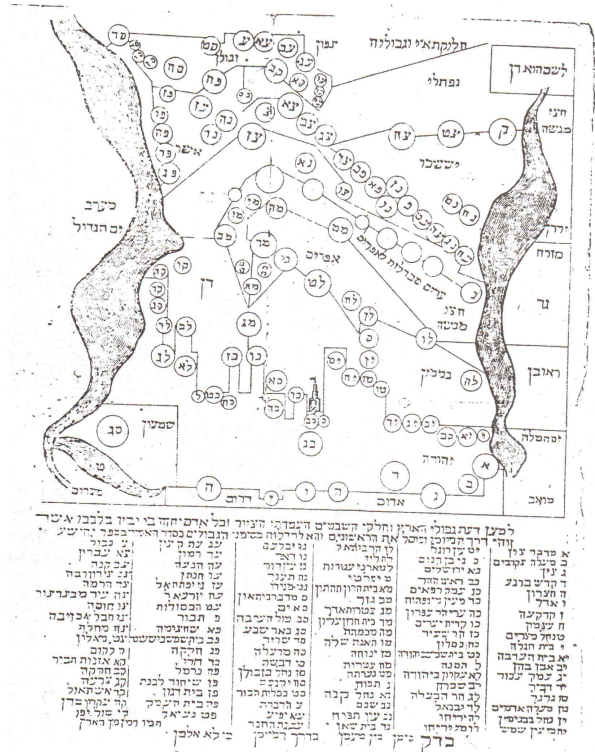
55.이블레암, 56.도르, 57.엔돌, 58.타아나, 59.므깃도, 60(ס).라비트온사막, 61.얌, 62.불하아라바, 63.브엘세바, 64.사리드, 65.마아랄라, 66.답베세트, 67.즈블론시내, 68.요크네암, 69.키슬롯다불, 70(פ).하도브라트, 71.야피아, 72.갓 쉘페르

제5열

73.에트카찐, 74.림몬, 75.하아나, 76.하나아톤, 77.이프타엘, 78.이즈르엘, 79.케솔로트, 80(פ).다불, 81.샤흐니마, 82.이사갈의베이트쉐메시, 83.헬카트, 84.할리, 85.갈멜, 86.시호르리브나트, 87.베이트다곤, 88.베이트하에멕, 89.나이엘

제6열

90(צ).가불, 91.에브론, 92.가나, 93.야니론라바, 94.하라마, 95.미브짜르주르, 96.호사, 97.세벨아크찌바, 98.마술라프, 99.마알린, 100(ק).라쿰, 101.아즈놏 타불, 102.하카, 103.조라, 104.에슈타울, 105.(דן) 에글론, 106.읍바



### 요셉 슈바르츠의 성지지도(1829년)

랍비이자 지리학자인 요셉 슈바르츠(Joseph Schwarz, 1804-1865년)는 독일 남부의 바바리아(Bavaria)의 플로스(Floss) 태생으로 히브리성서와 랍비문학 등에 나오는 당시의 성지의 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1829년 제작한 팔레스타인지도를 자신의 책 『T'vuot Ha'aretz』(‘그 땅에서 나는 곡물들’)에 삽입시켜 놓았다. 제 3판에는 히브리어(큰 지도)와 독일어(지도 안에 작은 박스)를 함께 섞어 제작했다. 1833년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죽을 때까지 성지의 역사지리 연구에 몰두한바 있다.



히브리어 부분에 ‘성지와 그 경계들’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독일어 부분에 *Palastina nach gegenwärtiger Beschaffenheit*(‘현재 상태의 팔레스타인’)이라 표제를 붙여 놓은 이 지도는 ‘1829년 위르츠부르크(Wurzburg)에서 요셉 슈바르츠가 만들’이라 써 놓아 제작자 및 제작 년도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 [W 56]

비교적 매우 사실적인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한 이 지도에 슈바르츠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12지파의 땅의 경계를 나누어 표시했다.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메론 호수를 지나 기네렛 바다(갈릴리호수)를 지나 사해에 이르고 있으며, 대해와 그 해안선, 그리고 여러 항구도시들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시나이 반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갈대바다(홍해)가 있으며, ‘이집트강’(나일 강)이 잘 그려져 있다. 시나이반도를 포함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이 점선으로

이어져 그려져 있으며, 모압의 느보산에 와서 멈춘다. 팔레스타인에는 아주 여러 도시들이 등장하는데, 도시의 크기와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표시했다.

### 하임 젤리그 슬로님스키의 성지지도(18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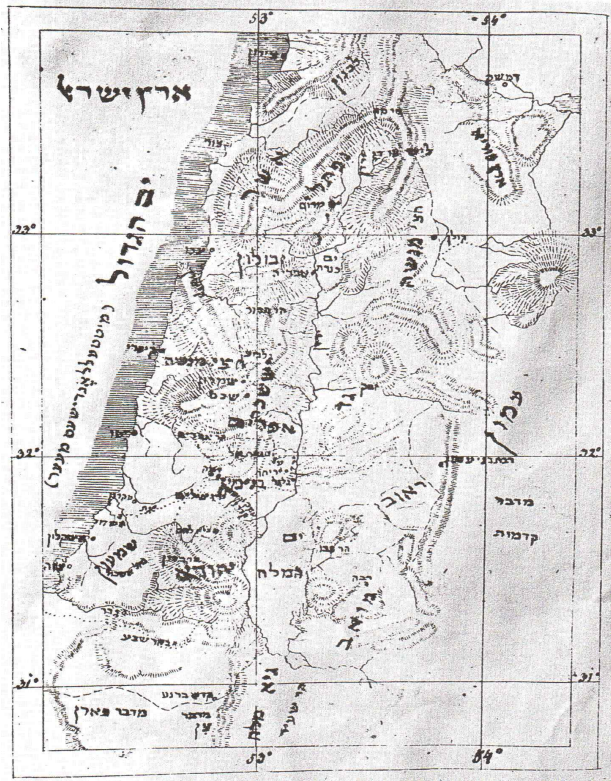
러시아 점령기 폴란드에서 태어난 하임 젤리그 슬로님스키(Chaim Zelig Slonimski, 1810-1904년)는 1844년 러시아과학원으로부터 수학 및 천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상을 받은 바 있다. 24세에 수학책을 저술하여 ‘Mosede Hokmah’라는 칭호를 얻은바 있는 그는 1844년 러시아과학원(Russian Academy of Sciences)으로부터 Demidov Prize를 수상했다. 지토미르(Zitomir)에 있는 랍비학교의 장학사이자 히브리어 검열관이었던 그가 1838년 랍비학교가 문을 닫자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히브리어 잡지 『Ha-Zefirah』의 편집자가 되었다. 과학 분야를 다루는 이 잡지에 나훔 소코로브(Nahum Sokolov)가 편집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가 과학재단에서 펴낸 수학 관련 책 『Jesodej Chochmath Haschiur』에 왜 이 팔레스타인지도를 넣었는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유대학 관련 서적 출판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검열을 통과하여 기하학과 대수학 사이 64쪽에 이 지도를 끼어

넣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다. 아직 테오도르 헤르츨에 의한 시온주의 운동이 싹을 틔우기 이전이지만, 19세기 중반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적지 않았던 바, 비록 수학책이지만 이러한 미래를 위한 희망을 지지하고 북돋으려는 의도로 팔레스타인 지도를 삽입해 놓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W 63]

에레츠 이스라엘 지도는 경도(longitude)와 위도(latitude)로 나누어 그렸다.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고, 서쪽 대해로부터 동쪽 트랜스 요르단에 이르는 매우 과학적인 현대 지도를 보는 듯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등고선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비교적 팔레스타인의 지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모든 이름은 히브리어로 썼는데, 지중해를 일컫는 *yam hagadol*에는 괄호 안에 독일어로 *Mittelländisches Meer*라 넣어 두었다. 라틴어 지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인 행위로 엿보인다.

요단강은 여느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레바논 산으로부터 발원하여 갈릴리호수를 거쳐 사해에 이르고, 기슭 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흐르는 것으로 표시했다. 주변 국가들로는 동남쪽에 세일 산과 함께 모압이, 동쪽에는 암몬이, 북쪽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자리하고 있다. 시리아에는 다마스쿠스가, 에레츠 이스라엘에는 티베리아, 세겜, 예루살렘,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등 주요 도시명이 선명하다.



### Ⅲ. 나가는 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미지(형상)를 만들지 말라’는 모세 법(출애굽기 20: 4 등)에 따라 조각예술이나 장식예술의 발달이 없거나 더디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기원 250년 경 시리아의 두라-유로푸스에서 발견된 회당의 벽화에는 히브리성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그림 장식을 볼 수 있다. 갈릴리지역에서 발굴된 유대인 회당의 바닥 모자이크에서도 제의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유대전통문화에서 풍부한 장식이나 조각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종교적인 이유에서라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하겠다.<sup>38)</sup>

히브리 성지지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여러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이 새롭게 출판되거나 여러 성지지도 수집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37) Ed. E. & G. Wajntraub, *Hebrew Maps of the Holy Land*, Wien: Brüe Hollinek, 1992, P.158.

38) E. & G. Wajntraub, “Medieval Hebrew Manuscript Maps,” *Imago Mundi* 44(1992), p.99.

대부분의 히브리 성지지도는 기독교 지도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를 복사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으나, 발굴되지 않은 많은 히브리 성지지도가 알려지면서 보다 독특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성지지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히브리 성지지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지도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히브리성서나 랍비들의 주석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초보적인 수준의 선형지도요, 다른 하나는 17세기에 들어와 주로 기독교 지도제작자들의 지도를 복사하여 만든 지도형태의 지도가 있다. 독특하게도 이탈리아 만투아에서 제작된 히브리 성지지도(1560년대)는 앞의 유형의 지도들과는 구별되는 유일한 히브리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지의 성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적 정보와 지식이 거의 없었던 랍비문학 학자들이 자신의 성서주석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하여 삽입한 중세 랍비들의 성지지도는 그것이 곧 그 시대의 성서지리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고자 했던 ‘에레츠 이스라엘’은 곧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며 거닐었던 ‘성서의 땅’ 그것이었다.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꿈꾸던 ‘귀향’의 희망은 잃어버린 땅에 대한 사실적 탐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서시대의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잘 실천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는 당시의 유대신앙전통이 성지지도 제작하는 동기이자 목적이었다. 특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및 땅의 분배의 역사는 조상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들의 목표인 ‘귀향’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히브리 성지지도에서는 출애굽 여정이나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경계 및 도시 등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제작자들이 붙인 지도의 제목이 주로 ‘YITSUR’(그림 혹은 그리기) 혹은 ‘TSURA’(형태 혹은 윤곽)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점차 히브리 성지지도가 선형(線形)에서 벗어나 지도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후대의 일인데, 중세 이후 보다 ‘계몽적인’ 유대학자들이 히브리성서나 랍비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의학,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여러 범주의 일반지식을 폭넓게 습득하게 되면서 기독교 지도제작자들의 영향을 받아보다 ‘과학적’이며 ‘사실적’인 성지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지지도 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과학’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중세적’ 랍비유대교의 전통을 지켜나가려는 자들에 의해 초보적인 수준의 선형지도가 계속 제작되어왔다.<sup>39)</sup> 유럽의 유대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은 히브리 성지지도 제작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겠다.

#### [Key words]

히브리 성지지도, 히브리 지도제작, 성지지도, 유대인의 고지도

Holy Land maps in Hebrew Manuscripts, Hebrew cartography, Holy Land Map, Jewish Old maps

39) Elchanan Reiner, "The Attitude of Ashkenazi Society to the New Science in the Sixteenth Century," *Science in Context* 10-4(1997), Pp.589-603.



## 참고문헌

- Amram, David Werner, *Makers of the Hebrew Books in Italy*, Philadelphia: J.H. Greenstone, 1909.
- The Holy Land in Ancient Maps: with eight reproductions*, Jerusalem: Universitas Booksellers, 1956. Sackler Library Floor 1205 P. 21
- Laor, Eran., *Maps of the Holy Land: Cartobibliography of Printed Maps, 1475-1900*, New York: A.R. Liss ; Amsterdam: Meridian Pub., 1986. (\*이스라엘 국립도서관 및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소장 성지지도 목록)
- Meshorer, Yaakov, *Coins from the Holy Land 1*, New York American Numismatic Soc., 2004.
- Nebenzahl, Kenneth, *Maps of the Holy Land: Images of Terra Sancta through two Millennia*, New York: Abbeville Press, 1986.
- Ran, Nachman, ed., *Tracks to the Promised Land: Ancient Maps, Prints and Travelogues through the Centuries*, Tel Aviv: Terra Sancta Arts Ltd., 1987.
- Rubin, Rehav, "A Sixteenth-Century Hebrew Maps from Mantua," *Imago Mundi* 62(2010), Pp.30-45.
- Tishby, Ariel, ed., *Holy Land in Maps*, Jerusalem: The Israel Museum, 2001. (\*이스라엘 박물관지도전시회 도록)
- Vilnay, Zev, *The Holy Land in old prints and maps*, Jerusalem: R. Mass, 1965.
- Wajntraub, E. & G., ed, *Hebrew maps of the Holy Land*, Wien: Hollinek, 1992.
- , "Medieval Hebrew Manuscript Maps," *Imago Mundi* 44(1992), Pp.99-105.
- Woodward, D., ed., *Art and Cartography: Six Historical Essay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 "Medieval Mappaemundi,"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I, ed., Harley J.B and Woodward D., Chicago, 1987, Pp.286-370.
- 최창모 편저, 『유월절 기도문』, 서울: 보이스사, 2000.

## [웹사이트]

<http://www.jnul.huji.ac.il/dl/maps/pal/html/> Holy Land Maps © Jewish National & University Library, The Eran Laor Cartographic Collection, David and Fela Shapell Family Digitization Project

## Abstract

Hebrew maps are an integral part of Jewish culture. A considerable number of prominent Holy Land map collections have come into being during recent years and the many attractive books published confirm the lively interest in this subject. Hebrew maps as we understand them today were not made as there was no demand for them and thus Hebrew cartography was a comparatively late development. During the Middle Ages, there were no Jewish cartographers drawing maps of the Holy Land like their Christian counterparts as they were still only concerned with the geography of the Talmud and their commentaries.

Rabbinical scholars with no knowledge of geography made the first Hebrew maps that we know of. Very few of them had visited the Holy Land. They only studied the Hebrew Scripture(i.e. Old Testament) and its commentaries. Their knowledge of Holy Land geography was the geography of the Bible. In other word, Hebrew maps prepared on the basis of Biblical geography were drawing in order to illustrate the Holy Land to help Jewish better understand the study of the Hebrew Scripture and its Rabbinic commentaries. These maps were simple drawings made out of lines or dots describing individual places in context with events reported in the Texts.

This work should give a basis for being able to comprehend Hebrew maps. And I will show, through different Hebrew maps, from a primitive drawing maps of broken and unbroken lines without geographical precision to map-like maps first made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that copied the work of Christian cartographers, the historical process in the Land of the Bible and its commentaries. We will see how the Jewish texts influenced the concept of the map of the Holy Land, and to show how evolution developed, too.

## 발표2

## 중국 이슬람과 인권

황병하 | 조선대학교

## 1. 서론

중국의 이슬람 역사는 7세기 이슬람이 등장한 직후부터였다. 하지만 중국 내에 거대 무슬림 집단이 소수 민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시기는 신장 위구르(Xinjiang Uighur)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국제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중국 내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들 이외에도 중국의 한족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된 회족 무슬림들이 있다.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은 회족 무슬림들에 비해 중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위구르 무슬림들이 더 심하게 탄압받은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무슬림은 1884년 11월 18일 위구르 지역이 청나라 영토로 편입되어 신장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명목상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오늘날처럼 위구르족 무슬림이나 회족 무슬림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두 집단이 중국 정부에 의해 구분되기 시작한 시점은 1884년이며, 본격적으로 구분되어 차별받기 시작한 시점은 1949년 중국공산당 정권이 수립되고 한족의 신장지역 이주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였다.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지배에 대해 무슬림들은 종교적·문화적으로 한족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구르인들은 현재의 중국 지배를 식민지 지배로 간주하여 분리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이주 정책과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장 위구르의 분리 독립 분위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인종적으로 한족이 우위를 점하고 경제도 한족이 장악하면 신장 이슬람 지역을 한족 문화권으로 동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구르의 이슬람 정체성을 축소시키고 분리 독립 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은 194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족의 이주정책과 경제권 장악 그리고 교육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이슬람문화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

부에 대항하여 위구르 이슬람문화운동을 진행시키고 있고, 중국 정부의 무력 탄압이나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분리 독립 운동을 불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정신적·문화적·종교적 탄압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대 이슬람 인권 침해 사례를 고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종교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인종·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무슬림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중국 이슬람의 현황

현대 중국에서 무슬림들이 종교적·인종적으로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이 인권단체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의 역사 속에서 무슬림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그리고 문화혁명 시기에 암흑기를 거치기는 했지만 무역과 상업 분야에서 비교적 잘 적응해왔으며 부를 창출하기도 하였다(황의갑, 2012: 9-10). 중국 내 무슬림의 숫자는 발표 기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약 20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고 발표한 반면, 무슬림 학자들은 약 50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다.<sup>1)</sup> 하지만 중국 내에서 무슬림들은 종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별로 구분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10개 민족에 무슬림들이 존재하고 있다.<sup>2)</sup> 이들 중 가장 거대한 무슬림 집단은 회족이며,<sup>3)</sup> 이들은 중국 전역에 퍼져 살고 있다. 나머지 9개 민족은 주로 중국의 북서 지역인 신장, 간수, 티베트, 닝샤 지역에 퍼져 있다. 회족은 중국의 한족 문화 및 한족 공동체에 상당히 동화되었으며, 다른 무슬림 집단들과는 달리 상당한 종교적 자유도 누리고 있다. 회족 다음으로 거대한 무슬림 집단은 위구르족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위구르족은 투르크계 계통의 민족으로서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문화는 중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언어도 위구르어를 사용하고 있다. 회족과 달리 이들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정치적·문화적·종교적으로 강력한 감시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이슬람은 회족의 이슬람과 위구르족의 이슬람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회족 무슬림들의 광범위한 분포와 한족 문화로의 편입으로 인해 중국 이슬람의 특징을 일반화하거나 보편화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이슬람은 중국 전체로 퍼진 무슬림의 다양한 분포, 다양한 역사와 문화, 다양한 언어의 사용 등 종교와 인종의 다양성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이슬람을 북서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한정한다면, 중국의 이슬람은 여전히 이슬람의 원리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이나 도시에서 한족들과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은 중국 정부나 주변 한족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때로는 모욕적으로 대

1)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03년 기준 총인구수는 1,934만 명이며, 위구르족 882만 명(45.62%), 한족 771만 명(39.87%), 카자흐족 135만 명(6.99%), 회족 87만 명(4.48%)이다.(출처 : <http://www.xjts.cn>)

2) 회족, 위구르족, 카자크족, 동시양족, 키르기스족, 살라족, 타지족, 우즈베크족, 보난족, 타타르족

3) 회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들 중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체 인구는 981만 명(200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후이량위를 배출하였다. 그는 중국 최대 산업인 농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 때 원자바오 총리와 함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지고기나 술에 대한 무슬림으로서의 의무를 파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거의 대부분은 순니파(Sunni)에 속하며, 하나피(Hanafi) 법학파를 따르고 있다. 다른 국가의 소수 무슬림들과는 달리, 중국의 무슬림들은 법적 문제에서 이슬람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족 내 문제에서도 무슬림 가족법을 적용할 수 없다.

중국 이슬람의 다양성은 모스크의 모습에서도 목격된다. 대부분 지역의 모스크 내에는 여성들이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남성 무슬림 뒤에서 예배를 보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만의 모스크가 존재하거나 아예 여성들의 모스크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sup>4)</sup> 중국에 널리 퍼져 있는 수 만개의 모스크들의 설립 역사는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북서부 지역의 모스크들은 중앙아시아의 스타일과 디자인을 모방하였으며, 남서부 지역의 모스크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타일과 디자인을 모방하였다. 하지만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목격되는 비교적 오래된 모스크들은 불교 사원의 모습을 모방하였다. 중국 모스크들의 외부 스타일은 대부분 중국 양식이나 불교 양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스크의 내부는 공통적으로 아랍어 서체와 이슬람 관련 주제들로 장식되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이슬람의 모스크들을 재건하고 수리하기 위한 자금이 중동아랍 지역의 산유국들로부터 유입되었다. 중국의 모스크들은 문화혁명(1966-1976) 기간 동안 파괴되었거나 많은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런 자금이 유입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재건축될 모스크는 더 이상 비 이슬람적 문화나 역사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란한 색채로 장식된 불교 스타일의 모스크 건축 양식은 더 이상 내부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모스크의 건축 양식은 이제 정통 메카 양식 스타일로 환원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축된 모스크들은 거의 대부분 시멘트나 흰색 타일로 건축되어 있다.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회족 무슬림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수세기동안 억압과 탄압을 받으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중국 사회 내 지위나 위치는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과는 전혀 다르다. 회족 무슬림들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고 있는 반면, 위구르 무슬림들은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국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정치적·문화적·종교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sup>5)</sup>

4) 중국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모스크의 역사는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 이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스크들은 여성들의 이슬람학 연구 중심지 역할과 이슬람 공동체 발전의 핵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ria Jaschok & Shui Jingjun의 "The History of Women's Mosques in Central China"(Richmond, Surrey: Cuzon Press, 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5) 2005년 Human Rights Watch(HRW)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들이 중국 정부의 탄압과 억압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악화된 인권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제목은 "Devastating Blows: Religious Repression of Uighurs in Xinjiang"이었다.

<http://hrw.org/reports/2005/china0405/> 참조. 한편 HRW의 2012년 World Report에 의하면 신장 지역의 우루무치에서 2009년 7월 신장 위구르 지역 자치독립을 요구하는 폭동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중국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인종 폭동이었으며, 중국 정부는 소요 사태가 발생한 후 적법한 절차나 조치 없이 수 백 명을 투옥하고 감금하였다. 2011년 7월 18일에는 Hetian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14명의 위구르인이 사망하였고, 7월 30일과 31일에는 Kashgar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 소요 사태들의 배후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한 후 8월 중순 "Strike Hard"라는 강경진압 작전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요사태를 인종 차별주의와 소수인종 분리주의 세력들의 소행으로 간주하였으며, 신장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회복한다는 명분하에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중국 정부는 Kashgar 지역 주민의 80% 이상을 분산 재배치하였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한족 밀집 지역이나 한족이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배치되었다.

<http://www.hrw.org/world-report-2012/world-report-2012-china> 참조.

### 3. 중국 이슬람의 수난 역사

중국에 무슬림들이 처음 들어온 시기는 7세기 아랍에서 이슬람이 등장한 직후부터였다. 중국과 서남아시아 사이를 잇는 해상 무역로는 로마시대부터 존재했었다고 알려져 있다(Armijo, 2008: 199).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시기에 무슬림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은 초기 수세기동안 해안 지역에 소규모 집단으로 거주하였으며, 이들과 중국인들과의 교류와 접촉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만 안록산의 난이 발생했을 때 위기에 처한 당나라 현종과 숙종은 이슬람 압바스 제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압바스조의 칼리파 아부 자으파르 알 만수르(754-775)가 이슬람 군대를 파견하여 757년 장안과 낙양을 탈환하는데 기여하였다(황병하b, 2010: 234). 안록산의 난을 진압한 이슬람 군대는 바그다드로 귀환하기 위해 티베트로 향했으나 이 지역에서 발발한 정치적 사건으로 귀환 길목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슬람 군대는 장안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당나라는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와 농토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당나라 말기에 발생한 황소의 난은 중국에 거주했던 무슬림들의 운명을 또 다시 뒤 흔들어 놓았다. 이 난으로 당나라를 지원했던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학살되었으며, 일부는 해상 무역로를 따라 동남아시아와 한반도로 이주하였다. 이후 송나라시기에는 무슬림 상인들과의 교역과 무역이 증가하여 중국으로의 이슬람 전파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에 무슬림들은 중국 여인들과 결혼하여 현지에 정착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슬람 생활양식과 전통 그리고 종교적 관행들을 널리 전파하였다(황의갑, 9).

13세기 몽골의 원나라(1274-1368)는 종교 관용정책을 펼쳤으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부터 수 만 명의 무슬림들을 경제 발전과 행정 보조를 위해 이주시켰다. 원나라에서 무슬림들의 지위와 생활수준은 한족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원나라에 협조했던 무슬림들은 중앙아시아나 이란으로부터 유입된 상인들과 조세 징수 담당자 그리고 재무 관리원들, 몽골 군대가 징발한 기술자, 장인, 예술가, 건축가, 과학자,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원나라 이전부터 국제무역과 동서교역을 담당하면서 중국에 정착했던 무슬림들이었다. 이들은 원나라에서 고위직에 올랐으며, 일부 무슬림들은 고향으로부터 무슬림 신부를 데려와 결혼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인, 관리, 기술자, 건축가, 천문학자, 과학자, 의사 그리고 농부들은 중국 여인들과 결혼하였다.<sup>6)</sup> 이 시기에 중국에 온 무슬림들은, 비록 수세기 동안 중국인들과 상호 결혼을 하였고 이슬람 세계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문화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무슬림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나라에서 무슬림들이 하층계급으로 밀려난 중국의 한족들을 대상으로 조세 징수와 토지 관리 등에서 가혹 행위를 하고 횡포를 부리자 한족들의 불만과 불평이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무슬림들은 몽골족과 동일하게 취급되었고 타도와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명나라(1368-1644)로 접어들면서 무슬림들의 운명은 더욱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원나라는 몽골족이 지배한 이민족의 제국이었지만, 명나라는 몽골에 의해 3등 민족으로 천대를 받았던 한족이 다시 정권을 장악한 제국이었다. 명나라의 한족들은 중국을 한족

6) 원나라의 수도였던 다두(Dadu: 오늘날의 베이징)를 디자인하고 건축한 사람들은 무슬림 건축가와 기술자들이었다. 무슬림 수역학 기술자들은 중앙아시아의 관개농수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무슬림 의사들은 새로운 약용 식물들과 그 재배기술을 소개하였고, 무슬림 천문학자들은 원나라 천문연구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원나라 몽골인들의 후원 하에 무슬림들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문화로 변화시키고 정치를 한족 중심 지배체제로 바꾸는데 결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한족 문화에 대한 보수주의와 복고주의가 강화되었으며, 대외 관계는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무슬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많은 법적 규제와 강제조치들이 가해졌다. 외국인들은 중국식 의복을 착용해야 했으며, 중국식 이름으로 개명해야 했고, 중국어를 구사해야 했다. 이는 외국인의 한족화 또는 중국화 작업이었다. 하지만 명나라는 한편으로 한족의 전통 문화를 복원시키는 작업에 집중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해양 원정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명나라 영락대제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1404년과 1432년 사이에 7차례의 해외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이 원정대는 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연안까지 진출하였는데, 이 원정대의 대장은 중국 남서부 출신 무슬림 정화(본명은 마삼보)였다.<sup>7)</sup> 그가 무역과 외교라는 복잡한 임무를 띠고 해상 원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연안 지역 통치자들과 대화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슬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락대제가 사망한 직후 명나라의 대외정책은 보수주의와 쇄국주의로 돌아섰으며, 국가 정책은 내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 명나라 정부 관리들은 무슬림들을 의미하는 후이(hui: 回)라는 글자에 개(dog)를 나타내는 어근인 견(犬)을 첨가시켰다. 역사적으로 개를 나타내는 어근인 견(犬)과 곤충을 나타내는 어근인 충(蟲)은 중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또는 국경에서 한족이 아닌 사람들이나 야만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사용했던 어근들이었지만, 특정 인종에게 경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근을 사용한 경우는 무슬림에게 견(犬)을 붙인 경우가 유일했다.<sup>8)</sup>

중국의 무슬림들은 명나라 때 가해지기 시작한 규제나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 결과 명나라 말기에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분위기에서 공부를 한 많은 중국 무슬림 지식인들이 새로운 이슬람 문학 장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슬람에 관한 종교적 작품들은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쉽게 풀어서 중국어로 저술한 것이었다.<sup>9)</sup>

만주족이 지배한 청나라(1644-1911)는 영토와 인구 면에서 엄청난 확장과 팽창을 이룩한 시기였다.<sup>10)</sup> 만주족의 청나라는 몽골족의 원나라와 마찬가지로 한족이 아닌 민족이 지배한 제국이었다. 이 시기에 중국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종교와 문화의 본거지를 방문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것은 여행 금지를 해제한 조치였다. 중국의 무슬림들은 메카로 순례를 떠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슬람 세계의 주요 학문 중심지에서 이슬람 종교와 문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일부 회족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귀국하

7) 정화는 1405년 6월 1차 원정을 시작하여 1431년 12월까지 7차례의 원정을 수행하였다. 그의 항해는 유럽의 항해시대보다 70년이나 앞선 대장정이었는데, 그의 항해에 관한 내용은 4차 원정과 7차 원정에 참여했던 마환의 『영애승람』, 비신의 『성차승람』, 그리고 공진의 『서양번국지』 등에 기술되어 있다.

8) 중국어에서 곤충을 의미하는 충(蟲)이라는 어근은 거의 대부분 곤충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개를 의미하는 견(犬)은 개들이나 개와 비슷한 작은 동물들에게 사용된다. 중국의 무슬림들에게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던 글자는 회(回)였으며, 이는 ‘돌아가다’(to retur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여기에는 어떤 부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9) 중국인 무슬림 학자들이 저술한 책들의 내용은 『한 키타브』(Han Kitab)으로 집대성되었다. 이 책은 비 무슬림 중국인들에게 이슬람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 철학과 사상에 대한 무슬림들의 이해와 지적 몰입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Zvi Ben-Dor Benite의 『The Dao of Muhammad: A Cultural History of Muslims in Late Imperial China』(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05)를 참고하기 바람.

10) 1685년 중국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이보다 200년이 지난 시기의 인구는 불과 43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자마자 주요 이슬람관련 서적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이슬람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청나라는 중국의 무슬림들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의 무슬림들은 여행과 공부의 기회를 허락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탄압도 받았다. 중국 북서부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무슬림들과 청나라 당국 사이에 잦은 충돌과 갈등이 빚어졌다. 왜냐하면 중국 무슬림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새로운 정통 이슬람 지식을 배운 후 귀국하여 이슬람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파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 당국은 무슬림 공동체 간 불화를 조장하였고, 무슬림들 간 문제에 개입하였으며, 무슬림 밀집 지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대규모 소요와 폭동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사망하였다. 무슬림들의 소요 사태는 중국의 남서부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결과는 역시 많은 무슬림들의 사망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자 중국의 무슬림들은 “달리 술탄국”(Dali Sultanate)이라는 독립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 국가는 불과 16년 동안 유지된 후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중국의 무슬림들은 다시 한 번 원래부터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사람들이라는 오명과 굴레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중국 당국이 중국 무슬림들에게 부여한 폭력이라는 오명은 중국 관리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에 좋은 구실과 핑계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무슬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무차별 폭력과 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오명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실제로 청나라가 1870년대에 자행한 대규모 학살로 75만 명의 무슬림이 사망하였다(Armijo, 201).

17세기와 18세기동안 중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한족 중국인들이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서부 국경지역에 위치한 운남(Yunnan)성으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한족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한족과 이곳의 원주민 그리고 이곳에 오랜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회족 무슬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sup>11)</sup> 한족 이주자들은 원주민과 회족 무슬림들을 멸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회족 무슬림들은 법에 의해 한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경작지와 농지를 모두 몰수당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더욱 더 깊은 산악지역이나 남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정착한 한족들과 회족 무슬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중국인 회족 무슬림 지식인들은 한족 지방 관리들에게 항의하였다. 하지만 회족 무슬림들과 한족 이주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한족 지방 관리들은 한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화가 난 중국인 회족 무슬림들은 베이징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정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족과 회족 무슬림들 사이의 갈등이 악화되고 쿤밍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탄압과 학살이 자행되자, 중국인 무슬림 학자는 이슬람 기치하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운동에는 회족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그리고 수세기 전부터 그곳에 거주했던 많은 한족 중국인들이 참여하였다(Armijo, 202).

1856년 운남성 북서부의 달리(Dali)에 설립된 “달리 술탄국”은 16년 동안 존속하였다. 중국 황제는 주요 도시의 무슬림 반란을 진압한 후 군대를 운남성으로 총집결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이 지역의 무슬림들에 대한 대대적 학살이 자행되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곳 무슬림들 중 약 60-85%가 살해되었으며, 몇 세기가 지나서야 원래 무슬림 수가 회복되었다. 이후 청나라는 중국 무슬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일련의 규제조치를 발동하였다. 이후 운남성의 무슬림들은 도시 내에서 거주할 수 없었으며,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개인 재산, 상점, 농장, 그리고 학교와 모스크 등 공공재산도 모두 몰수당했다.

한족 중국인의 입장에서 중국 무슬림들이 억압과 탄압을 무릅쓰고 정의와 권리를 요구하는

11) 회족들은 운남성에 13세기부터 거주하였으며, 당시에 거주했던 회족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다.



행동과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행동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결심에서 나온 행동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원래부터 이들에게 뒤집어 씌어졌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이미지로 간주되었다. 20세기에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는 계속해서 중국 무슬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였으며,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청나라 말기에도 중국의 무슬림들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지만 이슬람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국가의 폭력을 견뎌냈다. 이후 잠잠했던 무슬림 문제가 다시 중국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한 시기는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1930년대와 1940년대였다. 일본의 식민주의와 국민당의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투쟁을 벌였던 중국 공산당은 중국 무슬림들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무슬림들에게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약속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 초기 몇 년 동안에는 두 집단 사이의 약속이 존중되었다. 하지만 문화혁명이 정점에 달하자 중국 공산당은 태도를 바꿔 이슬람을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중국 무슬림의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결국 처형하였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예배 행위와 종교 교육은 금지되었으며, 인샬라(만약 신이 원한다면)나 알 함두릴라(신께 자비를)와 같은 간단한 말조차 금지되었다. 만약 이런 말을 하다가 적발된 무슬림들은 고문당하고, 투옥되었으며, 심한 경우 처형되기도 하였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슬림들은 비밀스럽게 이슬람 공부를 계속하였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 무슬림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모스크는 국가의 집중적인 타겟이 되었다.<sup>13)</sup> 지방 공산당 관리들은 중국 전역의 모스크들을 완전 장악한 후 공장이나 창고, 헛간, 그리고 학교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많은 모스크들이 이유도 없이 파괴되었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지방 공산당 관리들은 고의적으로 모스크나 주변 무슬림 지역을 모독하거나 파괴하였다. 일부 모스크들은 돼지우리로 사용되었으며, 모스크 내 우물들은 돼지 똥이나 시체들이 던져져 오염되었다.<sup>14)</sup>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사주에 의해 발생한 최대의 무슬림 수난사는 1975년 운남성 샤디안(Shadian)에서 일어났다. 운남성 무슬림 집단 거주 지역이었던 샤디안에서는 1975년 7월 홍위병들에 의해 마을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홍위병들은 이 마을을 점령하고 공산당 정치 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서 홍위병들이 무슬림들을 괴롭히고 대량 학살까지 자행하자 무슬림 지도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하여 베이징으로 파견하였다. 이들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정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베이징 정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홍위병들은 공산당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이들은 미그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단 일주일 만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였다. 이 사건으로 약 1600명에 달하는 무슬림 남녀와 어린이들이 사망하였으며, 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 전역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엄청난 고통과 탄압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샤디안에서 발생한 학살과 만행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1979년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며 생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sup>15)</sup>

12) 오늘날 중국의 무슬림들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무슬림 공동체가 당한 억압과 탄압을 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이 당한 실상을 기록하거나 언급한 출판물이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난 지 50년이나 지났지만 이 기간 동안 무슬림이나 소수 민족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13) 문화혁명 당시 본래의 기능을 수행했던 유일한 모스크는 베이징 외교관들이 다니는 모스크뿐이었다.

14) 현재까지도 일부 모스크들은 공장으로 사용되거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스크 내 우물이나 뜰에서는 말과 돼지 등 가축의 똥들이 발견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일부 공산당 관리들이 문화혁명이 끝난 지금까지도 모스크를 모독하는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슬람이 중국으로 처음 유입된 후 중국 이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슬림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이슬람은 원나라시기에 가장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중국 전역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의 무슬림들이 한쪽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원나라 시기였으며,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이중 정책이 추진되어 혼란을 겪었던 명나라시기였고, 청나라시기에는 억압과 탄압의 직접적 대상이 되어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었다. 문화혁명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스크들이 파괴되었고 많은 무슬림들이 학살을 당하는 수난과 비운을 맞보았다. 따라서 중국 무슬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간접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원나라시기였고, 직접적인 탄압은 한족이 정권을 장악한 명나라 시기였으며, 본격적인 탄압과 수난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청나라시기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다.

#### 4. 중국 이슬람의 정체성 확립

중국 이슬람의 정체성 확립 노력은 문화혁명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혁명으로 모스크와 이슬람관련 시설들이 파괴된 상황에서 중국 무슬림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체를 부흥하였다. 이들이 행한 첫 번째 작업은 종교관련 시설인 모스크의 재건과 이슬람 교육시설의 재건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일부 모스크 시설들이 재건되어 청소년과 젊은 이들을 위한 이슬람 교육이 재개되었으며, 단계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슬람 교육도 실시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 독자적인 이슬람 대학도 설립되었다. 하지만 긴장 상태가 완화되지 않은 신장 위구르 지역은 예외였다.

이슬람 대학들은 코란, 하디스, 타프시르, 피끄흐, 이슬람 역사와 문화, 중국 이슬람의 역사, 아랍어 문법 그리고 중국어 등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 현재 중국의 이슬람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관련 교과서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아랍어 언어 교재는 베이징의 외국어연구소로부터 지원되고 있고, 이슬람 역사 교재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슬람 대학 졸업생들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초중등과정의 무슬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이슬람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이슬람 교육이 부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전통을 부흥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다른 하나는 강력한 종교적 믿음이 오늘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급속한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이다. 중국 무슬림들은 이념적으로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역사에서 무슬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중국의 현실에서 중국 무슬림들은 이슬람 종교 교육과 세속적 한족 교육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Armijo, 2004). 과거 중국 정부의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존재하고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슬림 공동체는 한족의 세속적 교육을 수용하되 자신들의 이슬람 교

15) 중국 무슬림들에게 이 사건은 “샤디안 사건”(Shadian incident)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의 약속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원인이 된 어리석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출판이나 구체적 언급은 거의 없다. 자세한 내용은 Dru Gladney의 『Muslim Chinese: Ethnic Nationalis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1)을 참고하기 바람.

육도 지킨다는 절충주의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터득하였다.

이슬람 교육 기관은 이슬람 지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국내외 무슬림 공동체 간 네트워크 강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중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곤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도 중국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생활방식과 상황을 알게 되었으며,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의 최근 소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전 세계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이었다. 초기 중국의 무슬림들은 낙타와 말로 무역로를 구축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반면, 현재의 무슬림들은 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트럭으로 중국의 운송로를 지배하고 있다. 미래의 무슬림들은 SNS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무슬림들 간 정보 유통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은 무슬림 유학생들 간 네트워크다. 무슬림 공동체의 지식인들은 무슬림들 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정기간행물과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고,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비록 공식적인 기록이나 발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리비아의 이슬람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무슬림 유학생 수는 2008년 기준으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Armijo, 2005).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은 이집트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인데, 여기에는 약 300명 정도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슬람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해외 이슬람 국가에서 유학을 마친 중국 무슬림들은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슬람 학문에 대한 강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들은 귀국 직후 자신의 지역과 마을에서 이슬람 교육을 담당하고 때로는 이맘(ahong)의 직위에 오르길 희망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가 공동체의 현재 상황과 무슬림들의 요구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맘으로 임명되길 바라고 있다.

중국 무슬림들의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인종과 종교 사이의 정체성을 구분하려는 시도이다. 중국에서 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무슬림들은 최근 인종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구분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인이 무슬림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 “당신은 회족이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 무슬림들은 자의식 확립을 바탕으로 회족인지 무슬림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저는 회족이면서 무슬림입니다.”라고 말한다. 전문적으로 회족은 오직 인종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뒤섞여 사용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무슬림임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종을 나타내는 회족이라는 용어와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무슬림이라는 용어가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의 중국 무슬림들은 인종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구분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족이라는 용어보다 무슬림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중국 무슬림에 대한 인권 침해

역사적으로 중국 무슬림들에 대한 한족 및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형태를 구분하면, 원나라 당시의 간접적·사회적 탄압, 명나라와 청나라시기의 직접적·문화적 탄압, 그리고 현대의 정치적·종교적 탄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중국 한족의 관점에서 유교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황

제의 천자론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무슬림들은 중국 문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중국 무슬림들은 신의 권능이 황제의 권위를 능가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황제에 대한 천자론을 거부하였다. 이는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슬람의 부정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로 인해 한족들의 이슬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중국 한족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의 증폭과 거부감은 결국 중국인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모욕적인 명칭 사용, 악의적인 이야기 유포, 그리고 무차별 탄압과 학살로 이어졌다.

중국 한족들의 반 무슬림 정서는 원나라시기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족들은 몽골족이 지배하고 있는 원나라가 무슬림들을 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수 없었다. 원나라시기에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주한 무슬림들은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 유입되어 최고의 지위까지 등극하였다. 이는 몽골 원나라가 이슬람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친 이슬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몽골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중국 한족들은 무슬림들을 몽골족과 똑같은 정복자 겸 야만족으로 간주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한족들의 무슬림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은 더욱 증폭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보복은 간접적 탄압과 사회적 무시 형태로 나타났다. 1342년 중국을 방문했던 이븐 바투타(Ibn Battuta)는 중국 각 도시에서 무슬림들과 중국 한족들 간에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Israeli, 1980: 21; 황병하a, 2009: 128 재인용).

원나라시기부터 형성되었던 중국 한족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반감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탄압 시기를 거쳐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는 무슬림 사회에 대한 중국 한족들의 총체적 탄압 시기로 발전하였다. 중국 한족들은 원나라시기에 몽골족과 무슬림들로부터 민족적 자존심이 크게 손상당하는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당시의 적대감과 반발심은 현재까지도 유효하여 무슬림들에 대해 부정적 생각, 정치적·문화적·종교적 탄압, 그리고 경제적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한족들과 무슬림들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시기부터 중국 한족과 무슬림들의 접촉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무슬림들에 대한 중국 한족들의 부정적 관념과 왜곡 현상도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중국 한족들에게 무슬림들은 몽골족과 같이 야만적이고 무정하고 공격적이고 욕심 많고 위선적이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였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험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중국 한족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반감, 적대감, 혐오감, 그리고 경멸은 다음 인용문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새해맞이 기간 동안 중국의 명절을 지키지 않는 무슬림들은 즐겁게 놀기 위해 중국인들을 자신들의 이동주택으로 초대한 후 자지 않고 밤을 보낸다. 무슬림들은 중국인들이 취하면 일어나 텐트를 그들의 몸 위로 허물어뜨린 후 죽을 때까지 마구 때렸다. 그 다음 무슬림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마른 우물에 처넣은 후 은을 가지고 도망쳤다. 살인 행위는 다음 봄까지 발각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 중 하나였으며,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Israeli, 22; 황병하, 129 재인용)

“세 명의 무슬림은 하나의 무슬림이다. 두 명의 무슬림은 반절의 무슬림이다. 한 명의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다.”(Broomhall 1910, 244; 황병하, 129 재인용)

“한 무슬림 여행객이 밤에 도시에 도착하여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삶은 고기

덩어리가 놓여있는 쟁반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있는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중국인 주인은 말했다. ‘돼지고기입니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한 후 그 덩어리 옆줄에 놓여있는 덩어리를 가리키며 무슨 고기냐고 물었다. 중국인 주인은 대답했다. ‘물론 돼지고기입니다.’ 무슬림은 세 번째 줄에 놓여있는 고기를 가리키며 계속 물었다. ‘이건 무슨 고기입니까?’ 식당 주인은 짜증난 투덜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건 양고기입니다.’ 그는 말했다. ‘좋습니다. 왜 진즉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즐겁게 먹기 시작했다.”(Israeli, 22; 황병하a, 130 재인용)

“한 명의 무슬림이 여행을 하면 그는 살이 찌 돌아올 것이다. 반면에 두 명의 무슬림이 여행을 떠나면 날씬해져서 돌아올 것이다.”(Ibid, 245; 황병하a, 130 재인용)

“무슬림의 음식은 먹되 그의 말은 듣지 마라.”(Israeli, 23; 황병하a, 130 재인용)

“열 명의 베이징 출신 교활한 자들은 한 명의 텐진 출신 말다툼 잘하는 자를 말로 압도할 수 없으며, 열 명의 텐진 출신 말다툼 잘하는 자는 한 명의 무슬림을 말로 압도할 수 없다.”(Broomhall, 225; 황병하a, 130 재인용)

“돼지야, 만약 네가 살이 찌면 네가 죽게 되고, 만약 네가 홀쭉해지면, 내가 죽게 된다.”(Gross 1992, 99; 황병하a, 131 재인용)

중국의 한족들은 무슬림을 학대하고 탄압하는데 돼지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돼지가 완벽한 비료공장이자 위대한 천연자원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무슬림들은 하람(금기)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돼지와 관련된 일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족들은 돼지 사육을 거부하는 무슬림들을 중국 문화나 사회로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런 중국 한족들의 행위는 거의 인종차별적 쇼비니즘 수준이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무슬림 극단주의 집단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다고 선언하였다.<sup>16)</sup> 이후 신장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았다. 2001년 11월 중국을

16)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탈레반과 알카에다에 대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 대한 억압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 테러전쟁 분위기를 활용하여 신장 지역에 대한 반테러 진압작전을 확대하였다. 2002년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과 중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8개 위구르 테러단체를 공개하였다. 이 중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The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ETIM),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당(The Eastern Turkistan Islamic Party), 알라의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당(The Eastern Turkistan Islamic Party of Allah), 이슬람개혁당(The Islamic Reformist Party) 그리고 이슬람 전사들(The Islamic Holy Warriors) 5개 단체는 종교관련 단체들이었으며, 동 투르키스탄 국제운동(The Eastern Turkistan International Movement)과 동 투르키스탄 해방조직(The Eastern Turkistan Liberation Organization) 그리고 위구르 해방조직(The Uyghur Liberation Organization)은 좀 더 세속적인 성격의 정치조직들이었다. 2002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엔은 위 8개 단체들 중 ETIM을 무장조직으로 간주하여 국제테러조직의 명단에 올려놓았다. ETIM은 1990년 바렌 사건 이후 위구르 저항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 평화롭게 시위하던 학생들에게 중국 당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강경한 탄압을 감행하자 위구르족 행동주의자들은 파키스탄의 종교학교 마드라사로 피신하였으며, 여기에서 ETIM을 설립하였다. 중국 당국은 ETIM은 1998년 초부터 신장 지역으로 무기와 요원들을 보내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포되어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진 알카에다 요원들 중 적어도 2명은 ETIM 출신 위구르인이었다(Human Rights Watch 2005, 15; 황병하b, 249).

방문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은 중국 당국에게 중국 내 소수민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핑계로 미국의 대 테러와의 전쟁 정책을 오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sup>17)</sup>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02년에는 오히려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해 강경 진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는 중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족의 ETIM을 국제 테러 조직 명단에 포함시키라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sup>18)</sup> ETIM이 국제 테러 조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에게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였다. 중국은 자국도 국제 테러 조직의 희생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테러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장 위구르족의 반정부 무슬림투쟁을 더욱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반면, 미국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국가로서의 명성과 역할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ETIM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간주한 후 발행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위구르 출신 극단주의 무슬림 수 백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숫자는 과장된 내용이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위구르 출신 무슬림은 22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적어도 절반은 이미 석방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주저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처형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이들을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해 설득 중이며, 여기에는 독일, 스위스,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9)</sup>

9·11 테러 사건 발생과 미국의 대 테러와의 전쟁 선언 이후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종교적 탄압이었다. 물론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회족 무슬림들도 중국 정부와 한족으로부터 다양한 도전과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이들은 종교·문화적 측면에서 전례 없이 심한 인종차별, 무차별적 탄압, 가혹한 처벌, 고문, 학살에 직면했다. 이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탄압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학 교수들을 포함하여 공식적 직위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은 공개적인 종교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들은 모스크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으며, 라마단 기간 동안 종교의식인 단식도 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일체의 종교 행위나 전통을 이행할 수 없었다. 더욱이 18살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한 모스크 출입도 법으로 금지하였다.<sup>20)</sup> 공식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학교 이외에서 행하는 이슬람 교육도 금지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탄압이었다. 한때 신장 지역에서는 위구르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지역으로 한족의 대규모 이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49년 6%에 달했던 한족의 인구 비율은 1964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6년에는 41.5%, 1982년에는 45.8%, 1990년에는 47.5%로 증가하였다(황병하b, 117). 중국 공산당의 초기 통치시기에 수 백 만 명의 중국 한족들이 강제로 신장으로 이주되어 광산이나 석유 산업

17) BBC News, "Robinson Warns China on Repression", 2001/11/8.

18) New York Times, "American Gives Beijing Good News on Terror List", 2002/8/27.

19) Financial Times, "US Fails to Find Home for Uighur Detainees", 2004/10/28.

20) 이러한 법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론적 설명은 종교에는 어떤 강요도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어린이들은 너무 어려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오직 신장 위구르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회족 무슬림들이나 다른 종교(기독교나 불교 등)의 중국인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설에서 일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통제가 완화되자 초기 한족 정착 이주민들 중 상당수는 고향으로 돌아갔다.<sup>21)</sup> 하지만 최근 들어 신장으로 이주하는 한족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주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중국 정부는 한족 이주 정착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규모 국가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이주를 독려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 백 만 달러를 투입하였지만, 그 실질적인 수혜자들은 모두 한족들이었다. 그 결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위구르족 무슬림들과 한족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무슬림들은 경제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한족에게 예속되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석유와 천연가스 등)과 주변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 그리고 중국의 핵 무기 실험 장소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자치 실현이나 종교적 자유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람의 종교적 실행을 정치적 분리주의 행위로 간주하여 모든 형태의 이슬람 교육이나 종교 의식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위반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몰아 체포하고 투옥하였다.<sup>22)</sup>

세 번째 유형은 법적 탄압이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법적으로 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는 위구르인 여성 사업가 레비야 카디르(Rebiya Kadir)를 불법 종교학교 운영 혐의와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여 투옥시킨 사건이었다(황병하 b, 122).<sup>23)</sup> 그녀는 2000년 3월 진행된 비밀 재판에서 자신이나 변호사의 변론 기회도 봉쇄된 채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카디르의 사례는 중국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한족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수 년 동안 그녀를 이상적인 중국 시민으로 치켜세웠었기 때문이다. 사업에서 성공한 11명 아이들의 어머니였던 카디르는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천 명의 어머니 운동”(Thousand Mothers' Movement)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위구르 여성들을 훈련시켜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는 야간 학교를 개설하여 위구르 성인 무슬림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이런 업적으로 그녀는 2004년 노르웨이의 권위 있는 인권상인 토롤프 라프트 인권상(Thorolf Rafto Human Rights Award)을 수상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 영국 외무성, 그리고 앰네스티 등 각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그녀의 석방을 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한 결과, 카디르는 2005년 3월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기 직전 석방되었다.<sup>24)</sup> 현재 그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중국 신장 위구르에 남아있는 그녀의 가족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법적 탄압 사례는 위구르 역사학자 토흐티 툰야즈(Tohti Tunyaz) 사건이다. 그는 1998년 일본 도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소수 민족 집단에 대한 중국의 정책 역사에 대해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1998년 2월 자료 수집을 위해 신장을 방문하던 도중 체포되었다. 중국 법원은 불법적으로 국가 비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11년 형을 선고하였다.<sup>25)</sup>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극단주의 집단이나 과격한 정치적 행동과 전

21) 2000년도의 한족 비율은 40.6%로 줄어들었다.

22) 국제 앰네스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장 지역은 중국 내에서 정치범죄 행위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170212004>

23) 우르무치 출신 백만장자 레비야 카디르는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지방 신문의 기사를 보냈다는 이유와 미국의 국회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1999년 8월 체포되었다. 그녀의 체포 사건은 위구르에서 비밀리에 수행되고 있는 불법 종교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억압하고 탄압하는 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였다.

24)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170352002>

25)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NEWS220022002>

혀 무관했던 한 역사학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법적 탄압은 위구르 지역의 문화, 종교, 그리고 정치사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골적 통제와 적극적 개입의지를 드러낸 사례였다.

네 번째 유형은 문화적 탄압이다. 2002년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대학교에서 위구르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구르어로 발간된 수 천 권의 책들을 소각시키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시행하였다(Armijo, 210). 위구르 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이러한 시도로 위구르인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신장 위구르의 과거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억압과 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위구르 무슬림들의 종교적·문화적 정체성 확립 의지도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의 문화와 종교 부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종교와 문화의 부활 → 이에 대한 강압 조치 → 위구르 무슬림들의 반발과 소요 사태 유발 → 위구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강력한 탄압과 진압을 통해 자신들의 신장 지역 통치와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사회적 탄압이다. 중국 무슬림들은 무슬림 시민사회 조직을 구성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무슬림 조직들은 중국 이슬람협회나 종교사무국(Religious Affairs Bureau)의 승인 하에 설립될 수 있는데, 중국 이슬람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관장하고 있는 이 두 조직은 공산당 당원들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비록 공산당 당원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이들은 주로 각 종교의 관행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사무국이 종교 사업을 지원하기보다 통제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중국 이슬람과 관련하여 종교사무국은 각 모스크의 이맘을 최종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금요일 합동예배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 또한 종교사무국은 모스크의 보수공사, 새로운 신축 그리고 이슬람학교의 건설 등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사무국은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이슬람대학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교과과정, 학생들의 입학 그리고 교수의 선발 등을 관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자 원하는 유학생들이나 하즈(순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중국 무슬림 공동체는 매년마다 하즈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중국 정부는 무슬림들의 하즈 순례를 허용하였다. 중국 이슬람협회에 의하면, 매년 약 2000명의 무슬림들이 정부 지원의 하즈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즈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무슬림이 하즈를 하려면 60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 갈 수는 없다. 또한 중국 정부가 매년 허용하고 있는 하즈 가능 인원수 2000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허용하고 있는 무슬림 백만 명당 1000명의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사우디에서 허용하고 있는 계산법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허용해야 할 무슬림의 수는 2만 명이 되어야 했다. 이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무슬림들은 독자적으로 하즈를 계획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하즈를 갈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중국 무슬림들은 하즈를 갈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다. 2004년 중국 정부는 나이 등 일부 규제 조건을 완화시켰지만, 인원수는 그대로 2000명을 유지하였다. 2006년에는 하즈 참가 인원수가 7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이나 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이었다. 중국 전역의 무슬림 공동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대응하고 무슬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시민사회 이슬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중국 전역의 무슬림들을 하나로 묶고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구축이



었다. 중국 무슬림들에게 이 네트워크는 정보의 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공동체들이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 분배,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과 정보화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육아 및 요양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업에 성공한 무슬림들도 중국 무슬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bid., 211).

중국 내 무슬림 공동체의 규모와 역할과 기능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등장과 함께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집권 직후 중국 내 모든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이로 인해 모스크와 주변 지역의 토지들은 모두 중국 정부로 귀속되었다. 특히 문화혁명 직후 많은 모스크들이 도시개발 계획의 진행으로 파괴되었다. 도시 지역의 모스크가 파괴되자 모스크 주변의 무슬림 거주민들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무슬림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졌고, 결국 무슬림 공동체는 한족의 거대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작은 섬으로 전락하였다.

중국 공산당과 한족이 지배하는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 집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국 무슬림들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원주의나 다민족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처지도 아니다. 대부분의 중국 무슬림들은 정치적 행동가들이 아니며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적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가끔 이슬람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해당했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중국판 살만 루슈디 사건이었다. 드루 글레이드니(Dru Gladney)에 의하면, 1994년 중국에서 이슬람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중국 내 모든 출판물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 책임이 중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전역의 무슬림들이 항의시위에 돌입하자 중국 정부는 출판된 모든 책들을 수거하는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Ibid., 213).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들과 달리 중국 전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회족 무슬림들은 한족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한족과 회족은 수세기 동안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반감은 그들이 함께 살면서부터 잉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나라 시기부터 잉태되었던 한족과 회족의 갈등은 인종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하였다. 한족들은 회족들을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회족들은 한족들을 옹졸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중국의 어디를 가나 한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회족들은 한족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일방적으로 당하는 처지였다. 한족의 공격을 받았을 때 회족들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회족들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족들은 회족들의 집단적 대응을 인종 문제로 비화시키곤 하였다. 2000년 산둥성의 한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회족 무슬림들은 한족 식육점에서 ‘무슬림 돼지고기’라고 표시된 간판을 발견하고 주인을 설득하여 이슬람에 공격적인 문구를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식육점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회족 무슬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정부는 회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3명을 체포하여 구금시켰다. 3명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웃 마을의 회족 무슬림들이 가세하였으며, 시위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사건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족 식육점 주인이 라마단 기간 중에 모스크 밖에 돼지 모리를 걸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격분한 수 천 명의 회족 무슬림 시위대들이 도심으로 진격하였다. 중국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6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베이징 정부가 개입하여 지방 관리들을 파면하고 사망자 가족들에게 보상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중국 한족들은 무슬림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마다 돼지고기를

이용하였으며, 그 역사는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문화혁명 기간 동안 홍위병들은 무슬림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거나 집에서 돼지를 기르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하남성에서 한족과 회족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갈등은 한족과 회족 간 인종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주변 지역의 회족 무슬림들이 가세하며 시위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북서 지역의 닝샤에서 회족 무슬림들이 비행기 한 대를 대절하여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방 정부는 약 만여 명의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하였고, 비상사태도 선포하였다. 결국 이 인종 갈등은 148명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다(Ibid., 215).

중국 무슬림 공동체들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과 인권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들은 중국 한족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거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한족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방법은 이슬람 교육의 확대와 강화였다. 교육은 중국 무슬림 공동체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활성화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매년 중국 전역에서는 수 백 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이슬람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이들을 졸업하자마다 이슬람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소외지역 무슬림들을 위해 수년간씩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살면서 소외지역 무슬림 청소년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고, 이슬람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도 이슬람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대학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졸업 후 소외된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 정부가 초·중·등 교과과정을 통제하고, 공립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만의 교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전이나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이슬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남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한 개인을 교육시키는 것이지만, 한 여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Ibid., 220).

하지만 무슬림 젊은이들이 무슬림 소외 지역에서 이슬람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국 내 무슬림 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이슬람관련 정보 공유 그리고 자선사업 유지였다. 이들을 통해 매년 많은 무슬림 부유층들이 소외지역의 무슬림들에게 컴퓨터, 식량, 의복, 학용품, 그리고 학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무슬림 공동체와 전 세계 이슬람 공동체 사이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의 독재가들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 전반에 걸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외지역 무슬림 어린이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없었다. 한편 2000년부터 중국 무슬림 대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준수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 집을 얻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이슬람식 음식을 요리하고, 대학교에서 이슬람 음식 시식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무슬림 공동체의 이슬람 프로젝트와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일부 대학생들은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집중 치료 훈련에 참여하여 교육을 마친 후 소외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슬람대학 졸업생들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위기에 처해있던 무슬림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무슬림들의 문맹률을 낮추었고, 소외지역 무슬림들의 이슬람 지식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중국 무슬림 공동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중국 이슬람에 대한 해외 이슬람국가들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 6. 결론

중국의 이슬람은 몽골족이 통치했던 원나라시기에 가장 활성화되었으며 중국 전역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명나라시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이중 정책이 추진되어 혼란을 겪었고, 청나라시기에는 억압과 탄압의 직접적 대상이 되어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었으며, 문화혁명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스크들이 파괴되었고 많은 무슬림들이 학살을 당하는 수난과 비운을 맞보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 무슬림들에 대한 한족들의 인권 탄압이 시작된 시기는 이슬람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원나라시기부터였으며,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한족이 정권을 장악한 명나라시기였고, 본격적인 탄압과 수난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청나라시기부터였다.

현재 중국에서 무슬림을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는 중국 정부가 인종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족이라는 용어이다. 회족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무슬림이라는 용어와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무슬림들은 인종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구분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족이라는 용어보다 무슬림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중국 무슬림들의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인종과 종교 사이의 정체성을 구분하려는 시도이다. 중국에서 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무슬림들은 최근 인종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구분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무슬림들은 종교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이슬람 교육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과거의 전통을 부활하고, 종교적 믿음을 강화하며, 오늘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급속한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무슬림들은 이념적으로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역사에서 무슬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 내 한족과 무슬림 사이의 갈등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신장 위구르 무슬림이나 회족 무슬림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무슬림들에 대한 한족 및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형태는 원나라 당시의 간접적·사회적 탄압, 명나라와 청나라시기의 직접적·문화적 탄압, 그리고 현대의 정치적·종교적 탄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중국 한족의 관점에서 중국 무슬림들은 중국 문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중국 한족들은 중국 전통문화를 거부하는 이슬람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족들의 이슬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국 한족들에게 무슬림들은 몽골족과 같이 야만적이고 무정하고 공격적이고 욕심 많고 위선적이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였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험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슬람의 미래가 결코 비관적이지 않은 것은 중국 무슬림 젊은이들이 무슬림 소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슬람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 내 무슬림 공동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슬람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선사업과 의료 활동 그리고 복지사업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2007).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 황병하a(2009). “신장의 이슬람역사와 중국의 대 이슬람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제30-1호, 107-140.
- 황병하b(2010). “위구르족·회족 무슬림의 정체성과 문화집변 양상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제30-3호, 223-256.
- 황의갑(2012). “이슬람 동방전파의 유형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제22-1집, 1-24.
- Armijo, Jacqueline(2008), “Islam in China”, Asian Islam In the 21th Century.
- Broomhall, Marshall. (1910) Islam in China, London: Morgan and Scott.
- Esposito. John L., John O. Voll, Osman Bakar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 Fuller, Graham E. & Lipman, Jonathan N. (2004) Islam in Xinjiang. ed. Starr, S. Frederick. New York: M. E. Sharpe.
- Gross, Jo-Ann. (1992) Muslims in Central As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uman Rights Watch, (2005) Devastating Blows: Religious Repression of Uighurs in Xinjiang, Vol. 17, No. 2.
- Israeli, Raphael. (1980) Muslims in China, London: Curzon Press.
- Jaschok, Maria & Jingjun, Shui. (2000) "The History of Women's Mosques in Central China", Richmond, Surrey: Cuzon Press.
- Millward, James A. (2007) Eurasian Crossroads-A History of Xinjiang, N.Y.: Columbia Univ. Press.
- Wakeman, Frederic. (1967) Strangers at the G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BC News, "Robinson Warns China on Repression", 2001/11/8.
- Financial Times, "US Fails to Find Home for Uighur Detainees", 2004/10/28.
- New York Times, "American Gives Beijing Good News on Terror List", 2002/8/27.
- <http://hrw.org/reports/2005/china0405/>
- <http://www.hrw.org/world-report-2012/world-report-2012-china>
-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170212004>
-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170352002>
-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NWS220022002>

## 발표3

## 중세 종교 용어의 한국어 번역: 『신비의 혀』 읽기

신규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신비의 혀』는 중세 페르시아 문학의 최고봉으로 불린 샴세딘 모함마드 허페즈 쉬러지(Shamseddin Mohammad Hafez Shirazi, 1390 사망)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한 시선집이다. 이 시집은 일부 작가와 학자를 제외하고 독자들에게 이해가 쉽지 않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종교용어가 시행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 페르시아 고대 종교와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 전체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다보니 국내에 소개된 몇 안 되는 페르시아어 번역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 글은 중세 페르시아 최고의 문학 작품이 국내의 많은 독자들에게 제대로 소개될 수 있도록, 이 작품에 번역된 종교용어를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샴세딘 모함마드 허페즈 쉬러지는 대체로 허페즈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에서는 하피스(Hafis)로 불린다. 괴테는 허페즈가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시인"이라고 극찬했고, 생의 말기에 허페즈 시에 대한 화답으로 『서동시집(西東詩集)』을 지었다. 허페즈는 젊은 시절 말라마티(Malamatis)의 수피 종단과 깊은 연관성을 맺었는데, 이는 그의 시세계에 잘 드러나 있다. 허페즈의 시가 수피(Sufi)적인 가치로 이뤄져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허페즈는 중세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가잘(Ghazal, 사랑시) 시인이었다. 가시데(가시다), 마쓰나비, 루바이야트와 더불어 페르시아 시의 4대 장르를 구성하는 가잘(시 행수는 7-14행 사이이며, 마지막 행에 시인의 호가 등장)은 술과 사랑을 다루고 있으나, 수피즘(Sufism)과 연결되어 있다. 허페즈의 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연인과의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은밀한 방법으로 수피 신학을 읊조리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시적 특성은 새로운 문체의 출현이며, 연인과 신에 대한 사랑을 절묘하게 혼합시켰다는 점이다.

허페즈의 시학은 이슬람의 시대에 고대 페르시아 종교 사상의 영향아래 놓여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학문적인 분석은 필수적이며, 필자의 허페즈의 시 번역도 이런 틀 안에서 이뤄졌다. 예컨대 필자는 허페즈의 시에 나오는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 수피즘과 관련된 페르시아의 고대와 중세의 종교용어를 한국어로 적절하게 옮길 수 없을 경우, 이를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큰스님, 승복 등)로 옮기고 있다. 이 글은 그 이유에 대한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 사상적인 배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수피즘을 비롯한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에 관한 이해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독자 역시 이 시집에 대해 난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Ⅱ. 중세 페르시아 수피 문학

중세 페르시아 수피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페르시아 수피즘의 토대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란(페르시아)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일신론적 토대로부터 종교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에 이슬람이 등장한 것은 페르시아 사산(Sasan, 기원후 226-642) 왕조의 멸망 이후이며, 이슬람은 아랍 무슬림들에 의해 유입된 외래종교이다.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고대로부터 형성된 종교체계는 미트라교-조로아스터교-불교-수피즘-마니교(신불교)로 연결되는 범신론적인 종교문화이다. 이란·아리안의 사유체계에서 볼 때, 수피즘은 미트라교(기원전 15세기 페르시아 중부 지역, 케르만에서 발생)의 연속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구도승이 도에 입문할 때 봉헌식을 치르는데, 아흐레학(Ahl-e-Haq)으로 불리는 수피주의자들이 내리는 음식(디그 주쉬), 목욕의례(고슬 타새로프) 등에서 미트라교에서 전수된 의식들이 수피즘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조로아스터교도와 같이 불과 빛을 신성시한다.” “불교의 수많은 요소들이 조로아스터교와 유사하며, 불교를 출현시킨 브라만교도 불을 사용하며 아리안의 뿌리를 갖고 있다. 즉 조로아스터의 종교적 덕목은 수많은 관점에서 부처와 유사하다.” “아베스타 문화에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바오자(Baoza)라는 용어가 있는데, '붓다'의 뿌리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깨달음을 의미한다. 부처가 탄생하기 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헤커맨쉬, 기원전 559-기원전 330) 왕조에서 몇 명의 붓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페르시아 수피즘은 이란·아리안의 전통적인 믿음체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로 이어지는 일신론적인 셈족의 종교와는 대척점에 있다. 페르시아인들의 道로 불리는 애르펜(Mysticism)은 미트라교, 조로아스터교의 요소가 담겨 있다. 이란인들의 정신적 원형으로 불리는 애르펜을 토대로 해서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페르시아에서 불교가 쇠퇴하고 난 후, 잔존한 불교사상인 수피즘은 중국에서 천 년 동안 번성했던 마니교의 토대가 되었다. 불교이전의 미트라교나 조로아스터교에서 연기와 윤회라는 용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부처 이전에 업과 윤회의 관념이 존재했으나 연기론은 부처가 터득하고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연기는 부처 이전부터 존재해온 이치였다. 애르펜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바흐다테 보주드(Vahdate Vojud, 존재의 유일성 혹은 범신론) 이고 다른 하나는 하르카테 조하리(Harkate Johari)이다. 필자는 일부 이란 학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후자가 연기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페르시아어 그대로의 뜻으로는 '본질의 움직임'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연기의 의미는 현상의 움직임을 바르게 보는 것이며 여기서 현상을 대신해서 본질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다.

페르시아 수피즘은 이슬람 수피즘과 다른 별개로 간주해야 하면서, 이슬람 수피즘 안에 페르시아 수피즘적인 요소가 녹아있다. 즉 이슬람 시대가 도래하면서, 페르시아 수피즘은 이슬람 수피즘으로 그 명칭을 달리한다. 이슬람의 틀 안에서 수피즘을 파악할 수 없는 이유이고, 사실상 이슬람 수피즘은 페르시아 수피즘의 연속선상에 있다. 단지 이슬람 시대가 출현하면서 용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슬람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다. “이슬람 수피즘에서 불교적 성향은 아주 분명한데, 파나(Fana)가 불교의 니르바나(Nirvana)와 연결되고 있다. 심지어 불교도들의 염주와 동냥그릇도 무슬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슬람 수피즘의 다른 한 축은 바가(Bagha)인데 신과의 합일, 불멸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자는 특히 지속성(Duration)의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나와 같이 정통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무슬림 문화 중에서 불교의 영향은 수피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파나와 바가 이외에도 수피들의 삭발의식과 만행에서도 이런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외래종교인 이슬람이 페르시아에 유입된 후, 페르시아는 쉬(시)아 이슬람을 주창하게 된다. 그러나 쉬아 이슬람은 페르시아 수피즘과 단절되지 않았으며, 부처나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쉬아 문화에 흡수되었다. 쉬아와 순니파의 성립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란에서 발간되는 문헌에서는 쉬이즈(Shiism, 쉬아파의 교리)이 수피즘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수피즘은 미트라교와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고대부터 지속돼 온 페르시아 종교문화와 계보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허페즈의 시에도 수피뿐만 아니라, 미트라(페르시아어로 메흐르라고도 하는데, 태양을 의미함)와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언급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 페르시아에서 왕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지만, 일반 백성들은 불교를 신봉했으며 불교의 사상이 남아 페르시아 수피즘으로 존속하고 있다. 수피즘은 페르시아인들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란 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허페즈를 비롯한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은 이슬람의 시대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체계를 버리지 않았으며, 허페즈의 시 역시 이런 토대위에 성립되었다.

고대 페르시아의 수피즘은 중세 페르시아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중세 페르시아 시문학은 수피 문학(Sufi Literature)으로 불린다. 이슬람이 도래한 후 페르시아 수피즘은 이슬람 수피즘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은 수피즘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페르시아어 문헌의 관점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수피즘과 같은 종교문화를 잘 이해하면, 중세 페르시아 시문학은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미트라교-조로아스터교-불교-수피즘-마니교-마즈닥교로 연결되는 페르시아의 신앙체계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페르시아의 고대종교에 맞춰서 종교용어를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중세 페르시아 시문학은 이슬람의 틀 안에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로부터 이어져 온 종교문화의 영향아래 발달했다. 수피(Sufi)들은 조로아스터교도와 같이 불과 빛을 신성시하며 수피즘과 관련된 구절은 아베스타(조로아스터교의 경전)에서 흔히 발견된다. 좁은 의미에서 수피즘이 존속한 불교 사상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수피즘은 조로아스터교와 신플라톤주의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Bahar(혹은 Vahar)는 불교 사원, 불교터나 불교와 관련된 학당의 의미인데, 이란에서 Bahar와 관련된 도시와 마을들은 그 뿌리가 불교와 관련이 깊다. 이란에서 발간되는 불교 관련 논문을 보면, 알렉산더에 의한 동진 이후 성립된 페르시아 살루키(Saluki, 기원전 330-기원전 250) 왕조 때 불교는 이미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에쉬커니(Eshkani 혹은 파르티아Partia, 중국명 안식, 기원전 247-기원후 224) 왕조를 거쳐 사산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 동안 페르시아 전 지역은 대체로

불교가 숭상되었으며, 대부분의 백성들은 불교도였다. “결론적으로 파르티아 왕조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불교도의 활동, 시대가 흐르면서 사산조까지 이란 불교도들의 활동을 통해, 이들은 소그드인, 사카인, 애쉬카니인, 쿠차와 코탄 출신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페르시아 파르티아와 사산조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이란 불교도들이 포교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르시아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이란 승려들은 중국 불교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중국적으로 한반도의 삼국시대로 전이되는 계기가 되었다. 페르시아 사산조의 카르티르 副王이 역불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세기 동안 불교국가였던 페르시아에서 불교가 힘을 잃었고 잔존한 불교사상은 페르시아 수피즘을 형성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불교와 고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허페즈 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고려이다. 선사와 같은 한국 문학의 전통도 이런 계보의 선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고대 삼국에 남긴 파르티아(애쉬커니)와 사산 문명의 발견』이라는 페르시아어 문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인용한다. 고대 페르시아 문명의 한 축을 맡았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 고대 불교문화는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헌을 통해 그 근거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애쉬커니 왕조에서 그 영토의 사람들이 불교의 마하야나 종파의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소그드인, 코탄인, 사카인, 파르티아인들과 페르시아 문명의 축 안에 있는 다른 승려들은 중국과 중국 불교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앙아시아 불교의 영향과 다양한 결과는 중국적으로, 한반도와 고대 삼국 시대로 유입되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이를 대변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관계는 이에 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계는 이슬람 시대 이전과 중국적으로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 사산조 영토에서의 만남에 관한 설명이다.”

“쿠산 왕조는 이란계 민족들에 의해 성립된 왕조였으며, 아대륙(인도,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 근거를 둔 자신들의 영토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대승불교의 전파를 위해 포교승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물론 애쉬커니 왕조에서 살았던 페르시아인들의 불교에 대한 역할은, 아대륙 불교도들과 쿠산인들의 노력보다 훨씬 더 불교의 이상과 목표를 배가시키고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교 승려들과 통역인들은 2세기 이후 4세기까지 그 시대 극동아시아까지 다녔었다.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애쉬커니인, 소그드인, 파키스탄(인도)-사카인과 고대 페르시아의 다른 지역 출신의 불교도들이었다. 그들은 애쉬커니 시대부터 사산 시대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진작시키기 위해 불교 경전의 번역과 같은 가치 있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마즈다(조로아스터)교의 요소와 신화는 불교적 믿음과 혼합되었다. 중국에서의 불교 가르침과 경전을 통해, 한국으로도 유입되어 한국 불교에 영향을 남겼으며 예술적인 특징에도 포함돼 있다.”

“불교를 발전시키고 정점에 이르게 하는데 페르시아화된 불교의 영향은 너무나 넓고 광대하지만, 페르시아와 동방의 그리스 문화와 불교와의 혼합을 통해, 사산 문명의 영향아래 하나의 문화-예술적인 현상이 출현했는데, 이를 '사산-불교'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것의 발달 장소는 쿠산 왕조의 지역, 중앙아시아에서의 비단길과 아프가니스탄을 축으로 한 지역 특히 4세기 카불 유역에서라고 알려져 있다.”

9세기 아랍의 통치 이후 아랍어를 대신해서 페르시아어가 재등장하면서, 시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다키(Rudaki, 940년 죽음)를 위시하여 10세기부터 찬란한 페르시아 문학은 황금기



를 맞이하였고, 15세기 저미(Jami, 1414-1492)를 마지막으로 찬란한 페르시아 고전 문학은 그 빛을 잃었다. 이후 페르시아 시문학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대륙으로 옮겨가 만개했다. 이들 중세 시인들의 사상적 저변에 자리 잡은 사유체계는 고대 조로아스터교와 불교 사상인데, 존속한 불교사상이 페르시아 수피즘으로, 이슬람의 도래 이후 중세에 이르러 이슬람 수피즘으로 출현한다. 이러한 수피즘은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의 시적 사상을 지배해 왔다. 그러므로 수피즘이라는 영적 전통에 대한 이해 없이 페르시아 고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란은 시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시적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페르시아 수피즘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시대의 수피즘은 10-15세기에 걸쳐 중세 페르시아 고전 시인들의 사상을 지배했다. 중세 페르시아 수피 시는 코드화 되어있어 시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서양에서 시는 언어적 유희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페르시아의 경우 시는 직관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은 유희 차원에서 시를 썼던 것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물로 시가 기술되어 있어, 영성의 깊이를 맞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페르시아 중세 시인들은 성자 급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묘소는 신성시 되고 있다. 고전 시인들의 이러한 시는 '마음'의 발달 단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페르시아 수피즘은 이러한 발달 단계를 불교와 같이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허페즈를 비롯한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이 가장 중요시한 핵심 용어가 '마음'이며, 이는 각 시인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허페즈의 시속에서 마음은 감성(직관)의 중심체로 쓰이고 있으나,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용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 Ⅲ. 허페즈의 시학

허페즈의 시학은 그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피즘의 가르침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허페즈 시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페르시아 수피즘과 관련되어 있어 수피즘 연구는 고대 페르시아 신앙 체계에 대한 연구로 연결된다. 허페즈의 시학은 신적 근원을 체험하기 원하면서도 이슬람교와 같은 특정종교에 귀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페르시아 고대 철학사상과의 연관성 안에서 그의 시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수피즘의 용어는 이슬람교의 도래 이전에는 페르시아 수피즘으로, 도래 이후에는 이슬람 수피즘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현한 이슬람교에 대해,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을 제쳐두고, 이슬람교가 유입되었다고 오로지 그 신앙 체계만을 숭배하지 않았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피즘의 고향은 페르시아이며, 고대 페르시아에서 수피즘이 태동했다. 따라서 페르시아 수피즘과 이슬람 수피즘은 다른 차원의 수피즘으로, 페르시아 수피즘이 이슬람 시대에 유일신관(타우히드)과 결합되어 이슬람 수피즘의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피즘과 중세 페르시아 문학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수피즘이 중세 페르시아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허페즈는 수피였으며, 허페즈의 수피 시학이 담고 있는 가장 주된 주제는 사랑이다. 사랑론은 서구의 이성론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페르시아 문학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철학과 사상론으로 까지 발전되어 있는데 직관의 영역에 해당한다. 허페즈의 사랑론은 동포애, 연인과의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이란 출신의 대부분의 시인들과 같이, 허페즈의 시는 윤리적, 도덕적인 면을 담고 있다. 특히 중세 페르시아의 수피 시들과 같이, 영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궁극적인 자아에 이르게 하는 수피즘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즉 신비적 직관인 영지(마으리파트, Ma'rifat)를 얻기 위해, 영적인 스승에 해당하는 모그(Mogh 조로아스터교의 사제, 피르 모그 Pir Mogh 대사제)의 가르침은 필수적이다. 그의 시에는 모그(혹은 피르 모그)와 함께, 영적인 안내자로 선택(Salek)이란 용어도 나오는데, 필자는 이 용어를 구도승으로 번역하고 있다. 신의 유일성(타우히드)이 이슬람 수피즘의 주요한 교의중의 하나이듯이, 허페즈는 코란에도 커다란 비중을 두었으며, 이성학에 관한 연구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

셋째, 대부분의 중세 수피 시인들과 같이, 운명예정설(Taghdir)을 굳게 믿었으며,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공으로 보면서 덧없는 삶을 노래했다. 대부분의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시를 남겼으며 허페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삶에 대한 만족과 겸손을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성직자들의 위선을 질타하고,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시를 선보이고 있다. 성직자들의 위선에 찬 행동과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은 시의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또한 그는 재치, 유머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시적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 IV. 시선집 종교용어의 분석틀

허페즈 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 대상은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신비의 혀』라는 허페즈 시선집이며,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틀은 아래의 네 가지 관점에 따라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인 미트라교-조로아스터교-페르시아 불교-수피즘으로 연결되는 신앙체계와 관련해서, 각 종교에서 특수하게 등장하는 용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해 1), 2), 3)으로 나눠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다. 예컨대 미트라교에서 태양(신),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를 뜻하는 모그(Mogh), 불교와 관련되어 나오는 보트(Bot, 우상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트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연인과 성상으로서의 불상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중세 페르시아 문학에서 보트(bot, 우상)라는 용어는 흔히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숭배의 대상인 '불상이 서있다'는 의미로 '봇다'란 단어로 바뀌어 '부처의 상'이라는 뜻이 되었다. '아름다운 우상'(Bot-e-Araste)이라는 표현은 페르시아 문학을 비롯해 허페즈의 시에서도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 신자들과 문학생들은 자아 소멸의 길에서 매달리는 대상이 '보트'이다. 페르시아 문학에서 '보테 친(Bot-e-Chin)'은 '투르크캐스탄의 부처'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투르크캐스탄은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서투르크캐스탄이 아니라 중국 신장성의 동투르크캐스탄을 지칭한다. 페르시아 고전 시인들은 불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시로 표현하곤 했다. 이슬람 시대 이후 페르시아 문학의 근원으로 불리는 페르도우시(Ferdowsi, 940 혹은 941-1020 혹은 1025)의 『왕서(Shahname)』에서 흥미로운 점은 부처와 불교적인 것의 명칭과 특징에 관해 언급하면서 전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수피적인 작품 속에서 불교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 1)조로아스터교의 종교 용어

대사제인 술집 주인이 날 위해 문을 열지 않는다면,  
난 어느 문을 두드릴 것인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신비의 혀』, 28쪽)

대사제의 칙령을 들었네만, 옛날에도 그러했듯,  
술이 금지되어 그곳엔 친구와 연인도 없네.(100쪽)

내 가슴에 말해 다오. “파르스 지방 배화교 사원의 화염을 잠재우라고.”  
눈에게도 말해주오. “바그다드의 티그리스 강처럼 흐르는, 얼굴의 눈물을 거둬 가라”고(138쪽)  
대사제여 영원하라! 나머지는 중요치 않나니.  
다른 이는 말한다. “내 이름을 당신의 기억에서 지우라”고.(138쪽)

대사제가 기도용 깔개를 술로 적시라고 명한다면,  
구도승도 임시 거처의 道와 관습을 모를 리 없건 만.(148쪽)

잘생긴 동자승이 술 따르는 곳 있다면,  
그 술집에서 눈썹으로 청소하듯 존경하련다.(163쪽)

무슨 연유로 배화당의 대사제가, 내게 존경을 표하는도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항상 내 마음속에 있도다.(186쪽)

수도자여! 조심하오, 운명의 장난에서 안전하지 않으니.  
수피사원과 조로아스터교 사원의 거리가 멀지 않나니.(210쪽)

대수피는 한 종교에 매몰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듯 보이도다.  
왕의 목에 건 염주는 조로아스터 교도의 둥근 허리띠에 비견되도다.(213쪽)

## 2)미트라교의 종교용어

동방에서 술잔, 포도주의 태양이 떠올랐으니,  
그대, 즐거움을 찾으려면 잠을 줄여야겠소.(31쪽)

우주 만물은 그대의 키스로부터 살아나네.  
오! 태양이여, 그대의 그늘이 날 지켜주지 못하므로.(36쪽)

내 마음속에 폭압의 티끌 있으며, 오! 신이시여, 원치 마소서.  
나의 믿음인 태양 같은 거울도 투명하지 않을지니.(95쪽)

### 3)수피즘과 불교의 종교용어

달덩이 같은 연인, 살짝 벗은 옷으로 헌신함은,  
금욕과 절제의 수피 천 벌 옷보다 낫도다.(47쪽)

수도원과 수피들의 장삼이 도리어 내 맘을 어지럽히니,  
큰스님은 어디 있나. 그림구나! 순수의 술.(63쪽)

연인의 눈썹, 태워버린 승복이 생각나고,  
홍예문 같은 그대 눈썹 각에 대한 기억을 술잔 속에서 본다.(74쪽)

금욕적인 그대의 수피 장삼 태워버려라, 허페즈여!  
내가 불이 된들, 그 승복으로 옮겨 붙지는 않으리니.(79쪽)

움직임이 예쁜 나의 우상, 일어나 모습을 보여 주오.  
허페즈와 함께 생명과 세상의 소망으로부터, 손 뻗쳐 일어나리니.(81쪽)

때 묻은 수피 장삼이 미덕을 떠벌리는 데 질렸고,  
부인의 얼굴빛과 포도주 빛을 보니 심히 부끄럽네.(94쪽)

나는 위선의 수피 장삼을 찢어 버릴 테니,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영(靈)을 수피와 논하는 것은 무서운 고문이라네.(100쪽)

허페즈가 당신에게 절한다 해도, 허물이 없을 것이며  
오! 우상신이시여, 사랑의 이교도는 죄가 없나니.(118쪽)

공상 속에서 난 이런 소망 품고, 우상신(연인)을 조종하는 인형극 놀이를 하나니,  
탁월한 대가들이 구경꾼의 언급을 무색케 할 것이니.(120쪽)

수피의 장삼, 일곱 번을 씻고 백 번을 태운들,  
그 술 빛깔이 사라지지 않으려니, 술에 찌든 승복으로 포도주를 만들도다(126쪽)

오! 베푸는 자여, 부디 그대 길머리에 서 있는, 탁발승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지니.  
다른 연인의 대문도 모르고, 다른 길로도 가지 않으려니.(134쪽)

수피들이 악의 근원이라 일컫는 쓰디쓴 술,  
내겐 처녀와의 입맞춤보다 더 달콤하다.(156쪽)

누구라도 마지막엔 무덤 속 한 줌 흙.  
대저택이 하늘을 찌르지만 다 무슨 소용인가.(165쪽)

나, 화류가 주인의 노예이며, 그의 미덕 영원하도다.  
큰스님이나 수도자의 미덕, 가끔씩 있다가 곧잘 없다네.(208쪽)

둘째,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 사상인 범신론과 유일신관(타우히드)이 혼합되어 있는 시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허페즈는 이슬람의 시대에 살면서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사상인 범신론에 의지했다.

수피 사원과 홍등가의 중간쯤으로 날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날 굽어보시니, 나도 신과 함께 있으리다(29쪽)

내게 위엄을 과시 말게, 오! 순례의 왕, 왜냐고, 당신은  
집을 보지만 난 집주인, 신을 보기 때문이지(33쪽)

오! 마음, 존재의 근원을 해탈의 홍수가 뽑아낸다면,  
그대에게 노아가 있으니, 폭풍 속의 선원들, 슬퍼마라.(141쪽)

허페즈여! 마음의 존재를 원한다면 신에게서 떠나지 말지니,  
신에 대한 인식, 무아로 이룰테니.(149쪽)

셋째, 노자의 도가철학(Taoism)의 영향이 있는 시행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중세 일부 페르시아 시인과 사상가들은 노자, 부처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노자의 텍스트와 유사한 대목이 일부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허페즈여! 하늘의 무자비함으로 너의 마음이 참을 수 없거든,  
재앙의 악신을 향해 별뿔별의 창날을 던져라.(41쪽)

한순간 하늘이 의도대로 순환하지 않게 된다면,  
그 순환의 상태, 영원히 일정하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라.(140쪽)

하늘은 예술가들의 배를 부수어 버리니,  
이 파도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다.(151쪽)

천당 문 밖으로 나와 동냥 얻지 마라.  
하늘은 새까만 동냥 그릇을 찬 인간을 막판에 죽이노니.(164쪽)

넷째, 기법면에서 반어와 역설을 도입한 시행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의미면에서의 시적 특징과는 별도로 반어와 역설은 허페즈의 시적 기법에서 항상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특징이다.

허페즈여! 술로 얼룩진 승복을 입지 말지니,  
깨끗한 성직자여! 내 변명으로 여겨주오.(157쪽)

내 절제의 승복을 화류가의 술이 쓸어버렸네.

내 理性의 집, 그 화류가. 불붙이는 그 술집에 나의 모든 걸 걸었네.(177쪽)

흠결없는 수도승이여! 탕아의 단점, 말하지 말라.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은 당신과 무관하나니.(214쪽)

## 21세기 이문화의 다양성과 조화

좌장: 김수일 (호서대학교)

장소: K210

### I 발표1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측면에서의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

**발표:** 양경수 (동국대), 박정하 (동국대)

**토론:** 윤희중 (동국대)

### I 발표2

국제문화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 시론적 고찰 -

**발표:**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토론:** 안옥주 (대전보건대)

### I 발표3

전통 약주의 세계진출을 위한  
글로벌문화모형 연구

**발표:** 조성기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위원)

**토론:** 박정하 (동국대학교)

### I 발표4

카자흐스탄의 다문화구조:  
비카자흐인 공동체의 구성과 특징

**발표:**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표1

#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측면에서의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

양경수 · 박정하 | 동국대학교

##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국내 주민등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변화추세를 보면, 201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2.8%, 2020년에는 5%, 2050년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송종호, 2007: 91). 따라서 언제까지나 외국인이주민의 문제를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주민의 문제를 우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다문화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다문화사회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장점은 증진시키되 비용과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접근은 국내 다문화 및 해외 이주민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분석하고 재해석하면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로 한다. 특히 다문화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한 행정자료가 필요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의 불비를 지적하였듯이 본 고에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윤인진(2009)은 국내연구는 구체적 통계와 실증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연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주노동자의 초기연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을 분석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분석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오늘날 약 120만 명이 되는 외국인력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어떤 다문화정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업종이나 규모별 분포, 근로 조건, 인적 특성, 기능 수준, 자기개발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 외국인력의 상당수가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

며 그나마 합법적인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도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규용 외, 2007) 그러나 본 고의 정치적 효과 분석은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 2. 다문화사회의 개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는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영어: multiculturalism)의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그 사전적 정의는 “학교, 기업, 이웃,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은 조직적 수준에서 인종의 다양성과 운용상의 이유를 위하여 하나의 특정장소의 인구학적 구성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종문화의 수용”<sup>1)</sup>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sup> 오늘날 세계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은 국민국가 내에 인종, 언어, 역사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sup>3)</sup> 또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sup>4)</sup>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주의는 ‘개인간, 집단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용어는 1957년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영어권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그 이후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이다.

오늘날 형성된 다문화 시작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국가 -호주,미국 등이다. 다음으로는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경우 -독일, 스웨덴 등-이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

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ulticulturalism>> (2012.06.22. 검색).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p.89

3)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p.73

4)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43, 열음사, 1995.5., p.81

5) 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정책의추진실태와개선방향”, 정책보고서 2호, 2009.12.30., p.7

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사회의 특징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요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랜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특징은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김혜순 2007)를 뜻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국민통합 내지는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일단의 정책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도원리여야만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시간으로 각국의 정보를 접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로 인하여 개도국에서는 선진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이동현상이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세계 사회에서 다문화 다민족화로 인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선진국들의 급선무로 되고 있다.

### 3. 다문화사회의 편익과 비용의 의미

다문화 사회에서의 편익이란 다문화사회의 구현에 따른 사회·경제적 총편익으로써 다문화 사회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그들의 부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치의 차이로 계산되고, 총비용은 다문화사회 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비교한 값이다. '이민자 수용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음의 값일 경우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민 수용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 특히 경제적 편익을 강조한다. 보드바슨과 반덴버그(Bodvarsson and Van den Berg, 2009: 123-179)는 이민자들은 노동력제공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하게 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고 했다.(보건복지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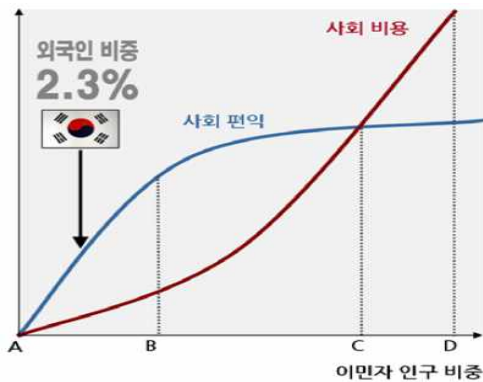
다문화사회 선진국들인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은 다문화사회의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편익이란 어떤 요소를 잘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다문화의 요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편익을 증대시키느냐에 따라서 각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의 시작 시점에 있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오랫동안 단일민족주의를 유지해 온 한국사회는 긍정적 인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당시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와 함께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이라는 다문화사회의 편익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진전양태를 보면 인력수급난이 해소 자체가 경제적 편익이 되지만, 다문화가 진전되면서 일자리 경쟁, 사회갈등 등의 다문화비용이 야기되는 것

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문제는 한 세대 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통해 극복하기 힘들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다문화의 전략이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2011)의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 연구에서 다문화 비용과 편익간 함수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간의 관계를 보면 다문화 초반기(A)에는 노동력 공급 등 편익이 두드러지지만 이민자가 늘면서 비용이 편익을 앞지르는 시점(C)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인구정책은 적어도 A시점과 B시점에서는 수립되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해외인구 유입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1> 외국인 이주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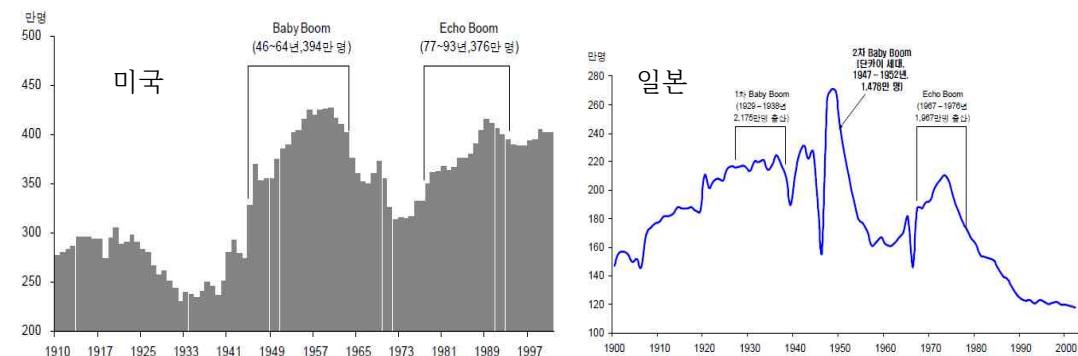


자료:최홍외(2010),다문화사회의 정착과 이민정책,CEO Infomation, 253호,2010.5.19

<그림-2>에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시점과 감소시점의 주기를 대략 10년으로 보면서 인구억제정책과 인구증대정책을 사용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이주민의 유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주민이 유입된다면 그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국가 단위 사회의 지속”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OECD 선진국의 경우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32% 낮아진다<sup>6)</sup>고 할만큼 인구구조는 우리의 삶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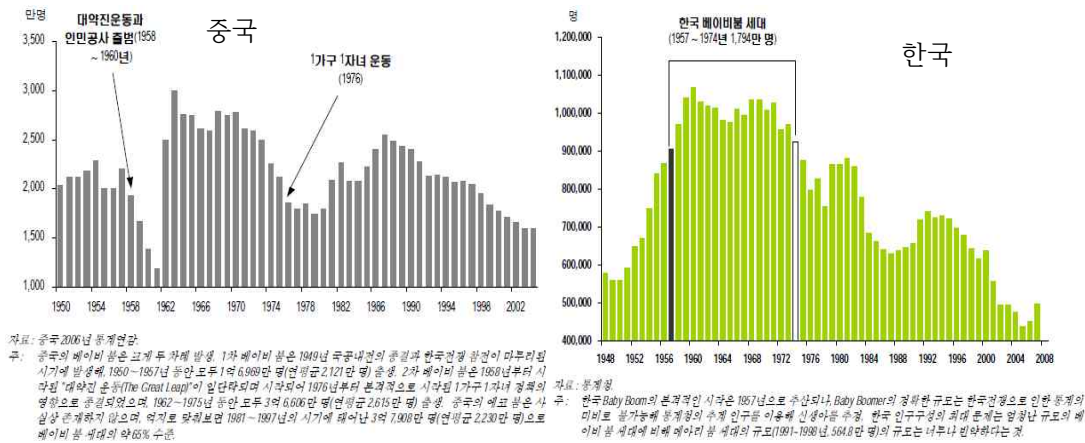
<그림-2> 주요 선진국들의 인구정책 비교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  
주: Echo Boomer의 규모는 6,389.3만 명으로, 인구대비 비중은 Baby Boomer의 23 수준

자료: 일본 정부 통계청  
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과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의 인구 Baby Boom 세대는 1930년대 세대에 비해 그 규모가 23 수준에 불과하다.

6) 강성원(2010),“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CEO Infomation 752호), 삼성경제연구소



보건복지부(2009)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즉, 사회복지와 정치 부문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노동시장과 문화 부문에서 생기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으로도 편익 규모가 꾸준히 커져 2020년에는 지금의 4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의 전체적인 편익은 4,726억 원이고, 비용은 4,633억 원으로, 순편익이 93억 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세부영역으로 보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편익이 975억 원, 비용이 725억 원으로, 251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편익이 632억 원, 비용이 931억 원으로, 299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에서는 편익이 681억 원, 비용이 820억 원으로, 138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문화영역에서는 편익이 1,025억 원, 비용이 677억 원으로, 34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정치영역에서는 편익이 598억 원, 비용이 751억 원으로 153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편익이 814억 원, 비용이 730억 원으로, 85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요컨대, 2020년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총편익이 총비용에 비해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다.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노동시장, 문화,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정치 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1>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2009~2020)

(단위:억원; 2009년)

구분	2009년			2020년		
	편익	비용	편익-비용	편익	비용	편익-비용
전체	1171	1148	23	4726	4633	93
노동시장	242	179	62	975	725	251
사회복지	156	231	-74	632	931	299
고립.격리	169	203	-34	681	820	138
문화	254	168	86	1025	677	348
정치	148	186	-38	598	751	153
연쇄이민	202	181	21	814	730	85

자료: 보건복지부(2009),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p.77

해외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없이 손쉽게 근로인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들의 수익창출로 인한 조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인력의 지속적 유입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시장소비수요 감소를 보충하고 사회보장보험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경제적 효과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1990년대에 미국의 7700만명의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주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부동산경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sup>7)</sup>

따라서 다문화 다인종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고에서는 다문화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정치적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정치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 편익

정치적 편익은 국가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경쟁력강화 그리고 국민 여론에 입각한 다문화의 효용가치를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모든 사안들이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겠지만 본 고에서는 정치적 편익의 범주를 다문화나 다민족집단에 의해서 국가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편익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미국 경제학자 Barro, R. & Sala-i-Martin, X.(2009)의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순이민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1%씩 증가했다고 주장했다.<sup>8)</sup> 이와 같이 해외이주민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은 2000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연간 70만명에서 90만명의 이주민을 유입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해외 이주민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sup>9)</sup>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등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미국의 도시들은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시너지를 형성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sup>10)</sup>

한건수(2008)는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등장원인을 ①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②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인종집단의 권리의식의 고양, ③민주주의의 확립, ④냉전의 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인한 소수인종집단을 통제할 필요성의 감소, ⑤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의 존재, ⑥소수인종집단 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 등을 제시하였다. 즉, 다문화사회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국가가 국가경영에 필요한 국가발전과 사회안정과 통합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다문화 정책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정치적

7) U.S. Bureau of the Census(1997), Immigration Bolsters U.S. Housing Market, Census Brief.

8) Barro, R. & Sala-i-Martin, X.(1992), Regional Growth and Migration : A Japan-United States Comparis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nd Japanese Economies, 6, pp312-346.

9) Martin, P.(2004), The United States. In Cornelius, W. et al.(eds), Controlling Immig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Wadhwa, V.(2009.2.10.),pp215-217.

10)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편익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캐나다의 경우 윤인진(2009)에 따르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자국의 노동력부족문제를 자국민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노동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비서구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은 거주국의 인구학적변화 뿐만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국가정체성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적으로 노동력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인 공존과 통합의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였다(윤인진, 2009). 캐나다 터론토 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도시의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주민들의 창의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도시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구의 인종 다양성, 동성애자의 비율 등으로 추정하였으며, 1위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의 창의성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lorida, R.,2002)

한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다인종이 상호 분리독립운동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해지자 퀘벡주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리운동을 차단하고자 1971년에 서구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소수민족집단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요구조건을 관철시켜서 소수인종집단의 문화보호와 평등한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거래관계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자 1990년대 이후 미국, 호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확산되었다. 그 이후 이들 국가에서는 소수민족과 원주민 그리고 소수인종·문화집단들의 요구와 압력이 점증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 생존과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한편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문화주의가 채택되게 된 것이다(한건수, 2008). 이에 캐나다에서는 정치적으로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을 통해 신규이민자들을 기존의 사회구조에 통합시켜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18세기와 19세기부터 출산율감소와 산업화과정에서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인해 이주자들을 받아 들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재건을 위해 인력교류협정의 틀안에서 남부유럽과 북아프리카로부터 대량의 노동력을 유입하였다. 그러나 1974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로 제로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주노동력유입은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이주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 전체인구의 7.4%에서 2000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49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1%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이주민중 약 40%인 197만명이 프랑스국적을 획득하였다. 출신국별구성비를 보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1962년 기준 79%가 유럽인들이었지만 점차감소하여 현재는 40%로 감소한 반면 2005년 기준 아프리카출신 이주민들은 1962년 15.3%에서 2005년 42.2%로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출신 이주민들도 2.4%에서 2005년 13%로 증가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정치적으로 공화주의 혹은 동화주의원칙을 추구하면서 이주자들이 출신국의 언어, 문화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의 공화주의이념을 수용하는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차이를 두지 않게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기조는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예를들면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재임시, 1970년대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제로이민정책을 취하면서 이민자들의 권리의 인정,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및 지원의 입장을 취하여 마그레브지역 국가들의 자국문화와 언어의 프랑스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교사파견프로그램의 도입과 이주노동자밀집지역이나 공장에 이슬람교인들을 위한 기도소설치를 용인해 주기도했다(박단, 2005). 따라서 프랑스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서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500만명의 다인종과 그들의 문화를 프랑스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1960-1970년대까지는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이주민을 노동력의 수급차원에서 관리 및 통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전후 정치적 비전과 노동력부족문제를 다문화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저숙련근로자들은 2년이내의 한시적인 독일내 근로만 허용되고 고숙련 근로자들은 우대하는 이중적 정책을 폈으며 특히 그린카드제를 통해서 IT전문인력을 2004년 현재 17,931명을 유치하였다. 1980-1990년대 들어 이주민들이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자 이주자의 효율적 사회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정치적으로 통일의 문제가 무르익게 되자 동유럽으로부터의 난민망명신청자와 통일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연방에 살고 있던 독일계주민들이 대거 독일로 이주하였다. 이 때 이주노동자자녀에 대해 제한적으로 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 현재 독일에서 외국인, 독일인, 이주자인 동시에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후기귀환민, 이주경험이 전무한 이주민의 자녀 등을 포함하면 이주민이 15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9%에 달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6). 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적은 터키(93만), 이탈리아(39만), 그리스(19만), 세르비아(14만)순이다. 독일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2002년 현재 제조업종사비율(33.6%)이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숙련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지 않다.(OECD, 2008). 국적법 시행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회통합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민법(2005년)이 시행되었으며 이주자통합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다문화주의는 다시 재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통일독일을 달성한 것도 다문화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의 사회적 편익을 가장 많이 향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19세기까지 적은 인구규모임에도 국외로의 인구유출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며 유출인구의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제2차세계대전 전후에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전체인구 880만 중 외국인이 5.3%인 47만명 정도로 늘어났으며,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인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노동력의 적극적 유치와 1990년대 이후 구유고슬라비아연방국가로 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 때문이었다. 외국인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국가들이 33%, 비유럽지역이 51%이다(OECD, 2006).

스웨덴의 다문화주의는 이주국가의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의 수용에 기반을 두고 이주노동자에게는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문화도 인정해주면서 이주민들을 국민으로 규정한다.<sup>11)</sup>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스칸디나비아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많을 시기여서 특별한 정책이 없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그 후 1970년대 들어서 남

11)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이 다문화주의 모형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이주허가를 통해 이주자들이 자국의 시민사회성원이 되면 일정기간 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다. 전통적인 이민국가들이 이 모형을 채택한 이유는 단기간에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집단을 대규모로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동화모형과 차별배제모형의 나라들에서 표출된 이주노동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어려움에 대비되어 여러 나라에서 일종의 이념형차원에서 정책적 원리로 고려되고 있다.



부유층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이주민문제를 다룰 필요가 생기자 1975년 스웨덴의회는 이주노동자를 주류사회로 통합시키는 다문화주의정책을 채택하는 사회통합(목표: 평등, 선택의 자유, 파트너십) 정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된 이주자는 자국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노동조건, 사회복지제도를 누리며 이주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주민이 증가하고 국가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997년 이민국을 설치하고 통합정책으로 구체화 하면서 난민문제, 비자발급, 노동 및 체류허가와 관련한 문제를 총괄하고, 이를 위해 언어교육 및 직업훈련, 주택제공, 지자체에 집행책임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지자체에는 이주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수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스웨덴은 국적취득요건에서 혈통주의와 일정기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주의’를 병용하고 있으며<sup>12)</sup>, 또한 배우자 및 가족재결합형태로 장기체류허가가 쉽게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에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외국인의 기여가 없으면 국가 정치적으로 매우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외국근로자를 유치하여 국가적 편익을 최대한 높이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들의 노동력 부족시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후 열악한 국내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시기에서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치르면서 성장하는 모습에서 일자리창출의 코리아드림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외국 이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이 경제적 이유로 유입되어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2003년 이후 한.중앙해각서 폐지로 양국중 어느 국가에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국내에서의 외국인 노동력의 경제적 효과는 91년에 11%에 달했던 노동력부족률이 해외 이주민 및 산업연수생 등의 유입으로 2003년 4%로 떨어지는 것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가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윤인진,2009)

이제는 국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내 노동력이 3차산업으로 이동한 결과 1차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국가가 되어 외국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편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과거와는 달리 이민에 대한 인식도 호의적이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정철학과 맞물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다문화 정책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정과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등 한국이 본격적인 외국인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보여준 정책의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그쳐, 다문화정책은 물론 외국인 정책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1990년대 초 독일의 통일을 벤치마킹하면서 북한인력과 중국 동포인력의 대거유입을 예상한 외국인인력정책과 동포정책,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민정책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파적 경향을 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적 인권보다는 사회통합차원으로 외국인 다문화정책은 급선회하게 되어, 박진경(2011)은 사회통합의 방

12) 스웨덴에서 복유류시민은 2년, 피난민은 4년,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편으로 동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대표적 정책이 한국어교육정책이며 결혼이민자의 가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는 2009년 부터 결혼이민자 귀화필기시험 부활 및 모든 귀화신청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과 이수제를 병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외국인지원단체의 극렬한 반대여론 때문에 자율적참여제로 시범실시하고 있다.(Martiniello, 윤인진 역 2002; 홍기원, 2006)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스웨덴의 정책<sup>13)</sup>을 모방하여 지방정부의 지원사업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재정 구조상 행정인구는 곧 예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 5월 현재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 경북, 제주와 60개 시군구로 전국 지자체의 24.7%에 이른다. 특히 경남의 경우 95.0%, 경북 82.6%의 시군구가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지원정책은 본래의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성격으로 변질되게 되자 Kymlicka(2005)는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적인 사회구성과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 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김혜순(2006)은 결혼이민을 통해서 신속하게 '한국인화'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동화정책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편법과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과 불법 결혼중개업자를 양산하는 비판이 일자 2009년에 사업폐지를 하게 되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서구의 경우 노동력부족이라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결혼이민이라는 요인이 먼저 대두되고 맞물려서 노동력 충원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를 통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편익은 한국의 경우 한국적 국가정치적 리더십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사회통합을 모범적으로 달성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편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결혼문제를 해결하였고, 노동력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도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여 경제적, 사회적인 문을 해결하는 편익을 국가적으로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다문화주의의 국가정치적 편익을 정리하면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2> 다문화주의를 통한 정치적 편익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민족 대변 정당출현으로 정치 다양화</li> <li>□ 소수민족, 다민족의 정치력 향상</li> <li>□ 투표인원 증가로 소수민족의 정치단체화로 정치다양성 실현</li> <li>□ 국내 사회적 문제(결혼문제, 일자리문제 등) 해결수단</li> <li>□ 글로벌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문화추구 국가 이미지제고</li> <li>□ 집권자의 국가경영능력 리더십 발휘 역량</li> <li>□ 다문화를 통한 다양성이 창의적 정치의 기회 제공</li> <li>□ 소수민족의 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li> <li>□ 국가 자체적으로 해결불가능한 문제들의 해결가능성 제고</li> </ul> |
|--|

13) 스웨덴의 경우 해외 이주민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5. 정치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 비용

정치적 비용은 다민족과 다문화의 통합관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회적 문제나 상대적 불이익이 집단화되거나 사회문제화 되어서 국가경쟁력이나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대적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정치적 비용의 범주를 다문화나 다민족집단에 의해서 국가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정치적 비용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문화사회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편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도 있다. 예를들면, 최근 들어 다문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유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도 반이민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민족주의적 우월성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종의 집단 의식 때문이다.

덴마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이민 정당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2010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는 반이민주의를 내건 스웨덴민주당(SD, 1988년 창당)이 5.7%(20석)를 득표해 사상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스웨덴에서도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면서 여러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웨덴 자국민들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스웨덴 문화에 적응하지 않은 채 복지 혜택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들 중에는 극우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민당을 지지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그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독일의 많은 정치인들도 좌우를 막론하고 반이민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민자들로 인해 독일 사회의 지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악화되고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sup>14)</sup>

2010년 메르켈 독일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억제된 극우 파운동과 성장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하여 민족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예들드는 프랑스의 2005년 해외이주민 소요사태의 경우를 통해서 다문화적 문제점과 비용을 살펴보자.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방리유(banlieue, 교외) 지역에서 이민 노동자들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는 종종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5.11.27일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클리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경찰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두 소년(모리타니아와 튀니지출신)이 인근 변전소 시설에 감전사하며 촉발된 소요사태에 다수의 이슬람청년들이 개입되면서 클리시-수-부아로부터 툴루즈를 비롯한 프랑스 최남단 대도시 인근으로 확산되는데 불과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달리 프랑스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소요의 규모와 양상도 12일 만에 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본 토에서 비상사태법을 선포해야 할 만큼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소요 발생 12일 만에 차량 5,800여대가 불타고 1,500여명이 체포되었는가 하면,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치권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래하였으며, 의회의 정치 어젠다로 설정될 만큼 중요했다. 그 배경은 프랑스

14) 대학원신문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23>

사회가 이민자 사회는 유럽계(스페인, 포르투갈이나 동유럽 국가의 이민자들), 아랍계 마그레브 3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기타로 분류되는데 특히 아랍계 이민자들과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과 차별이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sup>15)</sup>

Pressian의 보도에서는 이번 프랑스 폭동사태는 빈민문제와 이민문제, 계급갈등과 민족문제, 무슬림문제와 도시정책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얹혀 분출된 사건이다. 10대 젊은이들이 숨어서 경찰에게 총기를 발사하고 때 지어 몰려다니며 자동차에 방화하는 폭력행위는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지, 한두 가지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다.<sup>16)</sup> 이와 같은 대규모 정치적 소요사태는 정부집권층의 정치적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좌파 사회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프랑스 정부는 도시빈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 의제 중 하나로 방리유 지역에 HLM(아쉬엘엠)이라는 국영 서민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했고,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이 지역에 공공 복지시설, 스포츠센터, 상업단지도 많이 지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은 정책입안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방리유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방리유의 자급자족 체제를 만듦으로써 그들을 방리유에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대도시 메트로폴리스에 속하면서도 그들은 도심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회색의 시멘트 환경에 갇힌 채 살아온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소외지역의 계도화를 가져왔고, 그 지역을 도시민감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소외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아랍 출신이며 무슬림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집시들을 추방했다. 집시뿐아니라 동유럽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했다. “절도와 구걸을 반복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쉽게 하겠다”며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다. Financial Times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프랑스 응답자 48%가 “이민자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랑스의 경우 다문화사회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는 가급적 외국인의 이주를 억제하고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실제로는 계급화하여 차별대우함으로써 뿌리깊은 사회적 갈등요소를 치유하지 않고 덮어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정치적 편익보다는 상대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결론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들어 이민자를 실업의 원인으로 보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 독일인 30% 이상이 “독일이 외국인으로 들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1960년대 초부터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였고 지금 그들이 독일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머물지 않고 언젠가 떠날 것’으로 여겼지만, 스스로 기만한 것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문화 사회를 구축해 공존하자는 그 접근법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자들은 동화없이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독일연방 중앙은행의 이사는 “국가에 의존해 먹고살면서도 이 나라를 부정하고, 자녀교육에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끝없이 ‘머리에 히잡 쓰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터키인들은 높은 출산율로 독일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15) 은재호(2005), 프랑스소요사개와 이민실태분석, 정세와정책, 12월호

16) pressian 2005.11.28.일자 인터넷 신문

스웨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노동력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 했으며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스웨덴도 이민자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다.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배짱이처럼 일하지 않고 과실만 빼먹는 기생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스웨덴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데는 이민 유입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불가피한 사회갈등을 낳는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부르카를 입은 한 무리의 무슬림 여성들이 복지급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백인 연금수급자를 밀치고 앞질러 가는 내용의 30초짜리 선거광고를 스웨덴의 한 방송국이 방영을 거부했다가 일부화면을 불투명 처리하는 조건으로 내보낸 일이 있었다.

2010년 11월 38세 되는 스웨덴인이 말뚝 도심에서 ‘이민자 척결’을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 비교적 무슬림에 관대한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상 최초의 자살폭탄 테러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터진 자살 폭탄 테러범은 이라크인으로 테러조직 알 카에다 관련 웹사이트가 “(테러범)타이무르 압델와하브가 순교작전을 완수했다”고 하면서 테러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후 스웨덴의 국민들은 이민 정책에 대한 재고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이어 최근 들어 유럽에서 정치·사회적으로도 국수주의적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반(反) 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유럽연합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공동이민 제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의 이주 및 다문화 문제는 각국에서 갈수록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나아가 다른 민족의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문화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표적이 되는 것은 지난 2004년 동유럽 회원국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 연합(EU) ‘빅 뱅’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경제위기 속에 더 커지고 동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사회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며 극우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분배의 몫을 이주민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화의 이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부 계층이 다문화를 배격하게 된 것이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도 우파연합의 재집권 성공과 반(反)이민주의를 기치로 내건 스웨덴민주당(SD)의 사상 첫 의회 진출로 북유럽 복지모델과 외국인에 대한 관대함의 대명사인 스웨덴마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하면서 유럽의 이민정책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국가와 보완적 관계를 갖는 노동시장에 기반을 둔 안정된 세계화가 진행돼야 한다. 그리하면 경제적 편익이 제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의 심각성은 줄어들 것이고 해외이주민의 다문화주의정책 또한 반감을 덜 갖게 될 것이다.

기타 이탈리아의 경우는 2010년 1월 이민자들이 유혈폭동을 일으키는 사회문제가 발생했으며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이슬람 이민자들에게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를 금

지하는 문화적 충돌을 낳기도 했다. 유로존 평균 실업률이 2009년 10.1%에 달하는 등 두자릿수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총생산의 9%를 책임지고 있지만 이탈리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다문화사회에서 정치담당자는 힘들게 되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1972년 프랑스에서부터 극우정당이 창당되어 오늘날에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및 오스트리아는 물론, 새롭게 민주화된 동유럽의 헝가리와 불가리아, 그리고 복지와 관용의 천국이던 북유럽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핀란드)에서도 선거를 통하여 당당하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풍조는 스킨헤드나 신나치로 통칭되며 러시아에까지 확산하여 살인사건도 드물지 않게 발생해왔다.<sup>17)</sup> 이유는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동등하게 제공한 복지정책이 재정위기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점은 북유럽의 극우정당들은 민주주의와 반인종주의를 표방하며 “반엘리트주의 및 포퓰리즘을 표방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연금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의 복지 공약”을 내세워 전통적인 극우정당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면서도 반이민정서를 이용하여 ‘자국민에게만의 복지’를 강조하는 일종의 국수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2011. 8. 2).

<표-3> 다문화 정책의 정치적 문제점(비용)

- ☐ 이민자에 대한 불가피한 공적자금 지원
- ☐ 이민자 집단 폭동발생 가능
- ☐ 정쟁의 여지 증가
- ☐ 정부의 이민자 선별기준이 작동하기 어려움(이민자의 양과 질적 수준 통제 불가능)
- ☐ 정착이민자의 증가로 이주 노동자 교체순환에 기반을 둔 고용허가제의 붕괴 가능성
- ☐ 문제의 근로자 계층들이 정착이민자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수혜자가 증가함
- ☐ 정치적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정치혼잡비용 발생
- ☐ 정치참여를 위한 계몽 및 계도
- ☐ 이민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법률 교육
- ☐ 정치참여를 위한 독려
- ☐ 선거공약 통역서비스
- ☐ 세대별 통합대책비용
- ☐ 정치집단화로 인한 이해 충돌

## 5.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사회의 정치적 편익과 비용은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도기적 국가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어 고 부가가치 상

17) 박기덕(2012), 한국 다문화사회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p.16

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있는 경제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는 것은 국민들이 고부가가치 생산쪽으로 노동력과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산업에는 필연적으로 개발도상에 있는 외국의 저숙련노동력이 유입되어서 충원되어야 산업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선진화되더라도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은 동시에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그들의 경제성장의 기반에서 외국의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해외 외국인을 다문화정책이라는 범주로 각 선진국들은 값싼 외국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종교적 이념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화하여 왔음도 확인 되었다. 한 마디로 달콤한 과일만 따먹고 껍질은 버린 결과 껍질이 썩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환경이 오염되어 인간생활에 많은 환경적 재앙을 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 살핀 본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재 노출되고 있는 다문화의 문제의 근원은 정치집권자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집권자가 다문화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좌파 정권의 경우는 다문화의 문제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보다는 자국민우선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우파정권의 집권시기에는 민족주의적인 극우파와 다문화세력들간의 충돌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이 야말로 정치적 영향관계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도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이 그들의 노동력이 부족할 때 적극적으로 외국 노동력을 유입시켜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듯이 외국 이주민을 저숙련노동력 수단으로만 한정해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제고시켜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인재로 키울 때 국가가 원하고 정치지도자들이 원하는 사회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 이주민을 성장시키는 문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에도 고숙련 전문인력들의 비중을 높여서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다문화전략을 통해서 한 차원높은 외국 이주민을 활용하는 국가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성원(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CEO Infomation 752호), 삼성경제연구소.
- 국회입법조사처(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 방향”,정책보고서, 2호.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 박 단(2005), “프랑스 문화전쟁-공화국과 이슬람”, 서울:책세상.
- 박기덕(2012), “한국 다문화사회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p.16
- 박진경(2011), “한국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 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2009),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 삼성경제연구소(2010), “다문화 사회정책과 이민정책, CEO Infomation,2010. 5.19, 제756호.
- 양서원(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9.
- 유네스코(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동녘.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한국사회학회,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2(2):72-103.
- 윤인진(2009), “이주노동자의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사)아시아인권센터.
- 은재호(2005), “프랑스소요사태와 이민실태분석”, 정세와 정책, 12월호.
- 이규용 · 이해춘 · 박성재(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적 효과 :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한국노동연구원.
- 정상준(199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외국문학 43, 열음사.
- 주섭일(2006), “유럽. 한국 이민문제와 프랑스 무슬림 소요의 교훈”,유라시아연구,제2권,제2호.
- 최경수(2011), “외국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제239호. 2011.8.4.
- 한건수(2008),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아프리카학회지 21,  
Statistisches Bundesamt, 2008.
- 홍기원(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Martiniello(윤인진 역),(2002),“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다르게 평등하게 살기”,한울아카데미.

### 2. 국외 문헌

- Barro, R. & Sala-i-Martin, X.(1992), Regional Groth and Migration : A Japan-United  
States Comparis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nd Japanese Economies*,  
6, pp312-346.
-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 Ky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 Press*.



Martin, P.(2004), The United States. In Cornelius, W. et al.(eds), Controlling Immig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Wadhwa*, V.(2009.2.10.)  
OECD(2008), 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DIOC).  
U.S. Bureau of the Census(1997), Immigration Bolsters U.S. Housing Market, *Census Brief*.

### 3. 신문 및 인터넷

경향신문 2011. 8. 2일자 8면

대학원신문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23>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ulticulturalism>> (2012.06.22. 검색).



## 발표2

## 국제문화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 - 시론적 고찰 -

김경수 | 국제갈등분쟁연구소

## I. 머리말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말이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이다. 한고조가 천하를 통일하는 계략으로 삼았다는 중국 고대 병서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에 나오는 말이지만 노자 도덕경의 중심사상이기도 하다.<sup>1)</sup>

시기적으로 2,500여년 뒤인 2004년 하버드 대학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교수가 ‘소프트 파워’(연성국력)라는 책을 내면서 현대판 ‘유능제강’을 강조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sup>2)</sup> 그의 논지는 이렇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과거 군사력·경제력 등 부국강병을 토대로 한 하드파워(경성국력)의 시대에서 문화를 토대로 한 소프트파워, 곧 연성국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는 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내지는 감성적 능력의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력의 비중이 커지는 연성국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수 싸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인 한류 바람으로 연성국력의 상승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어느덧 ‘문화’가 시대의 담론이 되었다.

이하 본고에서는 거대 담론의 중심인 문화의 개념파악에서 출발하여 문화학의 발생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제문화학(Global Cultural Studies)과 세계지역학(Area Studies)의 차별성, 국내외에서 다루어지는 국제문화학의 교육·연구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를 기초로 결론부분에서는 바람직한 국제문화학의 연구접근 방향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자의 도덕경 36장에는 ‘柔弱勝剛強’(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2)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 xiii.

## II. 문화의 개념과 문화학의 발생 배경

### 1. 문화의 개념정의

오늘날 ‘문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양식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무릇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거나 습성 전체가 문화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레비-스트로스로 “문화에는 도구, 제도, 관습, 가치, 언어 등 아주 많은 사물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sup>3)</sup>

이를 다시 요약 정리하면, “문화란 사회구성원에 의해 학습되고 공유되며, 나아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생활양식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차세대에 전달되는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기술, 경제, 사회조직, 정치, 종교, 가치, 언어’를 포괄한다.

이글의 주제인 ‘국제문화학’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문화에는 보편적인 성격과 개별적인 성격의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두발로 걷고 불과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익히게 된 순간에 인류는 문화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동물은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본능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은 육체적 능력을 보완하고자 문화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 주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인간이 자연환경에 대응해 만들어내는 문화도 구체적인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리적 조건과 기후, 역사적 변화가 특정 패턴을 가진 개별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역사, 지리 등 자연풍토하에서는 한국만의 문화가 생성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후자가 국제문화학에서의 주 연구대상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와 문명이라는 말은 종종 혼용되거나 정반대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문화를 인간의 생활 전반을 가리키는 상위개념으로 보고 문명은 그 중의 일부 즉 문명적인 문화요소로 정의한다. 혹자는 문명을 생활양식의 의식적 측면, 문화를 무의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생활양식의 모든 것이 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편의상의 구분일 뿐이다.<sup>5)</sup>

### 2. 문화학의 발생 배경

‘문화자체’가 학문적 성찰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이는 문화의 외연이 너무 포괄적이며 의미도 매우 복잡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서양에서 문화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정치적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사적·학문적 배경이다. 전자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에 필요했던 문화인류학은 역설적으로 많은 미개한 종족들에게도 그 고유한 ‘문화’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에 따라 서구인들의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성찰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질적인 ‘문

3) Claude Levi- Strauss,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tr. by J. Bell and J. von Sturmer (Boston: Beacon Press, 1969), p. 4.

4) 히라노 겐이치로 저(장인성외 역), 『국제문화론』(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4), pp. 27-28참조.

5) 문화와 문명에 관한 자세한 논급은 히라노 겐이치로, 위의 책, pp. 56-59 참조.

화들'에 대한 지식과 문화상대주의의 등장에 자극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sup>6)</sup>

후자 즉 정신사적·학문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서구인들이 자신의 문명사회가 전체가 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와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특히 전후 비문화적(야만적) 전쟁이 가져다준 문명의 파괴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속에서 서구 지식인들은 20세기 초 전환의 시기에 자신들의 시대와 정신적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다. 문화에 대한 학문적 성찰은 20세기 초 소위 '문화비판'이란 담론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이는 적어도 인문학은 과거의 규범적 탐구대상과 방법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구체적인 삶의 위기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이 전통적인 기존 학문의 구조내에서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학이 지나치게 파편화되고 전문화되어 본래의 정신인 인문학적 총체성과 비판성을 상실했다는 자아반성적인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인문학이 자신의 경계내에서 절대주의화한 개별과학들을 넘어서서 다시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구의 인문학적 지식인들이 20세기 초 중엽의 상황을 정신문화 또는 인문학의 위기로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문화학이다. 즉 엘리트주의적 지식과 문화 개념에 사로잡혀있는 기존의 분과학문들로는 현대의 새로운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을 포괄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학제적 사회·문화 연구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학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7)</sup>

1960년대부터 영국 버밍엄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는 '문화연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적 연구를 출범시킨다.<sup>8)</sup>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기존의 분과학문으로는 현대의 복잡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평가할 수 없으며 정치학, 심리학, 역사학, 문학, 예술학, 철학 등 거의 모든 인문·사회과학들이 망라된 협동적 연구를 위한 일대 방향전환을 요구하였다. 요컨대, 각 개별학문은 문화의 한 영역만 다룰 뿐 '삶의 전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없고 특히 대중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여러 계층으로 분화된 현대 문화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영미권에서 문화학은 'Cultural Studies' 또는 'Culturology'라고 불리는데 후자(Culturology)는 주로 실증적 자료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점에서 순수 인문학적인 전통적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와 구분된다.

마리오 번즈(Mario Bunge)는 문화학을 구체적 문화 시스템에 대한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역사학적 연구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공시적(共時的)으로 볼 때는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문화철학 등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 한편, 통시적 견지에서는 단지 역사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sup>9)</sup>

결론적으로 문화학은 어떤 특정 문화과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문화과학들 전체를 묶는

6) 원승룡, "문화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현대 문화학의 발생과 전망," 『범한철학』제39집(2005년 겨울), pp.80-82.

7) Henry Giroux, et al., "The Need for Cultural Studies: Resisting Intellectuals and Oppositional Public Spheres," *Dalhousie Review* (Vol. 64), pp. 472-75.

8)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은 버밍엄대학의 문화연구 학자들에 이론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비판이론을 현대 문화연구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

9) Mario Bunge, *Social Science Under Debate*(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98), p. 35. 독일에서는 문화학을 'Kulturwissenschaft'라고 표기함.

총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학은 개별 문화과학들을 네트워킹하고 사회현실에 연결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에 가깝다.

### Ⅲ. 국제(글로벌)문화학과 지역학(Area Studies)의 유사성과 차별성

문화학이 인문학의 자기성찰을 통한 학문적 반성의 결과물로 태어나 학제적 연구와 현실참여 학풍을 가져왔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화학이 1980년대 말 시작된 소련·동구의 몰락과 함께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화두가 된 국제화, 세계화와 맞물려 주목을 끈 새로운 학문분야가 국제문화학(Global Cultural Studies)이다.<sup>10)</sup>

국제문화학은 말 그대로 기존 문화학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인 동시에 기존 세계지역학(Area Studies)<sup>11)</sup>의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복합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국제문화학은 단위국가내에서의 다문화적 문화현상(예, 프랑스내 아랍문화, 아프리카계 영국인 문화 등)은 물론, 전통적인 지역연구의 연구 주제인 해외지역의 문화현상을 두루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sup>12)</sup>

여기서 해외지역의 문화현상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부분 지역연구의 내용과 중복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국제문화학이 내세우는 보다 근본적인 차별성은 지역연구 본연의 속성을 의식적으로 탈색한다는 데 있다. 즉, 지역연구나 그의 모태인 문화인류학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해외 식민지경영 목적이거나 전쟁수행 목적 또는 현대의 총성 없는 무력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즉 국익을 위한 합목적 성격이 강한 일방통행식(one way)식 연구인데 반해 국제문화학이 추구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상생과 공영을 위한 것으로 보다 동태적인 쌍방향식(two-track) 연구라는 것이다.<sup>13)</sup>

이런 견지에서 국제문화학은 국제관계의 문화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사회 속의 관계적 현상의 하나로 유학생의 교환을 들 수 있다.

본래 외국유학은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지식이나 기능을 타국에서 찾는 개인의 이동이지만 유학생이 국경을 넘었을 때부터 유학은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국제관계의 문화적 현상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의 장에서는 사람들의 상이한 문화가 직접 부딪치게 된다. 이에 부수한 문화마찰의 빈번한 발생은 현대 국제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국제문화학은 이와 같이 개인, 기업, 시민단체 등 국제관계의 행위주체가 다양화된 데 따른 각종 문화마찰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현실참여 학문이기도 하다.<sup>14)</sup>

10) 데닝(Michael Denning)은 탈냉전 이후 세계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서구중심 사고의 ‘문화학’은 종언을 고했다고 말한다. Michael Denning, *Culture in the Age of Three Worlds*(New York: Verso, 2004), p. 64.

11) 지역연구(Area Studies)는 당해 지역이나 국가의 개별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특정 장소나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김경수, “지역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세계지역학회 논총』(24권 1호, 2006), pp. 8-11 참조.

12) 이런 이유에서 일부 학자는 국제문화학을 ‘초국가문화학’(transnational cultural studies)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Imre Szeman, "Global Cultural Studies?", *Minnesota Review*, Vol. 76, No. 1(2011), p. 142 참조.

13)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 세계화시대의 지역학이 그러한 고정관념에 따른 연구를 고집한다고 할 수는 없다.

#### IV. 국제문화학의 교육·연구 현실: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사례

##### 1. 국제문화학의 명칭 문제

국제문화학을 지칭하는 영미권에서의 명칭은 ‘Global Cultural Studies’인데 이를 그대로 직역하면 ‘지구문화연구’(학) 또는 ‘세계문화연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특성의 지구문화나 세계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연구분야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이 아닌 것 같으므로 현재 일본과 한국 대학에서 차용해 쓰는 ‘국제문화학’(國際文化學)이라는 명칭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국제화시대에 자민족 중심(ethnocentrism)의 문화학이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 학회의 용례에 따라 ‘글로벌 문화학’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한글과 영어의 조합어로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으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 2.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연구 사례<sup>15)</sup>

###### 가. 국내

###### 1) 순천향대학교 국제문화학과:

국내 유일의 학과로 1996년 10월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래, 2010년 동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소속 국제문화학과로 독립한 것으로 소개된다.

학과 개설취지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문화전문가(Culture Manager)를 양성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학에서는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시의에 맞게 통합하여 실용적 변용을 모색하면서 구체적 목표로 외국어와 정보화 능력을 겸비한 문화전문가 양성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영어 교육과 외국 문화의 학습을 통한 <국제화 교육>, 인터넷을 통한 문화탐사와 문화 지식의 정보화를 기하는 <정보화 교육>, 풍부한 문화 지식의 습득과 비교 문화적 안목을 키우는 <문화매니저 전문 교육>, 실제 탐사와 문화현장 실습을 통한 <현장 실무능력 교육> 등을 기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졸업후의 진로는 국가 공공기관, 박물관 큐레이터, 문화 관광가이드, 출판사 편집, 웹 디자이너, 문화 행사 전시 및 기획자, 언론 출판사, 국제기구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학과의 영어 명칭이 일반적인 ‘Global Cultural Studies’ 아니라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라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의 동서문화센터의 대학원 국제문화학 프로그램의 명칭과 같은 용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국제문화의 이해’, 외국어(일본어) 등 40여개의 인문학과목을 개설하고 총 졸업 이수 학점 140 가운데 전공심화는 60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14) 幸泉哲紀의 공저, 『國際文化學序說』(東京: 多賀出版), p. 7-8.

15) 본장에서의 국내외 사례는 국제문화학의 일반적 교육/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힘.

## 2) 건국대학교 국제통상문화학부 국제지역문화학 전공

이 대학은 학과소개에서 “국제지역문화학 전공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프랑스어권과 러시아-CIS권 국제지역전문가와 국제문화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1-2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습득과 더불어 국제 무역, 국제 경제, 국제 지역과 문화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3-4 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국제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해당 외국어 심화 교육과 NGO, 국제관계학, 국제지역의 정치,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및 CIS 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등과의 교환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인턴쉽 등의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화된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갖춘 국제지역 전문인력, 그리고 어학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컨벤션, 글로벌 브랜드, 디자인, K-Pop, 영화와 애니메이션, 공연전시예술 등 국제문화산업과 관련된 통상 및 국제실무능력을 갖춘 국제문화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졸업 후의 학생들의 사회진출은 프랑스어권(EU의 중심국인 프랑스 및 캐나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과 러시아-CIS(구 소련 독립국가연합 소속국가)권을 상대로 한 무역회사, UN 등 국제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 자원봉사와 환경보호 감시단체, 비정부기구(NGO), 정부의 외교/통상 관련 분야, 정부기관 및 공기업체, 다국적 기업, 대기업 해외지사, 일반직 공무원, 금융기관 등으로의 취업, 국제문화산업과 관련된 실무능력을 갖춘 국제문화산업 전문가 및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대학의 교과과정은 43개 전공과목(120학점)이 주로 어학(프랑스, 러시아어)과 유럽, 프랑스, 러시아의 문화와 사회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전공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세계지역학의 당해 지역 커리큘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 3)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문화학과:

이 학교는 2010년 대학원에 국제문화학과를 신설한 것으로 소개돼 있는데 학과 개설취지에서 “한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IT기술·경제 강국이므로 우리의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의 성장 동력과 기술을 넘어서 사상, 문화 등 우리의 본질적 가치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화와 사상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본 학과를 신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과의 세부 전공으로는 다문화학 전공, 한국문화학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을 두고 있다.

학과의 세부 전공 가운데 우리가 논의하는 국제문화학에 해당하는 분야는 ‘다문화학 전공’인데, 전공 소개문에서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 역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범세계적인 다원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의 확립과 여러 다문화 담론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문화 정책들에 대한 전망과 접근이 요구된다. 본 전공의 교육과정은 한국 문화에 관한 사회적 담론, 다문화 정책,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세계의 다문화 가정 연구, 한국 내의 다문화 가정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국제문화학이라기 보다는 다문화정책의 실무 중심 강좌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나. 해외 대학의 국제문화학 프로그램

### 1) 미국 및 유럽

#### <미국>

##### 가) 워싱턴대학교(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학부에서 국제문화학(Global Cultural Studies) 프로그램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보인다. 교과과정은 지구촌 문화교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교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문화적 산물인 문학, 영화, 시각예술, 음악 등을 공부하고 아울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의 발생배경을 보다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현상들을 학제적으로 연구한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은 당해 언어와 문학을 중시하고 이밖에 인류학, 예술사, 영화, 역사, 음악, 철학 등 폭넓은 지식을 연마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졸업후의 진로로 제시하는 분야는 NGO단체의 활동가나 국제 비즈니스분야 또는 변호사, 법률전문가 등 사법분야를 꼽는다.

전공이수 학점은 모두 36학점으로 6학점은 '개론 및 연구방법론' 과목,

또 다른 6학점은 세계지역연구 과목, 나머지 24학점은 양성평등문제, 인종, 사회적 계급 이슈를 포함하여 지역문화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연구는 아프리카, 동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남아시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 지역에서 9학점을 선택.수강해야 한다(지역연구 부전공 경우). 기타 전공 개설과목들로는 이슬람문명사 개론, 러시아문화, 일본문화, 중국문화, 한국문화, 유럽학개론, 유대인문화, 서구문명사 등이 있다.

##### 나) 버지니아대학교(Univ. of Virginia)

이 대학의 문화전문연구원(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Culture)이 주관하는 국제문화(Global Culture)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지구촌의 문화·사회 변화 현상을 도덕적,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 강조된다. 하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국제기구, 시민운동, NGO 등 국제문화의 변화요소를 고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비교 역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밖에 부차적으로는 국제문화 변화의 동인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언어와 윤리의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 다) 뉴욕주립대(Binghamton)

1991년에 설립된 이 대학 국제문화학연구원(Institute of Global Cultural Studies)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문화와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활동은 주로 학내교육, 서지발간, 학회활동, 신문·방송 등 언론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경제개발과 민주화, 종교와 정치·사회적 함의, 인종·종족·민족주

의, 정치권력의로서의 언어, 양성평등 비교연구, 남북문제, 사회사상 비교 등이다.

#### 라) 위티어 대학(Whittier College, 캘리포니아 주)

이 대학의 국제문화학(GCS)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제적 연구를 통해 21세기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한다.

학생들은 국내외 '제도와 기구', '문화', '해외지역', '시사현안' 등 4개 중 한 분야를 선택하게 하고 후에 전공분야로 들어가게 인도하고 있다.

국내외 제도와 기구 분야에서는 지구촌 사회의 맥락에서 정치, 경제 등 관련 기구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여기에는 단위국가, 다국적기업, NGO단체, 국제기구 및 기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가 포함된다.

'문화'에서는 양성문제, 친족, 결혼, 인구조사, 기타 문화적 패턴을 연구한다. '해외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예컨대, 중남미, 아시아, 유럽 등)에서의 국제화의 다양한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

'시사현안'은 특정한 사회·문화 이슈를 심층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면, 인권, 테러리즘, AIDS/보건문제, 환경, 인구, 난민, 지적 재산권 문제 등 현안을 말한다.

학생들은 다각적인 관점(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학적 등)에서 위의 현안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함과 아울러 이를 특정 국가와 문화의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훈련을 받게 된다.

해외 특정지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3학년 때 한 학기 정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 가서 직접 현지 실정을 파악하게 하는 현장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프랑스>

##### 가) 리용 3 대학교(프랑스 Lyon 소재)

이 대학은 GCS프로그램 설치 목적을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날 국제화시대의 맥락에서 문화의 제 측면에 대해 숙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제적 연구와 지역연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학제적으로는 철학, 문화사, 인류학, 문학 등이 관련되고 지역연구로는 중국연구, 일본연구, 미국연구 등 주로 국가단위의 연구가 관련된다.

연구와 교육의 주 대상은 초문화적 관점에서 대중문화, 시각문화(영화, MTV), 정체성과 대표성, 양성문화, 비주류문화, 생태학, 문화외교, 탈식민지연구 등 다양하다.

#### <일본>

일본은 대학 단위에서 국제문화학과(유사학과 포함) 설치가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한 편이다.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권에서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국제문화 연구가 필요했던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학부에서 국제문화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은 우츠노미야 대학을 비롯해서 17개 대학이고 유사학과까지 포함시키면 40여개 이상의 대학이 이 분야 전공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宇都宮大, 京大, 名古屋市大, 成蹊大, 大谷大 등 43교에 달한다.

일본 대학들이 내세우는 학과 개설 취지는 한국이나 유럽·미국 대학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문화현상을 각 지역의 사상, 역사, 문학 등 다방면으로부터 연구한다. 각 지역의 문화를 깊이 학습하는「지역연구」와 그것을 비교, 해명하는「비교관계」등을 축으로 다양한 나라의 연구를 한다. 아시아나 구미각국의 언어, 문화를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연구하며 국제적 시야에 선 문화적인 창조력을 익힌다. 그를 위해 외국어를 철저히 학습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기른다” 등이다. 이와 동시에 언어, 문화의 배경에 있는 “철학이나 법체계, 경제학”에 관해서도 학습한다고 되어 있다.

가) 名古屋市大에서는「커뮤니케이션 능력」, 타문화와 교류하는 일본문화로서의「국제일본문화」, 「구미문화」의 세 관점에서 “국제성”에 관해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서로 다른 문화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의의를 인식하며 일본과 구미의 언어, 문학, 역사, 사상 등의 깊은 이해를 기르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다.

나) 大谷大에서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동양연구를 고려하며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 관해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동서 문명의 흐름을 쫓아 역사, 철학, 종교, 문학 등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이룩해 온 문화를 학습한다.

이밖에 국제문화학과정을 개설한 대학으로는 3개 대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 岩手大에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를 찾아 그 해결방법을 연구하여 주체적인 대응이 가능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다. 국가의 틀을 벗어나 문화를 종합적으로 인식, 아시아·구미 각 지역의 문화나 언어, 역사, 사상 등을 학습한다.

라) 歌山大에서는 국제이해와 지역이해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세계 각국의 역사·문화·국제정치 등을 학습한다. 지리학, 일본사학, 사회학 등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마) 佐賀大에서는 일본과 아시아의 문화를「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에서 연구하며 구미의 문화를 국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학습한다.

일본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학’ 과정 개설 리스트<sup>16)</sup>

번호	전공명	대학명	구분
21	국제문화(학/연구)	우츠노미야대학	국립
20	국제문화(학/연구)	요코하마시립대학	공립
19	국제문화(학/연구)	아이치현립대학	공립
18	국제문화(학/연구)	교토부립대학	공립
17	국제문화(학/연구)	현립히로시마여자대학	공립
16	국제문화(학/연구)	조사이국제대학	사립
15	국제문화(학/연구)	슈쿠도쿠대학	사립
14	국제문화(학/연구)	오타니대학	사립
13	국제문화(학/연구)	간키대학	사립
12	국제문화(학/연구)	규슈산업대학	사립

16) 일본유학관련 인터넷자료: <http://blog.naver.com/jewerly8/50004195551>

11	국제문화(학/연구)	세이난학원대학	사립
10	국제문화(학/연구)	야마구치현립대학	공립
9	국제문화(학/연구)	류고쿠대학	사립
8	국제문화(학/연구)	모모야마학원대학	사립
7	국제문화(학/연구)	오사카교육대학	국립
6	국제문화(학/연구)	분카여자대학	사립
5	국제문화(학/연구)	구마모토학원대학	사립
4	국제문화교류(론)	도호쿠대학	국립
3	국제문화교류(론)	교린대학	사립
2	국제문화시스템	메이오대학	사립
1	국제문화언어론	도호쿠대학	국립

## 다. 소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국제문화학과나 관련 프로그램은 한 두 곳 예외가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첫 째,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국가간 혹은 지역간 상대문화의 심층 연구를 통해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둘 째, 국제문화학은 어느 특정 학문에 국한한 연구를 지양하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셋 째, 자민족 중심의 문화 우월주의를 가급적 배제하고 타문화를 타자의 맥락적 관점에서 고찰(문화상대주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중요한 개념이 참여적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넷 째, 참여적 관찰의 도구인 현지 언어의 숙달 또한 요구되는 소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 당해 지역 외국어 교습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상급학년인 학부 3학년 때는 한, 두 학기 정도의 현지 파견 실습기간을 갖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끝으로 기존의 세계지역학(Area Studies)과 연계하여 현대 사회의 문화현상을 고구(考究)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신생분야인 국제문화학이 문화인류학적 전통과 세계지역학의 연구방법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총체적 평가를 해 본다면 국내외 대학들의 ‘국제문화학’ 교과과정이 아직은 연구가 일천하여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없거나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짜임새 있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중인 대학교가 미국의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이다.

기존의 지역학(Area Studies)에 국제문화학을 접목시킨 이 대학의 교과과정은 우리가 뒤늦게 이 분야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바람직한 국제문화학의 방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통치 목적에서 활용된 문화인류학이나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 미국이 독립이후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탈피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이래 전쟁수행 목적으로 혹은 총성없는 전쟁인 해외 교역과 경제진출의 목적으로

발달한 지역(연구)학(Area Studies)이 탈냉전이후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문화교류에 중점을 둔 양방향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로, 즉, ‘국제문화학’으로 무게의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sup>17)</sup>

21세기 탈냉전의 시대를 공생, 공영의 시대라고 한다면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물론이고 국지적 분쟁이나 마찰을 줄이고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知彼知己’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인 문화연구가 아니라 ‘남도 알고, 자기도 아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지적 교류의 장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민족, 국가, 지역, 이데올로기 등 자문화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타 국가, 타 지역의 여러 문화를 언어, 문학, 영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종교, 역사, 정치, 경제, 법률, 환경 등 다방면에서 학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문화학이란 연구의 동태적 역동성을 강조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위에 예시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세 가지 원칙, 즉,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와 참여적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더 나아가 연구자 스스로도 오늘날 지구촌사회의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하나로 현실참여 의식(Normative Approach)을 가지고 인류 문화의 공생, 공영에 이바지 할 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국제문화학회는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유사 연구영역을 갖고 있는 세계지역 학회와 발전적 통합을 모색하여 가칭 ‘세계지역문화학회’로 거듭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때 유행했던 모 유명가수의 ‘타타타’ 노래 가사중의 한 구절이다.

오늘날 언필칭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사는 우리가 상대를 알고, 더 나아가 나를 알 때에 사소한 문화충돌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갈등, 마찰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17) 이런 의미에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수이지만 ‘국제문화학’을 영어로 ‘Global Cultural Studies’라고 하지 않고 ‘Intercultural Studies’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발표3

## 전통 약주의 세계진출을 위한 글로벌문화모형 연구

조성기\* |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위원

### <Abstract>

#### Globalization Model Development for Soju

Surnggie Cho

Korea Alcohol and Liquor Industry Association

With globalization of the commodity trade cultural exchange also create. Soju in Korea as a commodity is the totality of Korean culture simply rather than beverage alcohol. Moreover, Soju is not an ordinary commodity. Thus, globalization of Soju is globalized as Korean culture, and especially socio-economic values are creating for the consumer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emerging markets.

Its values from the globalization model are economic, health and environmental benefits like as good quality of Soju, prevention of drinking problems experienced, and exchange of know-how of bottle sharing and redemption management in Korea. In other words, those are substitution of illegal low-quality liquor, spread of health ideas, and leading the environmental values in the countries entered. Soju makers in Korea simply not sold, should be to exchange social values with importing countries.

Soju makers, unlike in the past, is faced with the situation of export diversification. Actually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new business model innovation for succeeding

\*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위원

to entering the new market and exchange the social values. The globalization model of Soju will be complete with the selection of the importing countries, entry strategy for the countries, and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firms, and trade associations. This study carried out the utilizing various statistical data, discussions with experts, use of technical data based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for the study purpo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current attractive countries are 11 countries, growing countries are 5, and 2 countries are priority target. Entry strategy for China and Vietnam as a case study was performed SWOT analysis. Stakeholders' role model is especially necessary for the inclusion of social values.

We had some difficulties for setting the research methodology because there was not a research with the same goal. However, these difficulties will share the benefits of that pioneering work with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Particularly we could cover the scope of political, administrative,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for the study. And this study contributed for the coverage to the health and environment factors as the items for the social values of the global trade.

Globalization may be failed if the firms entered only for the economic benefits in the market. Exporter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rying to create the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values in the local market will be succeed. In addition, concerns for socio-economic level of the market, alcohol policy, and drinking culture etc. in the countries entered is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global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 Words: Soju, Globalization Model, Selection of target countries, StrateGor Market Entry, Stakeholder Role Model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배경

문화는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이며, 음주문화는 인간에 의해 얻어진 음주에 관한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체로 정의된다<sup>2)</sup>. 소주는 한국문화의 한 결정체이며, 글로벌화되어 감에 따라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글로벌화된 소주는 그 원료선택, 제조와 유통과정, 소비과정과 결과가 모두 일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1960년대 중반 국세청이 국산 쌀로 주류제조를 금지하면서 소주는 한국인의 음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고도의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피로, 1988년 올림픽 개최와 글로벌 사회의 한국진입, 그 이후 개방속도의 증가와 해외 주류의 유입증가 등 시대변화 속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주류는 소주가 되었다. 즉, 소주는 저가의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음주문화의 상징물이 되었다.

이 연구는 소주글로벌화의 문화적 가치를 수출국과 수입국과의 가치교환, 그 소통과 어울림 속에서 상호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가치창출은 일차적으로 일국의 제품이 타국으로 이동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소주를 타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다룬다. 소주가 단순히 한나라에서 타국으로 이동하기만 한다면 경제적 가치이외에 상호유익한 가치가 창출되기 어렵다. 진출 되었을 때 수입국의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 상품의 글로벌화로 상호유익한 가치를 창출하자면 소주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를 줄이는 데 수출국의 기업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모형이어야 한다.

먼저 한국소주의 글로벌 사회진출의 조건을 검토한다. 한국의 소주시장은 전환기를 맞고 있어 글로벌화의 일차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 소주의 출고량이 2008년에 최고조에 달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소주의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시장규제완화 및 자율화 정책으로 국내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강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소주수출 시장은 주로 일본,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 편중되고 있다. 82.5%가 일본이고, 미국 8.1%, 중국이 4.4%로 3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sup>3)</sup>. 이는 소주가 글로벌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대기업인 진로(43.9%)와 롯데(52.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8개사가 거의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글로벌화 정보와 지원방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글로벌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은 중소기업에서 보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장 큰 시장인 일본의 주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한국소주의 글로벌화 계기가 되고 있다. 본래 소주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수출량의 대부분이 교포나 교포관련자들에게 수요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만 현지 일본인들의 수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실제로 글로벌화 수준이 위축되고 있다는 정보이다. 소주글로벌화의 조건과 필요성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 중 한국소주 글로벌화의 대상국을 찾을 수 있는 체계화된 모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2)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2011: 75-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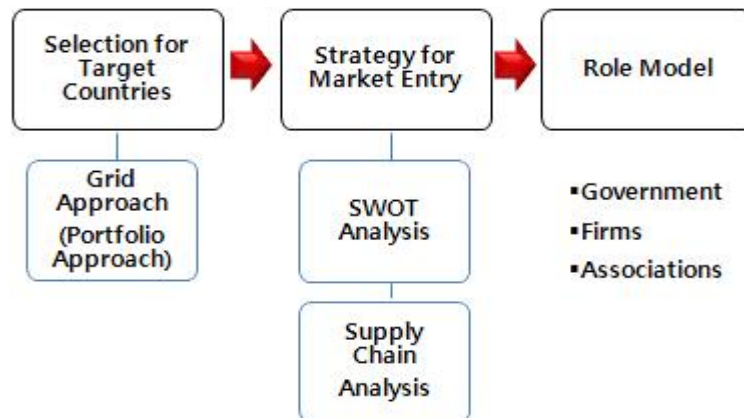
3) 한국무역협회. 2009. 수출입자료.

이 연구에는 또한 작금의 글로벌화 부실의 원인이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으며, 그를 위한 혁신적 마인드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바람직한 글로벌화는 단순히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화 모형은 수출국의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편익공유를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화는 단순히 기업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 사회와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된다.

## 2. 연구모형과 방법

따라서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글로벌화 모형은 대상국선정단계와 시장진입단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모델(Role Model)을 포괄하여 구성된다.

<그림 1> 소주 글로벌화 기본모형



소주글로벌화모형의 첫째 구성인자는 목표대상국의 선정이다. 선정을 위한 글로벌화 방정식 결정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TC=f(C(DC, KC), P, A, E, S)$$

여기서 TC는 대상국가, 문화요인(CC)은 음주문화(DC)와 한국의 문화(KC)로 구성되며, 정치(P)요인, 행정요인(A), 경제요인(E), 사회요인(S)등으로 구성된다(G.Albaum. 1989; F.R.Root. 1993;임경원. 2008).

즉, 경제적 요인이외에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요인들로 구성되며, 특히 문화요인은 술의 수요와 관련이 있는 음주문화요인,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류인 소주와 관련되는 한국문화요인이 결부된다. 이는 주류수요가 없는 국가나 한국소주의 수입경험이 없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음주문화요인 종교, 주류시장의 규모, 증류주의 선호정도 등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며, 한국문화요인은 교포수와 증가율, 연간소주수출액, 증류주중 소주수입비중, 한국관광객의 증가율, 한국인의 해외여행객수와 증가율, 한국제품비중, 한식당수 등으로 구성된다. 정치행정요인

은 수출위험도, 주류면허규제 등 정책인자, 광고규제수준 등이다. 경제사회요인은 소득규모의 증가율, 인구의 성장률, 원료획득 및 유통경로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대상국가의 선정은 구체적으로 비대상국가를 배제하는 단계와 주요요인 중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를 선택하는 단계를 빼고 넣는 과정을거치는 GRID평가방법을 사용한다(임경원, 2008).

선택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입전략은 전통적인 전략산출 방법론인 SWOT분석을 사용한다. SWOT분석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추출하여 진입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분석결과 전략방향의 도출에는 공급사슬의 구성인자로 원료, 제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진입전략을 추출하였다.

역할모델은 수출국의 정부와 협회, 업계의 역할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활동상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협력적 글로벌화에서 정부와 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추가해야 성공적 글로벌화가 가능함을 도출코자 한 것이다.

<표 1> 분석활용자료

조사항목	출 처
- 1인당 알코올 소비 - 국가별 총 알코올 소비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 WHO
- 소주 수출량, 소주 수출액 - 국가별 소주 수출비중, 총 무역 현황	- 한국무역협회 - 관세청
- 증류주 수입량 - 증류주 수입액	- 국제연합(UN)
- 국가위험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GDP, 1인당 GDP	- 국제통화기금(IMF)
- 총 인구변화 - 노동가능인구(15~64세)	- 국제연합(UN) - 통계청
- 재외 국민 및 동포 현황	- 외교통상부
- 국가별 방한 관광객 현황 - 한식당수	- 한국관광공사, 외교통상부 - 한식재단

자료: 각 통계생산기관

이 연구에서 대상국선정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는 다음의 <표1>과 같다. SWOT분석은 관계국의 문헌조사와 현지소비자들에 대한 초점집단(Focus Group) 인터뷰를 실행한 자료를 활용한다<sup>4)</sup>. 역할모델의 도출은 전문가들의 집담회에서 결과를 추론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4) 초점집단 인터뷰는 중국 상해와 북경의 소비자 53명을 대상으로 지역, 일반인과 직장인의 구분 등으로 하여 전문가가 질문하고 답변을 모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 II. 본론

연구결과 현재매력국가는 11개국, 성장가능국가는 5개국, 우선대상국가는 2개국이 선정되었다.

또한 우선대상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SWOT분석결과로 진입전략을 제안하였고, 역할 모델의 부문에서는 글로벌화에서의 정부, 업계, 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제시된다.

### 1. 진출대상국의 선정

#### 가. 현재매력 국가

먼저 현재매력국가의 선택을 위해 첫째, UN식량기구(FAO)의 국가 전세계 216개국 중 자료 활용이 가능한 175개국의 최근 5년간 주류시장규모를 추계하여 2003년에서 2007년의 평균 주류시장의 크기가 10만톤 이상인 국가 99개를 선정하였다.

<표 2> 현재매력국가의 선정결과

연 번	국 가	주류 시장규모: FAO (10만톤)			국가 위험도 OECD	연도별 소주 수출액: KITA (10만 달러)			
		2007년	2005~ 2007년	2003~ 2007년		리터당 단가	2011년	2009~ 2011년	2007~ 2011년
1	뉴질랜드	3.72	3.71	3.69	0	1.51	2.6	2.8	2.8
2	말레이시아	1.21	0.97	1.04	2	1.51	3.1	2.3	2.0
3	미국	303.39	303.78	301.46	0	1.77	85.7	88.9	91.7
4	베트남	14.78	12.74	11.46	5	1.35	8.5	7.3	6.7
5	인도네시아	1.81	1.69	1.66	3	1.37	2.6	2.8	1.9
6	일본	55.94	57.44	58.45	0	1.75	926.4	958.3	959.4
7	중국	510.70	467.75	432.46	2	1.20	53.2	50.9	58.8
8	캐나다	36.66	25.91	24.50	0	1.48	6.0	5.4	5.3
9	태국	28.13	25.91	24.50	3	1.43	4.2	3.4	3.1
10	필리핀	11.50	12.53	12.49	4	1.34	12.8	10.7	10.3
11	호주	22.97	22.98	22.63	0	2.42	11.0	11.4	10.0

자료: FAO, OECD, 한국무역협회

그 국가중 수출의 위험도가 큰 국가를 배제하기 위해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등급 6-7단계 투자위험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64개국이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OECD의 평가는 공적기구의 수출신용부문에서 국가위험도 전문가들이 매분기 국제회의를 거쳐 합의방식으로 만드는 지표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수출위험도 평가지표이다.

현재매력국가는 주류매력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가장 먼저 주류시장규모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주류는 수요가 일정규모이상 발생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음주역사를 반영하며, 제도, 관습, 종교, 문화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함이 마땅하다. 국가위험도의 경우도 국제간의 교류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류주이자 한국문화가 반영된 소주의 수출액일 것이다. 즉 현재 매력국가로는 선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주수출액 연평균 10만달러이상 실현한 국가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국가는 오세아니아의 2개국, 북미대륙의 2개국, 아시아의 7개국이었다.

## 나. 성장가능 국가

현재 매력국가라 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없다면 수출매력이 떨어지며 글로벌 문화교류대상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매력국가로 선택된 11개국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와 1인당 2011년-2015년 4개년간 소득증가가 10%를 초과하는 고성장국가 7개국을 선택하여 1차 성장가능국가를 선정하였다.

주류의 소비는 그 국가의 소득, 인구, 대상주류의 가격, 원료 및 주세의 수준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 가장 일반화가 가능한 요인은 소득과 인구가 된다. 일본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소득성장은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인구증가가 일본의 경우 -1%, 매나다는 8%에 그쳐 상대적으로 열위로 분석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3> 성장가능국가의 선정결과

연 번	국 가	수입증류주對소주 점유		소주 수입 규모		수입 증류주 규모	
		총량 대비	총액 대비	총 량	총 액	총 량	총 액
1	베트남	16.71%	1.40%	440,738	591,338	2,636,963	42,195,936
2	인도네시아	30.63%	5.04%	190,816	260,866	622,956	5,172,011
3	중국	8.45%	0.71%	4,778,936	4,979,843	56,526,688	702,920,034
4	태국	0.55%	0.16%	222,796	310,795	40,148,621	188,751,671
5	필리핀	9.77%	4.20%	863,701	1,110,544	8,836,319	26,424,405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대상국 중 예측기간 중 소득성장이 가장 높게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52%), 베트남(39%), 인도네시아(36%) 순이었으며, 인구증가는 필리핀(16%), 말레이시아(14%), 호주(12%) 등의 순이었다. 분석을 거쳐 배제되는 국가들은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었으며 2단계에서 7개국이 선정되었다. 그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이었다.

선정된 7개국 중 다음단계의 선택을 위해 증류주 수입 중 소주수입 비중을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소주 수출은 증류주수요자들 중에서도 소주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순위는 인도네시아(30.63%), 베트남(16.71%), 필리핀(9.77%), 중국(8.45%)의 순이었다. 특히 금액대비 비율보다 총량대비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소비자들의 음주습관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대 선택에서 유보된 3개국은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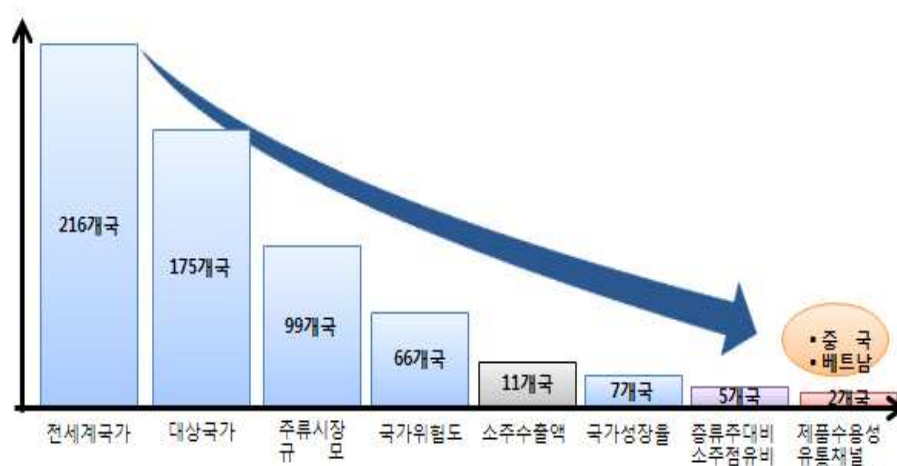
그 중 1인당 증류주 대비 순알코올 기준 소비수준, 최근 3년간 소주수출증감률 등을 고려한 결과 말레이시아는 수출이 정체한 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정

체하고 있었다. 즉 태국의 수출수요가 지속증가하고 있고,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도 4.68리터가 되어 수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성장가능국가로 최종 선정된 5개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이다.

#### 다. 우선대상 국가

한국의 소주업체 10개사 중 대기업으로 분류가능한 업체는 소수이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역량을 필요한 만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수출대상국은 우선대상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선정의 전과정과 우선대상국가의 선정



매력적이면서 성장가능국가 중 우선적으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대상국가로 정의하고, 그 선정기준을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성 정착정도와 소주에 대한 단기 유통접근가능성 등으로 하였다. 이 대용변수로는 대한민국 수입비중과 현지의 한식당수로 정하였다. 한국제품에 익숙한 소비자가 주류의 한류에도 접근이 가능하며, 직접 소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식문화와 함께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수입비중은 베트남(10.69%)과 중국(9.56%)이 가장 높았고, 마찬가지로 한식당수도 중국(2,051개소)과 베트남(285개소)이 많았다. 즉, 우선대상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순이었다.

## 2. 진입전략의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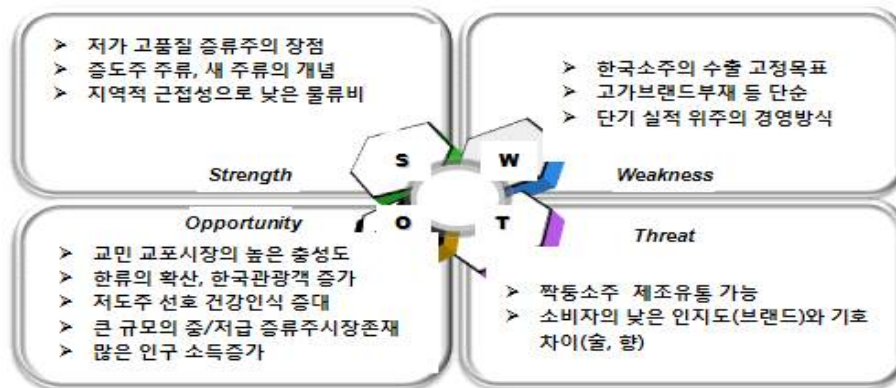
시장진입전략은 우선대상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추론한다. 이는 우선대상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수출대상국의 진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략방향을 대체로 추출가능하다는 가정에서였다. 실제로 성장가능국가로 선정된 5개국을 보더라도 대체로 신흥국으로 구성되어 그 국가들의 소비자, 유통, 경쟁주류의 상황들이 유사한 환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방법으로 도출된 결과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가. 중국

중국시장은 전통적으로 고도의 증류주인 백주와 황주가 시장을 크게 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지만 최근 28도의 백주가 등장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저도화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중급의 증도주인 소주로 시장공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또한 중국의 주류소매도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하여 전통적인 ‘현지총대리점’ 중심의 유통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sup>5)</sup>.

소비자도 소수이지만 한국여행경험과 개방의 영향으로 소주를 대중주류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백주는 고가로 접대나 선물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북경지역의 소비자는 고도주를 선호하고, 상해지역의 소비자는 한국음식점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고있어,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신제품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중국시장의 SWOT분석



즉, 소주는 중국시장에서 저가의 고품질 증류주이며, 건강에 상대적으로 유익한 증도주로 강점이 있고, 시장이 가까워 적은 물류비로 시장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가 많고 소득증가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그러한 중국시장에 대응하는 국내업체들의 역량과 투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약점이다. 더욱이 중국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를 높일 노력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위협요인이다.

중국시장 진입을 공급사슬을 기반으로 보면 제조단계에서는 한류에 접근가능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선호에 합치되는 제품과 디자인개발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유통단계에서는 타겟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현지 유통채널구축,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단계에서도 중국인의 다양성에 적응하는 품질과 도수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꾸준히 시장진입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들은 상당부분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현지조사결과 중국은 현재 현지의 총대리점이 각지역의 도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각 지역의 도매업자가 백화점, 음식점, 슈퍼체인등 소매상에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다.

## 나. 베트남

베트남 시장은 주류소비량이 많으며, 전통적으로 증류주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지며, 최근 수입맥주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베트남에는 지역의 밀주 증류주 시장이 커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인이 있어 한국소주의 진출 시 소비자의 건강상 편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물론 이 때 현지주민들의 경제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 진출전략 수립 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소주의 글로벌화모형 수립에서 현지의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서 역할모형을 전체 글로벌화 모형에 삽입해야 할 필요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베트남 소비시장은 최근 성장에 따른 소비확대로 수입고급주류의 증가세가 크다. 맥주소비가 전년대비 8.4%이나 와인과 증류주는 각각 6.1%, 3.8%증가하고 있다. 맥주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크다. 주류시장도 상대적 소득격차폭의 증대로 양극화,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대들이 신상품의 소비를 주도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건강중시 풍토의 시현은 타국의 흐름과 같다. 유통후진국으로 재래시장과 잡화점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베트남 시장의 특징이다.

<그림 4> 베트남시장의 SWOT분석



베트남시장을 대상으로 할때 한국기업들의 강점은 고품질 중도주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갖고 있는 품질다양성 역량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신흥국시장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시장에서도 한류와 한국유통망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술을 좋아하는 국민성이나 증류주 선호도가 높다는 것도 소주수출의 저변을 구성하게 된다. 더욱이 맥주와 40도이상의 주류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한국소주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렇지만 소주가 베트남의 전통증류주에 비해 가격이 높고, 현지의 유통이 낙후상태여서 시장점점을 찾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밀주와의 경쟁도 품질경쟁력은 있으나 가격과 지역경제의 쇠퇴 등 위협요인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전력투구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 결과 베트남 시장은 제품개발단계에서 소득계층별,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시장세분화 전략이 필요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증가와 함께 술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어 예방캠페인 등 교육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사회적 책임성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달리 베트남 등 다른 신흥국시장에 진입할 때 사회적 활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저도주 개발, 각종 건강첨가물 사용 등 보건주 개발도 필요하지만 사회변화에 직접 동참하면서 제품수출에 나서는 것이 타진출국가와 비교할 때 지속성장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류와 한식 뿐 아니라, 한식당, 새 유통망, 현지기업을 활동과 연계하는 광범위한 한국수출네트워크의 조성도 필요한 일이다. 단순히 주류를 판매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날 때 시장의 확보를 넘는 성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3. 이해관계자 역할모델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소주의 글로벌화 모형은 대상국의 선정과 경제와 경영차원의 시장진입전략으로 안정된 시장확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주의 글로벌화는 현재 초기 진출단계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시장개발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역할모형을 추가하는 글로벌화 모형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이나 협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부문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제 글로벌화는 단순히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내의 국민들의 개입과 한국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국 선정의 요인에 음주문화요인 뿐 아니라 한국문화요인이 중요했고, 그 요인이 실제로 선정과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면 대상국의 선정 과정에도 그 요인들이 실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류와 대상국 시장에서의 소주소비는 각국 소비자들의 한국여행경험과 한류에 대한 친화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민의 해외여행 및 해외시장방문에서의 품격있는 활동도 정보전파력이 급속한 작금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의 개입은 글로벌화가 단순히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한국기업은 한국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 보호활동을 1997년 이후 상당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이후 소주공병의 공동사용 및 공병회수율 제고 등 CO<sub>2</sub>절감을 위한 환경보호활동도 전국적으로 성공시킨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위생안전성 수준 제고노력은 또한 후발국 중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건, 위생안전, 환경 차원의 활동경험을 수출대상국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글로벌화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표 4> 글로벌화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이해관계자	정부와 사회	협단체	업계
역할	-제도적 지원책 -후발국 청소년교육 및 공병재사용 등 사업에 기술, 자금 및 조세지원 등	-대상국협단체와 교류 -소비자선호, 소비량 및 음주문제 수준, 유통망, 정부규제 정책, 법제도, 원료 및 제품 가격정보 등 정보수집	-타겟고객 선정, 상품개발 -해외사업조직, 마케팅, 가격, 비용구조, 목표판매량과 마진규모결정 -자원확보 등 전략적투자의

	-한국국민의 선진 문화와 시장협력적 대응	-진출업체공동홍보 -사회문제 대책	사결정 -비즈니스모델혁신 등 진취적 경영마인드
--	------------------------	-----------------------	------------------------------

앞에서 고찰한 SWOT분석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의 소주기업은 글로벌화에서 제조, 유통, 소비단계에서 현재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기업의 역할은 그 혁신을 원활히 하는 것과 정부와 협조 하에 기존의 사회적 활동의 노하우를 수출국에 제공하는 것이 된다. 현지인의 선호와 소비조건에 맞는 제품개발은 철저히 현지인의 소비성향에 대해 과학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한국시장의 제품을 그대로 수출했던 과거의 다른 제품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통도 한식당에 국한되거나 현지소규모 대리점에 국한되었던 방식에서 클럽 등 문화교류장소, 현지인 대상 소매상과 음식점 등에 다양한 망을 구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현지 타제품의 한국유통망 활동은 물론이다. 또한 시장자유화 등 제도변화를 주시하면서 수입업체 이외의 지역도매상과의 직접관계도 노력해야 한다. 구태에서 벗어나야 글로벌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한 진취적인 경영마인드의 조성은 물론 이를 반영한 조직, 문화 등의 시스템변화는 물론 중요한 준비작업에 포함된다.

한국 주류업의 협단체들도 현지 정부와 협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필요한 정보수집에 나서야 한다. 이는 기업차원에서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책, 제도변화, 공동전시, 공동마케팅 등 필요하고 부당하지 않은 공동활동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이같이 글로벌화는 정부와 사회, 업체, 협단체 등이 각각의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며 시장이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 III. 논의와 결론

#### 1. 논의

이 연구는 ‘소주의 글로벌화를 위해 과연 어떤 모형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 연구결과가 과연 글로벌 문화교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교감을 갖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영학의 글로벌 마케팅 연구에서 진행하는 주류의 해외마케팅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단순히 소주를 해외에 판매하고 해외의 소비자가 한국의 주류를 소비한다는 차원의 연구하면 다문화적 차원의 교류연구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경영경제학의 이윤극대화 모형을 활용할 경우 이 연구에서 목표하는바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이나 문화교류모형이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주의 글로벌화 모형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가치교류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상호 편익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확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연구에서 기존의 해외마케팅 연구가 가지는 요인을 배제해서도 한 물품의 글로벌화 연구로서 의미를 찾기 어렵고, 단순히 해외마케팅 차원의 연구에 그친다면 다문화 연구로서의 글로벌 문화연구적 가치를 찾기가 어렵다.

즉 이 연구의 포괄범위는 새로운 연구모형과 연구방법론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새 가치를 창출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의의를 함께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논점은 다문화 및 글로벌화의 연구대상으로서 주류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측면이다. 과연 ‘주류를 글로벌화시키는 일이 대상국에 수출국이 생산한 물질중독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나 보건관련 전문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교역협상(FTA)에서 주류품목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교역협상에서 각국정부는 주류를 소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를 인하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즉 주류는 적극적인 글로벌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류의 글로벌화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었고, 보건관계자의 주장을 관세장벽을 유지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주류의 수급을 조절하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각국의 주류소비자가 각자의 건강과 무관할수 있도록 음주의 편익을 낳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음주를 하고, 그에 걸맞는 교역을 하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게된다. 즉 주류의 글로벌화 연구는 다른 품목의 글로벌화 연구와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주류가 일반적 상품(ordinarygoods)이 아니라고 해서 글로벌화 연구가 특별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상호어울림 모형을 개발하여 실천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주류가 일반 상품이 갖는 유용성을 해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유해성을 상호편익으로 변형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의 연구가 갖는 연구범위의 문제이다. 과연 연구범위를 어디에 까지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방만한 연구범위가 과학적 논증의 한계에 부딪쳐 과연 연구결과가 과학적 입증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의 질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한 연구범위를 넘어 정치, 행정, 경제, 문화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기 때문이다.

연구범위의 광범위성은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전제 또는 가정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장점은 오히려 보건과 환경 등의 요인을 글로벌 교류의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케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이 연구와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낳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단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적 논증의 한계가 이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초기연구에서 과학적 논증의 한계를 문제 삼아 모형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 또한 과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 2. 결론

글로벌화는 단순히 수출국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때 시장진입의 실패가 가능하다. 수출국들은 자국의 주류제조 및 유통, 소비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려는 노력을 할 때 수출에도 성공을 하고 필요한 가치창출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주수출의 대상국 선정에서도 통상의 연구에서 처럼 경제, 경영차원의 분석요인에 치중하지 않고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선정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대상국을 선정할 때에 포함요인과 배제요인을 구성하고, 선정에는 인구와 소득이외 소주음용경험과 한류 등의 문화요인을, 배제에는 대체로 종교, 정치, 규범 등의 요인을 사용

한다.

수출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음주인구가 많은 시장의 존재와 그 시장의 성장가능성, 소비여력, 해외주류에 대한 선호도, 그 선호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의 형성 등이 중요하다. 배제 요인으로서의 종교는 이슬람교와 같이 금주를 사회규범으로 책정한 경우 진출대상국에서 배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주류수출 뿐만 아니라 음주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요인 조차도 무의미하다.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국가도 비즈니스적 혁신을 이루더라도 위험에 단기에 노출될 수 있어 배제조건으로 활용된다.

음주문화는 술에 대한 접근성, 지속성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금지에도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회규범으로서의 문화가 수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모두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나아가 발효주가 아닌 증류주 선호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입국에 불법밀주의 존재문화도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관련하여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긍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이중성을 가진 요인이었다. 소주가 수출됨으로써 후발국의 지역경제에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면서 그 사회 소비자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주민의 처지, 제도변화 등 동태적 상황에서 요인의 성격이 변동 가능하므로 선정과 역할 부문 모두에서 활용된다. 소주의 글로벌화 모형에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소주의 글로벌화 모형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적인 부분은 사회적 가치창출과 관련되는 역할모델부분이다. 예를들어 글로벌화에서 대상국의 음주문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수출되는 제품인 소주와 결합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노력이 구전마케팅(word of mouth)의 효과를 거뒀던 것일 수도 있으나 글로벌화 모형이 그 요인을 포함할 때 모델의 유용성이 발현된다. 즉 수입국의 청소년이나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마케팅 자율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도 추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병의 회수율이 떨어지거나 재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노력을 전제로 수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전지구적인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직 신흥국이나 후발국 등에서의 정책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실 기업차원에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글로벌화모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연구된 모형에서 구성인자가 복합적인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소주의 글로벌화 모형은 수출대상국 선정과 각국의 개별시장에 대한 진입전략 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글로벌화 초기단계인 소주제품에서부터 정부의 역할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출대상국의 사회경제적 수준, 주류정책, 음주문화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화 전략을 준비할 때 성공적 진출도 가능하고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연구된 소주의 글로벌화모형은 경제경영 모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구성하고, 정부와 사회, 기업, 협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할 때 성공적 글로벌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의 모형이다.

주제어 : 소주, 글로벌화 모형, 대상국 선정, 진입전략, 이해관계자 역할모델

## 참고문헌

- 김용규. 2000. “국제기업의 해외 진출시 유망시장국 평가 및 선정전략” 무역학회지, 제25권 3호. pp. 237-262.
- 외교통상부. 2009. 재외교포현황.
- 임경원. 2008.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 연구』, 제21권 제2호. 전문경영인 협회, pp. 137-157.
- 조성기. 2011. 『음주문화와 알코올정책』, 한국주류연구원
- 조성기. 2011. “해로운 음주의 연구”, 『해로운 음주감축을 위한 국제세미나』, ICAP & 한국주류산업협회
- 조성기 · 류기목. 2011, 『주류소비자행태조사』, 한국주류연구원
-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2011,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무역협회. 2009. 수출입자료.
- 한국주류산업협회. 2010. 주류주정통계.
- 한태선. 2000, “적정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대한보건연구』, 제26권 제4호. 대한보건협회, pp. 383 -392.
- AT공사. 2008. 주요국 주류시장 트렌드.
- Gmel, G. and J. Rhem(2003), Harmful Alcohol Us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Room R. et al. 2002. Alcohol in Developing Societies: A Public Health Approach. Finnish Foundation for Alcohol Studies
- Stimson G, Grant M, Choquet M, Garison P. 2007. Drinking in Context Patterns, interventions, and partnerships, Routledge
- Susan PD. and CS Craig. 1995. Global Marketing Strategy. Macgraw-Hill.



## 발표4

## 카자흐스탄의 다문화구조: 비카자흐인 공동체의 구성과 특징

김상철 | 한국의국어대학교

### I. 서론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에너지부국인 카자흐스탄은 국가공동체 구성 측면에서 다양한 민족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다문화국가로, 대략 130여 민족으로 형성된 이들은 형성 과정이나 정착과정과 관련되어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카자흐 민족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국가의 변화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문화적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구조 측면의 토대를 강조함으로써 인해 국가 구성원들간의 갈등 및 분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국가였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다민족이 공존하면서 특정집단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 융합하는 다문화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슬라브 계통과 투르크 계통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두 계통이외에도 다른 계통에 속하는 여러 민족집단들이 카자흐스탄이 겪어온 역사적인 과정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유입됨으로 인해 지리적인 입지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 및 종교 등으로 표출되는 문화영역에서의 공존 양상 등에서도 이른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서 공존하는 전형적인 유라시아 공동체의 모델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공동체 형성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개별 구성원들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현재 카자흐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130여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소집단으로써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

는 29개 민족을 중심으로 이른바 다문화사회 카자흐스탄의 기본적인 구성과 그 현황을 다민족집단 사회라는 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 II. 자발적 이주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 1. 슬라브민족 계통 공동체의 형성

#### 1) 러시아

1552년 모스크바 공국의 카잔칸국 정복, 1556년 바쉬키르 정복 이후 러시아의 영역은 볼가강 인접지대로 확대되었고, 17세기에 들어와 제정러시아는 새로운 영토 확보를 위한 식민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국경요새선의 확장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우랄강, 이شم강, 토볼강, 이르티시강 상류가 주 대상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칼뮈크, 바쉬키르, 시베리아 타타르, 오이라트등이 살고 있었고, 카자흐 유목민도 일부가 살고 있었다.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영토 식민화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까자끼 군대에 의한 식민화, 두 번째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농업 이주가 중심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련시기 러시아인의 노동 이주였다. 1822년 알렉산드르 1세는 “시베리아의 키르기즈인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서부카자흐스탄 지역의 통치체제 개혁에 대한 것으로, 이 지역을 오렌부르크 군관구 산하에 두고(1824), 중쥬즈와 소쥬즈 칸의 권한을 폐지하고 카자흐스텝 내부까지 제정러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820년대 이후 카자흐스탄 영토에서는 슬라브계 이주민의 지리적인 확대가 두드러졌고, 우랄과 시베리아의 카자흐 유목민 거주지역내에 러시아인 농촌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서카자흐스탄의 스텝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은 1811년 노보이레츠크 국경선, 그리고 1835년의 ‘신’ 국경선 확대와 연관이 되어 있다.

1835년 제정러시아는 신 오렌부르크 요새선의 인근 전역에 마을 건설을 시작하였고, 이 지역에 제일 먼저 이주된 것은 정규군과 까자끼였다. 1840년 12월 12일 러시아정부는 “오렌부르크 까자끼 군대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구 요새선과 신 요새선 사이를 요새와 토지들을 이용해서 새로이 연계되도록 하여 오렌부르크 까자끼 군대의 영토가 연결되도록 하고, 신 요새선에 인접한 지역들을 까자끼들이 사용토록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렌부르크, 첼랴빈스크 및 트로이츠키 우예즈드에서 농민이었던 이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키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재정-경제적인 특혜도 있었다. 1820-1850년대의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슬라브계 이주민들이 북부, 중부, 동부 카자흐스탄의 스텝지대에 정착하였다. “시베리아 키르기즈에 대한 법령”에 따라 이 지역에는 1824년에 서시베리아 총독령 하부의 옴스크 오블라스찌가 만들어졌고, 1838년 시베리아 키르기즈 오블라스트가 해체된 후 1854년부터 이는 세미팔라친스크 오블라스트로 나뉘어졌다. 1822년 4월 10일 세나트가 이주민들을 위해 토착민들의 토지 분할을 골자로 하는 특별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러시아 지역들 및 카자흐스탄 북부지역들에서 이 지역으로의 러시아 농민들의 이주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850년대 초반 제정러시아의 서시베리아 총독부 특별조사대가 1853년 7월 코팔스키 요새에서 일리강의 계곡지대로 파견되었고, 일리강을 넘어서 현재의 알마티 인근 지역으로까지 요



새 확대 결정에 따라 베르니 요새가 건설되었다. 1870년에 베르니에는 약 만명이 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약 5,500명은 러시아인, 1,200명은 우크라이나인이었다. 'Masanov(2001:213)' 세미레치 지역으로 제정러시아 구성원들의 이주는 1847년부터 1867년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시베리아 출신 수백의 까자끼 가구들과 1610여명의 농민들, 이들도 사실상 까자끼들이었다. 19세기 초반에 까자끼 부대들은 생산력이 좋은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182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농민들의 남알타이 지역으로의 이주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1870년대 초반까지 카자흐스탄 인구에서 슬라브계의 비율은 8.25%였다. 'Masanov(2001:214)'

1861년 제정러시아가 단행한 농노해방령 이후 제정러시아 당국은 농노출신 농민들을 제국의 동부 변방지대로 식민 정착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북부, 서부, 중부 그리고 남동부 지역으로 의 이민을 권장하였는데, 이는 새로이 제정러시아에 속하게 된 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된 슬라브 이주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제정러시아의 정책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정러시아와 청나라간의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남알타이 및 자이산 분지 전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러시아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들의 집중적인 이주가 필요했다. 'Bekmakhanova (1986:97-98)'

스텝으로 슬라브계의 이주는 19세기말에 이루어졌는데, 주로 우랄강 연안 서카자흐스탄 스텝지역, 고르노-타이가 지역, 동 카자흐스탄의 스텝 숲지대와 스텝지역으로 이는 루드니 알타이 지역에 집중 거주하였다. 'Aleksheenko(1999:62)' 19세기전체와 20세기초반까지 슬라브계 민족들의 카자흐스탄 영토 전체로의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북서부, 북부, 북동부 지역이 러시아인 및 우크라이나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공동체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급격히 성장하여 1897년에 이미 카자흐스탄에는 당시 인구의 12.8%에 해당되는 54.4만 여명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1917년 이후에는 소비에트 혁명 반대세력들의 이주가 있었다. 이후 소련시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러시아 민족의 대량 이주는 1954년부터 실시된 처녀지 개간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1959년에는 카자흐스탄 인구의 30%를 넘고 있었는데, 1970년에는 550만여명이, 1989년에는 620여만명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에는 러시아인의 숫자가 대략 450만명 규모의 공동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1999년에 설립된 "카자흐스탄 러시아, 슬라브 및 까자끼 협회"라는 슬라브민족 연합체를 구성하여 슬라브 민족 계통 개별협회들간의 조정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슬라브 풍습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들을 주관하는 등 이와 관련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의 과학, 교육 및 문화관련 기관들과 접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2) 벨라루시인과 우크라이나인

제정러시아가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국경 요새들을 확대시켜나갔던 시기에 유럽 쪽 러시아에서는 우랄강 인근, 시베리아, 극동으로 마길렙스크, 비렘스크, 민스크 지역에서는 1861년부터 1913년 사이에 150만명이 이 지역을 떠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 벨라루시인들은 1863-64년 시기에 카자흐스탄 영토에 최초로 정착하였다. 대략 12,000여명 정도의 이들은 카자흐스탄의 동부와 북부 지역에 정착하였다. 벨라루시인 공동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시기를 거치면서 증가하였는데, 1926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카자흐스탄에는 25,000여명의 벨라루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크몰라주와 세미팔라친스크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의 시기에 벨라루시인 공동체는 확대되었는데, 이는 처녀지 개간 운동 시기 벨라루시인의 유입이 주 원인으로 1959년에는 이미 10만여명 수준으로 그 규모가 증대되었다.

우크라이나인의 카자흐스탄 최초 이주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제정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 해방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대부분이 현재 카자흐스탄의 변방 지대로 유배되면서 우크라이나인의 카자흐스탄 이주가 시작되었다. 1847-1857년의 기간에 카자흐 소쥬즈 영토에 유명한 우크라이나 민족시인 타라즈 그리고리예비치 쉘첸코가 유배되었다. 1847년 33세였던 그는 오렌부르크 총독부 산하의 제정러시아 군대로 징집되었고, 그는 오렌부르크, 오르스크, 망기스타우 반도 및 노보페트로프스크 요새에서 복무하였는데, 그와 카자흐인들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우호관계가 형성되었다. 우크라이나인의 이주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19세기-20세기에 유럽령 러시아 농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였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농업에서 종사하던 농민들이 주로 카자흐스탄의 스텝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89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당시 87,000여명 규모의 우크라이나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2% 정도로 특히 아크몰린스크 주의 경우에는 주 인구의 51.1%가 우크라이나 인이었다.

또 다른 이민 물결은 제정러시아 말기 스톨리핀 농업개혁과 연관되어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이주하였는데, 북부, 중부, 북동부에 다수 정착하였다. 소련 스탈린 통치기에 우크라이나인 민족주의 세력들을 카자흐스탄으로 유배했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처녀지 개간운동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의 대량 이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195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76만여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중심지는 쿠스타나이주였다. 1999년 인구통계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우크라이나인이 547,000여명 정도로 파악되었는데,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의 북부 지역인 아크몰라주, 악츠크주, 카라간다주, 파블로다르주, 북카자흐스탄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 2. 비슬라브계 공동체의 형성

### 1) 타타르인

제정러시아는 18세기에 제국 남동지역에 새로이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아시아인”들과의 교역의 필요성, 정치적인 조사의 필요, 유목민들의 문맹 탈피와 이슬람에 대한 이해 등 제국의 동방정책 영역에서 투르크어 통역이 요구되었다. 이에 종사하는 전통적으로 특화된 관리들은 불가강 중류와 시베리아 출신의 투르크어 사용 민족들이었다. 18세기부터 1830년대까지 오렌부르크와 시베리아 국경수비대 당국은 경험 있는 통역이 대단히 부족함에 따라 투르크어로의 문서 번역, 카자흐 칸과 술탄들과의 외교적인 협상, 카자흐스텝에서의 사건들과 유목민 주요지도자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의해 타타르인들을 관리로 기용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많은 타타르 관리들이 오렌부르크와 옴스크에서 스텝의 카자흐 칸과 술탄들에게 파견되어, 그곳에서 몇 년씩 거주하면서 카자흐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슬람을 전파하고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Masanov(2001:233) 이후 제정러시아 정부는 스텝 지역에 이슬람이 확산됨에 따라 타타르인 관리 대신 카자흐 술탄과의 접촉을 위해 러시아 정교로 개종한 관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타타르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랄의 까자끼 군관구에서 살고 있었다. 18세기 중반에 불가타타르의 남우랄지역으로의 이주가 있었고, 이들은 전통적으로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우랄 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었고, 이후 1850년대 이후에 우랄의 구 도시 지역에서 타타르 자유민촌을 형성하였다. 1750년대 이후에 타타르 이주민들은 북부 및 동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카라반 루트가 지나가는 러시아군 요새와 초소에 인접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타타르 자유민촌이 페트로파블롭스크와 세미팔라친스크에 세워졌는데, 이 곳에는 서로 다른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살고 있었다. 1820년대 중반에 타타르 상인들은 우스찌까메노고르스크 지역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성채 아래쪽 이르튀시 강 좌안에 거주하였고, 1826년에 37명의 타타르가 살고 있었다. 19세기 중반 타타르 자유민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족적인 구성은 다양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이주민들이었다. 1836년 페트로파블롭스크에는 459명의 타타르가 있었고, 세미팔라친스크에는 1451명, 우스찌까메노고르스크에는 210명이 있었다.<sup>1)</sup>

1840년대에서 1860년대의 러시아 국경의 이동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내부로도 타타르 자유민촌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주로 오크루그 외곽에 새로이 생겨난 요새선의 행정 중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카라반이 교차하는 곳에 입지했었던 아크몰린스크 지역에도 자유민촌이 이미 생겨났다. 1860-70년대에는 타타르 상인들이 1844년 세워진 콰페트 마을, 1868년 건설된 도시인 자이산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동카자흐스탄의 국경선 근처 정착지에도 상주하기 시작했다. 1856년 세미레치예 알라타우 오크루그가 세워진 후 이곳으로 1857년부터 세미팔라친스크 요새 지역으로부터 타타르인 가족들과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했고, 카자흐, 타타르, 우즈베크, 칼미키 및 다른 민족들간의 결혼도 자주 있었다. 이들은 베르니 요새 인근에 타타르 자유민촌을 세워서 수공업업을 시작하였다.

19세기내내 타타르는 불가지역에서 서부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 타타르 일부 이주민들은 우랄스크에 세워진 우랄 까자끼 군관구 영토에 인접한 지역에 이주했고, 나머지는 부케이 오르다의 마을들에 정착했으며, 1840-60년대 사이에 스텝 전반에는 북부 아랄해연안의 남부우랄지역으로부터 이주한 타타르들이 새로운 요새들에 인접하여 교역 자유민촌을 만들었다.

1897년에 카자흐스탄에는 55,984명의 타타르가 살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다민족적인 전체 인구에서 1.3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타타르인들은 이 시기 비카자흐 민족들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집단으로 스르다리아 오블라스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37.6%가 소시민, 28.2%가 농민, 9.9%가 까자끼(군인), 2.4%가 유목민이었다.<sup>2)</sup> 이후 카자흐스탄의 타타르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39년에는 108,127명, 제2차 세계대전이후인 1959년에는 191,690명으로 증가하였고, 1979년에는 312,626명으로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 독립후인 1999년 조사에서는 인구 감소가 나타났는데, 249,800명 정도의 타타르인이 카자흐스탄 서남부를 제외한 카자흐스탄 전역에 거주하고 있다.

1) ГАОО. Ф. 3, оп. 1, д. 1630, л. 49-53.

2) 이는 다음의 자료를 추산한 것이다. *Die Nationalitäten des Russoschen Reiches in der Volkszählung von 1897*. Seminar fuer Osteuropaeische Geschichte. (Hrsg. H. Bauer, A. Kappeler, B. Poth). Koeln. Band 32B. Stuttgart, 1991., №046-047., p.366-368; 386-388.

## 2) 위구르 및 둔간

### <위구르>

1881-1884년 사이에 위구르인의 세미레치 지역으로의 대량 이주가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일리강, 칠릭강, 투르겐 강 인근으로 정착하여, 집단거주촌을 형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미레치에는 악수-차린, 말디바예프, 좌르켄트, 코람, 카라수, 케트멘, 아크켄트의 7개의 위구르(타란치) 구역이 만들어졌고, 이는 모두 오늘날의 알마티주에 해당 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당시 카자흐스탄 땅에는 45,300여명의 위구르인이 살게되었다. 이후 위구르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1897년에는 55,000여명 규모가 되었고, 1907년에는 대략 64,000여명 이상이 되었다. 카자흐 민족과 이들 이주민들과의 관계는 대략 우호적이었지만, 제정러시아 시기에는 일부 기간 대립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당시 이주한 위구르와 둔간에게 카자흐인들이 이용했던 초지들이 할당됨으로 인해 나타난 갈등이기도 했다. 소련시기에도 위구르인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999년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략 21만여명이 넘는 위구르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알마티주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위구르인을 대표하는 조직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위구르인 사회문화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위구르인들간의 민족 사회적인 통일성 유지, 민족에 대한 이해, 전통의 보존 활동등을 주도하고 있다. 위구르인 조직은 주로 알마티주, 동카자흐스탄주, 잠블주, 알마티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역사적인 고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은 중국으로 및 역사적인 모국인 신장위구르 자치공화국으로 대표단을 여러 차례 파견하였다.

1957년 이미 카자흐스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구르인 신문 "위구르 아버지"를 발행하였으며, 소련시기에는 제호가 "코뮤니즘 투그"로 대략 12,000부 정도가 발행되었다. 위구르인 극장은 알마티에서 1934년에 세워졌다. 좌르켄트 교육콜리지에서는 위구르어 초급 교육을 위한 교원들이 양성되고 있다. T. 주르게노프 명칭 극장-예술 아카데미에서는 위구르어 구사 예술 공연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 <둔간인>

18세기 중반 중국 북서부지역은 중국으로 편입되었고 이는 새로운 지역이라는 의미인 신장으로 불리었다. 청나라는 천산 및 일리지역의 북부지역을 차지하였는데, 당시 이 지역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교도인 타란치, 둔간 및 여타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둔간은 일리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지배에 반대하여 1867년 일리 술탄국을 세웠는데, 1871년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세미레치주로 편입되었다. 1881년 러시아가 청나라와 평화회담을 통해 일리 지역을 청나라에 반환하게 되었고, 이때 둔간인들에게는 원래의 세미레치주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둔간인들은 청나라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령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세미레치지역으로의 둔간인 최초 이주는 1876-77년에 있었다. 청나라에 대한 반대세력이었던 약 4,000여명의 둔간인들이 카자흐스탄 영토로 이주했다. 1884년에는 둔간인의 두 번째 카자흐스탄 이주가 있었다. 이들은 제정러시아에 속했던 자신들의 영역이 청나라로 반환됨에 따라 제정러시아의 통치 지역에 계속 남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는데, 그 규모는 대략 4,600여명 정도였다. 이후 둔간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897년에는 이미 14,000여

명 규모였고, 1907년에는 이미 20,000여명을 넘고 있었다. 1999년 인구조사에서 둔간인은 대략 37,000여명으로 파악되었고, 절대 다수는 잠블주에 거주하고 있다. 1999년에 이미 카자흐스탄 둔간협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위구르 및 둔간과 공동으로 민족 교육, 전통 보호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알마티주, 아크몰라주, 악츠크주, 카라간다주, 잠블주, 서카자흐스탄주에 둔간 문화센터가 카자흐스탄 둔간협회와 공동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민족문화, 언어, 전통 및 풍습의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10개 학교에서 둔간언어와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위구르어로 책과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들은 중국,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의 둔간인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카자흐스탄 둔간 신문인 "후에이주보"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 3) 유태인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영토에 유태인들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대실크로드 시기로 당시에는 콥트인이 중심이었다. 제정러시아 유럽영역에서 농민들이 동부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이주로 상당수의 유태인들이 카자흐스탄 영토로 이주하여 19세기 후반기에 유태인들은 카자흐스탄 도시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1897년 제정러시아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영토에 1651명의 유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은 카자흐스탄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은 아크몰라주와 스르다리아주였다. 1920-30년대에 또 다른 부류의 유태인들이 정치 탄압의 결과로 카자흐스탄에 유입되었고, 카자흐스탄의 산업화에 따른 유태인들의 유입도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유태인의 상당 부분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 러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태인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증가되었다. 1940년대말부터 1950년대초까지 소련전역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유태인들은 코스모폴리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유태인의 숫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1954년부터 시작된 처녀지 개간운동의 결과였다. 1985년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유태인들의 대량이주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유태인단체인 "손후트"는 유태인 귀국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정부 각 부처가 모국으로 귀국하는 유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원칙에 따라 국적취득 및 여권 발급이 이루어졌다.

1999년 카자흐스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743명의 유태인이 파악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 지역,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알마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하라, 그루지아, 크림, 고르스크 출신 유태인으로 구분된다. 디아스포라 단체를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앞서 설립한 것은 유태인이었다. 1992년 유태민족단체인 "미츠바"가 세워졌고, 1999년에는 카자흐스탄 유태인 총회가 설립되어, 유태인 문화의 단합, 사회복지 단체인 "헤세드"등과 공동활동을 하는 등 유태인 전반에 관한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사회복지센터 "헤세르 미리암"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기구는 유태인의 생활과 유태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태인 전통의 부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카라간다, 아스타나, 우스찌까메노고르스크에는 유태인 청년클럽이 만들어져 유태인 청년층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태인 신문인 "샬롬"이 발행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우스찌까메노고르스크에 유태인 극장 "셈 소록"이 만들어졌고, 카라간다에서는 음악공연 단체 "오토 아

조이"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유태서적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유태인 교회는 알마티, 쉘켄트, 아스타나, 파블로다르, 크즐오르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아스타나에서 중앙아시아 유태교회 대회가 열렸고, 개막식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

#### 4) 바쉬키르, 추바쉬, 키르기즈

##### <바쉬키르>

역사적으로 바쉬키르는 카자흐 민족의 소쥬즈 및 중쥬즈와 접경하고 있었고, 바쉬키르 역시 유목과 반유목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바쉬키르는 기원에 있어서 카자흐와 동일한 투르크어 사용 민족으로, 경제생활, 언어 전반, 종교 및 문화에서 카자흐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1600년대 중반에 카자흐의 소쥬즈 유목민은 바쉬키르의 영역에서 유목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쉬키르-카자흐간의 관계는 이 시기 이후부터 이미 형제 민족간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바쉬키르와 카자흐의 유목 습관 역시 목초지 사용 방식이 유사하였다. 1808년 오렌부르크 구베르나야 지역에 기근이 시작되자 20,000여명의 소쥬즈 카자흐인들이 바쉬키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바쉬키르 일부에 흡수되었고 1812년에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 제정러시아간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여 프랑스의 침공에 맞서는 전투에 참여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카자흐와 인접 민족인 바쉬키르는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영토에 존재한 기간이 다른 민족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다. 1926년 인구조사에서는 812명의 바쉬키르가 카자흐스탄 영토에 살고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쿠스타나이 오크루그에 거주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의 바쉬키르인은 1959년 8742명으로, 1970년에는 21,442명으로, 1989년에는 41,847명으로 증가하였다. 'Kabuldinova(2007:37)' 오늘날 카자흐스탄 바쉬키르인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 북부 및 중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략 23,000여명 규모로 이들은 아크몰라주, 카라간다주 및 코스타나이주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바쉬키르인 디아스포라는 타타르와 공동으로 문화협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젤"협회는 언어, 문화, 전통 및 풍습의 부활 및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고향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추바쉬인>

카자흐스탄의 추바쉬인 이주는 192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아크몰라, 파블로다르, 알마티 및 쿠스타나이주의 시골에 거주하였는데, 1926년 인구조사에서는 2267명의 추바쉬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1404명이 아크몰라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는 카자흐스탄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는 추바쉬인들의 이주가 있었고, 이들은 탁월한 기능인력들이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대략 11,000여명 정도의 추바쉬인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의 북부지역에 있다. 199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쿠스타나이주에 1949명, 파블로다르주에 1218명, 북카자흐스탄주에 128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1994년 11월 추바쉬 사회문화센터를 설립하여, 민족전통, 언어 및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추바쉬 사회문화센터 산하에 추바쉬인 은퇴자 모임, 추바쉬인 청년회 등이 활동하고 있고, 민족 양상블 "세스펠"이 활동하고 있다. 파블로다르에서는 1개 학교에서 추바쉬어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 <키르기즈>

카자흐 민족과 여러 측면에서 가까운 민족 집단의 하나로 역사, 언어, 문화 및 풍습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키르기즈에 속하는 많은 부족들이 카자흐에도 속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키르기즈는 카자흐의 영역에 오랜 기간 존재해왔다. 카자흐가 제정러시아의 팽창정책에 직면해 있었던 아블라이 칸의 통치기에 콕체타우 지역에 두 개의 키르기즈 이주민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1926년 카자흐스탄 인구조사에서는 대략 10여만명의 키르기즈인이 파악되었다. 이들은 주로 남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었고, 카자흐와 키르기즈 민족은 수세기동안 서로 이웃하며 공존해왔다. 소련시기에 카자흐와 키르기즈 사이에 경계선이 설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키르기즈 민족은 카자흐 땅에, 일부 카자흐 민족은 키르기즈 땅에 살아야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는 키르기즈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대량 노동이주를 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영토에는 대략 11만여명의 키르기즈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의 절반 규모의 카자흐스탄 거주 키르기즈인들은 잠불주 영역에 거주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추정치로는 키르기즈인이 20만명 수준인 것으로도 추정되며, 농업, 상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즈인 단체로는 대표적으로 알마티의 "메켄", 타라즈의 "마나스-아타", 악타우의 "알라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아스타나에 키르기즈인 문화센터가 활동을 개시했다. 이외에도 알마티의 151번 학교에서는 키르기즈인 어린이들이 모국어와 카자흐어를 배울 수 있는 일요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청년회 모임은 "메켄"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키르기즈 민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과학, 경제 관련 행사들을 열고 있다.

### 5)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 <우즈베크>

우즈베크는 카자흐 민족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민족이다. 우즈베크에 속하는 여러 부족들 가운데 많은 부족들은 카자흐 민족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소련시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크스탄의 국경선 설정 이후 적지 않은 우즈베크 민족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에 남게되었다. 이러한 결과 193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약 120,000여명의 우즈베크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9년 조사에서는 135,000여명 규모로 확대되었고, 1979년에는 263,000여명 규모로 더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노동 이민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즈베크인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 구성 민족 가운데 대략 4번째로 큰 공동체 집단이다. 199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대략 37만여명의 우즈베크 민족이 카자흐스탄에 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여러 도시들에서는 우즈베크 민족센터 설립이 이어졌고, 이러한 센터들간의 관계와 활동의 조정을 목표로 1996년 우즈베크인 협회 "도스릭"이 설립되어 우즈베크인의 문화교육 측면의 여러 활동 및 모국어에 대한 연구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주재 우즈베크스탄 대사관, 우즈베크스탄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도스릭은 문화, 과학, 역사 등의 테마를 가지고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의 만남을 빈번하게 열어 양 민족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우즈베크 민족의 문화, 언어 및 전통을 보여주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우즈베크어가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10개 학교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 남카자흐스탄의 사이람시에는 우즈베크 드라마극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남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는 우즈베크어 언어 및 문학 교육을 위한 교수인력이 양성되고 있고, 투르키스탄 인문폴리지에서는 초중등학교 우즈베크어 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 <투르크멘>

카자흐 민족과 투르크 민족은 수백여년 이웃한 우호적인 관계로 공존해왔다. 투르크멘의 많은 부족들이 역사적으로 카자흐 민족에 속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카자흐와 투르크멘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문화적으로나 영토적으로도 카자흐와 투르크멘은 우스투르타 및 망기실락 지역에서 공존하며 공동체 차원 및 종교적인 차원에서 공통성을 지녀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지리적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카자흐스탄 영토에 투르크멘 디아스포라가 존재하게 되었다. 19세기말 제정러시아 시기에 행해진 인구조사에서는 4000여명의 투르크멘 민족이 카자흐 영토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카라간다주와 남카자흐스탄주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에는 2000여명 정도의 투르크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1995년에 알마티에 최초의 투르크멘 사회문화 센터가 만들어졌고, 1998년에는 알마티주 센터와 망기스타우 민족센터가 이와 연계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쿠스타나이 및 카라간다 민족문화센터가 이와 연계하기 시작했다. 투르크멘 사회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의 투르크멘 디아스포라가 직면해있는 문화-교육 측면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타지크>

타지크 민족과 카자흐 민족은 오랜 역사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1926년 인구 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에 7599명의 타지크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거의 전부는 스르다리아주에 살고, 단지 극소수만이 우랄주, 그리고 제티수주와 아크몰린스크주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39년에는 타지크의 숫자가 11,000명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고, 198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에 25,514명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남카자흐스탄주에 살고 있으며, 19,000여명 수준이었다. 타지크인의 카자흐스탄 이주 이유는 구직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는 26,000여명 정도의 타지크인이 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고 있다. 2003년 카자흐스탄 타지크인 문화-사회협회인 "소모니엔"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전역에 있는 사회-문화센터를 관할하며, 타지크 디아스포라의 문화, 전통, 모국어, 풍습 보존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Ⅲ. 강제이주 공동체 집단의 형성과 발전

####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주 공동체 형성민족

##### 1) 아제르바이잔인

아제르바이잔인의 카자흐스탄 최초 이주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 1926년에는 46명의 아제르바이잔인이 카자흐스탄 영토에 살고 있었다. 1930년에는 13,000여명의 아제르바이잔인



들이 오늘날의 남카자흐스탄주와 잠볼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점차 확대되었다. 1999년 인구조사에서 아제르바이잔 민족은 78,000여명 규모였고, 현재는 대략 90,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이주하게 된 계기는 노동이민, 추방, 강제이주가 주된 원인이었다. 소련초기의 국유화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부유층에 대한 재산 몰수 조치 이후 이들을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추방하였고, 1930년대 초반 정치탄압기에 상당수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이주하였지만, 대규모 이주는 1937년의 강제이주와 관련되어 있다.

대다수 아제르바이잔인의 강제이주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노동이민을 당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는 소련시기의 처녀지 개간 운동의 일환, 직장 배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업 프로젝트 및 중요 건설 프로젝트에 전문가로 파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아제르바이잔인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고향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 1992년 3월 29일에 카자흐스탄 법무부에 아제르바이잔 문화센터 "투란"이 등록되었고, 이는 2000년 "투란"콩그레스로 발전되었다. 투란 이외에도 "고부스탄," "아제리," "바탄," "게이 다르," "도스트룩" 등의 아제르바이잔 민족 관련 조직들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센터들은 아제르바이잔어와 국가어인 카자흐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 전통 무용 및 전통 풍습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2) 아르메니아인

아르메니아인은 현재의 카자흐스탄 영토에 19세기 초반부터 존재했다. 제정러시아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내부로 확장하던 시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주민과 함께 아르메니아인이 이주하였다. 1846년 망기실락 반도에 요새가 설립되었고, 이는 알렉산드롭스크 항구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는데, 이 요새 인근에 아르메니아 자유민촌이 설립되었고, 이곳에는 1873년 88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상인과 수공업자였다.

소비에트 시기에 아르메니아인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아르메니아인 건축전문인력의 이주였다. 두 번째는 스탈린 시기의 탄압과 강제이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강제이주는 1930년대말과 195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특별이주민이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약당했다. 1926년 카자흐스탄 인구 조사에서는 579명의 아르메니아인이 파악되었는데, 1939년에는 777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의 28.2%는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1959년에는 카자흐스탄에 9284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었는데, 현재 이는 15,000여명으로 증가하여 대부분이 알마티주, 코스타나이주, 카라간다주에 살고 있다.

## 3) 불가르인

불가르인이 제정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된 것은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제정러시아는 불가르인들을 흑해연안 및 남부베사라비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카자흐스탄 영토에는 20세기초가 되어서야 불가르인이 대량 농업식민화의 결과로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와 베사라비아 출신이었다. 이들은 농업영토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래의 거주지역을 떠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다. 1908-1910년에 파블로다르 지역에 라주모프카, 안드리야노프카 마을이 형성되었고, 악췌빈스크 지역에 불가르

카 마을이 형성되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의 시기에 카자흐스탄 영토에는 일시적으로 농업을 위해 이주하는 불가르인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름철에는 쿠스타나이 도시 근처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농업 토지는 현지인으로부터 임대하는 형태로 확보하였고, 가을에 수확을 한 이후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형태로 계절농이 이루어졌다.

1926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3,000여명의 불가르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미팔라친스크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강제이주가 주된 원인이었고,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이들은 카라간다 지역의 광산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했다. 1990년대까지 불가르인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 인구조사에서는 대략 1만여명의 불가르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카라간다주, 악추빈스크주, 파블로다르주가 중심이었다. 현재 불가르인의 숫자는 대략 7,000여명 규모로 거주지역은 1989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불가르인 문화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었고, 아티라우주, 악추빈스크주, 파블로다르주 등에 지회를 가지고 있다. 불가르는 그 규모가 소수인 카자흐스탄의 디아스포라 민족 집단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불가르 문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불가르 언어의 점진적인 확대, 민족 문화와 풍습, 전통의 보존 등이 중요한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매년 5월 24일에는 키릴과 메토디아의 날로 불리는 슬라브 문자 및 문화의 날 행사를 아스타나, 알마티 및 여타 도시들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한 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의 불가르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역시적인 고향과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불가르인들은 불가리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중에 만나는 행사를 가지고 했다. 카자흐스탄 불가르인들의 30% 정도는 카자흐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40여명 규모의 불가르민족 학생들이 불가리아의 대학으로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파블로다르 문화센터는 불가리아 정부가 파견한 자원봉사자가 이끄는 모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 4) 그루지아인

그루지아인은 카자흐스탄에 20세기초반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1926년 인구조사에서는 78명의 그루지아 민족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었고, 이들은 카자흐스탄 남부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히 스르다리아 지역에 전체 그루지아인의 64% 이상이 살고 있었다. 그루지아인의 숫자는 1930년대말에 와서 두드러지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정치적인 강제이주 및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이주가 주요 성장 원인이었다. 1939년 카자흐스탄의 그루지아인 규모는 5000여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고, 전쟁 이후에도 이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루지아인들은 주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1970년 인구조사에서는 6883명의 그루지아인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카라간다주, 망기스타우주, 북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그루지아인 노동인력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는 그루지아 자체의 정치 및 경제상황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카자흐스탄에는 5,000여명 규모의 그루지아인들이 살고 있다. 2002년 9월 10일 알마티의 그루지아인들은 문화센터를 설립하였다. 같은해 그루지아어 일요학교가 개설되었고, 이를 통해서 언어, 민족전통 및 풍습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 5) 몰도바(루마니아)인

카자흐스탄의 몰도바인과 루마니아인은 오늘날의 몰도바 및 루마니아 공화국에 속하는 베사라비아 지역 출신들이다. 최초의 이주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당시 남동 유럽의 대기근이 원인이었다. 소련체제 초기의 부농(쿨락)집단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로 이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 세 번째 이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녀지 개간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1989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33,000여명 규모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는 루마니아인도 포함되어 있다. 소련 붕괴이후 루마니아인과 몰도바인은 역사적인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199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에 19460명의 몰도바인과 594명의 루마니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은 북부카자흐스탄 지역의 주들인 아크몰라주, 카라간다주, 파블로다르주, 쿠스타나이주에 거주하고 있다. 2002년에는 카자흐스탄 루마니아-몰도바인 협회가 만들어졌고, 이 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루마니아-몰도바인 협회는 매년 봄축체인 "메르치쇼르", 정교축제인 파스후를 거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공화국은 카자흐스탄의 루마니아인과 몰도바인 학생들이 무료로 루마니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카라간다에 소련시기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만들어졌다.

## 6) 폴란드인

카자흐영토에서 폴란드인은 18세기 후반부터 1810년대 사이에 최초로 존재했다. 이들은 (러시아에 합병되어 유형당한) 폴란드 왕국의 귀족당원들로 주로 우랄 및 시베리아 라인의 시베리아 까자끼 지역에 거주했다. 제정러시아의 남동변방 지방과 카자흐스탄의 북부지방으로 1830-1831년에 있었던 폴란드(왕국) 민족해방 부흥주의자들이 추방되었다. 1820년대에 폴란드 부흥운동 공모자들이 이른바 서부지역 구베르니아들로부터 추방되었다. 필로마토프와 필라레타 단체의 구성원들인 토마쉬 잔, 안 체체트, 아담 수진, 그리고 초르나야 브라찌야의 알로이지 페슬라크, 안 비트케비치, 빅토로 이바쉬케비치 등이 모두 탄압되었다. 1830-31년 부흥운동이 분쇄되면서 이 운동에 관여했던 대부분은 이 지역으로 보내어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오렌부르크와 서시베리아 군관구 관할인 오렌부르크, 옴스크, 아스트라한의 행정중심지에 거주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오렌부르크 크라이의 관리로 일했다.

1850년대 중반에 북부 및 동부 카자흐스탄의 시베리아 까자끼 지역과 세미팔라친스크 오블라스트에는 222명의 추방된 폴란드인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87명은 1차로 추방된 사람들이었고, 152명은 2차로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세미팔라친스크와 우스찌까메노고르스크에 집중되어 있었다. 'Masanov(2001:240)' 이러한 지역으로의 새로운 폴란드인들이 유입되는 것은 1863-64년 폴란드 2차 민족봉기이후의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시베리아 지역에는 1863년 524명, 1864년 10,649명, 1865년 4672명, 1866년 2829명이 추방되었고, 이 가운데 서시베리아에 남은 10,407명은 임시로 카자흐스탄 북동부의 행정부서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전체추방자들 가운데 50%는 귀족, 서민은 20%, 농민은 21%, 기타가 9%였는데, 서시베리아로 추방된 폴란드인 가운데 귀족의 비율은 25%였다.

폴란드인의 또 다른 이주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시기의 강제이주였다.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졌는데, 1921년 로마 평화조약에 의해 이들은 폴란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일부는 폴란드로 되돌아갔다. 192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1807명이 살고 있었다. 1939-1940년 폴란드가 나찌 독일에 점령되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의 폴란드인들이 1940년 10월 난민자격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었다. 종전이 되자 이들은 역사적인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수는 폴란드로 귀환하였지만, 이 당시 남은 이들이 바로 오늘날 카자흐스탄 폴란드 디아스포라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1999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폴란드 디아스포라는 약 47,000여명 규모였다. 이들은 주로 북부 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알마티주의 농촌과 도시에서 살고 있고, 1980년대말 비공식적으로 폴란드인 단체를 결성하였고, 1992년에 카자흐스탄 14주와 도시를 통합한 카자흐스탄 폴란드인 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폴란드인연합은 민족문화, 전통 및 풍습, 폴란드 역사 및 언어의 연구를 통해 민족적인 특성을 부활 및 보존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역사적인 모국인 폴란드로 유학생이 파견되고 있고, 16개 학교에서 폴란드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에서 파견된 봉사자들에 의해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22개의 일요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알마티와 콕체타우에 있는 대학에서는 폴란드어 및 폴란드 문학, 폴란드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폴란드인 민족 예술 단체로는 콕체타우의 민족 앙상블 "스페포빅 크바티", 슈신 지역의 노래 및 무용 앙상블 "스코보론키" 등이 있다.

## 7) 독일인

18세기 중반부터 소수의 독일인 이주민들이 카자흐스탄 지역의 새로이 통합된 영토로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군사 시설 주위를 따라 정착하였다. 이 단계의 이주에서는 이주한 독일인의 절대적인 다수가 관리로 파견되거나 군대에서 파견되는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제정러시아령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독일인의 다수는 19세기중반에 카자흐의 스텝으로 이주했는데, 이들은 군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또 고위 장교나 중간관리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주민들 가운데 2/3은 발트해 연안 출신들로 귀족 가문이었고, 일부분은 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이었고, 나머지는 독일, 폴란드 또는 스웨덴의 도시 출신이었다.

18세기 중반에 30명 이상의 독일인들이 옴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 젤레진스크, 세미팔라친스크, 우스찌-까메노고르스크 요새들의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14가구 60명의 독일인 오렌부르크에 살고 있었으며 20-25명의 독일인 장교들이 오렌부르크 국경선의 각급 요새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에는 러시아 귀족 출신의 고위 전문 관리들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국 남동 변방의 국경관할 군사-행정 직위에는 짜르 정부에 의해 초청되어온 독일인들이 많고 이었다. 18세기중반부터 1820년대 중반까지 독일인들은 러시아군 각급 요새들의 고위 지휘관이나 사령관을 맡았고 년도 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 요새 사령관들 숫자의 1/3에서 많을 경우는 절반정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군대 장교, 군위관, 관리 및 수공업자, 교사 등의 독일인 전문인력들이 18세기부터 19세기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였다. 1830-60년대에 다양한 유럽국가 출신의 독일인들이 러시아 군대에 복부하기 위해 이주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카자흐스탄땅에 주둔하는 러시아 육군 정규군으로 흡수되었다. 이들은 투르케스탄 지역에 15-25년 복무 후 이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이러한 독일인 전문직 이주민들이 카자흐스탄의 민족적인 구성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각자의 정착 지역에 지식인 엘리트들이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다.

1890년대에는 독일인의 카자흐스탄 영토로의 농업이민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독일인 마을은 1880년대초 스킨다리아 오블라스찌 아울리에아타(현재의 잠불) 우예즈드에 생겼다. 1890년대에는 독일인들의 본격적인 카자흐스탄 영토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1891-1892년 볼가지역에서의 흉작 및 기근과 관련이 있다. 1890년대 내내 남카자흐스탄의 타쉬켄트 우예즈드에는 독일인 마을인 콘스탄티놉스키 마을이 형성되었고, 아크몰라 오블라스트의 아크몰라 우예즈드에는 동시 452가구의 3057명의 독일인이 이주했다. 19세기말에 일시적으로 유럽러시아, 독일 및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도시지역으로부터 독일인들의 카자흐스탄 땅으로의 집중적인 농업 이민이 있었다. 1897년 실시된 제정러시아의 제1차 러시아전역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독일인은 2613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85%가 농민이었고, 8%가 평민, 3.7%가 귀족으로, 'Krieger(1993:13-15)' 이들 가운데 29.8%가 도시에 거주했고, 70%는 농촌지역에 거주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타타르의 시베리아로의 대량 이주와 병행하여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이주에서는 유럽러시아 출신 독일인 농민들의 이민이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볼가지역 독일인 정착지 출신의 농민들이었다. 스톨리핀 농업개혁이 현실화되면서 독일인들의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의 이민이 급격히 활성화되었고 1906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민 흐름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흐름은 볼가지역의 독일인 정착지로부터의 이민이었고, 이외에도 남부 러시아의 흑해 연안 정착지로부터의 이민, (우크라이나 서부)볼리니 및 인접 구베르니아로부터의 이민이었다.

1898년부터 1905년까지 첫 8년 동안은 독일인의 이민은 아크몰라 오블라스트로 집중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사마라, 사라토프 및 인접한 구베르니아 출신의 가난한 이주민들이었다. 1906년에서 1910년까지는 독일인 정착촌 출신들의 이민이 북—중부 및 북서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1906년 이후에는 볼가 출신의 독일인 농민들이 중앙아시아의 투르케스탄 지역 스킨다리아 오블라스트로 이주했는데, 1907-1910년 사이에 아울리에아타 우예즈드 지역으로 이주했고, 1910년에 볼가 정착촌 출신 독일인 이민자들이 타쉬켄트 우예즈드 침켄트 지역의 스텝지역으로 이주했다. 'Krieger(1991:58-59)' 이러한 독일인 농민마을은 단일 종교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다.

1941년 소련이 독일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소련의 유럽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독일인들은 소련의 동부지역으로 이주되었고, 이 가운데 다수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 불가독일인자치공화국의 80여만명에 달하는 독일인 가운데 42만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어 전선에 가까운 구리예프(아티라우)주와 서카자흐스탄주를 제외한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분산배치 되었다. 대다수는 쿠스타나이주, 아크몰라주, 북카자흐스탄주로 배치되었고, 남자들은 노동군으로 징집되었다. 이후 강제이주민에 대한 사면 복권등을 거치면서 1959년 인구조사에서는 66만여명의 독일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였고, 이후 이는 거의 백만명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역사적인 모국인 독일로의 귀환 문호가 열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35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략 28만여명 규모의 독일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 2. 제2차 세계대전기 강제이주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 1) 카프카즈 출신 민족

#### <발카르 및 카라차이인>

카프카즈에서 최초로 강제이주 당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카라차이인이다. 카라차이 민족 자치주의 폐지와 함께 소련 당국은 카라차이인들을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켰다. 카라차이인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선이 된 지역에 거주했던 다른 민족들과 같은 처지에 처했다. 1942년 카라차이 민족의 자치주는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카라차이 인들이 나치 독일에서해방된 이후 히틀러에 대한 협력을 이유로 1943년 10월 12일 스탈린은 카라차이인 자치주의 해체를 결정하였다. 결정 이틀뒤부터 카라차이인 전체의 강제이주가 시작되었다. 강제이주 인구 전체는 7만여명 규모였고, 이들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이동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남부 지역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

발카르인 역시 카라차이인처럼 남자의 거의 대부분이 전선으로 보내졌고, 7명이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발카르인 역시 강제이주의 예외가 아니었다. 이유는 강제이주 당한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히틀러에 대한 협력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적이었고, 발카르인들은 카바르디노 발카리아의 영토로부터 추방되었다. 1944년 3월 5일 소련은 발카르인의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 영토로의 이주를 결정했다. 약 25,000여명의 발카르인들이 강제이주 대상이 되었다.

강제이주 민족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진 후 발카르인과 카라차이인은 고향으로 귀환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인구는 감소하였다.

#### <쿠르드인 & 메스케치안 투르크>

쿠르드인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1937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강제이주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1937년 가을 아제르바이잔의 나흐체반 지역에 있었던 18개의 쿠르드인 거주지역 쿠르드인이 최초의 강제이주 대상이 되었다. 1944년에 두 번째 강제이주가 있었는데, 이는 그루지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쿠르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는 조치였다. 강제이주 당한 쿠르드인은 주로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잠불주, 알마티주, 남카자흐스탄주가 중심이며, 오늘날에도 강제이주 당시와 동일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략 33,000여명 규모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투르크는 메스케치안-투르크로 오늘날 그루지아 남서부의 메스케치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집단 출신이다. 이들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강제이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스탈린 통치기에 그루지아에서 투르크인을 청산하려함에 따라 메스케치안 투르크는 115,500여명이 강제이주되었고 이 가운데 28,000여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 1944년에 이루어진 이러한 강제이주된 메스케치안 투르크는 스탈린 사후 복권조치에 따라 많은 이들이 1956년 그루지아로 귀환하였다. 소련시기에 일부 투르크인은 아제르바이잔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199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대략 79,000여명의 메스케치안 투르크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잠불주와 남카자흐스탄주에 살고 있다. 1991년 2월 알마티에 투르크 민족센터가 등록되었고, 1996년에 투르크 "아흐스카"로 개칭하였다. 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의 다양한

투르크계 집단과 긴밀한 연계를 하고 있으며, 이후 4개 지역인 알마티주, 남카자흐스탄주, 잠불주, 크즐오르다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체첸 및 잉구쉬인>

체첸인의 카자흐스탄 최초 이주는 1920년대에 있었다. 192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3명의 체첸인이 있었는데, 스르다리아주에 1명, 세미팔라친스크주에 2명이 있었는데, 193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2,600여명으로 확대되었다. 체첸 및 잉구쉬인의 대량 이주는 1940년대의 강제이주가 계기가 되었다. 1944년 2월 개시된 강제이주로 인해 48만여명의 체첸인과 92,000여명의 잉구쉬인이 카프카스로부터 강제이주되어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 정착하였는데, 그 규모는 대략 406,000여명 정도였다. 체첸인은 주로 남쪽지방에, 잉구쉬인은 북쪽지방에 배치되었고, 1950년대의 거주제한 해제 이후에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고, 상당수는 역사적인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이러한 결과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32,000여명의 체첸인, 17,000여명의 잉구쉬인이 거주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체첸 디아스포라와 잉구쉬 디아스포라는 문화발전을 위해 각각 "바이나흐"와 "다이모흐크"라는 명칭의 협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민족적인 요소가 반영된 예술활동, 체첸어와 잉구쉬어 교육을 위한 학교의 개설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2) 비카프카즈 민족

#### <그리스인>

카자흐스탄의 그리스인에 대한 기록은 1926년 인구조사에서 15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940년대에는 134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스인의 대량이주는 1930년대말 스탈린의 강제이주가 그 전환점이 되었다. 강제이주된 그리스인은 북카프카즈 및 흑해 출신이었고, 이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으로의 강제이주는 1937년, 1938년, 1942년에 있었다. 1944년에는 크림지역의 그리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되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의 시기인 1949년에는 아브하지야와 그루지아의 그리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되었는데,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분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자흐스탄의 그리스인 숫자는 두드러지게 증대되었는데, 197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51,000명 이상의 그리스인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46.3%는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1991년 이후 이들은 역사적인 모국으로 귀환하는 추세 가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카자흐스탄의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인 공동체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재 그리스인은 대략 13,000여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주로 알마티주, 잠불주, 카라간다주, 남카자흐스탄주, 알마티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협회에 가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언어, 문화 및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있으며, 창작집단은 민족무용과 노래를 공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그리스인협회와 그리스 공화국 정부간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그리스인들은 모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알마티의 카자흐 국립대와 카자흐 세계언어및 국제관계대학에 그리스어를 배울 수 있는 학부가 개설되었고, 2004년 카자흐스탄 그리스인들은 민족 신문 "필리야"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 <크림타타르>

제2차세계대전 시기에 크림타타르인의 영토는 독일군에 점령된 바 있다. 이 영토를 다시 회복한 이후 소련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을 강제이주하였다. 크림타타르인들은 독일군 점령시기 파시스트 집단과의 협력이 공식적인 죄목이 되어 강제이주를 당하였다. 1944년 5월 18일 크림타타르의 강제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강제 유배지로 이주되었고, 아울러 마리 자치공화국, 우랄 및 코스트로마주의 크림타타르인들도 강제이주 당하였다. 이러한 강제이주 크림타타르인의 규모는 대략 19만여명 규모로,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에는 4501명이 강제이주 되었다. 강제이주 시기에 크림타타르인의 46% 정도는 첫 달에 대략 46%가 사망하였다. 1967년 크림타타르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지만, 크림타타르인의 고향으로의 귀환은 소련당국에 의해 금지되다가 1980년 대말에 가서 허용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1990년 크림반도로의 대량 귀환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에는 27만여명의 크림타타르인이 크림으로 귀환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대략 천여명 규모의 크림타타르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전역에 흩어져 있다. 크림타타르인의 대표기구는 알마티주, 카라간다주, 알마티시에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 <한인(고려인)>

오늘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게 된 것은 1937년의 강제이주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1937년의 강제이주 이전에 이미 소수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역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1897년에 실시된 제정러시아 최초의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코칸드, 나만간, 비쉬켈, 프르제발 시 등에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현재의 카자흐스탄 세미레치예 지역에 11명, 베르넨스크에 5명, 현 알마티 시에 1명, 자르겐트 군에 4명, 시르-다리야주 아우리에-아타(현 타라즈 시)에 1명, 페롭스크군(현 크질-오르다 주)에 1명, 아크몰린스크 주에 5명이 있었다. 이들이 19세기 말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한 최초의 한인들이다.'Kan(1995:29)' 1926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에 42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대부분은 1937년의 집단적 강제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후손들이다. 강제 이주 직후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남카자흐스탄 지역, 특히 크질-오르다 주였고 그 다음이 알마아타 주였다. 1937년 가을에 시작된 극동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의 고려인 강제이주는 총 18만 명이 그 대상이었는데 카자흐스탄에 약 9만 여 명이, 우즈베키스탄에 약 75,000여 명이 이주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자흐스탄 한인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59년에는 74019명, 1979년에는 91984명으로 증가하고, 1999년 이후로는 대략 1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주로 알마티주, 잠불주, 카라간다주, 크즐오르다주, 남카자흐스탄주 및 알마티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 IV. 결론

지리, 문화 및 인구학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시간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해왔고, 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요소가 별다른 갈등없이 공존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 또



는 아프리카 문화나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나 사회에서 문화적인 접촉 및 그 수용 양상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급진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대립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음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점진적이고, 또 토착민족 집단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의지나 필요성에 의해 외래문화나 공동체를 받아들이기도 했고, 이러한 외래문화나 외래민족 공동체와 공존양상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토착민족 집단이 문화적인 측면이나 숫적인 규모 측면에서 공동체의 다수 집단 또는 지배적인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시점에서 카자흐스탄으로 타의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공동체들이 형성됨에 따라,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는 이른바 피억압민족들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형성되어 나왔다.

다민족다문화공사회라는 측면에서 볼때 카자흐스탄은 토착민족집단인 카자흐 민족의 근간이 15세기 이후에 형성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구조는 러시아문화가 지배적인 소련시기에 그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유목민족인 카자흐 민족이 외래적인 문화요소나 인식의 수용에 융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외래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관대한 수용 양상이 오늘날 130여개 민족이 공존하는 공동체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9세기말부터 유형 또는 농업이민 차원에서 다양화되기 시작한 오늘날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소련시기에 들어와 소련의 국가전략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수행의 준비와 사후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강제이주로 인해 그 성격이 다변화되었으며, 소련 정치체제의 급변에 따라 강제이주 동기의 상이성에 상관없이 일부 집단은 과거의 역사적인 고향으로 귀환이 허용된 반면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소련 체제 붕괴후 특정 민족집단에서는 역사적인 모국이 재외동포들의 귀국을 적극 장려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 집단의 공동체규모가 축소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집단들에서도 여전히 일부는 제2의 고향이라는 카자흐스탄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역사적인 모국과 현재의 모국인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매개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와 심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바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선행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러시아어-

- Alekseenko N. V., 1999, Naselenie Kazakhstana za 100 let(1897-1987), Ust-Kamenogorsk.
- Алексеев Н. В., 1999, Алексеев А. Н., *Насел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за 100 лет (1897-1987 гг.)*,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
- Bekmakhanova N. E., 1986, Mnogonatsional'noe Kazakhstana i Kirgizii v epokhu kapitalizma(60-e godi XIX v. - 1917g), Moscow.
- Бекмаханова Н. Е., 1986,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насел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и Киргизии в эпоху капитализма (60-е годы XIX в. - 1917г.)*. Москва.
- Kabuldinova Z. E., 2007, *Narod Kazakhstana: istoriia i sovremennosti'*. Astana.
- Кабулдинова З. Е., 2007, *Народ Казахста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Астана.
- Kan G. V., 1995, Istoriia Koreichev Kazakhstana. Alma-ata
- Кан Г. В., 1995,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 Krieger V., 1991. Sochial'no-ekonomicheskoe razvitie nemeckoe pereselencheskoi derevni Kazakhstana(dorevoluchionni period): Abtoref. disseertatia. kand. ist. nauk. Alma-Ata.
- Кригер В. Э., 1991,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немецкое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й деревни Казахстана (дореволюционный период)*: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ист. наук. Алма-Ата.
- Masanov, N. E et al, 2001, Istoriya Kazakhstana:narod i kulturyi, (Almaty): Daik Press.
- Масанов Н. Э. и др.,(2001),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народы и культуры*, (Алматы): Дайк Пресс.

-독일어-

- Krieger V. 1993., *Deutsche Präsenz in Kasachstan zur Zarenzeit. Forschungsprojekt "Deutsche in der Sowietunion und Aussiedler aus der UdSS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beitsbericht Nr. 8, München.

## Abstract

Kim, Sang-Cheol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e global history of civilizational exchanges between european and asian or african communities generally created conflicts or relations of dominance and subordination of mutual communities. Contrastively one contemporary central asian country created harmonization frame of various communities which had european or asian origin, though the introduction & execution of such concept and structure of civilizational(or cultural) coexistence had interpreted as a kind of assimilation to the dominant group or communities.

Kazakhstan, which had been established and dominated by nomadic ruling class, had experienced structural transformation from single ethnic domination to multi ethnic coexistence since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which had been guided by the imperial russain authorities. With a few mass immigration flows of non-indigenous ethnic groups to the territory of Soviet Kazakhstan accelerated multicultural experiments of Soviet ethnic policies in Kazakhstan.

Ironically Ethnic based multicultural social structure had been formed in the Soviet Period under the domination of russian culture, the contemporary independent Kazakhstan republic have kept such inheritance of imperial and soviet period with the wide cultural tolerance of indigenous major ethnic group(Kazakh). With this structure the 21st Century Kazakhstan is an actual example of multicultural society, which had been formed by coexistence among various ethnic groups of european & asian origins.

주제어: 카자흐스탄, 다문화공동체, 카자흐, 러시아, 타타르, 슬라브, 독일인, 폴란드인, 한인, 체첸인



# 다문화의 문제와 해법

좌장: 송영근 (경기대학교)

장소: K211

## I 발표1

이란문학과 영화에 대한 문화 심리적 접근

발표: 신규섭 (한국외대)

토론: 김효정 (명지대)

## I 발표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비교분석

발표: 김중관 (동국대), 윤희중 (동국대)

토론: 박정하 (동국대)

## I 발표3

Statistical Properties between the Sukuk and  
non-Sukuk in Malaysia

발표: Hong-Bae Kim • Buntae Kim  
(Dongseo University)

토론: 양경수 (동국대)



발표1

## 이란문학과 영화에 대한 문화 심리적 접근

신규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 Abstract

#### A Study on Iranian Literature & Cinema and Interrelation Toward Culture-Democracy

Gyu Seob Shin(HUFS)

This paper aims at the possibility of Culture-Democracy through the Iranian literature and Cinema. Iranian literature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Iranian Cinema. Iranian literature has been situated in the core of Iranian Culture. The poetry has a predominant traditions comparing to prose in Iranian literature.

Imagism in Iran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Poetry, and Poetry is tied to Cinema representing the Image-Art. Film director's biggest mission is to display that Classical Poetry is revealed in film in any way. The purpose of Culture-Democracy is to secure the cultural species diversity and spread the high(advanced) culture.

In 「Iranian literature and cinema」 of this paper(Ⅱ), it is consisted of the three parts: Persian Cultural territory, the relationship of Iranian literature and Image, and the relationship of Erfan(Mysticism) and Cinema. In addition, 「Through the

Olive Trees」by Abbas Kiarostami is introduced and analyzed.

Key Words: Culture-Democracy, Iranian Literature & Cinema, Image, Erfan(Mysticism) & Sufism, Through the Olive Trees.

## I. 서론

현재 서구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안보와 정치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를 꼽는다면 아마도 이란을 지목하는 전문가가 많으리라곤 본다. 핵개발 의혹, 인권과 여성 문제 등에서 낙후된 측면이 서구에 의해 강하게 인상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인권과 여성 문제는 서구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서구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서구의 잣대로 이란이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가정할 때, 이 글에서 문화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란 문화의 핵심에는 문학이 자리하고 있으며 문학은 문화담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이란 문학과 영화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면서 상호 연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란 영화는 문학의 절대적인 영향아래 있다. 이란 문학은 시문학이 훨씬 우세하며 시학은 이미지를 위주로 전개되기에, 이미지예술을 대표하는 영화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첫째, 문화의 종(種) 다양성을 확보하고, 둘째, 한 국가 내에서 고급문화를 확산, 보급하여 문화를 존중하는 시대를 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영화를 비롯해 ‘문화의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문화정책의 기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란 문학과 영화 만나기를 시도하면서 특히 문학의 특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로 재현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문학적 특질과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영화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제3세계에 속하는 이란의 영화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그 영화들은 전문 분야의 비평을 거치지 않은 채, 서구의 일방적인 비평을 그대로 번역하여 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의 주체적 비평은 전무한 실정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는 후기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불리는 문예사조의 일반적인 양상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언어의 논리에 대한 한계는 이성을 초월한 감성(직관)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켰으며, 텍스트 읽기보다는 이미지 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즉 문화는 논리의 이성적 구조보다는 감성적 이미지 구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감성을 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사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문학의 위기가 수없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외국문학은 서양 문학 위주로 전개됨으로써, 문학의 종 다양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어찌 보면, 세계 각 지역권의 문학자들을 골고루 양성하는 기관이나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학의 위기는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의 모든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문학도 상호 권역간의 관련성 안에서 존재해 왔는데, 문학 권역간의 실제적인 관련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학의 근간부터 계보를 발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이 문학 내부적인 계통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 속에 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란 영화는 중세 페르시아 고전시를 토대로 하는데, 일부 이란 학자들은 중세 세계 문학의 절반이 페르시아(이란) 문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중세 페르시아 고전시는 세계문학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즉 고전시의 이미지를 영화에 어떤 식으로 담아내느냐가 영화의 우수성을 담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1세계와 제3세계를 막론하고 문학과 영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란을 비롯한 제3세계의 경우 영화는 문학의 산물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이란 최초의 해외 방송사에서 2004년 저명한 문화인을 선정했는데, 대다수가 유명한 문학가 출신이라는 점은 이란 문학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 영화에서 보이는 정체성의 부족은 영화감독의 문학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미국식 힘의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노골화되면서, 문화와 문학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세계 영화인들은 할리우드적인 주제와 영화에 식상해 있다. 문화와 문학 다양성의 말살은 인간 삶의 획일화를 강요하며, 문학 정전에 대한 반복적 재해석은 오히려 문학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세계문학사의 근간이며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이란 문학과 같은 문학의 종(種) 다양성 확보와 보급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Ⅱ. 이란 문학과 영화

이란은 문학과 영화 분야가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이란 영화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란 영화를 읽어내는 전문가적인 식견의 부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몇 편의 이란 영화가 방영된 후, 꽤 오랫동안 후속편의 방영이 이어지지 못했다. 문화상품으로서의 이란 영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이란 영화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가 주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이란 문학과 영화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최초의 논문이 될 것이다. 이란문학과 종교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문학·문화학이 영화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란의 경우 대부분의 영화는 문학을 그 매개체로 하고 있으며, 저변에는 고유문화가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교문화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페르시아 문화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 1. 페르시아 문화권

고대부터 아시아권에서 문명과 문화의 양대 산맥은 중국과 이란(페르시아)이며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인도)의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아래 놓여 있었다.<sup>1)</sup> 페르시아 문화권은 흔히 서남아시아로 불린다.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란, 아프가

1) 이란은 페르시아를 계승했으며, 이란인은 페르시아인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고대 페르시아권은 이란을 비롯해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인도의 서북부)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칭한다. 또한 이란은 아리안의 축약형으로 '아리안들의 땅'을 의미하고 있으나, 국명 이란을 정할 시기 인접 지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란과 페르시아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 등을 포함하며, 현재 소수의 인구만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라크, 파키스탄과 더불어 고대부터 페르시아 언어 및 문화권으로 불렸다. 페르시아 이슬람권과 아랍 이슬람권은 고대 문명과 종교에서부터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별 없이 아랍 이슬람권을 중동 이슬람권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해 왔고, 이로 인해 중동 이슬람권의 문화와 종교, 사상의 틀이 혼동되고 있다. 즉 중동 이슬람권의 종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주변에 깔려있는 문화적 토대는 페르시아 문화라는 점이다. 또한 이슬람교는 이란에서 외래 종교이며, 이슬람이 유입되기 이전 페르시아인들의 고유한 믿음체계는 범신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중동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슬람의 양대 종파인 순니(수니)파와 쉬아(시아)파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아랍 이슬람과 페르시아 이슬람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지 예술의 대표적인 실례가 영화이며, 지금부터 이란 문학과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문학과 이미지의 관계

이란 영화는 페르시아 문학의 바탕에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문학의 저변에는 페르시아 애르펜(신비주의)이라는 영적 전통이 스며들어 있다. 아리안들의 유입 이후, 3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페르시아의 영성, 사랑, 직관이 근대 이성의 폐해를 철저히 겪은 서구인들에게 21세기에 한줄기 빛처럼 다시 비치는 것이다. 페르시아 사랑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직관은 감성의 중심체인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플라톤 이후 계속된 정신과 이성 세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기묘한 풍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마음이나 영혼의 부재를 증명하려는 듯한, 서구 학계에서 불어오는 방법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이나 마음이란 개념이 서양 학문의 토대인 그리스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학문적 기류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신과 이성에 대한 염증으로 인해 서양의 정신철학을 거세게 비판하고, 이를 동양사상으로 보완 또는 대체하려는 것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좁은 시각이다(신규섭, 『페르시아 문화』, 88쪽). 플라톤은 서양에서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를 소생시킨 인물이다. 물론 조로아스터 교리를 토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으로 부활시켰다. 고대부터 페르시아 사상은 이성을 거부하면서 심신관계에 있어 몸은 마음에 종속된다는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 고대 그리스 철학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조로아스터의 출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조로아스터는 플라톤의 선구자이다. 서양 철학의 기원과 토대로 불리는 플라톤의 출현은 조로아스터의 재림으로 받아들여졌다. 플라톤은 조로아스터교를 변형시키거나 혹은 마즈다교를 구원한 인물이다(버박 삼쉬리, 『이란 문명사』, 107-8쪽).

페르시아 영적 전통인 애르펜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에 있으며 사랑은 이성과 대척점에 있다. 사랑 혹은 직관은 이성을 보강해야 할 요소로 보지만, 직관은 이성의 차원 높은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사유 행위인 이성은 직관과 융합되어 깊이 있는 운동량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 이성 위주의 모더니즘 시대가 가고 감성 위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도래 했다는 의미는 유구한 역사에 의해 지속돼 온 페르시아 감성론을 비롯한 제3세계 학문을 도외시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감성의 이미지가 등장했다고 선전함으로써 페르시아 애르펜을 비롯한 제3세계의 감성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못 의아하다. 3천년 애르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페르시아 시문학은 그 자체로서

이미지를 배태하고 있으며 페르시아 시학의 중요성은 이미지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시학에서 이미지는 이야기의 서술구조보다도 중요하며 영화에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검열의 역사를 갖고 있는 페르시아 문학에서 사회적인 압력을 피해 알레고리와 상징성에 몸을 의탁함으로써 암시와 유추를 비롯한 이미지가 번창한 측면도 적지 않다. 이란 영화의 기저에는 이란인들의 정신적 근원이자 道라고 지칭되는 애르판(Mysticism)이 자리잡고 있다.

### 3. 신비주의(애르판)와 영화와의 관계

수피즘은 문화, 사상과 예술 분야를 포함해 인문학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아직도 그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페르시아 수피즘인 애르판과 이슬람 수피즘(Islamic Sufism)은 둘 다 한국에서 신비주의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으며 애르판은 이슬람 수피즘의 기원이 되었다. 즉 애르판은 이슬람의 도래 이후 수피즘의 형태로 나타났다. 애르판의 기원은 조로아스터교, 불교, 신플라톤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좁게 말해 애르판은 페르시아 불교사상이 존속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잊으면서 세상의 물질에 초연할 것을 가르치는 애르판과 이슬람 수피즘의 핵심은 ‘존재의 유일성’ 내지는 ‘존재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이다.

아리안 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믿음체계는 조로아스터교-불교-마니교로 이어지며,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로 이어지는 일신론적인 셈족의 종교와는 대척점에 있다. 페르시아의 범신론적인 신앙은 기독교적인 선과 악의 분명한 구별보다는 그 경계가 모호한 善과 不善의 애매성 철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세 페르시아 시인들이 노자의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국 초기 불교의 토대를 형성해준 페르시아 불교가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개념인 아메샤 세판드가 노자사상에 끼친 영향에 기인한다. 조로아스터교의 선신과 악신의 페르시아 이신(二神)론이 서구에서 선과 악의 이원론으로 잘못 알려져, 고대부터 계속돼온 범신론이 현재의 종교인 일신론의 이슬람교로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교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외래종교이다. 수세기 동안 페르시아가 불교국가였다는 사실은 아리안이라고 알려진 부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셈어를 사용하는 셈족의 아랍 이슬람권은 불교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 문화권은 수 세기 동안 불교문화를 꽃피웠으며 불교는 아리안들의 믿음체계인 것이다. 반야심경의 핵심사상인 空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불교적 요소가 페르시아 종교문화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리안의 전통적인 신앙체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후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쉬이즈(Shiism, 쉬아파의 교리)적 체계를 구축했다(신규섭, 『신비의 혀』, 9-14쪽).

중세 중동 지역의 중심 언어는 코란의 언어인 아랍어였지만, 그 뿌리에는 페르시아인과 그들의 문화가 있었다. 즉 페르시아어는 이 지역 공통의 문화어로서 문화, 예술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페르시아 문화 가운데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란 영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이란에서는 다리우쉬 메흐르지의 획기적인 작품 ‘암소’로 새로운 영화의 흐름이 태동하였다. 새로운 이란 영화의 흐름 속에 제작자들이 등장하였는데,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사회비평을 서슴지 않았다. 다리우쉬 메흐르지의 ‘암소’는 농촌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농촌은 현재 이란 영화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농촌은 자연풍경과 자연적 형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이 영화는 인간과 동물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그려내면서 이란의 고대 풍경과 문화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란 이슬람 혁명(1979년)과 이란-이라크 전쟁(1980-89년)을 거치면서 전쟁영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수 년 동안 영화 산업이 침체기를 거쳤으며 90년대 초에 출현한 영화는 이란 고전 문화의 특징을 이루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속에 인간과 자연의 페르시아 고대 전통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메타포로 동물을 끌어들이며 당시의 시대적인 부패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물 우화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 문학의 오랜 전통아래 이어져 왔다.

최근의 이란 영화도 부분적으로는 검열로 인해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권을 획득한 성직자들에 의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가 전달되면서 이슬람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없이 사회비평이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검열로 인해 수많은 이란 영화는 이란 내에서 상영될 기회마저 박탈당했지만 유명한 감독들은 국제영화제에 작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란 영화의 특징은 주위의 환경과 자연풍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도 철저한 상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란 현대 영화는 메타포와 알레고리를 특징으로 하는 페르시아 문학과와의 일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 찌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영화팬들은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하는 이란영화를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란의 대표적인 영화감독, 압바스 키여로스타미를 비롯한 감독들의 작품 속에는 페르시아 시와 회화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고전 페르시아 문학에서 현대 이란 영화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일련의 흐름은 애르펀을 비롯한 고대 페르시아 범신론적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반야심경의 공개념과 애르펀의 자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이슬람 근본주의도 페르시아 고전시학과 조로아스터교 철학사상의 토대에서 전개되는 사상과 문화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의 영화들은 자연풍경 기법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간적 ‘풍경’은 토지나 땅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서구 영화와는 달리 제3세계 영화는 시간보다는 공간 조작성에 초점을 맞춘다. 키여로스타미는 광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롱 테이크 기법을 활용하는 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롱 테이크 기법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데 치중한다.

속도의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터득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잠시나마 이성의 사유 행위를 멈추고 초기 직관을 터득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성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성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성이 끊기는 지점에서 초기 직관의 영역을 터득하기 위해 초월적 명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 영화가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성을 멈추고 영적 직관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4단계로 이루어진 이슬람 수피즘과는 달리 페르시아 애르펀은 신에 대한 추종에서 해탈까지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직관으로 깨우침을 얻어 다음 단계로 상승하는 영적 은총을 맛보는 그들은 “최고의 영성은 직관된 것이다.”라는 믿음 아래 깊은 영성을 추구한다. 해마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휩쓰는 이란 영화 속에는 21세기 감성의 시대, 직관의 시대 코드에 맞는 이러한 페르시아 애르펀이 녹아 있다(신규섭, 『페르시아 문화』, 69-70쪽).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60명의 영화감독에게 설문한 결과, 90년대 가장 영향력있는 감독으로 압바스 키여로스타미가 뽑혔으며, 당시 선정된 10편 중에 4편이 이란 영화였고 그중에 3편이 키여로스타미의 작품이었는데, 베

스트 10중에 2위에 랭크된 작품이 「올리브 나무 사이로」이다. 그의 작품 「올리브 나무 사이로」를 통해 영화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Ⅲ. 영화 「올리브 나무 사이로」

올리브 나무는 대표적인 성서식물로서 올리브 기름은 고대 제례의식에서 사용되었다. 이 작품의 원제목은 「올리브 나무숲 아래에서」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낫다고 본다. 올리브 동산은 갯세마네 동산을 연상시킨다. 종교적 영성은 이란문화에서 가장 짙게 배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지진이 발생한 후 이란 북부의 상황을 촬영하여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픽션의 성격이 점차 강화된다. 지진은 한국의 수해와 같이 이란에서 되풀이되는 재앙이다. 압바스 키여로스타미 감독은 상당수의 배우들을 현지인 가운데 비전문가로 채우면서 영화를 구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화의 첫 장면은 현지인 여자 주인공을 뽑는 장면인데, 여러 부류의 이란 여성의 얼굴 표정을 보여준다. 무뚝뚝하게 보이는 이란 여성도 있지만, 대체로 이란 여성들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와 눈웃음은 매우 고혹적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란 여성의 아름다움은 꽤나 그 명성이 자자하다. 여주인공 터헤레는 시바 부인과의 약속을 여기면서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옷을 빌려왔는데, 시바 부인은 빌려온 옷이 시골에서나 입는 옷이라며 촬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터헤레를 설득한다. 하지만 터헤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화의 초반부에서부터 감독은 여성의 고집센 개성을 뚜렷이 부각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인 이란에서 남녀간의 법적, 제도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안내의 일상생활에서 그 차이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

감독이 처음 뽑은 남자 주인공은 여자를 대할 때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은 호세인으로 교체된다. 수줍음으로 말을 더듬는 청년의 모습을 감독은 순수성의 상징이자 터뜨리지 않은 꽃망울로 표현하고 있다. 석회를 짙어지고 일층에서 이층으로 오르는 반복적인 장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암시한다. 우선 석회는 현대 문명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변부의 남자 주인공이 중심부로 뛰어오르려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볼 수도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의 ‘반복과 차이’를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란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동일한 것의 ‘반복’은 페르시아 불교와 수피즘에서 존재하는 윤회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고대 페르시아의 고유 신앙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남자 주인공이 호세인으로 교체되자 여자 주인공인 터헤레는 인사말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역전되면서 감독은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게 된다.

호세인은 11살 때부터 터헤레의 건너편 에이놀라 집에서 벽돌공으로 일하며 터헤레를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배필로 점찍어 두었다. 그러던 중에 물을 길어 오는 터헤레의 어머니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날로 집주인은 호세인을 내쫓아 버린다. 그날 밤 에이놀라 씨의 가족과 터헤레 부모는 지진으로 인해 참사를 당하는데, 호세인은 내게 잘 대해 주었더라면 그런 참화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호세인은 자신의 한숨이 그들을 몰살시켰을 거라며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는다. 한숨 섞인 화살의 기도가 하늘을 뚫었다는 표현과 같이 한숨과 관련된 표현은 페르시아 문학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에 반해 숨과 호흡은 생명을 구하는 데 등장하고 있어, 시어의 대칭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신과 나, 둘은 하나의 숨(호흡)으로 이곳과 그곳에 있다”는 표현은 그런 실례에 해당한다.

호세인은 망자들을 기념하는 시아파 국가의 3일(삼우제), 7일, 40일제를 빌미삼아 터헤레 부모의 묘지를 찾아가지만 냉랭한 그녀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생전의 터헤레의 어머니도 호세인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었으며 할머니 역시 제대로 된 직업과 집도 없고 학력도 변변찮은 호세인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감독은 왜 호세인의 마음이 상했는지를 재차 물어 보는데, 그는 사회를 향한 자신만의 독특한 평등의식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무산자와 유산자, 유식자와 무식자가 결합하는 세상이야말로 공평한 사회라고 제법 그럴싸한 논리를 펼쳐 보인다. 그래야만 자신도 자식의 숙제라도 제대로 봐 줄 수 있는 아내를 얻지 않겠느냐고 항변한다. 촬영이 멈춘 틈을 이용해 감독은 요리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스텝 중의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지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요리사는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재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지진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인과의 결합마저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이슬람이라고 하면 일부다처제를 떠올리는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에 쐈기를 박고 있다. 2차를 얻는 이란 남성들의 수치는 통계상 2.5%에 해당하고 있어, 성과 음주 문화에 관대한 한국인이 오히려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다른 스텝과의 대화에서 감독은 지진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라고 말하면서 영혼의 존재론적 근거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페르시아 문학에서 영혼은 자아, 마음 등으로 불리는 감성의 중심체이면서 성과心に 해당한다. 키여로스타미 영화의 신비적 속성과 명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아리안족의 근본적인 신앙인 페르시아 애르판에 기인하고 있는 사유이다. 조로아스터교-브라만교-불교의 신앙체계는 아리안들의 사유에 뿌리를 둔 믿음체계이다.

먼 거리에 위치한 공중목욕탕에서 돌아오는 촌부는 파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네들의 삶을 털어놓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병과 죽음의 신, 네르갈(Nergal)의 상징은 파리이다. 파리는 악마의 호칭이며,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마녀들은 파이라카(Pairaka)<sup>2)</sup>와 같이 아름다운 몸으로 떼를 지어 나타나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마법을 건다. 파이라카는 쥐의 형상을 띠기도 한다. 또 다른 여자 악마는 나우쉬(Naush)이며 시체의 부패를 뜻하는데 가장 사악한 악마로 알려져 있다. 이 마녀는 후기 조로아스터교의 전승에서 파리의 형태로 나온다(『페르시아 신화의 선 對 악(Good versus evil in Persian mythology/www.evilstyle.net)』). 지진 후 파리와 함께 산다는 촌부의 말에서 페르시아 신화가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감독과 시바 부인의 차가 스쳐 지나가면서 차창 너머로 남녀 주인공들은 서로 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스한 눈빛을 교환하는데 터헤레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다. 촬영의 종반부에 새색시 터헤레는 몇 번에 걸친 감독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남편에게 ‘씨(Mr.)’자를 붙여 부르기를 거부한다. 이는 이혼, 상속 등의 분야에서 법적, 제도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감독은 이 악습의 잔재를 송두리째 부수기 위해 촬영의 마지막 장면까지 올리브 숲 아래에서 그들을 뒤쫓으면서 행동을 주시한다. 여자 주인공인 터헤레의 자유의지와 운명론 사이에서 감독은 터헤레의 자기 결정을 기다려 보는 것이다.

호세인이 터헤레와 그녀의 할머니를 뒤쫓던 올리브 숲은 전쟁을 끝낸 평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호세인은 지그재그의 둔덕을 활기찬 모습으로 내려오는 듯 보인다. 지그재그형을 비롯해 미로형, 장방형, 만자형 등은 이슬람의 근본적인 장식예술이다.<sup>3)</sup> 감독은

2) 이 용어는 근대페르시아어로 파리(Pari, 요정)이며, 영어 fairy의 기원이 되었다. 페르시아어는 인도·유럽어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3) 이슬람 예술은 고대 페르시아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만자형은 한국 예술에서도 중요한 문양인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십자모양은 기원전 15세기 출현한 페르시아 미트라교의 상징이었다. 미트라교와 기독교의 두 종교에서 보이는 유사성은 너무나 많으며, 비잔틴인들이 미트라교

작품의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보이는 터헤레의 성격은 마치 문학에서 시어의 다의성과 애매성이 끊임없이 개념의 외연을 확대시키듯이, 얼키설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사회적인 관습 안에 매여 있는 여성이 그 규범을 벗어나 자기 결정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현실과 픽션의 대화를 넘나들면서 이미지화시키고 있다. 키여로스타미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사회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 어느 하나의 잣대나 각도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남녀 주인공의 성격을 통해 안과 밖, 수동성과 능동성, 폐쇄성과 개방성, 전통과 현대의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sup>4)</sup>

#### IV. 결론

한국에서 세계문학은 서양문학 위주로 전개되었으며 아시아 문학에서는 동아시아 문학만이 힘을 얻으면서 문학작품을 소개해 왔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문학을 제외한 동양문학은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소수문학(현지 인구수로 볼 때 사실상 '다수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문학으로 간주됨)으로 불리는 페르시아 문학은 힘을 잃고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문화민주주의의 종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존속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페르시아 문학은 페르시아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며 고급문화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다.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페르시아 문학이 보급,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아시아 문학에서 페르시아 문학과 같은 저자의 전공영역은 세계 문학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괴테는 중세 페르시아 문학을 '위대하고 엄청난 문학'이라 표현하면서 페르시아 문학을 세계 4대 문학중의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괴테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페르시아 문학은 고대 문학의 근간으로 군림했으며 동서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대 동양 문학에서만 보더라도 페르시아 문학은 인도와 중국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아랍 문학을 태동시키고 그 토대를 형성해 주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 영화는 이란 문학을 비롯한 문화의 유산이다. 서론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정치, 경제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문화민주주의가 가능하며, 그 결과 고급문화를 보급,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질문을 제기했다. 고대부터 지속돼온 내적인 유산이 현재의 문화를 일구어 내며, 그 안에서 고급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본다. 심지어 독재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아래서도 고급문화의 생산과 보급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급문화는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란 문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학은 고급담론을 생성하며 고급문화를 가능하게 했다. 문화민주주의에서 고급문화의 보급과 확산이라는 측면이외에도, 종 다양성 확보는 문화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이다. 서구 문학에 밀리거나 서구 내에서 문학의 위상이 하락하면서, 세계문학의 권력공간에서 갖는 이란 문학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이란 문학이 고급담론을 유지하면서 굳건하게 지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산업이 과학·기술과의 연계가 심화되면서 문학·문화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영화산업은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기술이 이미지에술과 접목됨으로써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문학가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성적 논리의 글쓰

탄신일을 예수의 탄신일로 가져가 사용했다. 불교에서 쓰이는 만자는 십자가의 변형이다.  
4) III.의 글은『페르시아 문화(신규섭저)』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68-76쪽)」편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 보완해서 실고 있다.

기가 감성적 글쓰기로 바뀌면서 문학 장르에 있어 시문학이 새롭게 등장할 필요가 있다. 시학은 이미지를 위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탈(脫)이성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감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감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의 중심인 텍스트 읽기는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시문학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시적 장르(Poetic Genres)의 활성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제어: 문화민주주의, 이란 문학과 영화, 이미지, 애르펜(신비주의)과 수피즘, 올리브 나무 사이로

## 참고문헌

### 1. 한국어

- 고현철(2009), 문학과 영화의 지평과 해석, 새미.  
 고현철편저(2010), 영화 읽기와 문학, 탐복스.  
 김경애(2012), 문학과 영화, 선인.  
 김동규(2002), 문학과 영화이야기, 학문사.  
 김성곤(1997), 문학과 영화, 민음사.  
 김웅권역(2009), 마르틴 졸리, 이미지와 해석, 동문선.  
 문학과 영화연구회(2003), 우리 영화속 문학 읽기, 월인.  
 손흥기, 송원문(2004), 문학, 영화, 비평이론, 한신문화사.  
 송지연역(2003), 프랑시스 바누아, 영화와 문학의 서술학, 동문선.  
 송희복(2000), 시와 문화의 텍스트 상관성, 월인.  
 -----(2009), 문학과 영화의 만남, 월인.  
 신규섭(2004), 페르시아 문화, 살림.  
 -----(2005), 신비의 혀, 나남.  
 오영미(2007), 문학과 만난 영화, 월인.  
 요하임 패히(1997), 임정탁역, 영화와 문학에 대하여, 민음사.  
 윤여복(2012), 영화로 읽는 동서문학, 동아대학교 출판부.  
 이기철(1993), 시학, 일지사.  
 이형권, 윤석진편저(2008), 문학, 영화를 만나다, 충남대학교 출판부.  
 이형식, 정연재, 김명희(2004), 문학텍스트에서 문화텍스트로, 동인.  
 -----역(2000), 로버트 리처드슨, 영화와 문학, 동문선.  
 장석남, 권혁웅편저(2011), 시네리테르:영화하는 문학·문학하는 영화, 문예중앙.  
 허만옥(2010), 문학, 영화로 소통하기, 보고서.  
 -----(2008), 문학 그 영화와의 만남, 보고서.



## 2. 페르시아어 & 영어

- A.J. Arberry(1994), Classical Persian Literature, Curzon Press.
- Anthony R. Guneratne & Wind Dissanayake(ed. 2003), Rethinking Third Cinema, Routledge.
- Babak Shamshiri(2007), Tarikhe Tamadone Iran, Tehran:Tahvari.
- Geoffrey Nowell-Smith(ed. 1997),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Univ. Press.
- Hamid Naficy(2001), An Accented Cinema, Princeton Univ. Press.
- Imran Yahya(1999), Sufism, Suhail Academy Pakistan, Lahore:Carvan Press.
- J.T.P. de Bruijn(1997), Persian Sufi Poetry, Curzon Press.
- Mehrdad Bahar(1994), Farhange Iran, Tehran: Fekrruz.
- Sadia Dehlvi(2009), Sufism: The Heart of Islam, New Delhi:The India Today Group.
- Sayyad Mohammad Rastgu(2004), Erfan dar Ghazal-e-Farsi, Tehran: Entesharat-e-Elmi wa Farhangi.
- Sayyad Mohammad Torabi(2005), Tarikh wa Adabiyat-e-Iran, Tehran: Ghoghnos.
- Seyyed Hossein Nasr(2000), Living Sufism, Suhail Academy Pakistan, Lahore:Carvan Press.
- Susan Hayward(2000), Cinema Studies:The key Concepts, Routledge.
- Wahid Bakhsh Rabbani(1992), Islamic Sufism, Lahore:Bazame Ittehad-ul-Muslimeen.
- Yahya R. Kamalipour & Hamid Mowlana(ed. 1994), Mass Media in the Middle East, Greenwood Press.
- Zabihollah Safa(1991), A History of Iranian Literature of the Islamic era(vol.1-8), Tehran: University of Tehran.
- Zayn al-Abidin Mutaman(1986), Persian Poetic Genres, Jahan Book Co..
- Ziaoddin Sajjadi(2002), Moghadameyi bar Mabaniye Erfan va Tasavof, Tehran:Samt.
- <http://en.wikipedia.org/wiki/Abbas-Kiarostami>
- <http://www.evilstyle.net/concept-of-evil-in-western-philosophy>



## 발표2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비교분석

김중관 · 윤희중 | 동국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다문화사회가 존속되어 온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 세계화에 따른 이질적인 다인종 구성원이 증가하게 되어 ‘다문화’라는 용어는 일상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직 용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채, 정부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사회분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국가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 수급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성별의 비율도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결혼 이민자는 2004년 이후에 총 결혼인구의 10%를 계속 상회하다가 2011년에 들어 다시 9%로 감소하였다(<표 1>참조).

이들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내국인과의 사회갈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해야 할 국가적 대책수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을 수용하면서 다문화가정<sup>1)</sup>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범주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결합하거나 반대로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결합하는 전형적인 다문화 가족의 경우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이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국내로 이주한 경우이다. 셋째, 북한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하거나 남한에서 내국인이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우이다. 넷째, 혼자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이다(윤경희, 2009: 8-9).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결혼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100
국제결혼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4,204	33,300	34,235	29,762
비율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9.0

출처 : 통계청(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2012.4), 보도자료 2011년 혼인·이혼통계

하지만 이주여성마다 새로운 삶이나 제도에 적응하는 능력, 보유한 기술, 문제해결 능력도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나 관습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들은 출신국의 경제적 빈곤, 거래에 가까운 혼인, 출신국과의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같은 인권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떠안고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살아간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들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하였지만, 아직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sup>2)</sup>

## Ⅱ. 이론적 배경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의의 및 현황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다른 국가 출신으로 내국인과 결혼하여 생활의 터전을 바꾼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르게 한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현재 결혼관계에 있거나 결혼경험이 있는 여성 이주민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392,167명이며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8) 우리나라 국제결혼 총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29,762건이며 이중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여자는 22,265명이다. 2010년을 제외하고 2006년 이후 국제결혼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국적은 중국

2) Hwang & Ting(2008)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만드는 주요 변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신과 베트남 출신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표 2>참조).

<표 2>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단위 : 건)

연도 내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제결혼 총건수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한국남자+ 외국여자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중국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베트남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필리핀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일본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캄보디아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태국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354
미국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507
몽골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266
기타	1,224	1,158	1,183	1,219	1,334	1,502	1,597	1,532	1,796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12. 4)

## 2. 문화적응과 건강관련 스트레스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직접 문화에 지속적으로 접촉한 결과로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데(박형원, 2010: 309), 이주민은 자국의 문화적 습성에서 벗어나 이주한 국가의 사회에 심리적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은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기준이나 언어 또는 비언어에 의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일은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Ward, C. & Kennedy, A., 1999: 660).

이주민의 문화적응은 전혀 색다른 문화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면서 시작되는데, 자신들의 모국사회 문화를 어떤 방법으로 이주사회 문화와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의 원래 문화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과 이주한 사회의 문화적응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이중문화 수용에 대한 부담도 스트레스 유발에 한 몫하고 있다.

물론, 이주민의 수용태도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모국의 문화와 이주사회 문화의 동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주민의 수용태도는 이주민의 체제기간·언어능력·대인관계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주사회의 문화에 모국의 문화를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

스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건강관련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방법은 반응을 발생시키는 환경조건,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Lazarus, R. S. & Cohen, J. B., 1977: 89-127), 스트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현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보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김정원 · 신은영, 2001: 55-69).

이주민도 인종 및 국적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 가정 · 교육 · 경제 ·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맞물리면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특히 우울증과 같은 건강문제와 관련되면 스트레스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김영주 · 김희경 · 이현주, 2008: 55 ~ 58; 한인영, 2001: 81).

이주여성의 스트레스는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려는 여성들의 기대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개인적 목표에 비하여 내국인과 살아가기 위한 준비부족,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 모국에 대한 향수 등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부적응, 불법체류자 신분의 지속성, 사회적 갈등 등은 이주여성들이 건강관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이주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정신질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민 스트레스 가설(stress of migration hypothesis)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김광일, 1991: 121).

## 3.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건강관련 스트레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건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Finch & Vega, 2003: 109-118; Ceballo 외, 2004: 298-308), 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권복순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권복순, 2009: 5-32), 박민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박민서, 2011: 394-402).

또한 김오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PTSD<sup>3)</sup>와 우울을 포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으며(김오남, 2007: 47-73), 해외이주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형원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지각된 차별감 · 향수병 · 지각된 적대감 · 두려움 · 문화적 충격 · 죄책감 · 기타 등 7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해 이 요인들과 우울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했다(박형원, 2010: 311-314).

3) PTSD란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을 포함하여 개인이 두려움 · 무기력 · 공포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주로 중요한 사건에 직면하거나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김오남, 2007: 53).

### Ⅲ. 연구설계 및 방법

#### 1. 연구대상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먼저 250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에 22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성실하지 못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8부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각 변인간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고 넷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 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2-1: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2-2: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2-3: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국적여부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2-4: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경제수준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2-5: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결혼기간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2-6: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건강상태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측정도구 구성

#### 1) 측정문항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sup>4)</sup>에서 사용한 도구를 재검증하여 사용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문제’ 3문항,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3문항, ‘주변의 적대감 인지’ 3문항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4문항으로 구성하여 역시 4점 척도에 의해 질문을 구성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배열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설문문항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문항 내용

설문항목		문항 내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 문제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을 한국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다.
		한국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내가 오해할 때가 많다.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아이가 무시를 당한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다.
	주변의 적대감 인지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한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한다.
건강관련 스트레스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	
	가족이나 형제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가사일로 몸이 피곤한 적이 있다.	
	요즘 들어 피곤하고 힘이 없다.	

#### 2) 변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이 연구에 사용될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인과 관련한 계수는 모두 사회과학적 허용치인 .60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측정문항은 본 연구에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4)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1994년 Sandhu & Asrabadi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종(1995)이 번안한 문화이입과정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건강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979년 McCubbin 등이 개발한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 Changes를 최동희(1990)가 번안한 가족관계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관련항목을 사용하였다.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표 4> 변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변인	하위변인	신뢰계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 문제	.7141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8122
	주변의 적대감 인지	.6871
건강관련 스트레스		.6174

## IV. 연구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일본이 74명(37.4%)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 62명(31.3%), 중국(조선족 포함) 16명(8.1%), 필리핀 20명(10.1%), 태국 16명(8.1%), 몽골 2명(1.0%), 우즈베키스탄 2명(1.0%), 기타 6명(3.0%) 순이었다. 연령은 29세 이하가 66명(33.3%), 30세 이상이 132명(66.7%)로 30대 이상이 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8명(24.2%), 대학교 졸업 이상이 150명(75.8%)로 교육수준은 중간 이상이었다. 국적여부는 국적 취득자가 62명(31.3%), 국적 미 취득자가 136명(68.7%)으로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sup>5)</sup> 경제수준은 높은 층이 61명(30.8%), 중간 층이 95명(48.0%), 낮은 층이 42명(21.2%)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응답했다. 결혼기간은 14년 이하가 136명(68.7%), 15년 이상이 62명(31.3%)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양호가 10명(5.1%), 보통이 121명(61.1%), 좋지 않음이 67명(33.8%)로 응답하여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8

항목	구분	빈도(%)
출신국가	중국(조선족 포함)	16(8.1)
	베트남	62(31.3)
	일본	74(37.4)
	필리핀	20(10.1)
	태국	16(8.1)
	몽골	2(1.0)
	우즈베키스탄	2(1.0)
	기타	6(3.0)

5) 이 결과는 2008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86.1%, 국적을 취득한 자가 7.4%)와 유사하다.

연령	29세 이하	66(33.3)
	30세 이상	132(66.7)
교육수준	고졸 이하	48(24.2)
	대졸 이상	150(75.8)
국적여부	취득	62(31.3)
	미취득	136(68.7)
경제수준	높음	61(30.8)
	중간	95(48.0)
	낮음	42(21.2)
결혼기간	14년 이하	136(68.7)
	15년 이상	62(31.3)
건강상태	양호	10(5.1)
	보통	121(61.1)
	좋지 않음	67(33.8)

##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M, SD)

이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서 알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19.08이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문제(7.42),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주변의 적대감 인지(6.24),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5.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건강관련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10.18로 나타났다.

<표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

N=198

항목		M	SD
문화적응 스트레스		19.08	4.91
	의사소통문제	7.42	1.97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5.39	1.84
	주변의 적대감 인지	6.24	1.92
건강관련 스트레스		10.18	2.28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간 상관분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들과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7>과 같다. 모든 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에서 의사소통문제가 클수록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r=.38, p<.01$ ).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내에서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가 높을수록 주변의 적대감 인지도 높게 나타났다( $r=.67, p<.01$ ).

<표 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N=198

		문화적응 스트레스				건강관련 스트레스
			의사소통 문제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주변의 적대감 인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1				
	의사소통문제	.84**	1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85**	.53**	1		
	주변의 적대감 인지	.88**	.59**	.67**	1	
건강관련 스트레스		.33**	.38**	.21**	.25**	1

\*\* $p<.01$

####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 교육수준, 국적여부, 경제수준, 결혼기간, 건강상태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연령은 29세 이하와 3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문제와 건강관련 스트레스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에서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와 주변의 적대감 인지에 있어서는 29세 이하의 여성이 높은 수치( $M=5.85, M=6.82, p<.05$ )를 보였고 30세 이상의 여성은 낮은 수준( $M=5.16, M=5.95, p<.01$ )을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문제( $M=8.42, M=7.09, p<.000$ ),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M=6.58, M=5.01, p<.000$ ), 주변의 적대감 인지( $M=7.25, M=5.92, p<.000$ ), 건강관련 스트레스( $M=10.83, M=9.97, p<.05$ ) 모두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적여부는 취득자와 미 취득자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의사소통 문제( $M=7.96, M=7.16, p<.01$ ),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M=6.06, M=5.08, p<.000$ ), 주변의 적대감 인지( $M=7.03, M=5.88, p<.000$ ) 등 모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취득자가 미 취득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건강관련 스트레

스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경제수준은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이들 요인은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문제(M=7.80, M=7.64, M=6.38,  $p<.000$ )와 주변의 적대감 인지(M=6.69, M=6.21, M=5.67,  $p<.05$ ) 그리고 건강관련 스트레스(M=10.72, M=10.31, M=9.10,  $p<.01$ )는 경제수준이 중층이나 하층보다 상층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에서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M=5.52, M=5.60, M=4.71,  $p<.05$ )는 중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섯째, 결혼기간은 15년 미만과 1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문제(M=7.67, M=6.87,  $p<.01$ ),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M=5.66, M=4.79,  $p<.01$ ), 주변의 적대감 인지(M=6.57, M=5.52,  $p<.000$ )는 15년 미만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건강상태는 양호, 보통, 좋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이들 요인은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를 제외하고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문제(M=9.00, M=7.40, M=7.22,  $p<.05$ ), 주변의 적대감 인지(M=8.40, M=6.08, M=6.21,  $p<.01$ ), 건강관련 스트레스(M=11.60, M=10.35, M=9.64,  $p<.05$ ) 모두 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N=198

스트레스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건강관련 스트레스	
		의사소통문제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		주변의 적대감 인지			
		M(SD)	F	M(SD)	F	M(SD)	F	M(SD)	F
연령	29세이하	7.25 (1.73)	0.69	5.85 (1.51)	6.36*	6.82 (1.73)	9.25**	9.94 (2.60)	1.07
	30세이상	7.50 (2.08)		5.16 (1.95)		5.95 (1.96)		10.30 (2.11)	
교육 수준	고졸이하	8.42 (1.13)	17.70***	6.58 (1.57)	30.83***	7.25 (1.25)	18.99***	10.83 (2.08)	5.36*
	대졸이상	7.09 (2.08)		5.01 (1.76)		5.92 (1.99)		9.97 (2.31)	
국적 여부	취득	7.96 (2.24)	7.27**	6.06 (1.83)	12.95***	7.03 (1.78)	16.42***	10.16 (2.47)	0.00
	미취득	7.16 (1.79)		5.08 (1.76)		5.88 (1.88)		10.18 (2.20)	

경제 수준	상	7.80 (1.95)	8.06***	5.52 (1.72)	3.73*	6.69 (1.64)	3.63*	10.72 (1.88)	7.00**
	중	7.64 (1.73)		5.60 (1.91)		6.21 (2.05)		10.31 (1.86)	
	하	6.38 (2.20)		4.71 (1.71)		5.67 (1.88)		9.10 (3.20)	
결혼 기간	15년미만	7.67 (1.86)	7.22**	5.66 (1.79)	10.02**	6.57 (1.86)	13.71***	10.16 (2.31)	0.02
	15년이상	6.87 (2.10)		4.79 (1.82)		5.52 (1.88)		10.21 (2.25)	
건강 상태	상	9.00 (0.67)	3.65*	6.60 (2.17)	2.32	8.40 (1.07)	7.14**	11.60 (1.26)	4.29*
	중	7.40 (1.90)		5.32 (1.94)		6.08 (2.01)		10.35 (2.37)	
	하	7.22 (2.13)		5.33 (1.54)		6.21 (1.67)		9.64 (2.12)	

\*p<.05, \*\*p<.01, \*\*\*p<.000

## V.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1950년대 이후 미군과 한국여성, 일본남성 및 서구남성과 한국여성 사이의 결혼이 주로 많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남성과 주변의 동남아여성 사이의 결혼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적 이주자로서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자가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때 가치·규칙·규범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오남, 2007: 50).

일반적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부터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주여성 개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압박을 지나치게 받으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내국인과 이주민사이의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크면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지는데 특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차별을 느낄수록 주변의 적대감 인지가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박형원, 2010; 이진숙, 2010)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면, 결혼이주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에서 자

녀에 대한 차별인지와 주변의 적대감 인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이진숙, 2010)와 일치하며 연령이 낮아서 한국인 남편과 연령차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요인과 건강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은혜, 2009)의 결과와도 유사한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주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약화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국적여부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 여성일수록 모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사회의 문화와 주류문화와의 경합을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특히 모국에 대한 민족적 정체감이 강한 이주여성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추론된다(이진숙, 2010:11).

넷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경제수준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에서 의사소통 문제와 주변의 적대감 인지 그리고 건강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차별인지는 경제수준이 중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는 선행연구(권복순, 2009; 박형원, 2010)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결혼기간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면, 결혼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15년 이상인 경우보다 모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나임순, 2008; 이은혜, 2009)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이 적을수록 국내 거주기간이 짧아서 이주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내국인들과 문화적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건강상태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결혼이주 여성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의사소통문제나 주변의 적대감 인지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지 않은 이주여성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주여성이 건강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스트레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변인별로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검토를 하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기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1호.
- 권구영 · 박근우(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2호.
- 권미경(2009). 다문화주의와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 김광일(1991). 해외동포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한양대정신건강연구, 제18권.
- 김영주 · 김희경 · 이현주(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건강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정책 제언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오남(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3호.
- 김정원 · 신은영(2001). 청소년기 스트레스 원인과 성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제17권.
- 김희경(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여성연구, 제78권 제1호.
- 나임순(2008).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1호.
- 문선숙 · 김창희 · 심미경(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및 도움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3권 1호.
- 박민서(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5호.
- 박형원(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재영 한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8호.
- 윤경희(2009).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종(1990).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6호.
- 최동희(1990).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부양행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201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제11권.

## 2. 국외문헌

- Ceballo, R., Ramirez, C., Castillo, M., Caballero, A. G. & Lozoff, B. (2004). Domestic violence and women's mental health in Chi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298-308.
- Finch, K. B. & Vega, A. W. (2003).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3), 109-118.
- Hwang, Wei-Chin & Ting, Julia Y. (2008).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2), 147-154.
- Lazarus, R. S. & Cohen, J. B. (1977). Environmental Stress. In I. Altman & J. F. Wohlwill(Eds.), *Human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89-127, New York: Plenum.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3. 기타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1. 6). 통계월보.
- 통계청(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2012. 4). 보도자료 2011년 혼인 · 이혼통계.
- 행정안전부(2008. 5).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 Statistical Properties between the Sukuk and non-Sukuk in Malaysia\*

Hong-Bae Kim<sup>a</sup> • Buntae Kim<sup>b</sup> | Dongseo University

## I . Introduction

In probability theory, a stochastic process or random process is often used to represent the evolution of random value over time(indeterminacy). This is the probabilistic counterpart to a deterministic process which can only evolve in one way. Even if the initial condition is known, there are infinitely many directions in which the process may evolve. A stochastic process amounts to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known as a time series. Examples of processes modeled as stochastic time series include stock market and exchange rate fluctuations, signals such as speech and audio, medical data such as a patient's blood pressure and temperature, and random movement such as Brownian motion or random walks.

In the finance literature, it is common to assume that an asset return series is weakly stationary. But unit-root non-stationary time series has no fixed level for the price. The best known example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is random-walk model, under which the price is not predictable and mean reverting. The random-walk model has widely been considered as a statistical model for the movement of asset price.

In this context,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statistical features in the yields of Sukuk and commercial bank bond in Malaysian financial market, the representative of Islamic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30-B00106).

a. School of Finance, Dongseo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Email: rfctogether@gmail.com.

b.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Business, Dongseo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Tel.: +82-51-320-1628; Fax: +82-51-320-1629; Email: rkimbuntae@gdsu.dongseo.ac.kr

finance. We investigate the stationarity and correlation in residual of time series in the Sukuk and bond yields using ADF and PP unit root test, and Ljung–Box Q and Breusch–Godfrey's Lagrange multiplier test, respectively.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availability of arbitrage transaction using these two fixed income securities.

This study found both two time series in yield and return level have significant serial correlations in the residuals and showed strong ARCH effects in the Ljung–Box and Lagrange multiplier test. We also found that the Sukuk yield issued on Sharia principle are stationary, but the level series of commercial bank bond yield are non-stationary. In addition, we found there is no arbitrage opportunity using Sukuk–Bond basis, because we find no evidence of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bond and Sukuk GII(Government Investment Issues) yields.

The remainder of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discusses a brief overview of Sukuk of Islam financial market. Section 3 presents the data and econometric methodology. Section 4 provid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ample data. Section 5 discusses the empirical results. Section 6 concludes.

## II. Islamic Sukuk and bond markets in Malaysia

The Islamic Sukuk and bond markets have a balanced mix of bot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bonds, each contributing a 45% and 55% share of total outstanding bonds, respectively. Bond issuers include the Government of Malaysia, Bank Negara Malaysia,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ore importantly, of the key Islamic financial centers, Malaysia offers a wide variety of Islamic bonds that are Sharia-compliant. At the end of December 2010, Islamic bonds accounted for 39% of the total bonds outstanding<sup>2)</sup>. Further, 89% of the securities listed on Bursa Malaysia are Sharia-compliant and represent approximately two-thirds of Malaysia's market capitalization. The local and international listed and non-listed entities on Bursa Malaysia can issue Sukuk denominated in Malaysian Ringgit and foreign currencies. The governing laws of Malaysia, the UK, or the US may be used for bond documentation for both Malaysian and non-Malaysian Ringgit-denominated Sukuk. Government Investment Issues (hereafter GII) and Malaysian Islamic Treasury Bills (MITB) – long-term and short-term non interest-bearing Government securities, which are issued based on Islamic

---

2) The government issued its inaugural Callable MGS 5NC3 in December 2006 and introduced switch auctions in January 2007 to improve overall market liquidity by replacing off-the-run MGS with on-the-run MGS. Bank Negara Malaysia issued Sukuk Ijarah Notes in February 2006 to manage liquidity in the banking system and inaugural Bank Negara Monetary Notes (BNMNs) to replace Bank Negara Bills and Bank Negara Negotiable Notes in December 2006. It first issued a floating rate for BNMNs in July 2007. The corporate bond market comprises approximately one-quarter of total debt financing (including bank loans) in the economy compared with approximately 10% in 1997.

principles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GII and MITB were issued to allow Islamic banks to hold liquid papers that meet their statutory liquidity requirements. The issuance of these papers also enabled them to invest their liquid funds in instruments that are issued based on Shariah principles as they are unable to purchase or trade in Malaysian Government Securities (hereafter MGS), Malaysian Treasury Bill (MTB) or other interest-bearing instruments<sup>3)</sup>. MGS were initially issued to meet the investment needs of the Employees Provident Fund (EPF), local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MGS were issued to finance the public sector's development expenditure. In contrast, by the 1990s, the purpose of MGS issuance was extended to fund part of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 and prepayment of some of the Government's external loan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issue MGS during the fiscal surplus of 1993–1997 to meet the market demand for MGS. Table 1 shows global Sukuk listing as of August 30, 2010. Bursa Malaysia is ranked as global head of Islamic markets. It has 15 Sukuk programs worth US\$22 billion. IDB (Islam Develop Bank) was the first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issuer to list its Sukuk on Bursa Malaysia.

&lt;Table 1&gt; The Size of Sukuk listing

Ranking	Stock exchange	Value(US\$)
1	Bursa Malaysia	21,949,700,500
2	Nasdaq Dubai	16,243,820,000
3	London Stock Exchange	14,689,657,616
4	Saudi Stock Exchange	9,524,285,000
5	Labuan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	8,400,000,000
6	Dubai Financial Market	3,263,750,000
7	Bourse de Luxembourg	3,157,350,000
8	Bahrain Stock Exchange	2,875,660,000
9	HongKong Stock Exchange	2,550,000,000
10	Irish Stock Exchange	1,193,556,800
11	Indonesia Stock Exchange	556,640,000

Source: Malaysian Business, 16th August 2010.

Table 2 shows issuers' Sukuk listing in Malaysia exchange. In 2009 it was the top listings exchange in the world for the Islamic debt securities although it had only recorded its first listing in August 2009. Petroliam Nasional Malaysia Bhd, or Petronas, started the ball rolling with its US\$1.5 billion Sukuk program and the bourse had attracted its first foreign issuer, GE Capital, with its US\$500 million Sukuk.

3) MGS were initially issued to meet the investment needs of the Employees Provident Fund (EPF), local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MGS were not issued to during the global finance crisis period.

&lt;Table 2&gt; Sukuk Listing in Bursa Malaysia

No	Issuer	N of Sukuk	Value	Value(US\$)
1	Cagamas MBA(RM)	2	4,115,000,000	1,311,450,500
2	Petronas Grobal Sukuk Ltd(US\$)	1	1,500,000,000	1,500,000,000
3	G.E. Capital Sukuk Ltd(US\$)	1	500,000,000	500,000,000
4	CIMB Islamic Bank Bhd(RM)	1	2,000,000,000	637,400,000
5	Refilesia Capital Ltd(US\$)	1	750,000,000	750,000,000
6	Chorating Capital Ltd(US\$)	1	850,000,000	850,000,000
7	Paka Capital Ltd(US\$)	1	550,000,000	550,000,000
8	Khazanah Nationa Bhd(RM)	1	20,000,000,000	6,374,000,000
9	Danga Capital Bhd(RM)	1	10,000,000,000	3,187,000,000
10	Rantau Abang Capital Bhd(RM)	1	3,000,000,000	956,100,000
11	Rantau Abang Capital Bhd(RM)	1	7,000,000,000	2,230,900,000
12	Sime Darby Bhd(RM)	1	4,500,000,000	1,434,150,000
13	1Malaysia Sukuk Grobal Bhd(US\$)	1	1,250,000,000	1,250,000,000
14	Nomura Sukuk Ltd(US\$)	1	100,000,000	100,000,000
15	Tadamun Services Bhd(RM)	1	1,000,000,000	318,700,000
Grand Total(US\$)		16	21,949,700,500	

Source: Malaysian Business, 16th August 2010.

Table 3 shows ranking of Commercial Banks in Malaysia. Public Bank Berhad is the third largest Bank in Malaysia under our investigation.

&lt;Table 3&gt; Ranking of Commercial Banks in Malaysia(USD: Bt\$)

Name	Book Value	Market Value
Malayan Banking Berhad (Maybank)	110.3	20.7
CIMB Bank Berhad	88.3	19.5
Public Bank Berhad	74.2	15.1
Hong Leong Bank Berhad	43.2	6.4

Source: Bloomberg.

### III. Methodology

The strong stationarity of stochastic process requires the joint distribution of time series is invariant under time shift. A time series  $\{r_t\}$  is weakly stationary if both the mean of  $r_t$  and the covariance  $r_t$  and  $r_{t-L}$  are time invariant. The weak stationarity implies that the

time plot of the data would show that values fluctuate with constant variation around a fixed level. In application, weak stationarity enables to predict future observations. But unit-root non-stationary time series don't fluctuate around fixed level for the price. The non-stationary time series is random-walk model, under which the price is not predictable and mean reverting. If the coefficient of the past price is unity, which doesn't satisfy the weak stationary condition of AR(1) model, then the random-walk price series is not weakly stationary but a unit-root nonstationary time series. The random-walk model has several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 in MA model. First, the time variant and unconditional variance of price series is unbounded. Second, the impact of any past shock on price series does not decay over time. Consequently, the series has strong memory as it remembers all of the past shocks, which have a permanent effect on the series. Third, the usefulness of point forecast diminishes as the forecast horizon increases, i.e., the step-ahead forecast error increases. The strong memory of a unit-root time series can be seen from the ACF of the observed series. The random-walk model is subdivided in to three categories i.e., random walk with drift, trend-stationary time series, and unit-root non-stationary model.(Tsay)

Another common finding in time series regressions is that the residuals are correlated with their own lagged values. This serial correlation violates the standard assumption of regression theory that disturbances are not correlated with other disturbances. Therefore we should generally examine the residuals for evidence of serial correlation. Two other tests of serial correlation, the Ljung-Box  $Q$ -statistic and the Breusch-Godfrey LM test are preferred in most applications. If there is no serial correlation in the residuals, the autocorrelations and partial autocorrelations at all lags should be nearly zero, and all  $Q$ -statistics should be insignificant with large  $p$ -values together with the Ljung-Box  $Q$ -statistics for high-order serial correlation. Serial Correlation LM Test carries out the Breusch-Godfrey Lagrange multiplier test for general, high-order, ARMA errors. In the lag specification, we should enter the highest order of serial correlation to be tested. The null hypothesis of the test is that there is no serial correlation in the residuals up to the specified order.

In addition, the basic idea of volatility study is that the time series  $\{r_t\}$  is either serially uncorrelated or with minor lower order serial correlations, but it is dependent series. To put the volatility model in proper perspective, it is informative to consider conditional heteroscedastic model, which consists of the conditional mean and variance equation of  $\{r_t\}$ .<sup>4)</sup>

---

4) The residual series of the mean equation is then used to check for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which is known as the ARCH effect. Two test is also available like serial correlation in the residuals of AR(1) model, Ljung-Box statistics  $Q(m)$  (Mcleod and Li, 1983), and Lagrange multiplier test of Engle(1982). Conditional heteroscedastic model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ose in the first category(GARCH model) use an function to evolve volatility, whereas those in second group (stochastic volatility model) use a stochastic equation to describe volatility.

#### IV.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 consider two daily yield series, namely, the Public Bank Berhad (Ticker PBKMK 12y) bond yield and the 5-year Government Investment Issues (Ticker GII – Islamic: MGIY5y) yield over the period from January 4, 2007, through February 24, 2012. We have 1,233 observations. The return series of bond yields are computed by computing  $R_t = \ln(1+r_t) - \ln(1+r_{t-1}) \cong r_t - r_{t-1}$ , where  $R_{i,t}$  denotes the continuously compounded returns for indices  $i$  at time  $t$ , and  $r_t$  denotes the yield to maturity of bond  $i$  at time  $t$ . Table 4 and 5 show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both yields for the level and return series. In Table 4 both yields show a positive mean. Checking for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wo yields, the both yields have positive skewness. Also, the excess kurtosis shows that both yield series are leptokurtic. This evidence implies that the distribution of both yield series is not normally distributed, which is also supported by the Jarque–Bera normality test.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sample yield series

Statistics	GIIY5y	PBKMK
Mean	3.5691	4.5212
Std. dev.	0.2583	0.8944
Skewness	0.0810	1.1098
Kurtosis	3.7592	3.9585
Jarque–Bera (J–B)	30.967***	300.319***
Q(20)	106.36***	134.47***
Notes: The J–B corresponds to the test statistic for the null hypothesis of normality in sample returns distribution. *** indicates the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at the 1% significance level.		

Both the residuals of two yield series have significant serial correlations so that it can be directly used to test for the ARCH effect. The Ljung–Box statistic of the residual series in yield level also show strong ARCH effects with  $Q(20) = 106.36$  and  $134.47$ , respectively with  $p$ -value close to zero. The Lagrange multiplier test also shows strong ARCH effects with test statistic  $F=5.547$  and  $7.505$ , respectively with the zero  $p$ -value (Figure 1).

<Figure1> Serial correlation in the residuals of yield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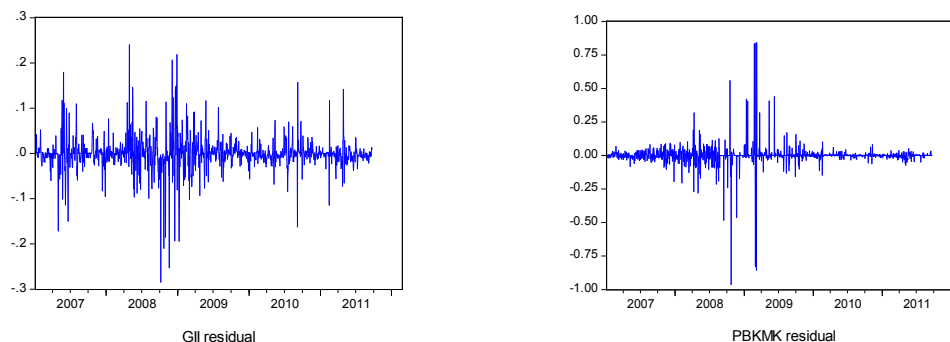


Table 5 shows that both the PBKMK and MGIY returns show a positive mean. The excess kurtosis also shows that both return series are leptokurtic. Checking for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wo returns, Public Bank returns have negative skewness. The distribution of both return series is not normally distributed, which is also supported by the Jarque–Bera normality test.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sample returns

Statistics	MGIY5y	PBMK
Mean	0.0004	0.0008
Std. dev.	0.03664	0.07965
Skewness	0.21593	-0.17238
Kurtosis	15.9560	75.2000
Jarque–Bera (J–B)	8626.359***	267598.5***
Q(20)	40.215***	113.46***
Notes: The J–B corresponds to the test statistic for the null hypothesis of normality in sample returns distribution. *** indicates the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at the 1% significance level.		

The Ljung–Box statistic of the residual series in return level does have significant serial correlations. Q(m) statistics of the residual series give  $Q(20) = 40.215$  and  $113.46$  with p-value close to zero. The Breusch–Godfrey's Lagrange multiplier test on serial correlation shows strong ARCH effects with test statistic  $F = 2.056$  and  $6.483$  respectively, with the p-value close to zero.

## V. Empirical results

### 4.1 Unit Root Test

To observe bond-basis arbitrage, i.e.,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s and bond yield spread in Malaysian Sukuk and bond markets, if both series are suspected not to be stationary, it makes the regression potentially spurious. Formal testing for unit roots will be first carried out, followed by appropriate cointegration analysis.

As a first step, the supposed non-stationary of the Sukuk(SU) and Bank bond(BB) yield series is verified. In order to test for a unit root we use the augmented Dickey–Fuller test.

The test regressions are

$$\Delta SU_{n,t} = \alpha SU_{n,t-1} + \sum_{i=1}^p \beta_i \Delta SU_{n,t-1} + \mu_{n,t}$$

And

$$\Delta BB_{n,t} = \alpha BB_{n,t-1} + \sum_{i=1}^p \beta_i \Delta BB_{n,t-1} + \mu_{n,t}$$

P is the appropriate number of lags to be included, which is determined by the 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The null hypothesis is that the series contains a unit root ( $=0$ ), versus the alternative hypothesis of a stationary series. The test statistic equals  $\frac{\hat{\alpha}}{\widehat{SDN}(\hat{\alpha})}$  and critical values, as derived from simulation experiments, are tabulated as they follow a non standard distribution

Table 6 provides the results of ADF and PP unit root tests for the level series and the return series. The null hypothesis of the ADF and PP tests is that a time series contains a unit root. As shown in Table 6, the calculated values of both the ADF and PP test statistic indicate that the level series of Sukuk issued on Sharia principle don't contain a single unit root at the 5% significance level, implying that the level series are stationar. But the level series of commercial bank bond contain a single unit root at the 1% significance level, implying that the level series are non-stationary. However, in the case of return series, both these statistics reject the null hypothesis of a unit root at the 1% significance level, implying that the return series are stationary in all samples.

<Table 6> Unit root test for level and return series

	MGY5y		PBMK	
	yield level	returns	yield level	returns
ADF [prob.]	-3.021** [0.033]	-27.755 [0.000]	-1.066 [0.730]	-32.339 [0.000]
PP [prob.]	-2.930** [0.042]	-27.789 [0.000]	-1.072 [0.728]	-40.815 [0.000]
Note: Mackinnon's (1991) 1% critical value is -3.435 for the ADF and PP tests. ** indicates the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at the 5% significance level.				

The yield of Sukuk issued on Sharia principle is not determined in market, but can be controlled by government policy. Therefore we estimate that the yield level series are stationary. But find the evidence of serial correlation in the residual series because government would withhold the yield level lower compared to market yield. On the contrary the yield of commercial bank is determined by market participants. Thus the yield



series are non-stationary stochastic random-walk model, under which the price is not predictable and mean reverting, and the time variant and unconditional variance of price series is unbounded. The impact of any past shock on price series does not decay over time and has strong memory because shock and innovation has long range dependence on time.

In conclusion, the dynamics of Sukuk and commercial bank yield include strong evidence of both positive autocorrelation and volatility clustering. Especially, the commercial bank yield displays volatility clustering features that are similar to those in many other financial markets. Once volatility has entered the market it is quite persistent. And the time variant and unconditional variance of price series is unbounded.

## 4.2 Cointegration test for investigating bond arbitrage opportunity

Bond spreads were mostly calculated as the simple yield-to-maturity differential between a credit-risky bond and a credit risk-free benchmark bond. Traditionally, Treasury bond, were used mostly as a risk-free benchmark by bond traders (spread over Treasury bond)<sup>5)</sup>. Bond spreads over a risk-free benchmark mainly compensate investors for default risk embedded in credit-risky assets. If we assume credit-risky bond yield ( $y$ ) as the Treasury yield plus bond spread, Treasury yield (TB) as the riskless, and  $s$  as the  $n$ -year cash spread, the cash flows from a portfolio consisting of  $n$ -year Treasury yield plus bond spread issued by the reference entity and the  $n$ -year bond spread (buy credit) are very close to those from the  $n$ -year riskless Treasury bond. The relationship

$$s = y - TB$$

should therefore hold approximately. If  $s$  is greater than  $y - TB$ , an arbitrageur will find it profitable to buy a riskless Treasury bond, short a corporate bond and sell the bond spread.

If  $s$  is less than  $y - TB$ , the arbitrageur will find it profitable to buy a corporate bond, buy the credit default swap and short a riskless T-Bond. Therefore we call this arbitrage opportunity as bond basis arbitrage. Therefore bond spread sometimes equals spread over a benchmark Treasury bond, or spread over swap rate. Thus, finance theory suggests the existence of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s between asset variables (i.e., the TB-Bond basis), or among non-stationary time series variables. In this context we could replace TB-Bond basis with Sukuk-Bond basis using the risk free Sukuk issued by government. If these variables are  $I(1)$ , then cointegration techniques can be used to model these long-run

---

5) But nowadays interest rate swap rates are the most common reference. Also, academics seem to have adopted swap instead of Treasury benchmark curves. The yield-to-maturity differential between a credit-risky fixed-rate bond and the interpolated swap rate is denoted as the "I-spread" (I from Interpolated). It may be no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read to the interpolated Treasury curve and the I-spread is equal to the swap spread.

relations. Hence, pre-testing for unit roots is often a first step in the cointegration modeling. A common trading strategy in finance involves exploiting mean-reverting behavior among the prices of pairs of assets. Unit root tests can be used to determine which pairs of assets appear to exhibit mean-reverting behavior. If both series are suspected not to be stationary, it makes the regression potentially spurious. Formal testing for unit roots will be carried out, followed by appropriate cointegration analysis. It is verified whether (non-stationary) Bank Bond and Sukuk series are bound by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We look for a more restricted form of cointegration. We expect linear combination to be stationary, 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ries, the Sukuk-Bond basis(B). Therefore, one only has to test for a unit root in the basis series, using a similar augmented Dickey-Fuller(PP) test regression.  $p$  is the appropriate number of lags to be included, which is determined by the 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Delta B_{n,t} = \alpha B_{n,t-1} + \sum_{i=1}^p \beta_i \Delta B_{n,t-1} + \mu_{n,t}$$

When the test statistic is lower than the critical value at a certain confidence level, the null hypothesis of a unit root is rejected. In that case, the basis series is stationary, so the BB and Sukuk series are said to be cointegrated.

Table 4 shows the results of the Johansen cointegration test for the Public Bank and Sukuk yield series. The null hypothesis that two series are not cointegrated ( $r=0$ ) against the alternative of one cointegrating vector ( $r>0$ ) is not rejected because the  $\lambda_{trace}(r=0)$  and  $\lambda_{max}(r=0)$  statistics do not exceed their critical values at the 5% significant level. Thus, we conclude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bond yield and GII yield series. In other words, we don't find arbitrage opportunity as Sukuk -credit bond basis(Bond Basis) arbitrage, because there is no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non-Sukuk bond and the Sukuk in Malaysia.

<Table 4> Johansen cointegration test

Null hypothesis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Max-Eigen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r = 0$	12.721	15.494	11.169	16.264
$r \leq 0$	1.5514	3.841	1.551	3.841
Notes: A one-sided test of the null hypothe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are cointegrated. The reported critical values are the Osterwald-Lenum (1992) critical values.				

Malaysia government and Bank Negara(Central Bank of Malaysia) has regulated GII and

MITB were issued to allow Islamic banks to hold liquid papers that meet their statutory liquidity requirements. The issuance of these papers also enabled them to invest their liquid funds in instruments based on *Shariah* principles as they are unable to purchase or trade in of purchase or trade in other interest-bearing instruments such as MGS and credit bond ,or other interest-bearing instruments. Thus we find and understand no opportunity of arbitrage transaction between Sukuk GII and credit bond PBMK following the prohibition rule.

## V. Conclusion

Economic and financial time series sometimes exhibit trending behavior or non-stationary stochastic process in the mean. An important econometric task is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the trend and analyzing the stationary and long memory in the dat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yield of Sukuk issued on Sharia and that of commercial bank bond in Malaysian financial market.

We found serial correlation in the residuals of the yield of Sukuk and PBKM bond because shock and innovation has long range dependence on time. We found that the series of Sukuk yield issued on Sharia principle are stationary, but the level series of commercial bank bond yield are non-stationary. The yield of commercial bank is determined by market participants. In particular the commercial bank yield displays strong volatility clustering features. Once volatility has entered the market it is quite persistent. Persistence of shocks was infinite for non-stationary series. The impact of any past shock on price series does not decay over time and has strong memory. Next, we conclude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bond and GII yield series. In other words, we find no arbitrage opportunity as Sukuk-bond basis arbitrage, because there is no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the yields of commercial non-Sukuk bond and the Sukuk.

Malaysia government and Bank Negara (central bank) has regulated Sukuk GII and MITB were issued to allow Islamic banks to hold liquid papers that meet their statutory and regulatory liquidity requirements based on *Shariah* principles as they are prohibited to purchase or trade in MGS, MTB or other interest-bearing credit bonds using Sukuk.

Keywords: Arbitrage Dicky-Fuller,(DF), Augmented Dicky Fuller(ADF), Unit root.

